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선영(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정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원)

윤경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원)

발 간 사 ■ ■ ■

최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각종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더욱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보건체계에서 막대한 비용의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미래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이들 세대의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 수준의 변화의 양상과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장적용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제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동연구로 진행한 연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구축 연구를 수행하였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경쟁의 가열,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가족 기능의 축소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많은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문제가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표개발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 및 치료적 차원에서 현장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Ⅲ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Ⅲ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Ⅲ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영(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연구위원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이창호 실장	강석영(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이동훈(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연구를 통해 정신건강수준의 변화의 양상과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장적용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실질적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면접 및 현장전문가 대상 의견조사(델파이)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정책방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연구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3년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상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 및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표개발연구를 통해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향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정신건강지표, 현장적용프로그램, 정신건강 증진지원체계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과학기술의 발달, 주거 및 여가 환경의 개선은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각종 질환을 감소하는데 일조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환경과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환경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연구를 통해 정신건강수준의 변화의 양상과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적용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제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제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개념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체계 등에 대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및 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정신건강 수준의 변화의 양상과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 방향과 내용에 대한 자문 및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양적연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를 통해 연구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음.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초4~6학년), 중학교(1~3학년)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1~3학년)이며 최종 분석 대상자는 9,402명이었음.
- **협동연구 추진:** 이 연구는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진행한 협동연구과제로, 두 곳의 협동연구기관과 함께 연구를 추진하였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구축 연구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수행하였음.
- **기타 연구추진방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정책추진 관련부처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방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3. 주요결과

1)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부문

-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청소년 9,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영역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및 지역사회 영역 등 크게 4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하위 영역별 세부 문항을 구성하였음.
- 주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3년의 3년 간 우울과 불안, 자살 생각이나 시도, 스트레스 등 부적응적 심리요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음. 게임중독, 비행 등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세부요인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음. 2011년과 2012년과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소폭이지만 우울, 불안, 게임중독, 스트레스 등 개인 내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평균점수는 낮아졌고,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가족관계의 질, 지역사회 지원 및 상호작용, 학교생활 등 전반적으로 적응적 심리요인의 평균점수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개인 내 적응적 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 지원의 경우 2011년이 가장 높았고 2012년 낮아지다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구축 연구

-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문제의 범위를 고찰하고,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서비스의 범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함. 또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강결정요인의 범위와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의 범위를 고찰함.
- 정책과 관련된 지표의 종류, 지표의 정의, 지표의 생산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고찰하기 위해 정부의 각 부처별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전달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함. 해당 분야는 임상 분야와 보건분야, 비보건분야 로 크게 분류되었으며, 비보건분야에는 교육, 사회복지, 청소년활동지원과 관련된 사회정책분야 등이 포함되었음.
- 세계보건기구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생산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 즉 정신건강의 범위, 정신건강 지원정책의 우선순위와 범위 및 관련된 지표를 고찰함.
- 정신건강지표의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통해 수집한 정신건강 지표들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공무원,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 문헌고찰 및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간추린 주요 정신건강지표와 관련정책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정책자문회의를 거쳐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핵심지표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통계적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함.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학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프로그램을 고찰함.
- 국내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 대상과 목적, 학교현장에서의 활용성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학교현장에서 정규수업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실임에 비추어 대상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국외프로그램의 경우 국내보다 정부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정신과의사, 상담 및 심리치료자, 심리학자, 교육심리학자, 사회복지 전문가, 간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개입방향을 수립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개발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 방안을 파악하였음. 학교교사 및 전문상담사로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Wee 센터 및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장면에서 청소년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방식 및 서비스 수준, 정신건강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의 필수 요소, 학교현장 적용 프로그램의 고려사항을 조사함.
- 선행연구 분석과 국내외 유관 프로그램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첫째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과 우울, 불안, 자살, 인터넷 중독의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시하였음. 둘째는 예방 및 치료 요소별로 정의, 발생원인, 특징 및 증상, 학교장면에서의 영향력, 개입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교사나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각 정신건강 요소별로 자신의 문제수준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도구를 제시하여 치료적 개입여부를 지원토록 하였음.

4. 정책제언

○ 예방 중심의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은 예방정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인구집단 정신질환의 위험수준에 따른 예방활동 수준을 1차 예방(증진과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 2차 예방(정신질환의 발견과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 3차 예방(치료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 유지 재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은 성장발달의 시기라는 특징으로 인해 특히, 1차 예방에 대한 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통합 수행 기전 마련

부처 간 경쟁적 사업추진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 부처 사업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 간의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하는 조직이 부재함. 따라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앙부처간 협의와 협조와 더불어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관여하는 의료인, 교육관계자, 정신건강전문인, 지역사회대표자등 다양한 전문가 들과 들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기구의 마련이 시급함.

○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가정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돕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 필요

학교장면에서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주요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내적인 문제와 환경적 문제로 구분됨. 개인 내적인 문제로는 무력감, 스트레스, 우울, 집단따돌림을 포함하는 학교폭력, 자살과 자해, 분노조절문제가 있었음. 환경적 문제로는 가정불화 및 부모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편모, 편부, 조손가정의 청소년, 가정폭력과 부모의 알코올관련문제, 가정 내 성폭력으로 나타났음. 이 두 가지 문제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효율적 개입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그럴 둘러싼 가족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함.

○ 학교 기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확대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아동·청소년의 특성 상, 학교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의 분명한 역할 정립 및 명시화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학교·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정신보건센터·병원) 그리고 학교기반정신건강 서비스에 관여하는 전문 스태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중요함. 또한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 대상의 홍보 및 교육과 상담 제공이 필요함.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 관한 신뢰를 구축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

학교 장면에서 고위험군 청소년이 발견되었을 경우 주로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하는 개인 및 집단상담 등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인력을 대상으로 실질적 개입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미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자원들의 연계협력체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정밀한 정신건강 판별도구의 보급, 재정적 지원 및 전문상담교사의 신분보장 필요

교육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정서행동특성검사'가 개발·사용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보다 정밀한 정신건강 판별 검사를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단위학교별로 대부분 현재 계약직인 전문상담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과 더불어 학교 내 상담 환경 조성 그리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사후관리체계 강화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됨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임. 문제를 발견만 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개입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제공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기관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됨.

○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계획 수립 및 지표 생성

정신건강의 영역은 단일 부처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함께 계획수립에 동참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계획안에 담아낼 때, 실현가능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이 담보 될 수 있음. 국가단위 정신건강 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신건강 사업의 전문화와 다기능화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수요에 대한 대응성과 종합성이 강화될 수 있음. 이를 위해 계획의 방향, 목표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생성하여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목표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평가제도 도입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상황 및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 대상 측면, 서비스 내용 측면, 그리고 주된 정신건강 문제 영역 등에서의 목표 달성 정도 파악, 사업과정에 대한 적절성, 사업의 효율적 관리, 사업의 취약점 분석, 투입한 노력이 효과적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분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13
II. 이론적 배경	17
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현황과 필요성	19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표 개발과 개입 프로그램 표준화	25
3. 연구 추진 방향	30
III.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37
1. 모집단 분석	39
2. 표본 설계	40
3. 실사 설계	43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45
5. 조사내용	47
6. 주요 조사 결과	48
7. '2011~2013' 실태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함의	99
IV.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05
1. 정책적 시사점	107
2. 정책제언	109
참고 문헌	117
부록	123

표 목 차

〈표 II-1〉 정신보건지표 요약	26
〈표 III-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39
〈표 III-2〉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40
〈표 III-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41
〈표 III-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42
〈표 III-5〉 조사 완료 학교 수	45
〈표 III-6〉 조사 표본 수	46
〈표 III-7〉 응답자 특성	46
〈표 III-8〉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47
〈표 III-9〉 2011~2013년도 우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48
〈표 III-10〉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요인별 차이 분석	49
〈표 III-11〉 2011~2013년도 불안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50
〈표 III-1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의 요인별 차이 분석	51
〈표 III-13〉 2011~2013년도 게임 중독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52
〈표 III-14〉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의 요인별 차이 분석	53
〈표 III-15〉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54
〈표 III-16〉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55
〈표 III-17〉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56
〈표 III-18〉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57
〈표 III-19〉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58
〈표 III-20〉 2011~2013년도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비교	59
〈표 III-21〉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항목별 차이 분석	60
〈표 III-2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62
〈표 III-2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63
〈표 III-2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64

〈표 III-25〉 2011~2013년도 비행의 항목별 평균 비교	65
〈표 III-26〉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의 항목별 차이 분석	66
〈표 III-27〉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68
〈표 III-28〉 술을 마신 적이 있다	69
〈표 III-29〉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70
〈표 III-30〉 2011~2013년도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비교	71
〈표 III-3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차이 분석	72
〈표 III-32〉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4
〈표 III-33〉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5
〈표 III-34〉 건강에 대한 만족도	76
〈표 III-35〉 2011~2013년도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비교	77
〈표 III-36〉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78
〈표 III-37〉 2011~2013년도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79
〈표 III-38〉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 분석	80
〈표 III-39〉 2011~2013년도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비교	81
〈표 III-40〉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 분석	82
〈표 III-4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84
〈표 III-42〉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85
〈표 III-4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86
〈표 III-44〉 2011~2013년도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87
〈표 III-45〉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88
〈표 III-46〉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89
〈표 III-47〉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90
〈표 III-48〉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91

〈표 III-49〉 2011~2013년도 학교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92
〈표 III-50〉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93
〈표 III-5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4
〈표 III-52〉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95
〈표 III-53〉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96
〈표 III-54〉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97
〈표 III-55〉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98

그림 목 차

【그림 Ⅰ-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진행과정	11
【그림 Ⅰ-2】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13
【그림 Ⅲ-1】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54
【그림 Ⅲ-2】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55
【그림 Ⅲ-3】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56
【그림 Ⅲ-4】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57
【그림 Ⅲ-5】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58
【그림 Ⅲ-6】 2011~2013년도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59
【그림 Ⅲ-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62
【그림 Ⅲ-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63
【그림 Ⅲ-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64
【그림 Ⅲ-10】 2011~2013년도 비행의 항목별 평균	65
【그림 Ⅲ-1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68
【그림 Ⅲ-1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69
【그림 Ⅲ-13】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70
【그림 Ⅲ-14】 2011~2013년도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71
【그림 Ⅲ-1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4
【그림 Ⅲ-16】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5
【그림 Ⅲ-17】 건강에 대한 만족도	76
【그림 Ⅲ-18】 2011~2013년도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평균 ..	77
【그림 Ⅲ-19】 2011~2013년도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평균	79
【그림 Ⅲ-20】 2011~2013년도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81
【그림 Ⅲ-2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84

【그림 Ⅲ-22】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85
【그림 Ⅲ-2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86
【그림 Ⅲ-24】 2011~2013년도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	87
【그림 Ⅲ-25】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	89
【그림 Ⅲ-26】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90
【그림 Ⅲ-27】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91
【그림 Ⅲ-28】 2011~2013년도 학교영역의 요인별 평균	92
【그림 Ⅲ-2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4
【그림 Ⅲ-30】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95
【그림 Ⅲ-31】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96
【그림 Ⅲ-32】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97
【그림 Ⅲ-33】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98
【그림 Ⅵ-1】 인구집단 정신질환의 위험수준에 따른 예방활동 수준의 차이 ...	110
【그림 Ⅵ-2】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내용 및 추진 체계	113
【그림 Ⅵ-3】 정신건강 고위험군 부처별 현황	115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주변 환경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건강이다. 특히 발달단계 중에서도 아동·청소년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성장은 건전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발달기의 중요한 시기에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은, 가족의 안녕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에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은 청소년기 15~19세의 인구 10만명당 1990년 6.3명에서 2009년 10.7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정진욱 외, 2010). 전체 연령의 자살사망률은 31명에 달하며, 20세 이후 자살사망률이 급증하고 있고, 연령대별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의 심각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성별로는 여자 49.0%, 남자 35.8%, 였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 45.0%, 중학생 39.0%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도 조사에 따른 우울감경험률²⁾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 38.2%, 남자 28.0%로 조사되었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 35.5%, 중학생

1) 이 장은 모상현 연구위원과 김형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2011~2012년 보고서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음.

2) 최근 12개월 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질병관리본부, 2011)

30.05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2011년도 연간 자살생각에 대한 비율은 성별로는 여자 24.3%, 남자 15.4%였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 19.3%, 중학생 19.9%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우울감경험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 스스로 느끼는 정신건강 위험요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중 과거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정서·행동문제 영역에서의 문제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Rowling, Martin, & Walker, 2008). 초등학생의 경우 ADHD의 유병률은 14.9%, 특정공포증은 18.4%의 유병률을 보였으며(김윤, 이선영, 오무경, 이은정, 강미경, 2009),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살사고율은 18.9%, 우울증경험률은 38.8%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석, 이선영, 김명정, 최혜원, 한혜민, 2011). 또한 정신의 학적으로 정신병리의 진단을 내릴 정도로 심한 형태의 문제를 보이는 학령기 아동은 전체 일반 아동의 8%에서 많게는 10%까지 추정가능하다는 연구(안동현 외, 2008)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적지 않은 영역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개개인은 물론 그들의 가족과 더 나아가 우리 미래 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와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현황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국내·외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제공기관 특성에 따른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관 전문 연구 기관들과 함께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협동연구 과제로 진행되는 연구과제이다. 협동연구의 장점인 각 전문 연구 기관들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강구하고자 추진되었다.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차 연구인 2011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1년차 실태조사와 함께 기존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과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향후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년차 연구인 2012년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파악을 위한 2년차 횡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인프라 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우수사례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적합한 지원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3년차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3년차 반복횡단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정신건강 지표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현 정신건강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우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적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1년차 법·제도 및 정책개선을 통한 지원체계의 상위 인프라 파악과 2년차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모형 개발을 통한 시스템의 분석 그리고 3년차 실제 지표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연구의 실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II, III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간 추진되는 협동연구이다. 다음에서는 지난 3개년 간 진행한 핵심 연구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2011년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1)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주요결과 및 시사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일반계고와 전문계고 포함)에 재학 중인

남·여 청소년 9,435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를 시행하였다. 조사 영역은 첫째, 개인영역, 둘째, 가족영역, 셋째, 학교영역, 넷째, 지역사회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주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여자의 경우 우울과 불안, 자살 생각이나 계획, 스트레스 등에서 남자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남자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과 게임중독, 비행 등에서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다만, 게임중독, 자살계획의 경우 중학생이 다른 교급에 비해 더 부정적 결과를 보였다.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응답자가 양부모가정보다 좀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손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조손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자살, 게임중독, 정서적 불안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조기에 예방 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에 대한 필요와 정신건강 위기 상태에 다른 적합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의 연결망 구축이 매우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 위기상태에 따른 개입 프로그램의 시범 사업 등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도출되었다.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주요결과 및 시사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증진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정신건강 검진 및 정신건강 상담,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정책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개인에 대한 효과적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외국의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FGI 인터뷰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수요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강향상, 건강위험요인감소, 질병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등의 차원에서 핵심 사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교사, 공무원 등 정신건강 담당자들 대상의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상의 연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학교 차원, 교육청 및 지자체 차원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안하였다.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학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개선 방안, 사전예방적인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 로드맵 개발, 부모자녀관계 지원정책 강화, 학생 정신건강 검진·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편견해소 및 홍보,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신보건사업관리체계 개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전문성 있는 검사 도구를 통한 모니터링시스템 마련의 시급성,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의 역할 분담과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주요결과 및 시사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내·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 아동과 청소년복지 관련법(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과 교육관련 기본법(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초·중등학교법,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등) 등 부문별로 국내·외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법령상의 개념 및 정의 등 효과적인 법·제도적 정신보건 증진방안, 전달체계 등 관련기관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독일, 미국, 호주 등 주요 외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관련 지원 법·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위하여 관련 주요 부문의 전문가 15인을 엄선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주요 규정들을 분석하고 개별법이 각각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의 입법목적을 넘어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그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들을 근거로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향후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하여 요청되는 법체계, 정의, 전문기관,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교육 및 훈련체계구축, 예방과 사회복지 지원 등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정신건강 증진 핵심 지원체계 규정의 보강 필요성, 정신보건관련기본법 보완, 정신보건관련 인력양성체계 규정의 정비 필요성, 정신건강 관련법 규정과 우선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명문화, 정신보건법상 고위험가정 특별지원규정 명문화,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개선, 정신건강 증진 핵심기관 및 체제관련 규정 마련,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과 재활 및 사후조치 방안 마련이 제시되었다.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2012년도)

2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별 지원모형을 개발하고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주요결과 및 시사점

2차년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청소년 8,7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영역은 1차년도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영역(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및 지역사회 영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세부 문항을 구성하였다.

주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우울과 불안, 자살 생각이나 시도, 스트레스 등 부적응적 심리요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게임중독, 비행 등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세부요인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2011년과의 비교결과를 보면, 소폭이지만 우울, 불안, 게임중독, 스트레스 등 개인 내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평균점수는 낮아졌고,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가족관계의 질, 지역사회 지원 및 상호작용, 학교생활 등 전반적으로 적응적 심리요인의 평균점수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내 적응적 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 지원의 경우 앞선 결과와 달리 2011년도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주요결과 및 시사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현행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인프라 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현황, 목표, 법적 근거, 조직, 사업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미국, 호주 및 영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FGI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수요를 분석하였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건강향상, 건강위험요인감소, 질병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등의 차원에서 핵심 사안을 도출하였다. 한편, 전문가, 교사, 공무원 등 정신건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경로와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상의 연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학교 차원,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개선방안들에 대해 제안하였다.

중앙정부 단위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위원회(가칭) 설치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 도모, 숙련되고 교육받은 전문가 확보 및 활용, 근거중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신건강 교육 실시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역량 강화 등에 대한 시급성이 제안되었다.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개발연구 주요결과 및 시사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개발연구는 아래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국내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우수운영사례에 대해 지역규모별(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로 정신보건센터, Wee 센터, CYS-Net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우수 운영사례를 취합하였다. 각 사례의 사례관리 내용과 지역자원 연계 내용 및 활용 결과(성과 및 결과)를 소개하여, 실제 우리나라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국외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우수사례, 예컨대 약물남용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미국의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SAMHSA)의 회복지향 돌봄체계 지침(ROSC)과 통합적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CMHI)를 소개하였고, 본 연구의 연계모형에 필요한 요소들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FGI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처별 문제점 및 기관별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 모형을 개발하였다.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1차 안전망과 여러 지역기관을 연계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Wee 프로젝트, CYS-Net 모형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Wee 프로젝트와 CYS-Net과의 연계모형을 토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개입을 위한 모형을 소개하고, 청소년보호시설, 민간자원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홍보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교육현장 중심의 Wee프로젝트와 지역사회 기반의 CYS-Net간의 상호공조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2013년도)

(1)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3년차 조사연구 실시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단위 대규모 표집조사를 실시하였다. 3년차 조사에서는 1~2년차 조사와 동일한 조사내용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초·중·고등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반복횡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변화 양상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조사방법은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 기법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대규모 표집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진행은 아래 <그림 I-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 출처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연구 II : 총괄보고서 p.11

【그림 I-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진행과정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2013년 3차년도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표개발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3차년도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운영 모델을 제시함에 있어,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의 측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로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주관적 수면충족률, 자살 생각률, 자살 시도율 등의 지표를 생산하고 있고, 다른 관련된 변수는 흡연율, 음주율, 부적절한 체중감소 시도율, 인터넷사용률(고위험 및 잠재적 위험군)등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실제 정신건강 선진외국과 비교할 만한 지표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 선진외국에서 사용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 대한 리뷰를 하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용 가능성과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를 망라하는 지원 및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3년 3차년도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실행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서로 다른 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를 통해서, 교육부는 Wee 프로젝트와 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CYS-Net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서비스의 통합성과 분절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3차년도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정신건강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진국의 경우,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불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이를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4) 연도별 추진계획

본 연구의 연도별 추진계획은 다음 <그림 I-2>와 같다.

1차년도 (2011년)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개념 설정 및 실태 분석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및 법·제도 현황 분석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국단위 실태조사(1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협동연구, 워크숍, 해외출장
2차년도 (2012년)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국내·외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개선 방안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단위 지원 모형 개발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국단위 실태조사(2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의견조사, 협동연구 · 전국규모 설문조사, 워크숍, 협동연구, 해외출장
3차년도 (2013년)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국단위 실태조사(3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협동연구 · 전국규모 설문조사, 통계분석, 워크숍

※ 출처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p.15

【그림 I-2】 연도별 연구 추진계획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외 지표 고찰 및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지표체계를 탐색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현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교급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정신건강 증진 우수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프로그램 개발 시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받고자 한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진국의 경우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불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이를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세부내용을 설정할 계획이며, 우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국내·외 지표 선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선정 및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효율적 운영모형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활동 실무자를 주축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연구의 방향설정과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형식 및 내용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양적 연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를 통해 자료를 생산하였다. 2011~2012년에 걸친 조사에 이어 2013년도 역시 동일한 문항으로 반복횡단조사를 실시하였고, 1년차 결과와 비교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변화추이를 검토하였다.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고등학생(1~3학년)이며, 조사에 참여한 대상수는 모두 9,402명이었다.

4) 협동연구 추진

이 연구는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는 연구로서 협동연구기관 2곳을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내·외 정신건강 지표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현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1~2년차 연구를 망라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들의 현황과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5) 기타 연구추진방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협동연구기관과의 세미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추진 주무부처와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정책방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현황과 필요성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표 개발과 개입 프로그램 표준화
3. 연구 추진 방향

제 II 장³⁾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현황과 필요성

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현황

우리나라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지난 30~40년 동안 서양에서 300~400년에 걸렸던 근대화 작업이 압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양육방법이 혼동되고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임신, 원하지 않는 아이가 증가하였고 양육방법을 배울만한 기회가 없음으로써 양육의 회피, 거절이 횡행하며 이로 인해 아동학대와 방임, 반응성 애착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훈육도 부적절하여 과잉통제를 하거나 과잉보호, 체벌을 과잉 사용함으로써 행동통제와 자율성 개발에도 문제가 있다. 가족이 핵가족화 되고, 자녀수는 급감하였으며, 이혼이 급증함에 따라 가정 붕괴가 가속되고 있다. 소아정신과질환, 정서·행동의 문제는 틀림없이 증가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 각종 전문가들은 많아지고 각각 자신들의 서비스가 해결책임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부모들과 환자들은 혼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유한 과잉교육열과 교육제도의 모순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 소아정신질환의 위험도는 계속 높아질 위험성이 제기되었다(홍강의, 2003).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며,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학교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지만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특히, 2012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의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가

3) 이 장은 이선영 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이 집필하였음.

학교폭력과 자살·우울증을 예방하기보다 일선 학교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나, 진행절차에 있어 1차 선별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수가 급증해 초등학생들은 2차 검사를 위해 해당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위센터를 일시에 방문하는 수가 늘며 일대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일선 학교에서 기존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유사 검사 등과의 중복으로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조사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약 10%가 왕따를 경험한 바 있으며, 공무에 대한 무관심 청소년은 25%로 조사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25%(전국 추정 186만명)이 고위기, 준위기로 조사되었고,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명호, 정경용, 정지현, 2010).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많은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소아청소년팀)과 서울시 학교보건 진흥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를 포함한 행동장애 25.71%, 불안장애 23.02%, 기분장애 1.95% 순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보고한 바 있다. 다시말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이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고 있는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통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다(김창대 외, 2012).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2013년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2012년 조사 결과, 13~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1년동안 한번이라고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1.2%로 조사되었다. 13~19세는 자살하고 싶었던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은 영역이 39.2%로 '성적 및 진학 문제', 두 번째로 16.9%가 '가정불화'라고 응답하였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⁴⁾

4) 청소년자살에 대한 총동여부 및 이유(2013 청소년통계, 통계청)

<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총동여부 및 이유 >

(단위 : %)

	있다	소계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 불화	성적, 진학문제	기타 ¹⁾
2010 ²⁾	8.8	100.0	17.0	6.8	12.7	11.8	37.8	13.8
2012	11.2	100.0	20.5	6.7	14.1	13.6	28.0	17.1
13~19세	12.1	100.0	16.7	0.4	12.5	16.9	39.2	14.3
20~24세	9.9	100.0	27.6	18.7	17.1	7.3	6.6	22.7

2012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청소년 자살현황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경우(10~19세), 고의적 자해(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는 27.3%, 사망률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통계를 보면, 남녀 모두 전년대비 자살 사망률 각각 11.8%, 10.4% 감소하였다. 남성의 자살률 38.2명은 여성 18.0명보다 2.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자살률 성비는 10대가 1.17배로 가장 낮고, 이후 증가하여 60대의 성비가 3.35배로 가장 높다. 전년대비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자살이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순위 1위, 40대와 50대는 사망원인 순위 2위이다. 그러나 2002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10~19세)의 경우, 2011년 5.5명에서 2012년 5.3명으로 0.4명 감소하였으나, 2002년 3.5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통계청, 2013)⁵⁾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필요성

Erikson(1968)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청소년기에는 발달적 위기상태로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중요한 변화가 발생되며, 더불어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정의하였다(Erikson, 1968). 청소년기에는 가족구조 및 학교,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의 요소들이 청소년의 인성 및 성격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로 여러 위험요소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5) 연령별 자살률 변화추이, 2002~2012

(단위: 인구 10만명당, %)

연령	남녀전체				남				여				성비
	2002	2011	2012	11년대비 증감률	2002	2011	2012	11년대비 증감률	2002	2011	2012	11년대비 증감률	2012
계	17.9	31.7	28.1	-11.4	24.6	43.3	38.2	-11.8	11.1	20.1	18.0	-10.4	2.12
10-19세	3.5	5.5	5.1	-7.3	3.7	6.2	5.5	-11.4	3.2	4.8	4.7	-1.3	1.17
20-29세	12.4	24.3	19.5	-19.7	16.0	28.2	23.5	-16.7	8.7	20.0	15.2	-24.3	1.55
30-39세	18.6	30.5	27.3	-10.4	25.9	38.7	34.6	-10.7	10.9	22.0	19.8	-9.9	1.74
40-49세	22.5	34.0	30.9	-9.2	32.9	47.7	42.9	-10.0	11.8	19.8	18.3	-7.3	2.34
50-59세	28.1	41.2	35.3	-14.3	44.8	61.5	53.2	-13.5	11.7	20.7	17.2	-16.9	3.09
60-69세	35.4	50.1	42.4	-15.4	57.1	78.3	66.8	-14.7	17.4	24.4	19.9	-18.2	3.35
70-79세	60.0	84.4	73.1	-13.4	92.1	143.1	115.6	-19.2	41.6	43.6	42.8	-1.7	2.70
80세이상	96.2	116.9	104.5	-10.6	155.1	209.2	181.7	-13.1	72.6	79.6	73.0	-8.2	2.49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갖고 있다. 미국과 같은 정신보건선진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스트레스관리능력 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적인 접근을 통해 유의한 성과를 거둔바 있다(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WHO(2003)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서 첫째, 중독의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약, 담배, 음주 등의 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인 측면에서 공격적 행동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학교 교사와 전문 상담가를 통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은 중독문제로서의 물질 중독과 정서적 문제로서의 우울증, 그리고 행동 문제로서의 공격적 성향을 예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WHO, 2003).

아동·청소년기는 정신건강문제에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의 개입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예방적 접근은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에 대한 개입을 해야 하는 임상적 접근에 비해 보다 용이성과 비용효과성이 담보된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방법이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증진(promotion)적 접근 방법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생성되면서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문제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위험요인으로는 학업실패, 학교 중단은 결국, 반사회적 행동, 물질남용, 흡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정서문제와도 연관이 깊다고 보고된다. 반면, 보호요인으로 학교와 가정에 대한 건강한 수준의 애착은 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문제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동된다(Resnick et al. 1997).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관심은 정신건강의 예방적 접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우울증 유병과 자살행동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에 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긍정적 증진으로 인식을 바꾸어 시행하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 인식된다(곽영숙, 박순영 역, 2008).

오늘날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염두에 두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들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다양한

교육 실시, 둘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조기발견과 예방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셋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지체계의 개발과 유지, 넷째, 학교 폭력 등 학교 부적응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 그리고 다섯째, 마스크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홍보이다.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의 중요성

Robins(1991)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St. Louis 병원의 아동 클리닉의 기록을 이용하여 어린 시절의 행동문제와 어른이 된 후의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3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이들에게서 정신과적 영역의 질환 발병률이 그런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어린 시절의 반사회적 행동이 성인이 된 후에 '사회병적 인격(sociopathic personality)'의 위험인자가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Robins, 1991). 또한 아동기 정신질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인에 비해 더 크다. 또한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아동 정신장애의 비용이 성인에 비해 더 크고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Maughan, Rutter, 1998).

Owens 외(2002)에 의하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로의 유입을 방해하는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시간 혹은 경제적 능력 부족이나 실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관 자체의 미충족 등의 문제이며, 둘째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 부모나 교사 혹은 일반 의사들(1차적 발견자)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의뢰를 하지 못하는 문제이고, 셋째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불신 내지 부정적 경험 같은 편견과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힐지 모른다는 치료에 대한 저항으로 요약될 수 있다(Owens et al. 2002).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임상 의사에 의한 객관적인 치료 필요정보보다 부모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치료 필요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 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주요한 예측인자가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Sayal, Taylor & Beecham, 2003, Sourander et al. 2005).

특히, 청소년의 인지영역, 대인관계 영역, 학업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에서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우울이나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호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할 때, 청소년 자신들은 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만성화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는 실제 삶속에서 주위 환경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은 외현화 장애보다는 덜 들어나기 때문에 DUP가 길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로 만성화되고 증상이 심화된 후에야 전문적 도움을 받아 긍정적 예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외현화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하여 정서문제는 신체 발달 등의 신체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낙상 등 상해와 성병, 술이나 담배와 같은 물질남용 등의 문제는 지난 몇 십년간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으나, 정서장애 문제는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수립도 부족하였고 예산 등의 투자도 매우 적었다.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방치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청소년 정서문제를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사춘기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대수롭지 않은 성장통으로 다소 가볍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이 요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청소년 정서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임상적 대응이 개발되는 것을 방해했으며 정신건강의 증진과 예방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자를 제한(곽영숙, 박순영 역, 2008)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정신장애 및 문제 행동은 아동·청소년기에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4~22%(진단 내릴 정도는 8~10%)의 아동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둘째, 호발기인 아동·청소년에 밝힌 정신장애는 한 개인의 삶에 인생 전체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사회 변화로 인해 생활환경 등에 급격한 변화로 아동·청소년 중에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 및 가정, 또래친구와의 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학교 내 사고 및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 기술, 스트레스 대처방법 등 지속적인 정신건강 교육으로 적극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성인기에서 가정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어려움으로 방치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성인기 정신질환으로의 이완 및 정신장애의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점(김윤 외, 2009) 때문이다.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표 개발과 개입 프로그램 표준화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외국의 경우 국가 단위 및 지역단위 정신건강 계획을 수립할 때 영·유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5년~10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신보건지표는 국민의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감을 포함한 긍정적 정신건강 등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과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정책 및 서비스 등의 현재 실천 상태를 양적 및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낸 척도라고 할 수 있다(한혜리, 송진희, 노성원, 2010).

일반적으로 지표 선정의 기준은 중요한 수행측면의 획득과 과학적 견고함이 보장되어야 하며, 잠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건강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건강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지, 둘째, 정책 중요성의 측면에서 정책입안자와 소비자가 이 영역에 관심이 있는지, 셋째, 보건의료체계의 민감성 측면에서 보건의료체계가 의미 있게 이러한 문제를 강조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지표는 신뢰 측면에서 표면타당도와 내용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면타당도라고 함은 논리적,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측정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각 지표의 표면 타당도는 지표에 대한 임상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국가단위에서나 타 연구에서 활용이 된 경우 등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타당도라고 함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의미 있는 측정이었는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지표 선정에 있어 향후 이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국제적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실제 비교

가능성, 데이터 이용가능성 등의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지표에 포함된 정보의 가치가 데이터 수집과 보고 비용보다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Hurtado, M.P., Swift, E. T., and Corrigan, J. M., 200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001년부터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 개발을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을 하는 영역을 선정하였는데, 영역 중의 하나가 정신보건지표에 대한 부분이었다.

표 II -1 정신보건지표 요약

핵심영역	지표
연속성	정신과 입원 후 적절한 외래 방문 정신질환과 약물 관련 문제를 동시에 가진 환자의 입원치료 후 방문의 연속성 정신보건 추적율의 인종문화적 집단에 따른 차이 정신과 관련 입원치료 후 방문의 연속성
조정성	중증정신질환 사례 관리
치료	우울증의 급성기 치료 중 방문 정신과 환자의 재입원을 물질 관련 질환의 치료 기간 노인에서 항콜린성 항우울제 치료 급성기에서 지속적인 항우울제 치료 지속기에서 지속적인 항우울제 치료
결과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망율

*출처: 2009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가족부.

개발된 지표에 근거하여 국가별 수치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격년에 한번씩 [Health at a Glance]에 공표하여 왔다. 정신보건 영역에서도 정신보건전문가위원회(Mental Health Expert Panel)와 같은 별도의 분과를 설치하여 2004년부터 시범적인 지표 산출을 시도하여 왔다. OECD 정신보건전문가위원회에서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12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정신보건지표의 핵심 영역은 치료(Treatment), 연속성(Continuity of care), 조정성(Coordination of care), 결과(Patient outcome)이다. 지표 선정 과정에서 134개 지표에서 24개를 선택하였고, 그 선정기준은 첫째, 기술적 질 수준 측정, 둘째, 비용이나 이용이 아닌 치료의 질에 초점을 두는 것, 셋째, 여러 항목에 대한 평가가 아닌 단일 항목이며, 넷째, 공급자 수준이

아니라 의료체계 수준의 질 평가에 유용해야 하는 것, 다섯째, 단일화된 입력체계를 이용하여 행정 자료로부터 지표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선정된 정신보건지표 12가지는 위의 표와 같다(김선민 외, 2009).

정신보건지표를 근거로 우리나라 수준을 분석하였으나, 실제 OECD가 선정한 정신보건지표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으며, 대부분 중증정신질환자 중심의 치료 연속성과 조정성, 치료, 결과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에 국가의 정신보건 정책이 중증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기본이나 시대적 조류에 맞게 정신보건 선진국에서처럼 정신보건 정책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를 생산하여 이를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반영하고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이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 통계는 질병관리센터 및 질병관리센터 산하의 국가보건통계센터에서 주로 생산 및 관리되고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 및 정신건강 관련요인 지표들은 주요 우울장애 유병율, 의사진단에 의한 불안장애 유병율, 의사진단에 의한 반항품행장애 유병율, 의사진단에 의한 주의집중 장애유병율, 지난 1달간 스트레스, 우울, 정서문제를 포함한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낀 날의 수, 자살생각율, 자살계획율, 자살시도율, 흡연경험율, 음주경험율, 약물경험율,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여부, 수면시간, 학교 내에서의 폭력경험, 또래 친구의 수, 가구소득, 부모의 주관적 건강수준, 가족관계척도, 사회적 자본 척도, 신체적 학대경험율, 성적 학대경험율, 가정폭력 피해 경험 등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의 유병율에서 정신건강 보호요인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지표가 생산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 수집, 생산 및 관리되고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 산출은 초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 및 위험요인들을 아동·청소년 개인, 가족, 지역사회, 학교 등의 다양한 환경 내에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주 동안 거의 매일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 불안장애 유병율, 품행장애 증상 경험율, 주의집중장애 증상경험율,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 스트레스 인지율, 주관적 정신건강 수준, 자살생각율, 자살계획율, 자살시도율, 흡연경험율, 현재 음주율, 약물경험율,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여부, 수면시간, 학교 내에서의 폭력 피해경험, 또래 친구의 수, 가구소득, 부모의 우울(CES-D),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 가정폭력 노출률 등의 지표가 생산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신건강 통계는 국가통계사무소(Office for Nation Statistic), 영국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및 보건·사회정보센터(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에서, 수집, 분석, 관리되고 있다. 지표로는 우울 때문에 특별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울장애, 불안장애 유병율, 반항품행문제, 과잉행동문제, 정서적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 자살 생각을, 자살 시도율, 현재흡연율(월간), 음주 경험율, 현재 음주율, 약물 경험율,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여부, 또래관계, 가구소득, 모의 우울, 지역사회만족도, 폭력가해 경험, 사회적지지 등의 지표가 생산되고 있다.

정신보건 선진국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표를 보면, 실제 아동·청소년 정신질환과 관련된 유병율을 지표로 포함하고 있으나,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가 일반적 건강과 사회적 요인을 그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건강 지표이나 이와 관련이 있는 수면시간이나 주관적 건강수준, 그리고 학교에서 만족도, 또래 관계의 질, 부모의 건강, 부모와의 관계, 가구의 경제상태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지표로 선정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 적용 프로그램 개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떠한 프로그램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개발된 소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할 때 첫째,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영역을 어떻게 둘 것인가, 둘째,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셋째, 누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 적용 프로그램은 협의의 의미로 사업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소집단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표준적 틀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있어 목적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건강 영역은 1994년 IOM에서 제시한 정신건강 증진의 모형을 기본으로 대상과 목적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Mrazek, P. J., & Haggerty, R. J., 1994). 정신질환 예방 관련 스펙트럼에서 1차 예방에서의 3단계 개입의 최종 목적은 정신질환자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Universal intervention은 일반 대중이나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개입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예를 들면, 산전 관리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에도 필요한 것이다. Selective intervention은 정신질환 위험이 평균보다 높은 개인·일부 집단 대상으로 시행되며, 위험 집단이라고 함은 정신 질환과 연관된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가정방문 및 day care, 빈곤지역 어린이에 대한 취학 전 프로그램, 고령의 미망인에 대한 지지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실제, 개입이 적절한 비용을 넘어서지 않고 부정적 효과가 없거나 최소일 때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Indicated intervention은 정신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징후·생물학적 지표를 가지고 있으나 DSM 진단기준을 만족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증상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모-자녀 관계 교육 프로그램은 행동 문제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용하고 1차 예방의 Universal과 Selective intervention은 현재 정신보건 현장에서 promotion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 증진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WHO에서 제시하는 정신건강 증진 전략을 살펴보면, 증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유아 대상으로 사회적 소외계층 임산부를 위한 영양 상태와 심리사회적 지원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활동이 결합된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훈련 및 기술 프로그램,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노인인구 대상 '친구되기' 사업과 사회적 지원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학교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아동 친화적인 학교 생태 변화 지원프로그램, 직장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주택 정책으로 주택 개선, 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치안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WHO).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보건 예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신건강 증진(promotion)의 목표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지역사회 웰빙의 증가에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Positive mental Health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 Illness related factor에 대한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 예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용 가능한 기준이라고 본다(이선영, 2013).

아동·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선정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넷째, 협동적이고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이어야 한다. 다섯째, 기술, 내용, 설계, 의사결정, 정치적 측면의 통합적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진행자의 역할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순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에 근거하고 마지막으로 창조성,

현실성, 논리성에 근거해야 한다(유진이, 윤혜순, 201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고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다. 첫째, 단순히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문제(음주, 흡연, 폭력, 성 등)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총체적인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개발은 목적에 따라서 교육, 예방, 치료, 재활 등의 단일한 성격을 띠 수 있지만, 예방과 치료, 예방과 재활, 치료와 재활, 그리고 교육·예방·치료·재활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권양이, 2013)는 측면이다.

집단프로그램은 특히, 청소년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청소년의 경우 개인적인 조언은 거부하거나 저항하지만 동료들의 집단적인 공통 의견은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타인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고 문제해결적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이현림, 2007). 따라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화시키는 작업은 연구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현실적인 요구의 부응이라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연구 추진 방향

2011년 1차년도에는 연구 목적을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하는데 있었다. 2012년 2차년도에는 연구목적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현황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두고 진행되었다. .

2013년도 3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방향 및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3차년도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지표의 개발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의 완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1~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영역은 1~2차년 도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영역(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및 지역사회 영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세부영역과 세부영역별 문항도 동일하게 구성하여 그 변화추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정신보건 선진외국을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보건 서비스의 현황을 지표와 증거에 기반하여 살펴보려는 경향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정신보건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서 근거기반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이러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의 정신보건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 및 정신보건 수준을 파악하고, 변화추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국가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나 사업의 평가 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조사나 보고 통계를 통해 각종 정신보건지표를 생산하여 활용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신보건지표는 국가 내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 정신보건 정책 개발과 수행평가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와 벤치마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국립서울병원, 2010).

WHO 정신보건 체계 평가를 위한 개발 지표를 보면, 정신보건 서비스 영역에서 정신보건 외래 시설(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정신보건 외래시설의 이용가능성) 지표가 있으며, 주간치료 시설에서도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주간치료 시설의 이용가능성 지표가 있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과입원 시설의 이용가능성에서도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정신과 입원병상 비율을 지표로 두며, 지역사회 거주시설 영역에서도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시설

병상 및 기관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정신병원에서도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정신병원 병상 이용가능성 지표가 있다. 인적 자원 영역에서 정신보건 전문가 훈련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신보건 인력의 재교육 훈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공공교육과 다른 섹터와 연계 영역에서 다른 섹터와의 연계활동에서 초·중등학교에서 증진과 예방활동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정신보건수행지표의 NASMHPD 프레임워크의 질 영역에서 근거기반 서비스를 받은 아동·청소년(치료적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 자연스러운 세팅에서 서비스를 받는 아동 - 클리닉 외로부터 전달받은 서비스)을 위한 치료에 가족 참여 등이 지표로 제시되어 있고 결과지표에서 아동의 학업향상이 지표로 제시되어 있다(국립서울병원, 2010).

미국 health plan 2010 계획 중 정신보건 정책 목표의 아동·청소년 관련 목표를 보면, 청소년 자살 시도율을 연평균 2.6%에서 1%로 감소,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의 치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김민석, 홍현숙, 김진학, 2006). 또한 미국의 MHSIP(Mental Health Statistics Improvement Program)의 정신보건 자료 산출과 관련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리더십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정신건강 통계 증진 프로그램(Mental Health Statistics Improvement Program)의 과업위원회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점을 강조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MHSIP의 조사항목들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접근성에서 폭넓은 범위의 서비스 대안, 아동·청소년에게만 해당하는 지표로 자연적 환경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투입된 자원의 비율(아동의 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투입된 지출액/ 아동에게 제공된 직접서비스의 총량)을 지표로 제시하며, 성과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 감소를 목표로 두고,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한 소비자의 비율(아동·청소년기능평가척도(CAFAS)/ 정서 하위척도에서 감소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측정하고 있다. SCL-90과 BSI에 근거를 둔 척도 / 아동·청소년용 CAFAS(child and adolescent functional assessment scale)를 사용한다. 생산 활동의 증가에서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시간 학업수행 수준의 증가를 측정하는데, 측정도구는 아동·청소년용 CAFAS를 사용하고 있다(NASMHPD, 2009).

호주는 2001년 국민보건 향상률(National Health performance Framework)과 2003~2008 국가 정신보건 계획(National Mental Health Plan)의 목표와 연관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정신보건 서비스 성과지표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나라의 성과지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하였다. 적절성에 클라이언트 욕구 관련성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이 성인서비스 부문에서 치료 받은 비율을 지표로 사용한다(Austria Canberra, 2008).

영국은 NHS에서 고품질 서비스전달(1998)이라는 정부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전달에 있어 표준관리, 서비스의 질, 성과를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 서비스 역시 서비스의 질이나 성과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표가 개발되었다. 영국 'Our Healthier Nation 계획'에 의한 정신보건 달성 목표에서는 아동 성학대를 포함하여 범죄의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18세미만의 소아청소년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이 포함되어있다(Care Quality Commission, <http://www.cqc.org.uk>).

주요 기구나 국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되는 지표에 대한 개발은 국가적 사업으로 이론적 근거를 두고 진행하였다. 특히,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의 파악과 추이를 모니터링의 근거화 활용하고 나아가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이러한 정신건강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과정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서의 활용이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표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로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주관적 수면충족률, 자살 생각률, 자살 시도율 등의 지표를 생산하고 있고, 흡연율, 음주율, 부적절한 체중감소 시도율, 인터넷사용률(고위험 및 잠재적 위험군) 등을 산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 정신건강 증진의 목표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적극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률⁶⁾이다. 정서와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영·유아, 학령전기,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 확대를 실시하여 전체 대상자의 50%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선별검사 시행률 증가를 목적으로 둔다. 셋째, 2015년의 청소년 자살률을 2010년 대비 5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즉, 자살률⁷⁾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김윤 외, 2010).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실제 정신건강 선진 외국과 비교할만한 지표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6) 정신보건센터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팀 설치가 2013년 현재 100개소밖에 되지 않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과제 15의 추진전략인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 등록관리율의 향상과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

7) 자살률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반영하는 지표임. 실제 외국에서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모니터링 지표로 자살율을 제시하고 있음.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보건 선진외국에서 사용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 대한 리뷰를 하고,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를 총망라하는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신보건 선진국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표처럼, 아동·청소년 정신질환과 관련된 유병율을 지표를 넘어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간접지표, 예를 들면, 수면시간, 주관적 건강수준, 그리고 학교에서의 만족도, 또래 관계의 질, 부모와의 관계, 가구의 경제상태 등의 항목이 지표 선정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 적용 프로그램 개발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실행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서로 다른 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를 통해서, 교육부는 Wee 프로젝트와 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CYS-Net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서별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서비스의 통합성과 분절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3차년도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현장에서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수진 외(2008)는 2008년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총 6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살예방 및 우울·섭식장애 중재 프로그램, 온라인 게임중독 중재 프로그램, 생활기술 훈련 프로그램, 성문제 중재 프로그램, 학교폭력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김수진 외, 2008).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경도의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국립서울병원에서도 근거기반의 학교기반 정신건강 증진 공동체모델 시범적

용 연구를 통해서 마음속마음 바로 알기(BRT: Be reflective Teen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반건호, 2010). 기타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 성과물로 사회성증진 프로그램,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이 개발된 바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현가능성과 적합성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진국의 경우,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불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이를 우리나라 학교현장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거 기반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현장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선진 외국 및 기 개발된 학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현황을 충분히 고찰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특성을 반영한, 부정적 요인 감소 및 보호적 요인 증진을 목표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4) 요약

위에서 논의된 2013년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1차년도(2011년)부터 시행된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및 지역사회 영역별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3차년도까지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변화의 측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단위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수준과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진국의 경우,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불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차년도 연구는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 수준 변화의 양상과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적용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제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국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안 마련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의 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 III 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1. 모집단 분석
2. 표본 설계
3. 실사 설계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5. 조사 내용
6. 주요 조사 결과
7. '2011~2013' 실태조사결과 분석
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

제 III 장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1. 모집단 분석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12년 교육통계연보에 의거 2013년 5~7월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III- 1>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5,134,767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583,140명(30.8%), 중학교 1,836,377명(35.8%), 고등학교 1,715,250명(33.4%)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 1,373,956명(26.8%), 특성화고등학교 341,294명(6.6%)이다.

표 III-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863,929	78,585	87,956	101,513	99,956	103,679	109,763	75,488	76,923	75,709	17,881	18,310	18,166
부산	316,196	26,765	31,322	35,666	36,106	37,862	40,204	25,838	26,286	27,355	9,726	10,015	9,051
대구	261,902	22,911	26,796	30,625	31,351	31,893	34,485	20,619	21,699	20,994	7,037	6,801	6,691
인천	290,501	25,614	29,320	32,993	33,007	33,856	36,010	25,484	26,126	26,075	7,260	7,311	7,445
광주	184,102	16,135	18,769	21,559	21,220	22,173	23,161	16,655	16,963	15,939	3,896	3,849	3,783
대전	165,568	15,426	17,398	19,667	19,511	20,455	21,139	13,950	13,965	13,203	3,932	3,554	3,368
울산	133,653	10,887	12,988	14,896	15,053	15,763	16,657	12,359	12,680	12,230	3,426	3,381	3,333
경기	1,306,703	120,979	135,909	153,616	150,199	152,997	157,196	125,265	123,989	120,813	21,923	22,213	21,604
강원	158,447	14,159	15,893	17,935	17,965	18,696	19,126	15,107	15,026	14,572	3,557	3,277	3,134
충북	165,456	14,934	17,074	18,983	18,872	19,663	20,451	12,871	12,510	12,265	6,071	6,011	5,751
충남	215,291	19,742	22,680	25,241	24,652	25,360	25,865	19,788	19,262	18,700	4,777	4,743	4,481
전남	202,178	17,840	20,474	23,029	22,898	24,121	24,643	18,301	18,318	18,060	5,067	4,839	4,588
전북	192,536	16,832	19,479	22,268	22,261	22,916	23,825	15,649	15,772	14,975	6,447	6,088	6,024
경북	255,336	22,355	25,839	29,676	29,648	29,624	31,740	22,698	22,489	22,125	6,575	6,326	6,241
경남	354,934	31,452	36,412	40,940	40,851	42,153	43,474	34,017	33,864	33,048	6,446	6,148	6,129
제주	68,035	6,289	7,250	8,069	7,786	7,828	8,263	5,974	6,018	5,940	1,591	1,566	1,461
합계	5,134,767	460,905	525,559	596,676	591,336	609,039	636,002	460,063	461,890	452,003	115,612	114,432	111,250

8) 이 장은 모상현 연구위원과 김형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이선영 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이 집필하였음. 반복 횡단조사의 조사 설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1~2012년 실태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2. 표본 설계

1) 표본크기 및 층화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표 III-2>와 같이 8,19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1.1\%P$ 이다.

층화의 경우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2년 교육통계 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학년(초 4~6학년, 중·고 1~3학년) 3개를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16개 광역시도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4개)
- 학년 : 3개

표 III-2 학교급 × 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60,905	1,583,140 (30.8%)	2,525 (30.8%)		
		5	525,559				
		6	596,676				
중학교	중학교	1	591,336	1,836,377 (35.8%)	2,929 (35.8%)		
		2	609,039				
		3	636,002				
고등학교	일반고	1	460,063	1,373,956 (26.8%)	1,715,250 (33.4%)	2,192 (26.8%)	2,736 (33.4%)
		2	461,890				
		3	452,003				
	특성화고	특성화고	1	115,612	341,294 (6.6%)	544 (6.6%)	
			2	114,432			
			3	111,250			
합계			5,134,767 (100.0%)		8,190 (100.0%)		

2) 표본 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16개)×학교급(4개)=64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II- 3>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III-3>과 같이 총 317개 할당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의 전문계 고등학교에 21명(학년당 7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16개)×학교급(4개)=64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 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317개가 되도록 한다.

표 III-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서울	422	491	354	84	21	18	12	3
경기	646	722	572	136	33	27	18	6
인천	139	161	121		6	6	3	
강원	77	88	69	81	3	3	3	3
충북	80	92	58		3	3	3	
충남	107	119	89		6	3	3	
대전	83	97	63		3	3	3	
경북	123	142	105	150	6	6	3	6
경남	172	198	156		9	6	6	
부산	148	180	122		6	6	3	
대구	127	153	98		6	6	3	
울산	61	75	57		3	3	3	
전북	97	112	84	93	6	3	3	4
전남	93	109	72		6	3	3	
광주	89	105	77		3	3	3	
제주	61	85	95		2	1	1	
합계	2,525	2,929	2,192	544	122	100	73	22

○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9명, 일반 고등학교 33명, 특성화 고등학교 33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III- 4>와 같다.

표 III-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합계	2,331	2,697	2,376	567	111(37)	93(31)	72(24)	21(7)
서울	378	435	396	81	18(6)	15(5)	12(4)	3(1)
경기	567	609	495	162	27(9)	21(7)	15(5)	6(2)
인천	126	174	99		6(2)	6(2)	3(1)	
강원	63	87	99	81	3(1)	3(1)	3(1)	3(1)
충북	63	87	99		3(1)	3(1)	3(1)	
충남	126	87	99		6(2)	3(1)	3(1)	
대전	63	87	99		3(1)	3(1)	3(1)	
경북	126	174	99	162	6(2)	6(2)	3(1)	6(2)
경남	189	174	198		9(3)	6(2)	6(2)	
부산	126	174	99		6(2)	6(2)	3(1)	
대구	126	174	99		6(2)	6(2)	3(1)	
울산	63	87	99	81	3(1)	3(1)	3(1)	3(1)
전북	126	87	99		6(2)	3(1)	3(1)	
전남	63	87	99		3(1)	3(1)	3(1)	
광주	63	87	99		3(1)	3(1)	3(1)	
제주	63	87	99		3(1)	3(1)	3(1)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3) 표본 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II- 4>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16개)×학교급(6개)=64개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3. 실사 설계⁹⁾

1) 리스트 정제 및 사전 접촉

이상의 과정을 통해 추출된 표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실사 진행을 위해 먼저 학교별 리스트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학교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의 누락 여부 및 휴교 중인 학교 등 조사 대상 학교의 적절성, 조사 대상 학교의 중복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였다. 이후 조사 협조도 제고를 위해 조사 협조 경험이 높은 면접원을 위주로 투입하여 면접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협조도를 제고하였다.

한편 조사 대상 학교의 교감 선생님 앞으로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한 후 사전 접촉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 조사에 대해 사전 인지하도록 하여 조사 협조도를 제고하였다.

2) 학교 방문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면접원을 선발하기 위해, 조사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면접원을 선발하였다. 또한 조사 진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 조사 담당 연구원이 각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로 집체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 또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접촉 면접원, 학교 방문 면접원, 코딩 및 에디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 조사 내용, 학교 접촉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9) 실사 설계 부문은 본원의 통합조사의 수행을 맡은 전문 리서치 업체에서 기술한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음.

3) 실사 진행

사전 접촉 시 지정된 담당 교사에게 연락하여 방문 약속을 잡았으며, 방문 조사원은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담당 교사의 안내를 받아 직접 학생들을 통솔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방문 조사원은 학교의 교급에 따라 2인 1조의 시스템과 1인 1조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초등학생의 경우, 집중도와 이해력이 낮아 학생들을 충분히 통제하기 위해 면접원 2인이 1조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함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설문에 대한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통제를 싫어하는 경향을 보여 면접원 1인이 1개 학급의 조사를 진행함

1개 학교에서 완료해야 하는 모든 과제를 완료한 학교에 대해서만 해당 샘플의 조사 완료로 보고, 일부 과제의 누락 또는 특정 사유로 인해 조사 대상 학급 학생들의 30% 이상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진행한 모든 설문지를 폐기하고, 다른 학교로 대체하였다.

한편 사전 접촉을 통해 조사에 협조해 주겠다고 응답하였으나, 학교 사정 등으로 조사 협조를 철회하는 경우 대체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

4) 조사표 검증 및 자료 처리

조사표 검증은 총 3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1차는 현장에서 설문지를 회수하기 전에 무응답 여부, 분기 문항 등을 확인하고, 2차 검증은 조사표를 회수한 뒤 학급을 떠나기 전에 검토하고, 3차 검증은 연관 문항을 중심으로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연관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조사표를 재확인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 대해 더블펀치를 실시하여 입력 에러율을 최소화하였으며, 자료 입력 시 설문 로직 등을 자료 입력 프로그램에 설정하여 자료 입력 과정에서 설문지 기입 오류를 확인 및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표를 확인하고, 문항 간 논리적 오류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앞서 <표 III-2>와 같이 8,190명으로 결정하였으나, 목표 표본 크기에 따라 단순비례배분에 의해 표본 크기를 할당하였다. 이후 지역별로 할당된 학교 수에 따라 학교별 한 학년 1개 학급의 학생 전원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기에 실제 목표로 삼은 크기보다 많은 표본이 조사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조사 완료된 최종 학교 수와 조사 표본 수는 <표 III-5>와 <표 III-6>에 각각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조사 완료 학교 수는 총 317개 이며, 조사표본수는 총 9,402명이었다.

한편 최종 조사 표본 수에 따른 응답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III-7>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총 조사 표본 수 중 남자가 4,692명(49.9%)이었고, 여자는 4,710명(50.1%)이었다. 또한 초등학생은 3,157명(33.6%), 중학생은 3,260명(34.7%), 고등학생은 2,985명(31.7%)이었다.

표 III-5 조사 완료 학교 수

지역	총계	교급 및 학년별 조사대상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317	40	41	41	33	34	33	24	25	24	7	8	7
서울	54	7	7	7	6	6	6	4	4	4	1	1	1
부산	16	2	2	2	2	2	2	1	1	1	0	1	0
대구	15	2	2	2	2	2	2	1	1	1	0	0	0
인천	17	2	2	2	2	2	2	1	1	1	0	2	0
광주	9	1	1	1	1	1	1	1	1	1	0	0	0
대전	9	1	1	1	1	1	1	1	1	1	0	0	0
울산	11	1	1	1	1	1	1	1	1	1	1	0	1
경기	82	11	11	11	9	9	9	6	6	6	2	0	2
강원	10	1	1	1	1	1	1	1	1	1	1	0	0
충북	9	1	1	1	1	1	1	1	1	1	0	0	0
충남	14	2	2	2	1	1	1	1	1	1	0	1	1
전북	15	2	2	2	1	1	1	1	1	1	1	1	1
전남	12	2	2	2	1	1	1	1	1	1	0	0	0
경북	17	2	2	2	2	2	2	1	1	1	0	1	1
경남	22	3	3	3	2	2	2	2	2	2	1	0	0
제주	5	0	1	1	0	1	0	0	1	0	0	1	0

표 III-6 조사 표본 수

지역	총계	교급 및 학년별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9,402	1,042	1,054	1,061	1,065	1,141	1,054	810	799	796	211	191	178
서울	1,539	186	152	169	184	190	186	142	120	141	24	24	21
부산	458	48	46	43	64	66	64	32	35	33	0	27	0
대구	417	54	49	50	56	70	62	31	19	26	0	0	0
인천	473	46	49	46	69	69	65	23	39	32	0	35	0
광주	294	25	32	26	32	36	33	36	38	36	0	0	0
대전	278	32	29	23	26	28	31	34	35	40	0	0	0
울산	327	27	25	25	30	30	33	33	38	36	37	0	13
경기	2,555	294	297	310	322	320	295	207	191	186	73	0	60
강원	307	29	30	21	28	37	34	37	32	38	21	0	0
충북	285	21	25	28	28	34	34	39	39	37	0	0	0
충남	419	55	57	57	33	31	30	35	33	39	0	17	32
전북	430	49	50	46	34	33	33	36	34	29	31	30	25
전남	344	51	51	56	34	36	29	34	21	32	0	0	0
경북	486	50	57	50	64	66	59	30	28	26	0	29	27
경남	634	75	77	81	61	63	66	61	60	65	25	0	0
제주	156	0	28	30	0	32	0	0	37	0	0	29	0

표 III-7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9,402	100.0
성별	남자	4,692	49.9
	여자	4,710	50.1
학교급	초등학교	3,157	33.6
	중학교	3,260	34.7
	고등학교 ¹⁰⁾	2,985	31.7
지역규모	특별/광역시	3,696	39.3
	중소도시	4,620	49.1
	읍면지역	1,086	11.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221	87.4
	한부모가정	840	8.9
	조손가정	156	1.7
	기타	148	1.6
	무응답	37	0.4
경제수준	상	2,233	23.8
	중	6,755	71.8
	하	399	4.2
	무응답	15	0.2

10)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특성고를 합한 수치임

5. 조사내용

2011년에 활용된 도구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여 2011~2013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조사영역 별 척도의 3년간 신뢰도 계수 값(Cronbach α)이 제시되어져 있다

조사영역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지역사회 영역 및 학교영역 등 크게 4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대 영역 중 개인영역은 다시 우울, 불안, 게임중독, 자살, 스트레스, 비행 등의 변인들로 구성된 부정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의 변인들로 구성된 긍정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영역의 경우는 부모의 지원, 가족관계 질 변인들로 구성하였고, 지역사회영역은 지역사회 지원과 지역사회 상호작용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영역은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 등의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표 III-8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수	2011 α	2012 α	2013 α	
개인 영역	부정적 요인	우울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의 정도	21	.898	.904	.908
		불안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불안의 정도	21	.883	.908	.899
		게임중독	게임지향적 생활, 내성과 통제력 상실, 금단과 정서경험 경향성	20	.927	.933	.934
		자살	자살 생각, 자살 생각 이유, 자살 시도 경험	3	-	-	-
		스트레스	부모, 형제자매, 외모, 건강, 경제, 친구, 이성, 선후배, 선생님 관계, 진로, 학업문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12	.903	.862	.876
	긍정적 요인	비행	흡연, 음주, 절도, 폭행, 강탈,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 도박, 공공기물 파손 경험	10	.797	.785	.798
		생활만족도	부모, 친구, 선생님과과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수준, 여가 생활, 학교생활, 학업성적, 건강의 만족도 정도	8	.833	.876	.874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정도	5	.904	.920	.925
		자기효능감	자신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신념의 정도	3	.862	.884	.886
		정서조절	부적 정서 체험 후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	3	.800	.834	.837
낙관주의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 보고, 또 통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의 정도	3	.791	.825	.834		
가족영역	부모의 지원	정서, 정보, 경제적 지원의 정도	14	.975	.946	.945	
	가족관계 질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감이나 친밀의 정도	5	.925	.933	.934	
지역사회 영역	지역사회 지원	가족, 친구, 선생님 이외에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원의 정도	3	.836	.840	.844	
	지역사회 상호작용	지역사회의 단체나 기관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3	.759	.771	.785	
학교영역	학교수업	학업에 대한 유능감을 갖고 있는 정도	3	.825	.846	.841	
	교사관계	교사와의 긍정적인 태도와 친밀한 교류를 하는 정도	3	.892	.903	.904	
	친구관계	친구와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3	.848	.872	.868	
	학교생활	학교시설과 물건을 아끼고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정도	3	.713	.754	.751	

* 주: 각 변인에 대한 세부 문항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6. 주요 조사 결과¹¹⁾

1) 개인영역

(1) 부정적 요인

① 우울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우울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정서적 표현/부정적 인지(M=0.4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M=0.39)’, ‘죄책감/자기혐오(M=0.37)’, ‘신체적 측면(M=0.35)’의 순이었음

표 III-9 2011~2013년도 우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죄책감 /자기혐오	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슬픔	0.31	0.29	0.28
	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실패	0.35	0.34	0.34
	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죄책감	0.31	0.29	0.28
	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벌	0.44	0.40	0.37
	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0.48	0.45	0.45
	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책	0.47	0.42	0.44
	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살	0.46	0.41	0.42
소계			0.40	0.37	0.37
부정적 자기상 /정신운동 지연	1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0.38	0.36	0.36
	1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결정	0.55	0.50	0.49
	1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0.51	0.46	0.46
	1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할 의욕	0.40	0.34	0.36
	2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성욕	0.27	0.26	0.29
소계			0.42	0.38	0.39
신체적 측면	1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잠	0.33	0.33	0.32
	1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피곤함	0.74	0.72	0.71
	1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식욕	0.32	0.30	0.30
	1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체중변화	0.22	0.22	0.22
	2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0.24	0.21	0.22
소계			0.37	0.36	0.35
정서적인 표현 /부정적 인지	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0.42	0.41	0.42
	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0.55	0.50	0.47
	1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율기	0.24	0.23	0.24
	1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짜증	0.69	0.66	0.63
소계			0.48	0.45	0.44
우울 영역(전체)			0.41	0.38	0.38

11) 이 절에서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세부영역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만을 제시함. 전체항목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우울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10>과 같다. 아래 표와 같이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거주지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의 세부요인(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신체적 측면,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죄책감/자기혐오)에서 각 수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모든 세부요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모든 세부요인에서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부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주지 변인 외에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 변인에서는 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10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죄책감 /자기혐오		부정적 자기상 /정신운동지연		신체적 측면		정서적인 표현 /부정적 인지		우울(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0.31 (0.45)	164,152 ***	0.36 (0.51)	39,832 ***	0.32 (0.45)	57,957 ***	0.34 (0.47)	335,051 ***	0.33 (0.40)	177,633 ***
	여자 (n=4,710)	0.43 (0.48)		0.42 (0.49)		0.39 (0.43)		0.53 (0.53)		0.44 (0.41)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0.25 (0.44)	160,359 ***	0.30 (0.47)	86,258 ***	0.27 (0.44)	105,568 ***	0.31 (0.49)	184,769 ***	0.28 (0.39)	182,019 ***
	중학교 (n=3,260)	0.39 (0.47)		0.41 (0.48)		0.36 (0.42)		0.47 (0.50)		0.41 (0.40)	
	고등학교 (n=2,985)	0.46 (0.47)		0.47 (0.54)		0.43 (0.46)		0.55 (0.52)		0.48 (0.41)	
거주지	서울 (n=1,539)	0.36 (0.44)	0.380	0.38 (0.47)	0.648	0.35 (0.39)	0.019	0.44 (0.50)	0.081	0.39 (0.38)	0.037
	광역시 (n=2,247)	0.37 (0.47)		0.39 (0.48)		0.35 (0.40)		0.44 (0.50)		0.39 (0.40)	
	시군 (n=5,616)	0.37 (0.47)		0.40 (0.52)		0.35 (0.47)		0.44 (0.52)		0.39 (0.42)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0.35 (0.45)	35,422 ***	0.38 (0.48)	34,415 ***	0.34 (0.42)	22,433 ***	0.42 (0.49)	34,363 ***	0.37 (0.39)	43,466 ***
	한부모가정 (n=840)	0.49 (0.58)		0.51 (0.58)		0.44 (0.52)		0.57 (0.63)		0.50 (0.51)	
	조손가정 (n=156)	0.43 (0.59)		0.49 (0.70)		0.41 (0.64)		0.51 (0.69)		0.46 (0.56)	
전체 M(SD)		0.37(0.47)		0.39(0.50)		0.35(0.44)		0.44(0.51)		0.38(0.41)	

* α .05, ** α .01, *** α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② 불안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불안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M=0.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불안요인(M=0.40)’,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M=0.38)’, ‘공황적 불안요인(M=0.24)’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3개의 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불안 수준이 2012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표 III-11 2011~2013년도 불안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1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0.45	0.41	0.41
	3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0.50	0.49	0.49
	6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0.69	0.64	0.65
	8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0.60	0.53	0.50
	12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0.26	0.25	0.26
	13	나는 안절부절 못하다	0.27	0.26	0.25
	19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0.11	0.09	0.11
소계			0.41	0.38	0.38
주관적 불안요인	4	나는 편안하게 쉬 수가 없다	0.45	0.40	0.41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53	0.49	0.49
	9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0.57	0.55	0.55
	10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0.51	0.44	0.46
	14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17	0.16	0.16
	17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0.33	0.31	0.32
소계			0.43	0.39	0.40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2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0.39	0.34	0.34
	18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0.52	0.47	0.47
	20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0.33	0.31	0.32
	21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0.85	0.79	0.85
소계			0.52	0.48	0.50
공황적 불안요인	7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0.51	0.46	0.45
	11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0.16	0.13	0.15
	15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0.20	0.18	0.20
	16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13	0.12	0.14
소계			0.25	0.22	0.24
불안 영역(전체)			0.40	0.37	0.3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불안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I-12>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거주지 특성 변인 외에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공황적 불안요인,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등 세부요인을 합산한 불안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 보다 한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에서 교급별,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바,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높았고, 양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공황적 불안요인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서울시 광역시 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구체적인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사후검증결과가 아래 <표 III-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주관적 불안요인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공황적 불안요인		불안(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0.34 (0.42)	79.33 ***	0.32 (0.48)	196.356 ***	0.47 (0.49)	13.703 ***	0.20 (0.40)	67.291 ***	0.33 (0.37)	109.203 ***
	여자 (n=4,710)	0.42 (0.44)		0.47 (0.57)		0.51 (0.51)		0.27 (0.46)		0.42 (0.42)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0.26 (0.36)	185.779 ***	0.29 (0.45)	122.744 ***	0.41 (0.43)	80.649 ***	0.17 (0.36)	52.49 ***	0.28 (0.33)	147.469 ***
	중학교 (n=3,260)	0.42 (0.45)		0.42 (0.54)		0.50 (0.52)		0.25 (0.43)		0.40 (0.41)	
	고등학교 (n=2,985)	0.46 (0.46)		0.49 (0.57)		0.57 (0.53)		0.28 (0.48)		0.45 (0.43)	
거주지	서울 (n=1,539)	0.39 (0.44)	1.667	0.42 (0.53)	1.762	0.53 (0.50)	3.951	0.25 (0.46)	1.240	0.40 (0.40)	2.523 **
	광역시 (n=2,247)	0.37 (0.41)		0.39 (0.50)		0.49 (0.48)		0.23 (0.41)		0.37 (0.38)	
	시군 (n=5,616)	0.38 (0.44)		0.40 (0.54)		0.49 (0.51)		0.23 (0.43)		0.37 (0.4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n=8,221)	0.37 (0.42)	32.844 ***	0.39 (0.52)	20.736 ***	0.48 (0.49)	14.641 ***	0.22 (0.42)	19.314 ***	0.37 (0.39)	29.059 ***
	한부모가정 (n=840)	0.49 (0.51)		0.51 (0.59)		0.57 (0.52)		0.32 (0.50)		0.47 (0.45)	
	조손가정 (n=156)	0.39 (0.49)		0.44 (0.58)		0.56 (0.65)		0.26 (0.50)		0.41 (0.48)	
전체 M(SD)		0.38(0.43)		0.40(0.53)		0.49(0.50)		0.23(0.43)		0.38(0.40)	

* α .05, ** α .01, *** α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③ 게임 중독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게임 중독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M=1.2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게임지향적 생활(M=1.20)’,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M=1.14)’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항목 및 요인의 평균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남.

표 III-13 2011~2013년도 게임 중독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게임 지향적 생활	1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1.42	1.35	1.37
	2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1.25	1.21	1.21
	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1.18	1.13	1.14
	4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1.16	1.13	1.13
	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1.20	1.16	1.15
	6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27	1.20	1.21
소계			1.25	1.20	1.20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1.38	1.28	1.30
	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1.31	1.24	1.27
	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23	1.19	1.19
	1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1.34	1.26	1.27
	11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28	1.22	1.23
	1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1.37	1.28	1.30
	13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1.24	1.20	1.22
소계			1.31	1.24	1.25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14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1.19	1.15	1.16
	15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1.26	1.22	1.24
	16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1.07	1.06	1.07
	17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1.08	1.06	1.06
	18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1.12	1.09	1.10
	19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1.28	1.21	1.20
	20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1.18	1.14	1.13
소계			1.17	1.13	1.14
게임 중독 영역(전체)			1.24	1.19	1.1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게임중독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I-14>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게임중독의 세부요인(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 지향적 생활)에서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에 대한 거주지 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게임 중독의 전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모든 세부요인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었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보다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외의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게임 중독의 모든 세부요인을 합산한 결과에서도 모든 변인에 따른 집단 수준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항목별 평균점수와 사후검증 결과는 아래 <표 III-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4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의 요인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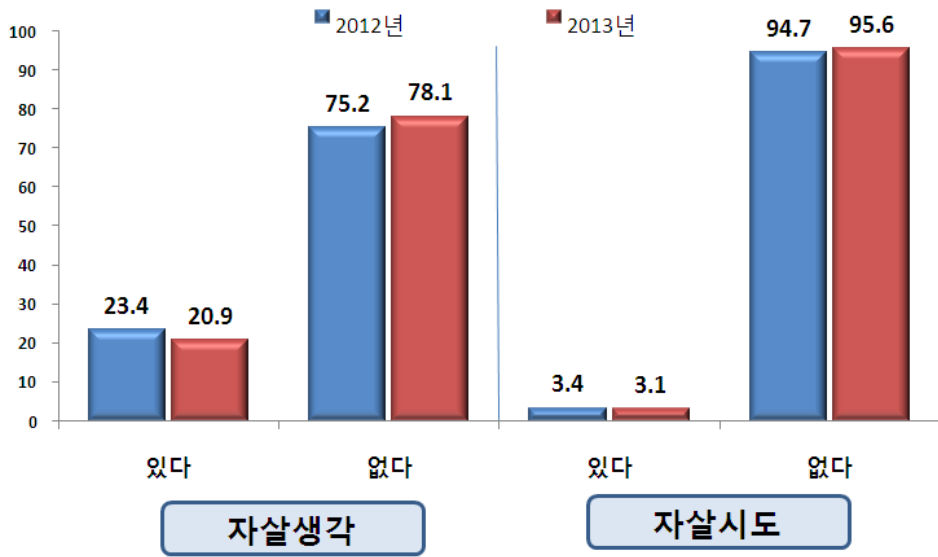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 중독 (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1.26 (0.45)	205.697***	1.37 (0.55)	563.312***	1.21 (0.44)	416.196***	1.28 (0.42)	510.889***
	여자 (n=4,710)	1.14 (0.34)		1.14 (0.36)		1.06 (0.25)		1.12 (0.27)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1.18 (0.38)	11.258*** (ab)	1.19 (0.39)	38.161*** (ab,ac)	1.10 (0.29)	25.189*** (ab,ac)	1.16 (0.30)	28.437*** (ab,ac)
	중학교 (n=3,260)	1.23 (0.41)		1.29 (0.51)		1.16 (0.39)		1.23 (0.38)	
	고등학교 (n=2,985)	1.19 (0.41)		1.28 (0.52)		1.15 (0.40)		1.21 (0.39)	
거주지	서울 (n=1,539)	1.21 (0.40)	4.172***	1.24 (0.45)	1.963	1.13 (0.33)	1.731	1.20 (0.34)	2.928*
	광역시 (n=2,247)	1.18 (0.36)		1.24 (0.44)		1.13 (0.33)		1.18 (0.32)	
	사군 (n=5,616)	1.21 (0.42)		1.26 (0.50)		1.14 (0.38)		1.20 (0.3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1.19 (0.39)	21.754*** (gh,gi)	1.25 (0.46)	13.470*** (gh)	1.13 (0.35)	9.471*** (gi)	1.18 (0.32)	18.419*** (gh,gi)
	한부모가정 (n=840)	1.26 (0.44)		1.32 (0.54)		1.16 (0.38)		1.24 (0.41)	
	조손가정 (n=156)	1.31 (0.51)		1.34 (0.66)		1.21 (0.52)		1.25 (0.36)	
전체 M(SD)		1.20(0.40)		1.25(0.48)		1.14(0.36)		1.19(0.36)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④ 자살 - 항목별 백분율

자살에 대한 항목별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N=9,402) 중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가 20.9%(N=1,963),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3.1%(N=292)로 나타남. 2012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그림 III-1】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표 III-15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문항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8,745	9,402	23.4	20.9	75.2	78.1	1.5	1.0
2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	8,745	9,402	3.4	3.1	94.7	95.6	1.9	1.3

④ - 1 자살 -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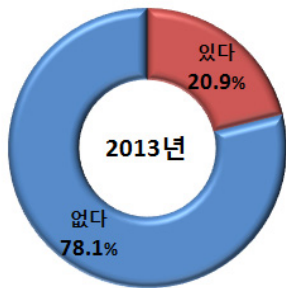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0.9%가 '있다', 78.1%가 '없다'라고 응답함

○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0.9%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8.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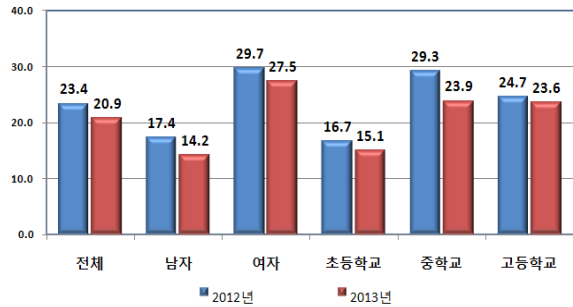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있다'라는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27.5%)이 남학생(14.2%)보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23.9%), 고등학생(23.6%), 초등학생(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이 20.9%로 2012년(23.4%)에 비해 2.5%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의 경우는 2012년(29.3%) 대비 2013년(23.9%)에 5.4%p가 낮게 나타나며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2~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2】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표 III-16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전체	8,745	9,402	23.4	20.9	75.2	78.1	1.5	1.0	
성별	남	4,494	4,692	17.4	14.2	81.1	84.9	1.6	0.9
	여	4,251	4,710	29.7	27.5	69.0	71.4	1.3	1.1
교급	초	3,185	3,157	16.7	15.1	81.5	84.1	1.8	0.8
	중	2,986	3,260	29.3	23.9	69.5	74.9	1.2	1.2
	고	2,574	2,985	24.7	23.6	74.0	75.4	1.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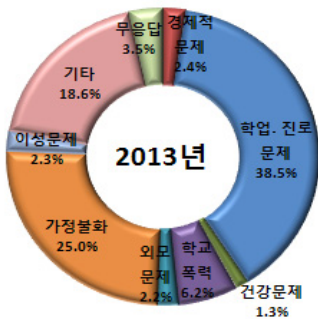
④ - 2 자살 -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학업·진로문제(38.5%)’가 가장 높았고, ‘가정불화(25.0%)’, ‘기타(18.6%)’, ‘학교폭력(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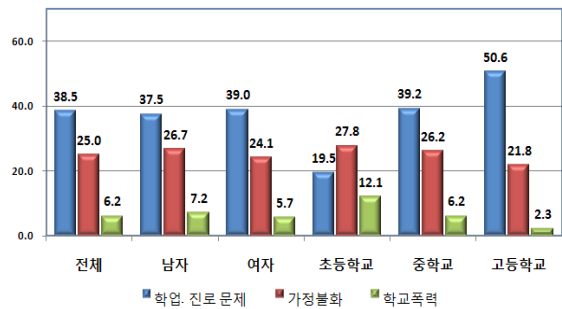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업 및 진로문제(38.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불화(25.0%)’, ‘기타(18.6%)’, ‘학교폭력(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응답률 상위 3가지(기타 항목은 제외) 항목을 중심으로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학업 및 진로, 가정불화, 학교폭력의 모든 항목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로 학업 및 진로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으나, 가정불화 및 학교폭력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과 달리 ‘가정불화’ 항목이 자살을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그림 III-3】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표 III-17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경제적 문제	학업·진로 문제	건강문제	학교폭력	외모문제	가정불화	이성문제	기타	무응답	
전체	1,963	2.4	38.5	1.3	6.2	2.2	25.0	2.3	18.6	3.5	
성별	남	666	2.7	37.5	2.0	7.2	1.2	26.7	4.4	15.3	3.0
	여	1,297	2.2	39.0	0.9	5.7	2.7	24.1	1.3	20.3	3.7
교급	초	478	2.5	19.5	2.1	12.1	5.4	27.8	1.7	26.4	2.5
	중	780	1.9	39.2	0.8	6.2	1.4	26.2	2.3	18.6	3.5
	고	705	2.8	50.6	1.3	2.3	0.9	21.8	2.8	13.3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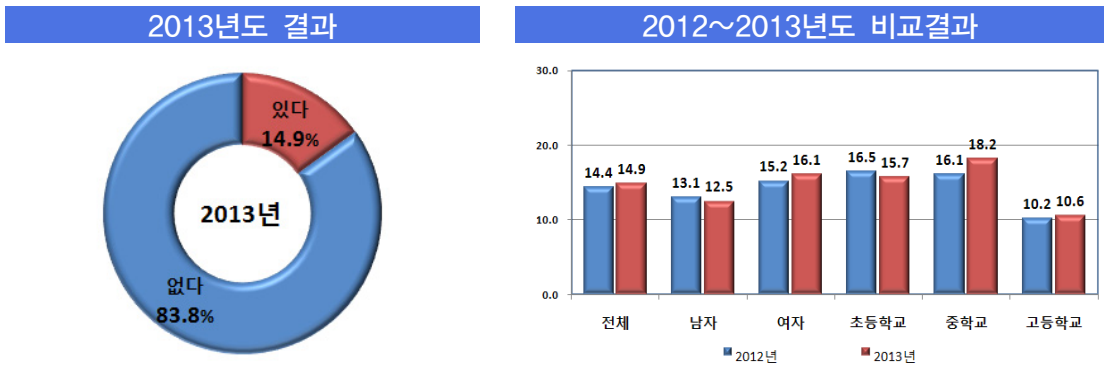
④ - 3 - 1 자살 -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
자살 생각 경험자 중 14.9%가 '있다', 83.8%가 '없다'고 응답함**

○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한 청소년들의 14.9%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3.8%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16.1%)이 남학생(12.5%)보다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18.2%), 초등학생(15.7%), 고등학생(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과거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3년은 14.9%로 2012년(14.4%)에 비해 0.5%p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2012년(15.2%) 대비 2013년(16.1%)에 0.9%p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2012년 대비 2013년에 각각 21%p, 0.4%p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4】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표 III-18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전체		2,043	1,963	14.4	14.9	83.5	83.8	2.1	1.3
성별	남	780	666	13.1	12.5	85.0	85.7	1.9	1.8
	여	1,263	1,297	15.2	16.1	82.6	82.8	2.2	1.1
연도별	초	533	478	16.5	15.7	80.9	83.7	2.6	0.6
	중	875	780	16.1	18.2	82.5	80.1	1.4	1.7
	고	635	705	10.2	10.6	87.1	87.9	2.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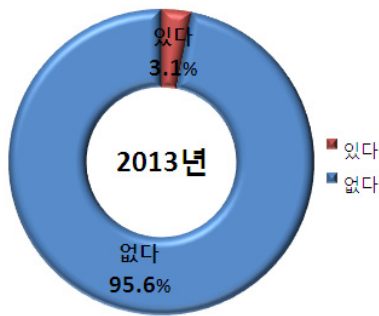
④ - 3 - 2 자살 -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
전체 청소년 중 3.1%가 '있다', 95.6%가 '없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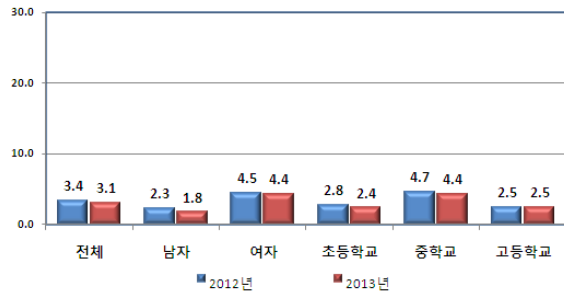
○ 전체 청소년에 대해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청소년 중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1%였으며,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5.6%이었다.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4.4%)이 남학생(1.8%)보다 2배 가까이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생(2.4%)이 고등학교생(2.5%)의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은 거의 비슷하나 고등학생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2~2013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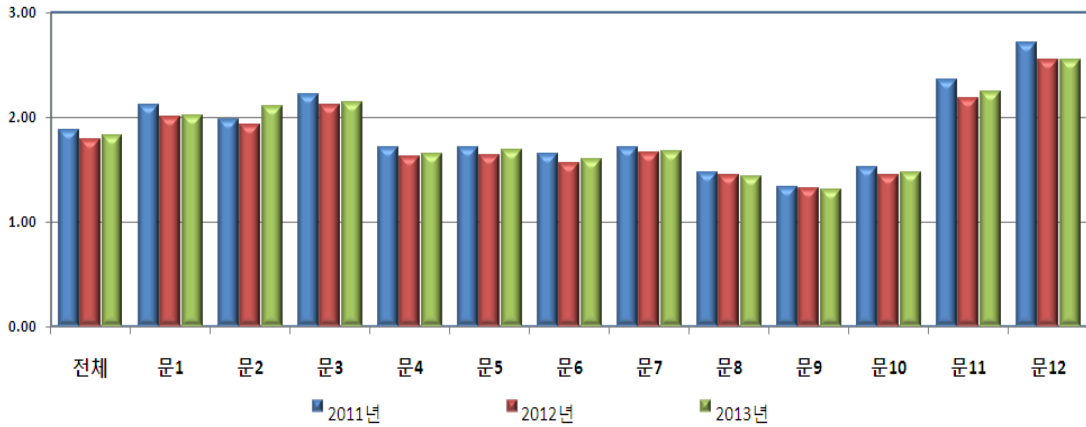
【그림 III-5】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표 III-19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전체		8,745	9,402	3.4	3.1	94.7	95.6	1.9	1.3
성별	남	4,494	4,692	2.3	1.8	95.8	97.1	1.9	1.2
	여	4,251	4,710	4.5	4.4	93.5	94.2	2.0	1.4
교급	초	3,185	3,157	2.8	2.4	95.0	96.7	2.2	0.9
	중	2,986	3,260	4.7	4.4	93.6	94.0	1.6	1.6
	고	2,574	2,985	2.5	2.5	95.5	96.2	2.0	1.3

⑤ 스트레스 - 항목별 평균

스트레스에 대한 항목별 평균에선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M=2.55)’가 가장 높았고 ‘진로문제(M=2.24)’, ‘외모(M=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후배 관계(M=1.30)’가 가장 낮았음. 2012년과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3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스트레스 항목에서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평균점수가 높아 스트레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 -6】 2011~2013년도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표 III-20 2011~2013년도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1	부모님과의 관계	2.11	2.00	2.02
2	형제·자매와의 관계	1.98	1.92	2.10
3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2.22	2.12	2.14
4	신체건강	1.71	1.62	1.65
5	심리건강	1.71	1.64	1.68
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1.65	1.56	1.59
7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1.71	1.66	1.67
8	이성과의 관계	1.47	1.44	1.43
9	선·후배 관계	1.33	1.32	1.30
10	선생님과의 관계	1.52	1.44	1.47
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2.35	2.18	2.24
12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2.71	2.55	2.55
스트레스 영역(전체)		1.87	1.78	1.82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영역의 항목별 차이 분석

스트레스 영역의 12개 세부요인(부모 관계, 형제·자매 관계, 외모, 신체건강, 심리건강, 가정형편, 친구관계, 이성 관계, 선후배관계, 선생님관계, 진로문제, 학업문제)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모든 세부영역에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점수가 높아 여학생이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도 모든 세부 스트레스 요인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형제·자매관계, 선·후배관계 외의 영역에서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부모 관계		형제·자매관계		외모		신체건강		심리건강		가정형편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1.92 (1.01)	95.146 ***	2.02 (1.68)	22.003 ***	1.86 (1.01)	691.049 ***	1.53 (0.90)	160.51 ***	1.47 (0.86)	431.236 ***	1.46 (0.85)	167.099 ***
	여자 (n=4,710)	2.13 (1.04)		2.18 (1.58)		2.42 (1.05)		1.78 (0.98)		1.88 (1.06)		1.71 (1.01)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1.75 (0.98)	180.113 ***	2.21 (1.81)	31.038 ***	1.73 (1.00)	416.194 ***	1.42 (0.84)	191.548 ***	1.35 (0.80)	336.168 ***	1.31 (0.78)	289.241 ***
	중학교 (n=3,260)	2.16 (1.04)		2.17 (1.62)		2.23 (1.06)		1.67 (0.96)		1.71 (0.99)		1.59 (0.93)	
	고등학교 (n=2,985)	2.17 (1.01)		1.91 (1.43)		2.47 (1.00)		1.88 (0.99)		1.98 (1.05)		1.87 (1.03)	
거주지	서울 (n=1,539)	2.08 (1.04)	3.369	2.07 (1.59)	2.791 **	2.14 (1.05)	0.009	1.64 (0.95)	0.165	1.68 (0.96)	0.084	1.58 (0.90)	0.159
	광역시 (n=2,247)	2.00 (1.02)		2.04 (1.55)		2.14 (1.06)		1.65 (0.94)		1.67 (0.97)		1.59 (0.96)	
	시군 (n=5,616)	2.02 (1.03)		2.13 (1.68)		2.14 (1.07)		1.66 (0.96)		1.68 (0.99)		1.59 (0.95)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2.00 (1.02)	18.985 ***	2.00 (1.41)	372.226 ***	2.11 (1.05)	23.925 ***	1.63 (0.92)	22.943 ***	1.65 (0.97)	25.473 ***	1.53 (0.90)	152.966 ***
	한부모가정 (n=840)	2.21 (1.11)		2.43 (2.13)		2.37 (1.11)		1.85 (1.08)		1.91 (1.10)		2.11 (1.15)	
	조손가정 (n=156)	-		1.35 (3.86)		2.27 (1.36)		1.79 (1.22)		1.66 (0.88)		1.72 (0.93)	
전체 M(SD)		2.02(1.03)		2.10(1.63)		2.14(1.07)		1.65(0.95)		1.68(0.99)		1.59(0.94)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친구관계		이성관계		선·후배관계		선생님관계		진로문제		학업문제		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1.48 (0.86)	390,074 ***	1.39 (0.84)	20,845 ***	1.26 (0.70)	21,747 ***	1.40 (0.86)	43,066 ***	2.00 (1.16)	368,363 ***	2.32 (1.19)	366,693 ***	1.68 (0.65)	420,224 ***
	여자 (n=4,710)	1.86 (1.02)		1.47 (0.88)		1.33 (0.76)		1.53 (0.92)		2.47 (1.21)		2.79 (1.13)		1.96 (0.70)	
교급 별	초등학교 (n=3,157)	1.50 (0.92)	76,959 *** (ab,ac)	1.26 (0.77)	105,783 *** (ab,ac ,bc)	1.30 (0.76)	3,772 *	1.34 (0.85)	50,015 *** (ab,ac)	1.42 (0.89)	1800, 508 *** (ab,ac ,bc)	1.87 (1.09)	1053, 642 *** (ab,ac ,bc)	1.54 (0.64)	478,562 *** (ab,ac ,bc)
	중학교 (n=3,260)	1.74 (0.99)		1.47 (0.88)		1.33 (0.76)		1.51 (0.93)		2.35 (1.16)		2.71 (1.12)		1.89 (0.69)	
	고등학교 (n=2,985)	1.78 (0.96)		1.57 (0.90)		1.27 (0.67)		1.55 (0.88)		2.98 (1.01)		3.09 (0.99)		2.04 (0.64)	
거주 지	서울 (n=1,539)	1.66 (0.93)	0,709	1.48 (0.93)	3,440	1.26 (0.66)	5,217 *	1.41 (0.83)	11,54 4* (ef)	2.23 (1.18)	1,852 (ef)	2.57 (1.14)	2,050 ***	1.82 (0.65)	0,039
	광역시 (n=2,247)	1.66 (0.95)		1.44 (0.88)		1.28 (0.70)		1.54 (0.92)		2.28 (1.20)		2.59 (1.18)		1.82 (0.69)	
	사군 (n=5,616)	1.68 (0.98)		1.42 (0.83)		1.32 (0.76)		1.45 (0.89)		2.22 (1.21)		2.53 (1.19)		1.82 (0.7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1.65 (0.94)	30,819 ** (gh)	1.41 (0.84)	14,401 *** (gh)	1.29 (0.71)	10,317 ***	1.44 (0.86)	21,552 ** (gh)	2.21 (1.19)	18,704 *** (gh)	2.54 (1.18)	7,074 ***	1.79 (0.67)	80,088 *** (gh)
	한부모가정 (n=840)	1.90 (1.09)		1.57 (0.97)		1.38 (0.81)		1.64 (1.10)		2.48 (1.25)		2.69 (1.17)		2.05 (0.76)	
	조손가정 (n=156)	1.88 (1.07)		1.56 (0.97)		1.46 (0.92)		1.63 (1.07)		2.33 (1.45)		2.63 (1.23)		-	
전체 M(SD)		1.67(0.96)		1.43(0.86)		1.30(0.73)		1.47(0.89)		2.24(1.21)		2.55(1.18)		1.82(0.69)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거주지별로는 형제·자매관계, 선·후배관계, 선생님관계, 학업문제 스트레스만이 지역별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시·군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선·후배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광역시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스트레스의 모든 세부영역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선·후배관계 영역에서는 조손가정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서 한부모가정의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각 세부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표 III-2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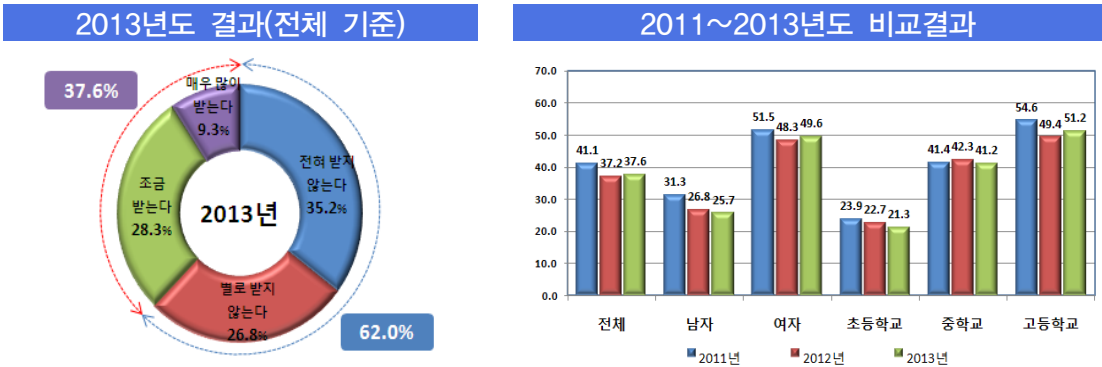
⑤ - 1 스트레스 -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¹²⁾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외모(키·몸매·생김새)'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받는다', 62.0%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외모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2.0%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37.6%는 '받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먼저 성별로는, 여학생(49.6%)이 남학생(25.7%)보다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생(21.3%)에서 중학생(41.2%), 고등학생(51.2%)으로 올라갈수록 외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37.6%로 2012년(37.2%)에 비해 0.4%p 높게, 2011년(41.1%)에 비해 3.5%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의 응답률이 3년 연속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은 2013년에는 51.2%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면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표 III-2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외모

응답자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1.2	9.0	9.3	29.9	28.2	28.3	28.3	27.6	26.8	30.1	34.8	35.2	0.6	0.4	0.3	
성별	남	4,874	4,494	4,692	7.8	5.7	5.5	23.5	21.1	20.2	29.2	27.9	26.6	39.0	44.9	47.3	0.5	0.5	0.3
	여	4,561	4,251	4,710	14.8	12.6	13.2	36.7	35.7	36.4	27.3	27.3	27.1	20.6	24.1	23.1	0.7	0.3	0.3
교급	초	2,943	3,185	3,157	6.8	5.7	5.6	17.1	17.0	15.7	24.9	21.8	22.8	50.9	55.2	55.6	0.3	0.3	0.3
	중	2,844	2,986	3,260	11.1	10.2	9.9	30.3	32.1	31.3	31.4	31.5	28.3	26.6	25.8	30.2	0.6	0.4	0.3
	고	3,648	2,574	2,985	14.7	11.8	12.7	39.9	37.6	38.5	28.6	30.3	29.6	16.0	19.9	19.0	0.8	0.4	0.3

12) 평균점수가 높은 항목들을 3가지 제시하였음(이하 비행, 생활만족도 영역도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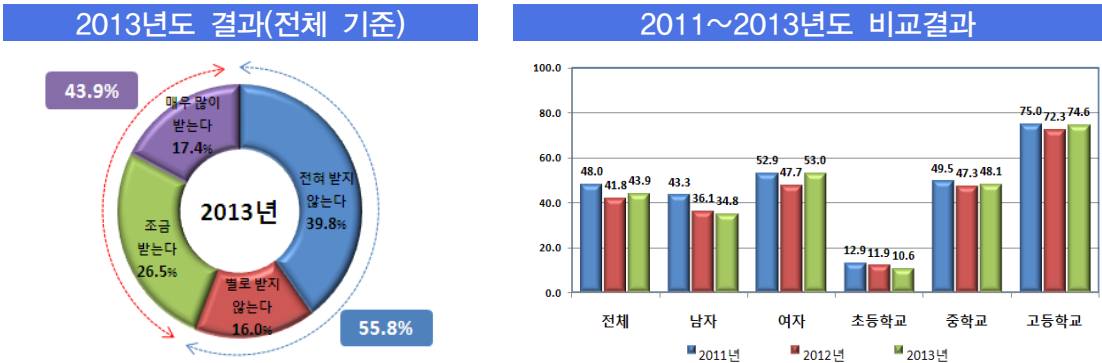
⑤ - 2 스트레스 -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3.9%가 '받는다', 55.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진로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3.9%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55.8%는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53.0%)의 경우에, 남학생(34.8%)보다 관련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74.6%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초등학교(10.6%)와 중학생(48.1%)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43.9%로 2012년(41.8%)에 비해 2.1%p 높게, 2011년(48.0%)에 비해 4.1%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매년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2013년에 53.0%로 2012년(47.7%) 대비 5.3%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표 III-2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0.8	16.8	17.4	27.2	25.0	26.5	16.9	17.5	16.0	34.5	40.3	39.8	0.7	0.4	0.3	
성별	남	4,874	4,494	4,692	17.8	13.8	12.5	25.5	22.3	22.3	17.4	17.9	16.0	38.7	45.6	48.9	0.7	0.4	0.3
	여	4,561	4,251	4,710	24.0	20.0	22.2	28.9	27.7	30.8	16.3	17.1	16.1	30.0	34.7	30.6	0.7	0.4	0.4
교급	초	2,943	3,185	3,157	4.6	3.7	2.9	8.3	8.2	7.7	14.9	14.4	14.8	71.6	73.4	74.2	0.6	0.3	0.4
	중	2,844	2,986	3,260	18.5	17.1	16.8	31.0	30.2	31.3	22.0	23.4	19.4	27.7	28.8	32.2	0.7	0.5	0.3
	고	3,648	2,574	2,985	35.6	32.8	33.3	39.4	39.5	41.3	14.5	14.6	13.6	9.8	12.7	11.6	0.7	0.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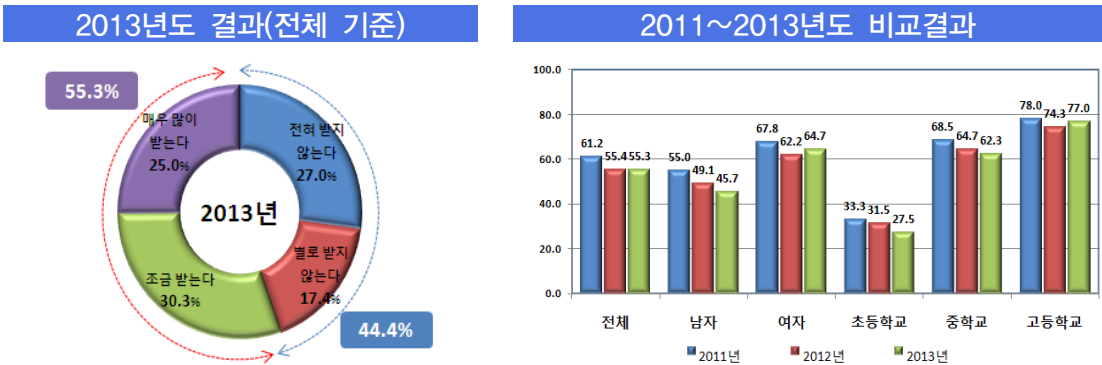
⑤ - 3 스트레스 -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5.3%가 '받는다', 44.4%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학업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응답자의 55.3%가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44.4%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64.7%)이 남학생(45.7%)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77.0%, 중학생 62.3%, 초등학생 27.5%로 교급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61.2%, 2012년 55.4%, 2013년 55.3%로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2012년(62.2%) 대비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2012년(74.3%)과 비교하여 27%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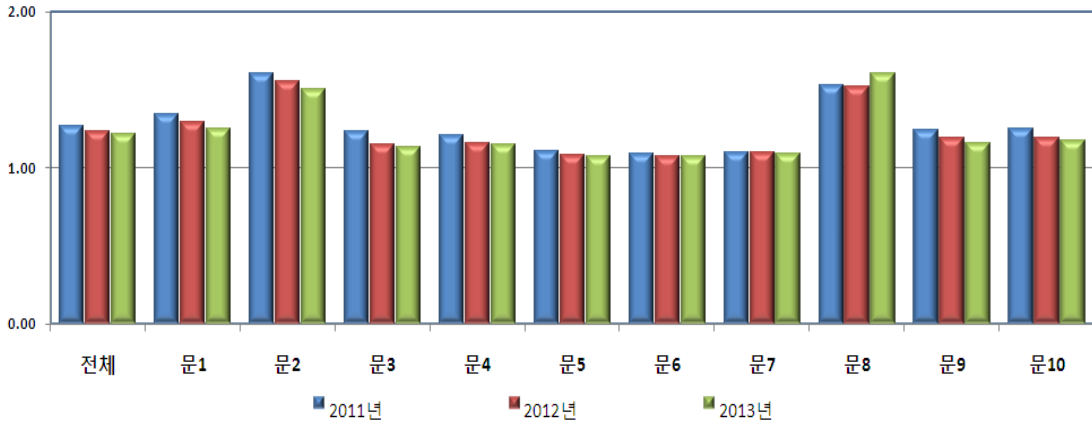
【그림 III -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표 III-2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0.2	25.5	25.0	31.0	29.9	30.3	17.6	18.4	17.4	20.7	25.9	27.0	0.6	0.3	0.3	
성별	남	4,874	4,494	4,692	26.0	21.6	19.1	29.0	27.5	26.6	19.2	19.2	18.8	25.2	31.4	35.2	0.5	0.4	0.3
	여	4,561	4,251	4,710	34.7	29.7	30.7	33.1	32.5	34.0	15.8	17.6	16.1	15.8	20.0	18.9	0.6	0.2	0.3
교급	초	2,943	3,185	3,157	12.8	11.5	9.2	20.5	20.0	18.3	23.2	22.2	20.9	43.2	46.1	51.4	0.3	0.3	0.3
	중	2,844	2,986	3,260	33.0	30.8	26.8	35.5	33.9	35.5	17.3	18.4	17.7	13.5	16.5	19.7	0.7	0.3	0.3
	고	3,648	2,574	2,985	42.1	36.7	39.6	35.9	37.6	37.4	13.2	13.7	13.5	8.1	11.6	9.2	0.7	0.3	0.2

⑥ 비행 - 항목별 평균

비행영역의 항목별 평균에서는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M=1.6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술을 마신 적이 있다(M=1.50)’,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M=1.25)’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흡연율과 음주율은 감소추세에 있음.



【그림 III-10】 2011~2013년도 비행의 항목별 평균

표 III-25 2011~2013년도 비행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34	1.29	1.25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60	1.55	1.50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23	1.15	1.13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21	1.16	1.15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1.11	1.08	1.07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09	1.07	1.07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10	1.10	1.09
8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1.53	1.52	1.60
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1.24	1.19	1.16
1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1.25	1.19	1.17
비행 영역(전체)		1.27	1.23	1.22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 영역의 항목별 차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영역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26>과 같다. 우선, 성별로 비교해 보면 성별변인의 경우 비행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비행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행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교급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흡연과 무단결석, 음란물 접촉, 도박 등의 항목은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높았고, 음주, 절도, 폭력, 갈취경험, 가출, 기물파손의 항목에서는 중학생의 점수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6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흡연		음주		절도		폭력		갈취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1.38 (0.93)	234.906 ***	1.60 (1.00)	113.837 ***	1.16 (0.53)	44.136 ***	1.21 (0.59)	153.931 ***	1.09 (0.47)	39.658 ***
	여자 (n=4,710)	1.13 (0.60)		1.40 (0.83)		1.10 (0.46)		1.08 (0.43)		1.04 (0.35)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1.03 (0.30)	268.384 ***	1.25 (0.62)	416.803 ***	1.09 (0.41)	15.367 ***	1.15 (0.51)	15.441 ***	1.05 (0.39)	9.602 ***
	중학교 (n=3,260)	1.26 (0.77)		1.40 (0.83)		1.16 (0.56)		1.18 (0.59)		1.09 (0.46)	
	고등학교 (n=2,985)	1.49 (1.05)		1.87 (1.13)		1.14 (0.51)		1.11 (0.46)		1.07 (0.40)	
거주지	서울 (n=1,539)	1.24 (0.76)	0.874	1.45 (0.86)	3.929 **	1.13 (0.45)	0.526	1.15 (0.54)	0.502	1.07 (0.47)	0.424
	광역시 (n=2,247)	1.24 (0.76)		1.48 (0.92)		1.12 (0.45)		1.14 (0.49)		1.06 (0.36)	
	시군 (n=5,616)	1.26 (0.81)		1.52 (0.94)		1.13 (0.53)		1.15 (0.53)		1.07 (0.42)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1.23 (0.76)	21.080 ***	1.47 (0.90)	24.103 ***	1.12 (0.49)	3.509 **	1.14 (0.50)	11.334 ***	1.06 (0.40)	2.214
	한부모가정 (n=840)	1.42 (0.96)		1.69 (1.06)		1.17 (0.57)		1.21 (0.62)		1.08 (0.46)	
	조손가정 (n=156)	1.31 (0.88)		1.66 (0.99)		1.17 (0.51)		1.27 (0.84)		1.12 (0.72)	
전체 M(SD)		1.25(0.79)		1.50(0.92)		1.13(0.50)		1.15(0.52)		1.07(0.42)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 접촉		도박		기물파손		비행(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1.08 (0.40)	4.015 **	1.10 (0.42)	9.014 ***	1.90 (1.28)	702.535 ***	1.26 (0.75)	250.324 ***	1.24 (0.60)	130.736 ***	1.30 (0.43)	430.435 ***
	여자 (n=4,710)	1.06 (0.40)		1.08 (0.44)		1.20 (0.57)		1.06 (0.42)		1.11 (0.46)		1.14 (0.34)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1.02 (0.27)	30.807 *** (ab,ac)	1.06 (0.34)	12.686 *** (ab, ac)	1.09 (0.47)	780.149 *** (ab,ac, bc)	1.04 (0.40)	128.093 *** (ab,ac, bc)	1.10 (0.43)	46.883 *** (ab,ac)	1.09 (0.27)	354.484 *** (ab,ac, bc)
	중학교 (n=3,260)	1.08 (0.43)		1.11 (0.47)		1.64 (1.09)		1.14 (0.55)		1.22 (0.60)		1.23 (0.41)	
	고등학교 (n=2,985)	1.10 (0.47)		1.09 (0.46)		2.11 (1.32)		1.30 (0.81)		1.20 (0.57)		1.35 (0.45)	
거주지	서울 (n=1,539)	1.08 (0.40)	0.417	1.10 (0.44)	1.023	1.63 (1.13)	4.096 **	1.14 (0.54)	2.259	1.16 (0.47)	1.081	1.21 (0.36)	0.339
	광역시 (n=2,247)	1.06 (0.38)		1.08 (0.37)		1.65 (1.09)		1.15 (0.58)		1.18 (0.55)		1.22 (0.36)	
	사군 (n=5,616)	1.07 (0.41)		1.09 (0.45)		1.58 (1.10)		1.17 (0.65)		1.18 (0.55)		1.22 (0.4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n=8,221)	1.06 (0.37)	22.026 *** (gh)	1.08 (0.41)	10.537 *** (gh)	1.59 (1.09)	11.302 *** (gh)	1.15 (0.60)	6.952 **	1.17 (0.52)	6.435 **	1.21 (0.38)	27.475 *** (gh)
	한부모가정 (n=840)	1.15 (0.55)		1.13 (0.49)		1.78 (1.19)		1.22 (0.75)		1.23 (0.65)		1.31 (0.45)	
	조손가정 (n=156)	1.12 (0.42)		1.19 (0.75)		1.57 (1.15)		1.26 (0.89)		1.24 (0.86)		1.29 (0.50)	
전체 M(SD)		1.07(0.40)		1.09(0.43)		1.60(1.10)		1.16(0.62)		1.17(0.54)		1.22(0.39)	

* α .05, ** α .01, *** α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거주지별로는 음주, 음란물 접촉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들 항목 모두 광역시에서 서울이나 시·군지역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가족구성별에서는 가출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흡연, 음주, 무단결석, 음란물 접촉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폭력, 갈취, 가출, 도박 항목은 조손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비행영역(전체)을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t=430.435, p<.001$),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54.484, p<.001$). 또한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F=27.475, p<.001$).

⑥ - 1 비행 - 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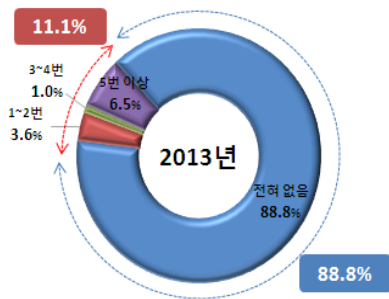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1.1%가 '있다', 88.8%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1.1%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88.8%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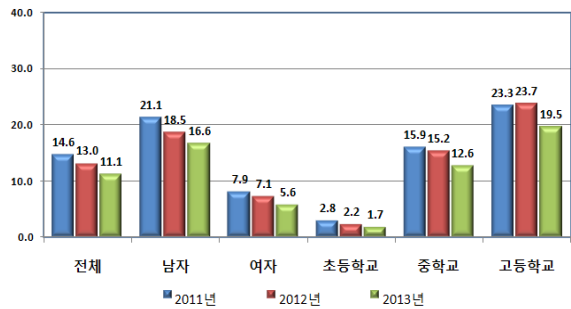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16.6%)이 여학생(5.6%)보다 흡연경험 비율이 약 3배 정도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1.7%에 불과한 반면 중학생(12.6%)으로 올라가면서 급증하였고 고등학생(19.5%)의 흡연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4.6%, 2012년 13.0%, 2013년 11.1%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2011년 23.3%에서 2012년에 23.7%로 0.4%p 높아졌고 다시 2013년도에는 19.5%로 2012년 대비 4.2%p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1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표 III-27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5.2	87.0	88.8	4.9	4.6	3.6	1.0	1.0	1.0	8.7	7.4	6.5	0.1	0.0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78.9	81.4	83.4	6.7	6.2	5.3	1.3	1.2	1.4	13.1	11.1	9.9	0.1	0.0	0.0
	여	4,561	4,251	4,710	92.0	92.9	94.3	3.0	2.9	1.9	0.8	0.7	0.6	4.1	3.5	3.1	0.0	0.0	0.1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97.1	97.7	98.2	2.3	1.7	1.1	0.2	0.3	0.3	0.3	0.2	0.3	0.1	0.0	0.1
	중	2,844	2,986	3,260	84.0	84.8	87.4	6.9	6.8	5.5	1.4	1.5	1.3	7.6	6.9	5.8	0.1	0.0	0.1
	고	3,648	2,574	2,985	76.7	76.2	80.5	5.4	5.6	4.3	1.5	1.2	1.3	16.4	16.9	13.9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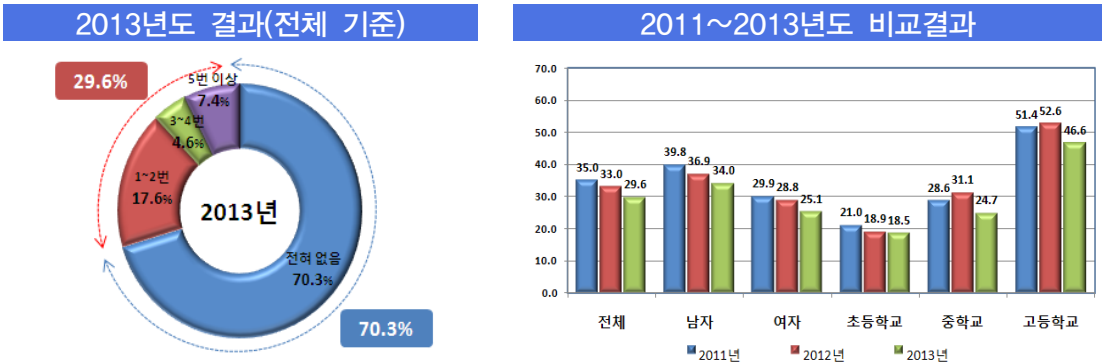
⑥ - 2 비행 - 음주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9.6%가 '있다', 70.3%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에 대해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29.6%, '전혀 없다'의 경우에는 70.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34.0%)이 여학생(25.1%)보다 음주경험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8.5%)에서 중학생(24.7%), 고등학생(46.6%)으로 올라갈수록 음주경험이 더 많았는데, 고등학생의 음주경험률은 초등학생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였다.

[연도별 추이] 2011년 35.0%, 2012년 33.0%, 2013년 29.6%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2011년 대비 2012년에 높아진 비율이 2013년도에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1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표 III-28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4.9	67.0	70.3	20.0	19.6	17.6	5.3	4.8	4.6	9.7	8.6	7.4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0.1	63.0	65.8	21.2	20.3	18.9	5.4	5.4	5.1	13.2	11.2	10.0	0.1	0.1	0.1
	여	4,561	4,251	4,710	70.0	71.2	74.8	18.8	18.9	16.3	5.1	4.0	4.0	6.0	5.9	4.8	0.0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78.9	80.9	81.4	16.6	13.9	14.7	2.3	2.6	2.1	2.1	2.4	1.7	0.1	0.1	0.1
	중	2,844	2,986	3,260	71.4	68.9	75.2	18.4	20.4	15.6	4.5	4.6	4.0	5.7	6.1	5.1	0.0	0.1	0.1
	고	3,648	2,574	2,985	48.5	47.4	53.3	24.1	25.7	22.8	8.3	7.7	7.9	19.0	19.2	15.9	0.1	0.0	0.1

⑥ - 3 비행 -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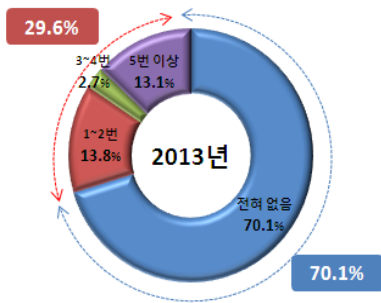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9.6%가 '있다', 70.1%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에 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9.6%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70.1%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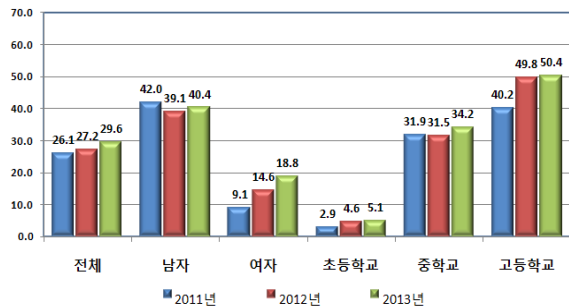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40.4%)이 여학생(18.8%)보다 음란물을 보았던 경험률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생은 5.1%에 불과하였으나 중학생(34.2%)의 경우 초등학교생과 비교해 6배 이상 높았고, 고등학생(50.4%)의 음란물 접촉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 26.1%, 2012년 27.2%, 2013년 29.6%로 나타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특히 여학생의 음란물 접촉 경험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3년도에는 50.4%를 나타내며 고등학생 절반이상이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 -13]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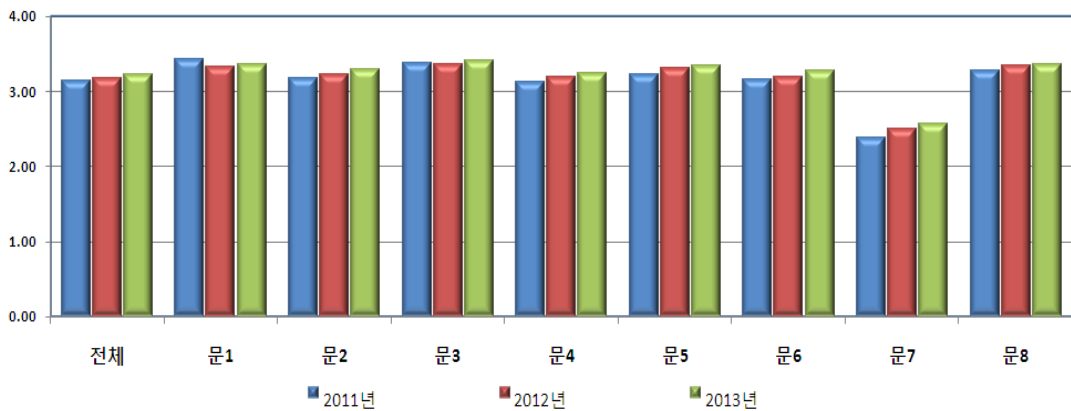
표 III-29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3.8	72.6	70.1	11.7	13.2	13.8	2.7	3.0	2.7	11.7	11.0	13.1	0.1	0.3	0.2	
성별	남	4,874	4,494	4,692	57.8	60.6	59.2	16.3	15.4	15.3	4.0	4.3	3.6	21.7	19.4	21.5	0.2	0.4	0.3
	여	4,561	4,251	4,710	90.8	85.3	81.0	6.8	10.8	12.3	1.3	1.6	1.8	1.0	2.2	4.7	0.1	0.1	0.2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97.0	95.2	94.7	2.1	3.5	3.6	0.4	0.5	0.4	0.4	0.6	1.1	0.0	0.2	0.1
	중	2,844	2,986	3,260	67.9	68.1	65.4	16.0	17.6	19.1	4.1	3.5	3.3	11.8	10.4	11.8	0.2	0.3	0.3
	고	3,648	2,574	2,985	59.6	49.9	49.3	16.0	20.0	18.7	3.5	5.3	4.5	20.7	24.5	27.2	0.2	0.3	0.2

(2) 긍정적 요인

① 생활만족도 - 항목별 평균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평균에서는 ‘친구와의 관계(M=3.4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님과의 관계(M=3.36)’, ‘건강(M=3.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항목에서 생활만족도의 평균점수가 더 높아졌음.



【그림 III-14】 2011~2013년도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표 III-30 2011~2013년도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1	부모님과의 관계	3.42	3.32	3.36
2	경제적인 생활수준	3.18	3.23	3.30
3	친구와의 관계	3.37	3.36	3.41
4	여가 생활	3.13	3.19	3.25
5	선생님과의 관계	3.23	3.31	3.35
6	학교생활	3.16	3.19	3.27
7	학업성적	2.38	2.50	2.56
8	건강	3.28	3.34	3.36
생활만족도(전체)		3.14	3.18	3.23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 III-31>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생활만족도의 모든 세부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별로는 학교생활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교생활 요인에서 서울지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세부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든 항목에서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3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수준		친구와의 관계		여가 생활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43 (0.85)	56.458 ***	3.39 (0.83)	93.696 ***	3.55 (0.76)	281.077 ***	3.40 (0.88)	219.021 ***
	여자 (n=4,710)	3.30 (0.91)		3.21 (0.91)		3.27 (0.88)		3.11 (0.98)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61 (0.77)	191.655 *** (ab,ac)	3.64 (0.73)	501.168 *** (ab,ac, bc)	3.57 (0.81)	97.447 *** (ab,ac, bc)	3.63 (0.79)	547.727 *** (ab,ac, bc)
	중학교 (n=3,260)	3.27 (0.91)		3.28 (0.86)		3.38 (0.85)		3.24 (0.92)	
	고등학교 (n=2,985)	3.21 (0.90)		2.97 (0.90)		3.28 (0.80)		2.87 (0.97)	
거주지	서울 (n=1,539)	3.32 (0.90)	2.295	3.28 (0.89)	1.868	3.41 (0.84)	0.002	3.26 (0.98)	0.005
	광역시 (n=2,247)	3.36 (0.86)		3.28 (0.86)		3.41 (0.79)		3.25 (0.94)	
	사군 (n=5,616)	3.38 (0.88)		3.32 (0.87)		3.41 (0.83)		3.25 (0.94)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40 (0.86)	51.839 *** (gh)	3.35 (0.84)	12.555 *** (gh)	3.43 (0.82)	18.249 *** (gh)	3.27 (0.94)	11.055 *** (gh)
	한부모가정 (n=840)	3.09 (0.99)		2.85 (0.98)		3.25 (0.87)		3.11 (0.98)	
	조손가정 (n=156)	-		3.21 (1.02)		3.31 (1.00)		3.18 (1.04)	
전체 M(SD)		3.36(0.88)		3.30(0.87)		3.41(0.83)		3.25(0.94)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적		건강		생활만족도 (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40 (0.85)	32,909 ***	3.37 (0.89)	104,358 ***	2.71 (1.10)	174,049 ***	3.46 (0.82)	136,404 ***	3.34 (0.63)	238.6 ***				
	여자 (n=4,710)	3.30 (0.88)		3.18 (0.93)		2.41 (1.08)		3.25 (0.88)		3.13 (0.68)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62 (0.77)	274,524 ***	3.55 (0.82)	304,923 ***	3.28 (0.95)	1487.321 ***	3.65 (0.72)	418,806 ***	3.57 (0.60)	835.316 ***				
	중학교 (n=3,260)	3.28 (0.91)		(ab,ac, bc)		3.25 (0.93)		(ab,ac, bc)		2.37 (1.03)		(ab,ac, bc)	3.36 (0.83)	(ab,ac, bc)	3.18 (0.64)
	고등학교 (n=2,985)	3.13 (0.82)		2.99 (0.91)		1.99 (0.89)		3.04 (0.89)		2.94 (0.59)					
거주지	서울 (n=1,539)	3.42 (0.82)	16,473 (df)	3.32 (0.88)	4,053 ** (df)	2.53 (1.08)	1.922	3.36 (0.84)	0.174	3.24 (0.66)	1.497				
	광역시 (n=2,247)	3.26 (0.92)		3.24 (0.92)		2.53 (1.08)		3.36 (0.84)		3.21 (0.65)					
	사군 (n=5,616)	3.36 (0.85)		3.27 (0.92)		2.58 (1.11)		3.36 (0.86)		3.24 (0.6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37 (0.85)	21,341 ***	3.30 (0.91)	32,055 ***	2.59 (1.10)	31,087 ***	3.38 (0.84)	21,437 ***	3.26 (0.66)	62,624 ***				
	한부모가정 (n=840)	3.17 (0.93)		(gh)		3.05 (0.95)		(gh)		2.28 (1.04)		(gh)	3.18 (0.93)	(gh)	3.00 (0.67)
	조손가정 (n=156)	3.26 (1.04)		3.07 (1.00)		2.53 (1.16)		3.29 (0.90)		-					
전체 M(SD)		3.35(0.86)		3.27(0.92)		2.56(1.10)		3.36(0.85)		3.23(0.66)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생활만족도 영역 전체를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t=238.6, p<.001$)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F=835.316, p<.001$)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수준은 더 낮아졌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F=1.497, p>.05$),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t=62.624, p<.001$), 양부모가정 내 아동·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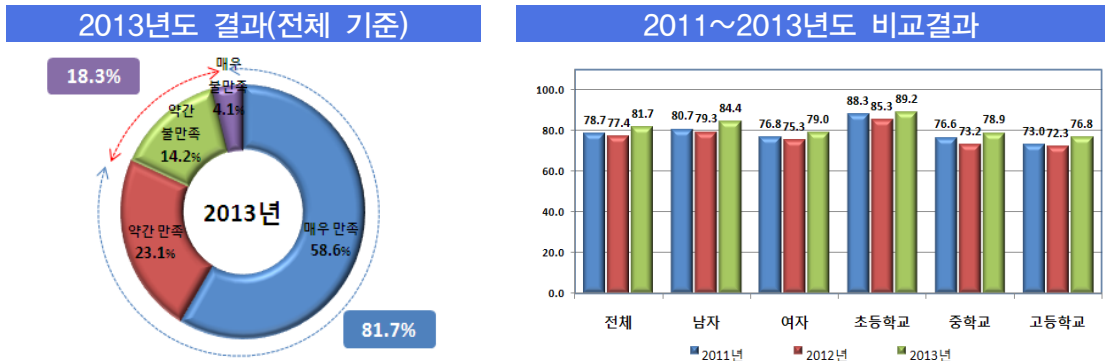
① - 1 생활만족도 -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1.7%가 ‘만족한다’고 응답**

○ ‘부모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1.7%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18.3%는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남학생(84.4%)이 여학생(79.0%)보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생이 89.2%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78.9%), 고등학생(76.8%)의 순으로 나타나 교급이 올라갈수록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더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1.7%로 2012년(77.4%)에 비해 4.3%p, 2011년(78.7%)에 비해 3.0%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교급별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2013년도 응답률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 -1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표 III-32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0	4.4	4.1	15.3	14.5	14.2	25.0	23.5	23.1	53.7	53.9	58.6	1.9	3.8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3.9	4.3	3.9	13.5	12.3	11.7	24.9	22.8	21.6	55.8	56.5	62.8	1.9	4.1	0.0
	여	4,561	4,251	4,710	4.2	4.4	4.3	17.2	16.8	16.6	25.2	24.2	24.6	51.6	51.1	54.4	1.8	3.4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5	2.7	3.1	7.2	7.2	7.7	17.0	17.1	15.0	71.3	68.2	74.2	2.1	4.8	0.1
	중	2,844	2,986	3,260	4.1	5.2	4.9	17.5	18.1	16.1	27.5	25.9	26.0	49.1	47.3	52.9	1.8	3.6	0.1
	고	3,648	2,574	2,985	5.2	5.4	4.3	20.1	19.5	18.9	29.7	28.6	28.6	43.3	43.7	48.2	1.8	2.7	0.0

① - 2 생활만족도 - 친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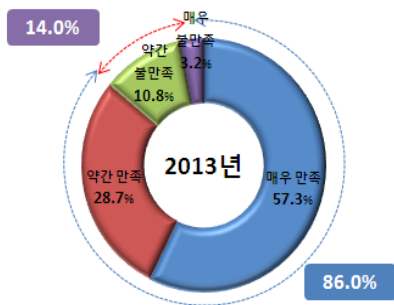
**‘친구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6.0%가 ‘만족한다’고 응답**

○ ‘친구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86.0%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14.0%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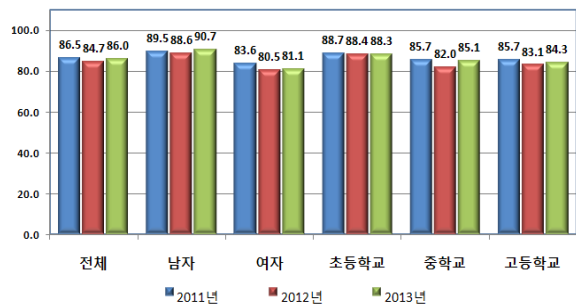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81.1%)보다 남학생(90.7%)의 경우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88.3%)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생(85.1%), 고등학생(8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6.0%로 2012년(84.7%)에 비해 1.3%p 높게, 2011년(86.5%)에 비해 0.5%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응답률이 2013년에 90.7%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나, 매년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16】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표 III-33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연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3	3.8	3.2	10.0	11.5	10.8	33.2	30.0	28.7	53.3	54.7	57.3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2.9	3.4	2.6	7.5	7.9	6.5	31.0	27.5	24.4	58.5	61.1	66.3	0.1	0.1	0.1
	여	4,561	4,251	4,710	3.7	4.1	3.7	12.7	15.3	15.0	35.7	32.6	32.8	47.9	47.9	48.3	0.1	0.1	0.2
교급	초	2,943	3,185	3,157	3.7	3.6	3.3	7.3	7.9	8.2	22.0	20.1	17.9	66.7	68.3	70.4	0.2	0.2	0.2
	중	2,844	2,986	3,260	3.8	4.4	3.7	10.5	13.4	11.1	33.1	30.9	29.9	52.6	51.1	55.2	0.0	0.1	0.2
	고	3,648	2,574	2,985	2.5	3.1	2.5	11.8	13.7	13.1	42.5	41.1	38.7	43.2	42.0	45.6	0.0	0.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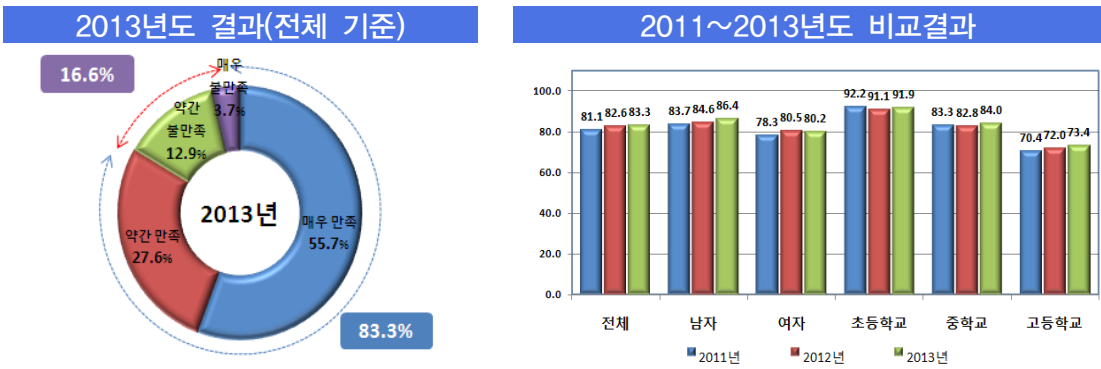
① - 3 생활만족도 - 건강

‘건강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3.3%가 ‘만족한다’, 16.6%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 ‘건강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3%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16.6%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만족한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6.4%)이 여학생(80.2%)보다 건강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91.9%)에서 중학교(84.0%), 고등학교(73.4%)으로 갈수록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점점 더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1년(81.1%), 2012년(82.6%), 2013년은 83.3%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응답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3년(80.2%)로 2012년(80.5%) 대비 0.3%p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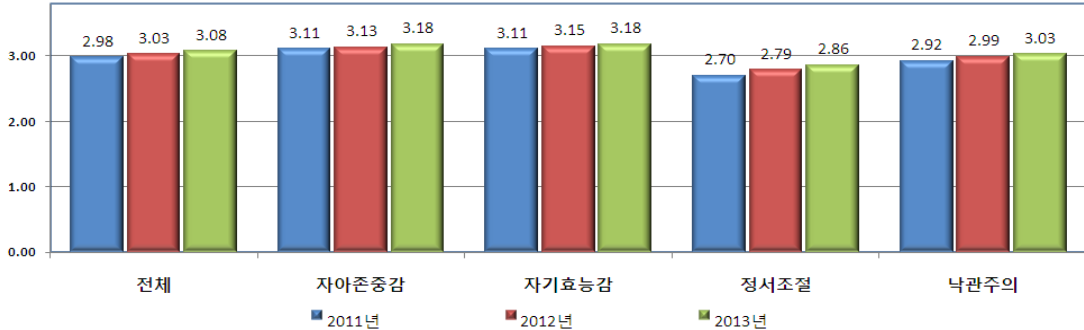
【그림 III-17】 건강에 대한 만족도

표 III-34 건강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년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3	4.3	3.7	14.6	13.0	12.9	29.6	27.3	27.6	51.5	55.3	55.7	0.0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8	4.5	3.5	12.5	10.7	10.1	28.0	24.1	23.6	55.7	60.5	62.8	0.1	0.1	0.0
	여	4,561	4,251	4,710	4.8	4.1	4.0	16.9	15.3	15.7	31.3	30.7	31.5	47.0	49.8	48.7	0.0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7	3.1	2.9	5.1	5.7	5.2	17.9	17.3	16.5	74.3	73.8	75.4	0.1	0.1	0.1
	중	2,844	2,986	3,260	3.6	4.6	3.2	13.1	12.5	12.7	31.4	30.3	29.4	51.9	52.5	54.6	0.0	0.1	0.1
	고	3,648	2,574	2,985	6.1	5.5	5.3	23.5	22.4	21.3	37.7	36.3	37.3	32.7	35.7	36.1	0.0	0.0	0.0

②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자아존중감(M=3.18)’, ‘자기효능감(M=3.18)’이 가장 높았으며, ‘낙관주의(M=3.03)’, ‘정서조절(M=2.86)’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및 낙관주의 등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그림 III-18】 2011~2013년도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평균

표 III-35 2011~2013년도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자아존중감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3.09	3.11	3.16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한다	3.00	3.03	3.10
	3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3.20	3.22	3.26
	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11	3.13	3.18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 한다	3.13	3.16	3.21
소계			3.11	3.13	3.18
자기효능감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3.22	3.25	3.26
	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3.09	3.14	3.17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02	3.06	3.10
소계			3.11	3.15	3.18
정서조절	1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2.59	2.69	2.75
	2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2.73	2.81	2.88
	3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2.79	2.87	2.95
소계			2.70	2.79	2.86
낙관주의	1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2.73	2.83	2.89
	2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 한다	2.97	3.02	3.06
	3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3.07	3.11	3.14
소계			2.92	2.99	3.03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전체)			2.98	3.03	3.0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I-36>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 요인별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차이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남녀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교급별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요인의 평균점수는 더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서울지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가족구성별에서는 모든 요인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는 아래 <표 III-36>과 같다.

표 III-36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23 (0.72)	40,586 ***	3.22 (0.68)	37,079 ***	2.98 (0.76)	235,794 ***	3.11 (0.72)	100,498 ***	3.14 (0.63)	117,387 ***
	여자 (n=4,710)	3.14 (0.74)		3.13 (0.70)		2.74 (0.81)		2.95 (0.76)		2.99 (0.68)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32 (0.79)	98,771 *** (ab,ac,bc)	3.38 (0.71)	228,016 *** (ab,ac,bc)	3.17 (0.81)	473,984 *** (ab,ac,bc)	3.28 (0.78)	304,587 *** (ab,ac,bc)	3.29 (0.69)	333,197 *** (ab,ac,bc)
	중학교 (n=3,260)	3.15 (0.72)		3.13 (0.69)		2.81 (0.77)		2.97 (0.73)		3.02 (0.64)	
	고등학교 (n=2,985)	3.07 (0.65)		3.02 (0.63)		2.58 (0.70)		2.84 (0.65)		2.88 (0.57)	
거주지	서울 (n=1,539)	3.20 (0.73)	8,050 ***	3.22 (0.70)	5,263 ***	2.88 (0.80)	0,351	3.06 (0.75)	2,111	3.09 (0.66)	2,404 **
	광역시 (n=2,247)	3.21 (0.72)		3.19 (0.68)		2.86 (0.79)		3.05 (0.72)		3.07 (0.64)	
	사군 (n=5,616)	3.17 (0.74)		3.16 (0.70)		2.86 (0.80)		3.02 (0.75)		3.05 (0.6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21 (0.72)	29,415 *** (gh,gi)	3.19 (0.69)	25,303 *** (gh)	2.88 (0.79)	28,976 *** (gh)	3.05 (0.74)	29,873 *** (gh)	3.08 (0.65)	35,671 *** (gh,gi)
	한부모가정 (n=840)	3.03 (0.76)		3.03 (0.68)		2.67 (0.82)		2.86 (0.75)		2.90 (0.66)	
	조손가정 (n=156)	3.02 (0.86)		3.07 (0.79)		2.76 (0.84)		2.93 (0.84)		2.95 (0.74)	
전체 M(SD)		3.18(0.73)		3.18(0.69)		2.86(0.80)		3.03(0.74)		3.08(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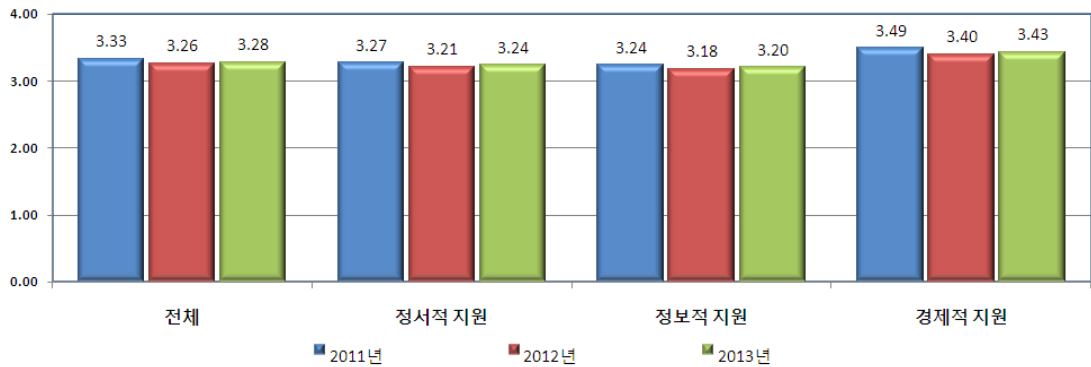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 가족영역

(1) 부모의 지원 - 항목별 평균

부모의 지원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경제적 지원(M=3.43)'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지원(M=3.24)', '정보적 지원(M=3.20)'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모두 2012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음. 즉,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원은 2012년에 증가하였음.



【그림 III -19】 2011~2013년도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평균

표 III-37 2011~2013년도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정서적 지원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3.23	3.17	3.21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3.22	3.17	3.19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3.40	3.32	3.35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3.17	3.12	3.16
	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3.34	3.28	3.30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3.26	3.20	3.24
소계			3.27	3.21	3.24
정보적 지원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3.26	3.19	3.21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3.28	3.22	3.23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3.12	3.09	3.09
	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3.31	3.24	3.26
소계			3.24	3.18	3.20
경제적 지원	11	용돈을 주신다	3.37	3.27	3.31
	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3.58	3.48	3.50
	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3.62	3.51	3.53
	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3.41	3.33	3.38
소계			3.49	3.40	3.43
부모의 지원 영역(전체)			3.33	3.26	3.2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지원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I-38>과 같다. 먼저 부모의 지원의 세부요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의 경우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졌다.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교급별($F=94.727, p<.001$), 가족구성별($t=32.394, p<.001$)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졌고, 광역시가 서울이나 시·군 지역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8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부모의 지원(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30 (0.72)	60,086 ***	3.26 (0.75)	63,515 ***	3.44 (0.61)	1,864 ***	3.33 (0.61)	46,124 ***
	여자 (n=4,710)	3.18 (0.75)		3.14 (0.79)		3.42 (0.60)		3.25 (0.63)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52 (0.68)	371,193 *** (ab,ac,bc)	3.50 (0.69)	483,232 *** (ab,ac,bc)	3.55 (0.60)	94,727 *** (ab,ac)	3.52 (0.59)	391.24 *** (ab,ac,bc)
	중학교 (n=3,260)	3.16 (0.74)		3.16 (0.75)		3.39 (0.61)		3.24 (0.62)	
	고등학교 (n=2,985)	3.04 (0.71)		2.92 (0.75)		3.35 (0.59)		3.11 (0.58)	
거주지	서울 (n=1,539)	3.23 (0.73)	1,033	3.22 (0.76)	1,033	3.41 (0.61)	1,146	3.29 (0.61)	0,559
	광역시 (n=2,247)	3.26 (0.74)		3.20 (0.77)		3.44 (0.60)		3.30 (0.63)	
	사군 (n=5,616)	3.24 (0.74)		3.19 (0.77)		3.43 (0.61)		3.29 (0.62)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27 (0.73)	40,655 ***	3.23 (0.76)	56,442 ***	3.45 (0.59)	32,394 ***	3.32 (0.61)	55,41 ***
	한부모가정 (n=840)	3.04 (0.77)		2.94 (0.82)		3.28 (0.63)		3.09 (0.65)	
전체 M(SD)		3.24(0.75)		3.20(0.77)		3.43(0.61)		3.28(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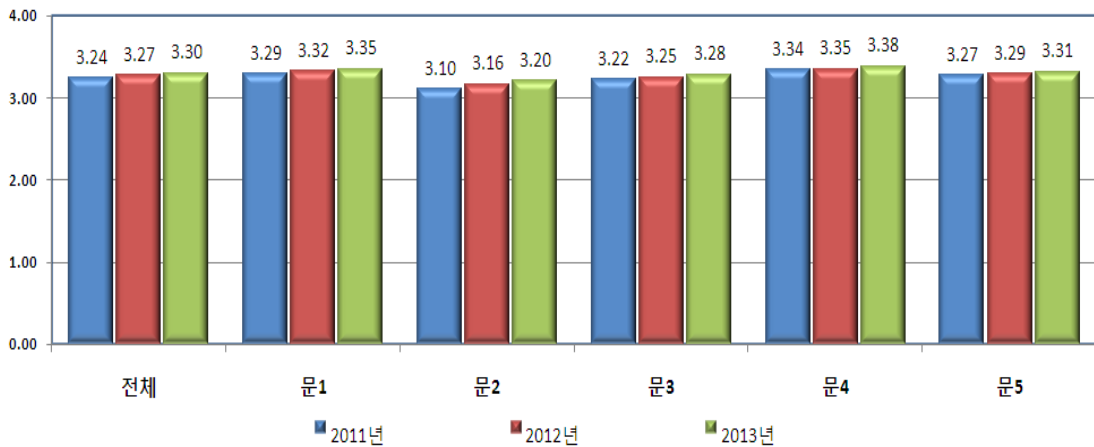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주1: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주2: 가족구성의 조손가정은 무응답으로 처리

(2) 가족관계 질 - 항목별 평균

가족관계 질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M=3.38)’가 가장 높았고,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M=3.3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M=3.31)’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2012년에 비해 더 높아져, 2013년의 경우 가족관계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0】 2011~2013년도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표 III-39 2011~2013년도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3.29	3.32	3.35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3.10	3.16	3.20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	3.22	3.25	3.28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3.34	3.35	3.38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3.27	3.29	3.31	
가족관계 질 영역(전체)		3.24	3.27	3.30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 분석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40>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 대해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는 낮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항목의 경우에는 성별($t=37.984, p<.05$), 교급별 ($F=264.487, p<.001$) 및 가족구성별($F=40.811, p<.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서로 아껴줌		함께 시간을 보냄		서로 의지하고 도와줌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39 (0.72)	24.797 ***	3.24 (0.84)	15.807 ***	3.33 (0.77)	37.984 ***
	여자 (n=4,710)	3.31 (0.72)		3.17 (0.88)		3.23 (0.80)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56 (0.68)	217.269 *** (ab,ac,bc)	3.49 (0.77)	315.987 *** (ab,ac,bc)	3.53 (0.74)	264.487 *** (ab,ac,bc)
	중학교 (n=3,260)	3.28 (0.75)		3.15 (0.85)		3.23 (0.78)	
	고등학교 (n=2,985)	3.21 (0.71)		2.96 (0.88)		3.09 (0.78)	
거주지	서울 (n=1,539)	3.35 (0.73)	0.656	3.22 (0.85)	0.692	3.29 (0.79)	2.049
	광역시 (n=2,247)	3.37 (0.73)		3.21 (0.86)		3.31 (0.79)	
	사군 (n=5,616)	3.35 (0.72)		3.20 (0.86)		3.27 (0.79)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38 (0.71)	42.318 *** (gh)	3.23 (0.85)	53.255 *** (gh)	3.31 (0.77)	40.811 *** (gh)
	한부모가정 (n=840)	3.15 (0.78)		2.92 (0.93)		3.06 (0.86)	
	조손가정 (n=156)	3.20 (0.75)		3.15 (1.05)		3.14 (0.85)	
전체 M(SD)		3.35(0.72)		3.20(0.86)		3.28(0.79)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친밀함		서로에게 관심이 많음		가족관계 질 (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40 (0.76)	5.114	3.36 (0.77)	34.385 ***	3.35 (0.69)	27.251 ***
	여자 (n=4,710)	3.37 (0.76)		3.27 (0.81)		3.27 (0.71)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59 (0.69)	185.551 *** (ab,ac,bc)	3.53 (0.74)	183.706 *** (ab,ac,bc)	3.54 (0.64)	295.224 *** (ab,ac,bc)
	중학교 (n=3,260)	3.32 (0.77)		3.25 (0.81)		3.24 (0.70)	
	고등학교 (n=2,985)	3.24 (0.76)		3.17 (0.78)		3.13 (0.69)	
거주지	서울 (n=1,539)	3.39 (0.74)	0.067	3.33 (0.78)	0.773	3.32 (0.70)	0.726
	광역시 (n=2,247)	3.39 (0.76)		3.32 (0.78)		3.32 (0.71)	
	사군 (n=5,616)	3.38 (0.76)		3.31 (0.80)		3.30 (0.7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41 (0.74)	36.884 *** (gh,gi)	3.34 (0.78)	34.108 *** (gh)	3.33 (0.69)	51.894 *** (gh)
	한부모가정 (n=840)	3.19 (0.84)		3.11 (0.85)		3.08 (0.75)	
	조손가정 (n=156)	3.22 (0.99)		3.22 (0.99)		3.19 (0.81)	
전체 M(SD)		3.38(0.76)		3.31(0.79)		3.31(0.70)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항목에서는 교급별($F=185.551, p<.001$) 및 가족구성별($F=36.884, p<.001$)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는 낮았고,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항목의 경우에는 성별($t=34.385, p<.001$), 교급별($F=183.706, p<.001$), 가족구성별($F=34.108, p<.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즉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졌으며, 양부모가정이 다른 유형의 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질의 각 항목을 합산한 전체의 경우,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 변인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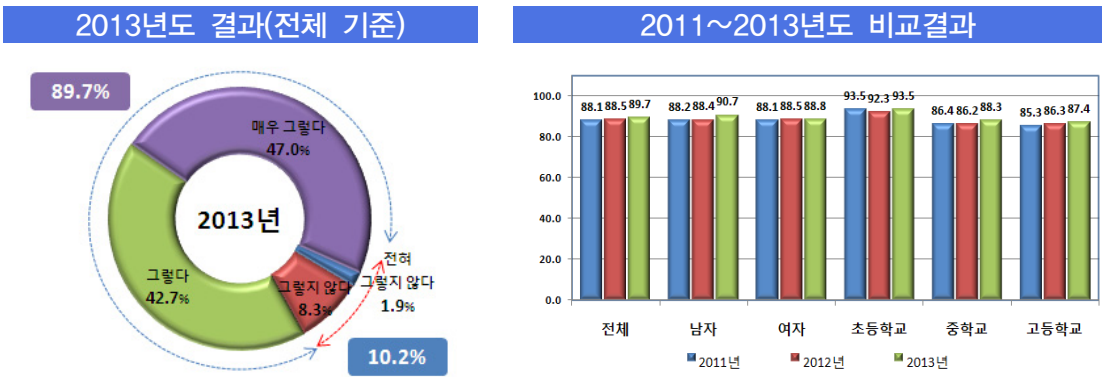
(2) - 1 가족관계 질13)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9.7%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대해 89.7%가 ‘그렇다’, 10.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의 경우 남학생(90.7%)과 여학생(88.8%)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93.5%)의 경우가 가장 높고, 중학생(88.3%)과 고등학생(87.4%)의 응답률은 거의 비슷했다.

[연도별 추이] 2011년 88.1%, 2012년 88.5%, 2013년 89.7%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2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표 III-4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5	2.3	1.9	9.3	9.2	8.3	44.8	42.6	42.7	43.3	45.9	47.0	0.1	0.1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2.8	2.7	2.0	8.9	8.8	7.2	43.6	41.3	40.8	44.6	47.1	49.9	0.1	0.1	0.0
	여	4,561	4,251	4,710	2.3	1.9	1.8	9.6	9.5	9.3	46.1	44.0	44.7	42.0	44.5	44.1	0.1	0.1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1.5	1.5	1.6	5.0	6.0	4.8	32.6	30.5	29.7	60.9	61.8	63.8	0.1	0.2	0.1
	중	2,844	2,986	3,260	2.9	2.7	2.2	10.8	11.1	9.5	47.9	46.9	46.8	38.5	39.3	41.5	0.0	0.1	0.0
	고	3,648	2,574	2,985	3.1	2.9	1.9	11.5	10.8	10.7	52.2	52.5	52.1	33.1	33.8	35.3	0.1	0.0	0.0

13) 평균점수가 높은 세 개의 항목을 제시함

(2) - 2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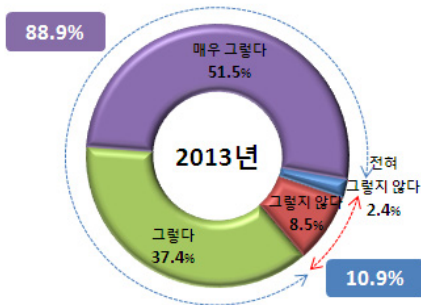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8.9%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88.9%가 ‘그렇다’, 10.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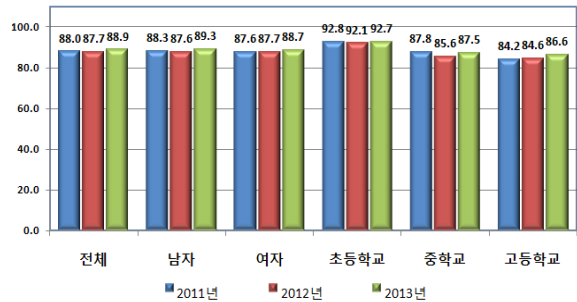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89.3%)과 여학생(88.7%)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92.7%)에서 중학생(87.5%), 고등학생(86.6%)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88.0%) 대비 2012년도(87.7%)에 0.3%p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88.9%)에 다시 1.2%p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과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하락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22】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표 III-42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7	2.7	2.4	9.2	9.5	8.5	40.1	37.7	37.4	47.9	50.0	51.5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2.9	2.9	2.4	8.7	9.3	8.3	41.1	37.4	36.3	47.2	50.2	53.0	0.2	0.1	0.1
	여	4,561	4,251	4,710	2.5	2.5	2.5	9.8	9.7	8.8	39.0	38.0	38.6	48.6	49.7	50.1	0.1	0.1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1.6	1.4	1.8	5.6	6.3	5.4	28.6	27.3	25.4	64.2	64.8	67.3	0.1	0.2	0.1
	중	2,844	2,986	3,260	2.5	3.3	2.8	9.6	11.0	9.7	43.5	41.0	40.5	44.3	44.6	47.0	0.1	0.1	0.1
	고	3,648	2,574	2,985	3.8	3.6	2.7	11.8	11.8	10.6	46.7	46.7	46.8	37.5	37.9	39.8	0.2	0.0	0.1

(2) - 3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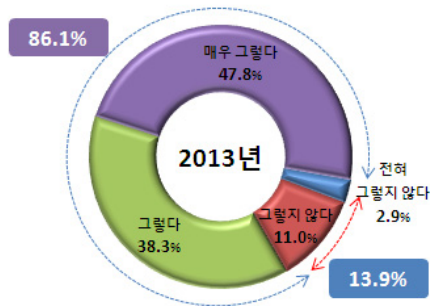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6.1%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6.1%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3.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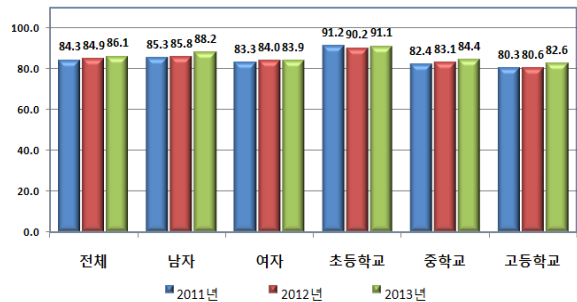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가족 간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은, 여학생(83.9%)보다 남학생(88.2%)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1.1%)에서 중학생(84.4%), 고등학생(82.6%)으로 올라갈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84.3%, 2012년 84.9%, 2013년 86.1%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84.0%) 대비 2013년(83.9%)에 0.1%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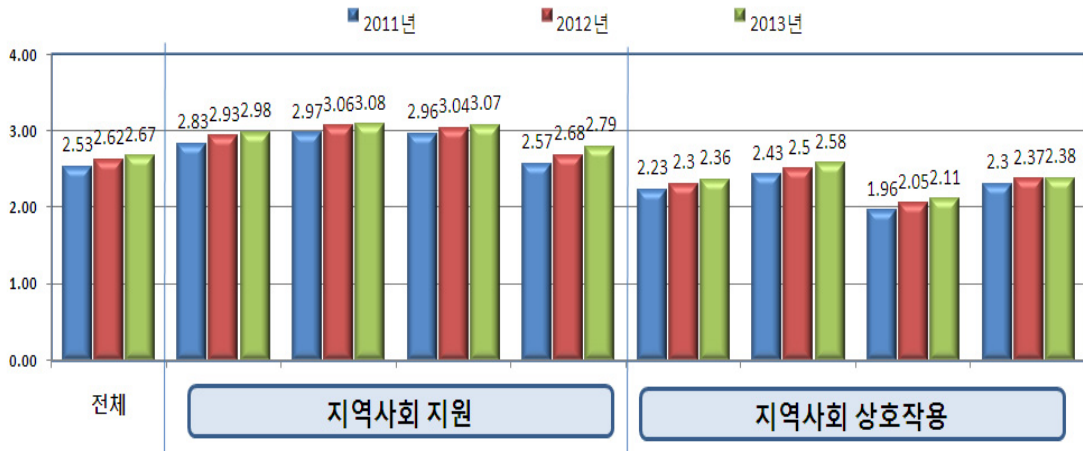
【그림 III-2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표 III-4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2	3.4	2.9	12.4	11.5	11.0	39.4	38.0	38.3	44.9	46.9	47.8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2	3.4	2.8	11.5	10.7	8.9	39.5	37.7	37.9	45.8	48.1	50.3	0.1	0.1	0.1
	여	4,561	4,251	4,710	3.2	3.4	3.0	13.5	12.5	13.1	39.3	38.4	38.6	44.0	45.6	45.3	0.1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2	2.7	2.4	6.6	7.0	6.4	29.6	29.3	27.7	61.6	60.9	63.4	0.1	0.1	0.1
	중	2,844	2,986	3,260	3.2	3.7	3.4	14.4	13.1	12.1	40.9	41.1	41.4	41.5	42.0	43.0	0.0	0.1	0.1
	고	3,648	2,574	2,985	4.0	4.0	2.8	15.6	15.3	14.5	46.1	45.3	46.1	34.2	35.3	36.5	0.2	0.0	0.0

3) 지역사회 영역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지역사회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지역사회 지원(M=2.98)’, ‘지역사회 상호작용(M=2.36)’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3년의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지역사회 지원 및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4】 2011~2013년도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표 III-44 2011~2013년도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지역사회 지원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2.97	3.06	3.08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96	3.04	3.07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2.57	2.68	2.79
소계		2.83	2.93	2.98
지역사회 상호작용	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2.43	2.50	2.58
	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1.96	2.05	2.11
	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2.30	2.37	2.38
소계		2.23	2.30	2.36
지역사회 영역(전체)		2.53	2.62	2.6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I-45>와 같다. 먼저 지역사회 지원의 경우, 성별($t=136.263, p<.001$), 교급별($F=423.396, p<.001$), 가족구성별($F=19.834, p<.001$) 각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M=3.08$)이 여학생($M=2.87$)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초등학교($M=3.29$)에서 중($M=2.96$)·고등학교($M=2.67$)으로 갈수록 평균 점수가 더 낮아졌다. 또한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다른 유형의 가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상호작용에서는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았고,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각 세부 요인별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I-4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45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 상호작용		지역사회 영역(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08 (0.83)	136.263 ***	2.38 (0.92)	10.509 ***	2.73 (0.76)	75.355 ***
	여자 (n=4,710)	2.87 (0.89)		2.33 (0.81)		2.60 (0.73)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29 (0.80)	423.396*** (ab,ac,bc)	2.56 (0.92)	178.709*** (ab,ac,bc)	2.92 (0.73)	396.769*** (ab,ac,bc)
	중학교 (n=3,260)	2.96 (0.84)		2.34 (0.86)		2.65 (0.73)	
	고등학교 (n=2,985)	2.67 (0.85)		2.15 (0.76)		2.41 (0.68)	
거주지	서울 (n=1,539)	2.98 (0.88)	0.032	2.34 (0.87)	0.497	2.66 (0.76)	0.222
	광역시 (n=2,247)	2.97 (0.88)		2.36 (0.89)		2.66 (0.76)	
	사군 (n=5,616)	2.98 (0.86)		2.36 (0.85)		2.67 (0.73)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2.99 (0.87)	19.834 *** (gh)	2.37 (0.87)	13.178 *** (gh)	2.68 (0.75)	21.796 *** (gh)
	한부모가정 (n=840)	2.80 (0.89)		2.21 (0.81)		2.51 (0.73)	
	조손가정 (n=156)	2.99 (0.77)		2.43 (0.88)		2.71 (0.71)	
전체 M(SD)		2.98(0.87)		2.36(0.86)		2.67(0.74)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3) -1 지역사회 지원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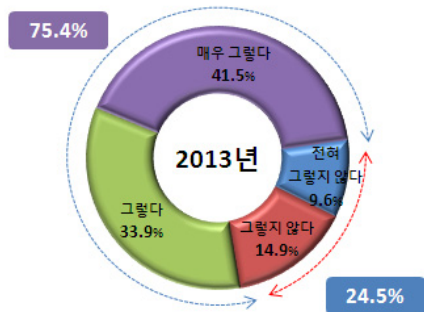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5.4%가 ‘그렇다’고 응답**

○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24.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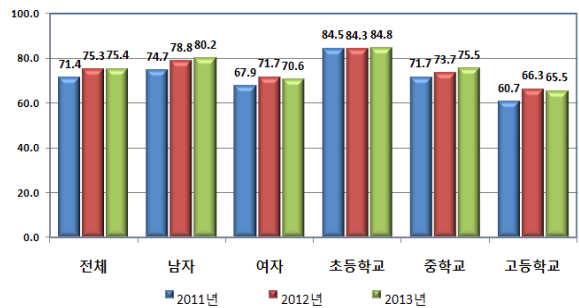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70.6%)보다 남학생(80.2%)의 경우에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4.8%)에서 고등학생(65.5%)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1년(71.4%), 2012년(75.3%), 2013년은 75.4%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은 2012년(71.7%) 대비 2013년(70.6%)에 1.1%p가 낮게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2012년(66.3%) 대비 2013년(65.5%)에 0.8%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25】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표 III-46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1.2	8.8	9.6	17.3	15.7	14.9	35.3	35.6	33.9	36.1	39.7	41.5	0.0	0.1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10.3	7.7	7.8	15.0	13.3	12.0	37.5	36.4	34.2	37.2	42.4	46.0	0.0	0.1	0.0
	여	4,561	4,251	4,710	12.2	9.9	11.4	19.8	18.3	17.9	33.0	34.8	33.5	34.9	36.9	37.1	0.0	0.1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6.5	6.3	6.1	9.0	9.3	9.2	32.3	29.6	26.8	52.2	54.7	58.0	0.0	0.1	0.0
	중	2,844	2,986	3,260	10.1	9.0	9.0	18.2	17.3	15.5	37.4	39.8	38.6	34.3	33.9	36.9	0.0	0.0	0.1
	고	3,648	2,574	2,985	15.9	11.6	14.0	23.3	21.9	20.4	36.2	38.3	36.3	24.5	28.0	29.2	0.1	0.2	0.0

14) 각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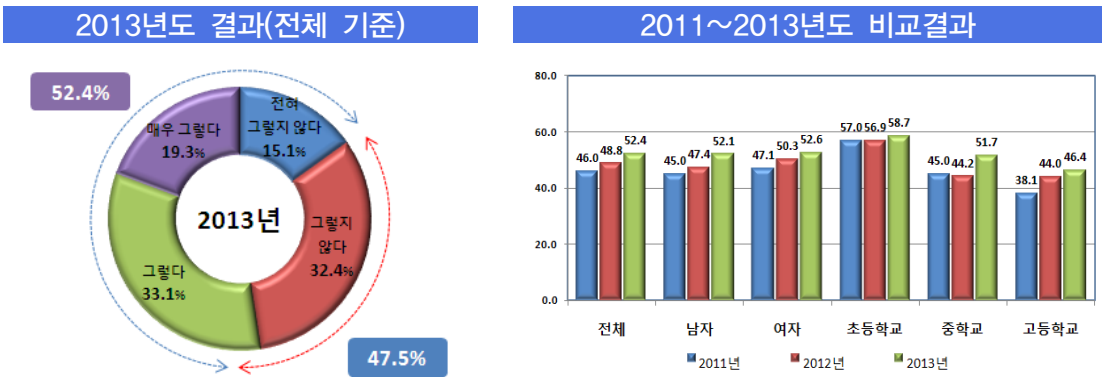
3) - 2 지역사회 상호작용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는 52.4%, ‘그렇지 않다’는 47.5%가 응답**

○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52.4%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47.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학생(52.6%)의 경우에 남학생(52.1%)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초등학교가 58.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51.7%), 고등학생(4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46.0%), 2012년(48.8%), 2013년은 52.4%로 매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2년(44.2%)과 비교해 볼 때 7.5%p의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 -26】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표 III-47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8.2	16.6	15.1	35.7	34.4	32.4	31.4	31.3	33.1	14.6	17.5	19.3	0.1	0.2	0.2	
성별	남	4,874	4,494	4,692	20.0	18.6	16.7	34.9	33.8	31.0	29.3	28.8	31.5	15.7	18.6	20.6	0.1	0.3	0.2
	여	4,561	4,251	4,710	16.1	14.5	13.4	36.6	35.1	33.8	33.6	33.9	34.6	13.5	16.4	18.0	0.1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13.9	14.7	14.5	29.1	28.1	26.7	33.2	31.2	31.8	23.8	25.7	26.9	0.1	0.3	0.1
	중	2,844	2,986	3,260	18.0	16.6	14.7	37.0	39.0	33.3	31.5	30.7	33.3	13.5	13.5	18.4	0.0	0.2	0.3
	고	3,648	2,574	2,985	21.7	18.9	16.1	40.1	36.9	37.4	29.9	31.9	34.1	8.2	12.1	12.3	0.2	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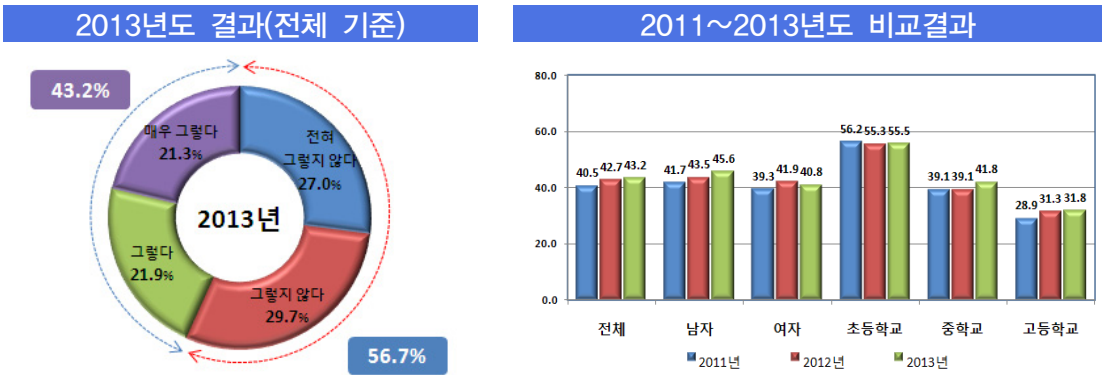
3) - 3 지역사회 상호작용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의 응답률은 43.2%, ‘그렇지 않다’는 56.7%로 응답**

○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3.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56.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45.6%)이 여학생(40.8%)보다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55.5%)에서 고등학교(31.8%)로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낮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 40.5%, 2012년 42.7%, 2013년 43.2%로 매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41.9%) 대비 2013년(40.8%)에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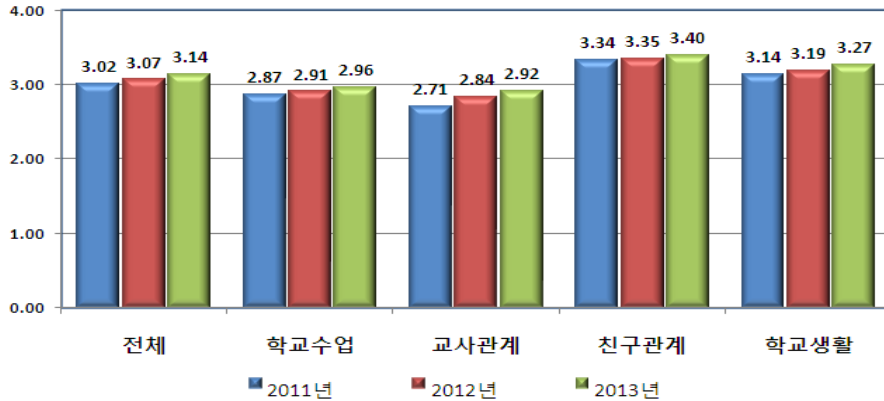
【그림 III-27】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표 III-48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9.6	27.8	27.0	29.8	29.4	29.7	21.7	21.1	21.9	18.8	21.6	21.3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1.2	29.7	28.6	27.1	26.6	25.7	22.1	20.6	22.6	19.6	22.9	23.0	0.1	0.2	0.1
	여	4,561	4,251	4,710	27.9	25.7	25.4	32.8	32.3	33.7	21.3	21.7	21.2	18.0	20.2	19.6	0.0	0.1	0.1
급별	초	2,943	3,185	3,157	20.5	22.8	22.7	23.2	21.7	21.6	25.2	22.0	21.4	31.0	33.3	34.1	0.0	0.2	0.2
	중	2,844	2,986	3,260	31.6	27.9	26.1	29.3	32.8	32.0	21.9	21.5	23.6	17.2	17.6	18.2	0.0	0.1	0.1
	고	3,648	2,574	2,985	35.4	33.7	32.5	35.6	35.0	35.7	18.7	19.7	20.6	10.2	11.6	11.2	0.1	0.0	0.0

4) 학교영역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학교영역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친구관계(M=3.4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M=3.27)’, ‘학교수업(M=2.96)’, ‘교사관계(M=2.92)’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의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증가하여, 2013년에 학교에서의 적응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



[그림 III-28] 2011~2013년도 학교영역의 요인별 평균

표 III-49 2011~2013년도 학교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학교 수업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한다	3.16	3.21	3.23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2.78	2.81	2.87
	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2.65	2.71	2.79
소계		2.87	2.91	2.96
교사 관계	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2.89	3.00	3.05
	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2.56	2.69	2.78
	6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2.70	2.82	2.92
소계		2.71	2.84	2.92
친구 관계	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3.36	3.37	3.42
	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3.31	3.32	3.38
	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3.36	3.37	3.41
소계		3.34	3.35	3.40
학교 생활	10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3.14	3.17	3.27
	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3.00	3.09	3.18
	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3.29	3.30	3.35
소계		3.14	3.19	3.27
학교영역(전체)		3.02	3.07	3.14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학교영역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I-50>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경우에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 및 시·군지역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의 경우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여학생보다 더 높았고,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아졌으며, 한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밖에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I-5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50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학교영역(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2.98 (0.71)	3.357 **	3.01 (0.82)	108,844 ***	3.42 (0.65)	10.47 ***	3.27 (0.63)	0.047	3.17 (0.57)	30,297 ***
	여자 (n=4,710)	2.95 (0.68)		2.82 (0.88)		3.38 (0.67)		3.27 (0.62)		3.10 (0.56)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22 (0.69)	357,645 ***	3.31 (0.78)	631,581 ***	3.55 (0.66)	170,015 ***	3.40 (0.63)	114,021 ***	3.37 (0.57)	492,503 ***
	중학교 (n=3,260)	2.89 (0.70)		2.83 (0.83)		3.39 (0.66)		3.22 (0.64)		3.08 (0.55)	
	고등학교 (n=2,985)	2.78 (0.62)		2.60 (0.80)		3.25 (0.62)		3.17 (0.58)		2.95 (0.48)	
거주지	서울 (n=1,539)	3.01 (0.68)	7,093 ***	2.98 (0.85)	4,871 ***	3.45 (0.62)	6,041 ***	3.32 (0.61)	8,574 ***	3.19 (0.55)	9,411 ***
	광역시 (n=2,247)	2.99 (0.70)		2.91 (0.86)		3.41 (0.66)		3.28 (0.61)		3.15 (0.57)	
	사군 (n=5,616)	2.94 (0.70)		2.90 (0.85)		3.38 (0.67)		3.25 (0.63)		3.12 (0.5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2.99 (0.69)	54,935 ***	2.94 (0.85)	23,238 ***	3.42 (0.65)	39,882 ***	3.29 (0.61)	49,849 ***	3.16 (0.56)	62,061 ***
	한부모가정 (n=840)	2.75 (0.68)		2.73 (0.85)		3.24 (0.69)		3.08 (0.65)		2.95 (0.55)	
	조손가정 (n=156)	2.82 (0.66)		2.85 (0.88)		3.25 (0.71)		3.15 (0.74)		3.02 (0.60)	
전체 M(SD)		2.96(0.70)		2.92(0.86)		3.40(0.66)		3.27(0.62)		3.14(0.57)	

* α .05, ** α .01, *** α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4) - 1 학교수업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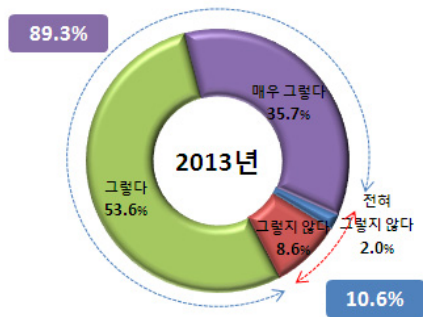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9.3%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9.3%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0.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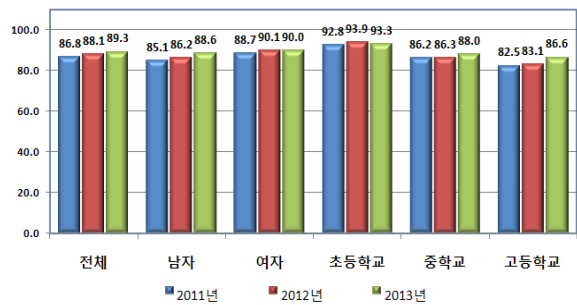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90.0%)의 경우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88.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3.3%)에서 고등학생(86.6%)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86.8%, 2012년 88.1%, 2013년 89.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과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2012년 대비 2013년에 각각 0.1%p, 0.6%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2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표 III-5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응답자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년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4	2.3	2.0	10.7	9.5	8.6	55.3	53.1	53.6	31.5	35.0	35.7	0.1	0.0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0	3.2	2.3	11.9	10.5	9.0	54.9	51.8	52.1	30.2	34.4	36.5	0.1	0.1	0.0
	여	4,561	4,251	4,710	1.8	1.4	1.6	9.5	8.5	8.3	55.8	54.4	55.0	32.9	35.7	35.0	0.0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1.3	1.4	1.8	5.8	4.7	4.8	44.3	41.2	40.9	48.5	52.7	52.4	0.0	0.1	0.1
	중	2,844	2,986	3,260	2.6	3.0	2.0	11.3	10.7	9.9	57.5	58.6	57.3	28.7	27.7	30.7	0.0	0.0	0.1
	고	3,648	2,574	2,985	3.1	2.7	2.1	14.3	14.1	11.3	62.5	61.3	62.9	20.0	21.8	23.7	0.1	0.0	0.0

15) 각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을 제시하였음.

4) - 2 교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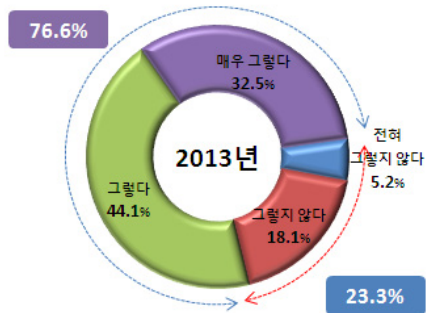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6.6%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6.6%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23.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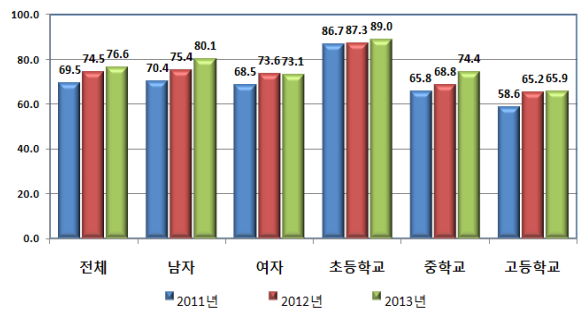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긍정적 응답을 살펴보면, 여학생(73.1%)보다 남학생(80.1%)의 경우에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9.0%), 중학생(74.4%), 고등학생(6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69.5%, 2012년 74.5%, 2013년 76.6%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73.6%) 대비 2013년(73.1%)에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30】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I-52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5	5.9	5.2	22.9	19.5	18.1	43.2	43.4	44.1	26.3	31.1	32.5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7.3	6.0	4.6	22.1	18.5	15.2	43.6	43.8	44.8	26.8	31.6	35.3	0.1	0.1	0.1
	여	4,561	4,251	4,710	7.7	5.8	5.8	23.7	20.7	21.0	42.8	43.0	43.3	25.7	30.6	29.8	0.0	0.0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3.7	3.0	2.9	9.5	9.6	8.0	38.9	36.1	36.2	47.8	51.2	52.8	0.1	0.0	0.1
	중	2,844	2,986	3,260	8.6	7.9	5.6	25.7	23.2	19.9	44.9	46.4	48.1	20.9	22.4	26.3	0.0	0.1	0.2
	고	3,648	2,574	2,985	9.8	7.1	7.2	31.5	27.5	26.8	45.4	48.8	48.0	13.2	16.4	17.9	0.1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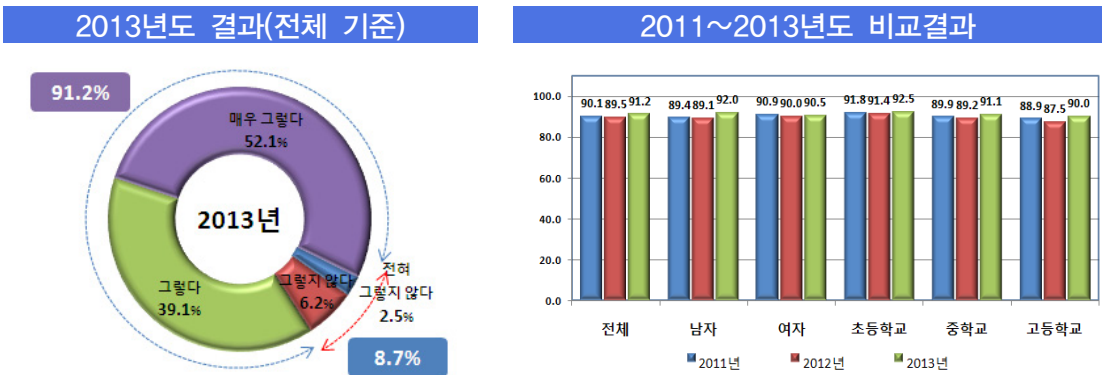
4) - 3 친구관계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1.2%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1.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학생(92.0%)이 여학생(90.5%)보다 학교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92.5%)에서 고등학생(90.0%)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응답비율은 낮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90.1%) 대비 2012년도(89.5%)에 0.6%p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91.2%)에 다시 1.7%p 상승한 추세이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이며, 여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년 중 2013년도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1】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표 III-53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년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9	2.9	2.5	6.9	7.5	6.2	41.5	39.4	39.1	48.6	50.1	52.1	0.1	0.0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3.4	3.2	2.0	7.2	7.7	5.9	42.9	39.3	39.2	46.5	49.8	52.8	0.0	0.1	0.1
	여	4,561	4,251	4,710	2.4	2.7	2.9	6.6	7.4	6.5	40.1	39.6	39.0	50.8	50.4	51.5	0.1	0.0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2.8	2.5	2.4	5.4	6.1	4.9	30.9	28.6	27.3	60.9	62.8	65.2	0.0	0.1	0.2
	중	2,844	2,986	3,260	3.1	3.1	2.6	6.9	7.6	6.2	42.6	42.6	42.3	47.3	46.6	48.8	0.0	0.1	0.1
	고	3,648	2,574	2,985	2.9	3.2	2.4	8.1	9.2	7.7	49.3	49.1	48.0	39.6	38.4	42.0	0.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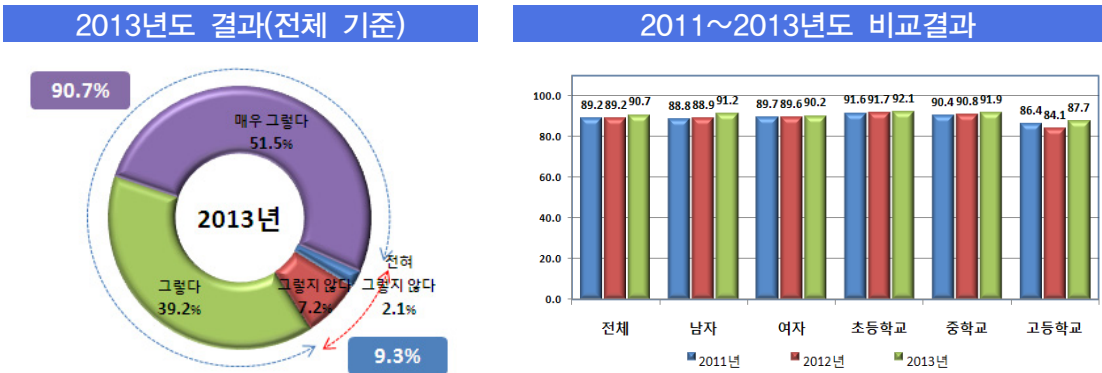
4) - 4 친구관계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0.7%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0.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9.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 남학생(91.2%)이 여학생(90.2%)보다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92.1%), 중학생(91.9%), 고등학생이 87.7%로 가장 낮게 나타나,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경우는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추이]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응답률이 각각 89.2%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90.7%로 전년도 대비 1.5%p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는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최근 3년 중 2013년도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2】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표 III-54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7	2.7	2.1	7.9	8.0	7.2	41.1	39.1	39.2	48.1	50.1	51.5	0.2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2.8	2.8	2.1	8.1	8.2	6.7	42.2	38.9	38.7	46.6	50.0	52.5	0.2	0.2	0.1
	여	4,561	4,251	4,710	2.5	2.6	2.2	7.7	7.9	7.6	39.9	39.4	39.7	49.8	50.2	50.5	0.1	0.0	0.1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2.5	2.8	2.3	5.7	5.3	5.5	29.2	28.3	27.5	62.4	63.4	64.6	0.2	0.2	0.1
	중	2,844	2,986	3,260	2.3	2.4	1.8	7.0	6.7	6.1	41.4	41.4	40.6	49.0	49.4	51.3	0.2	0.1	0.2
	고	3,648	2,574	2,985	3.0	3.0	2.2	10.4	12.9	10.1	50.4	49.8	50.0	36.0	34.3	37.7	0.1	0.0	0.0

4) - 5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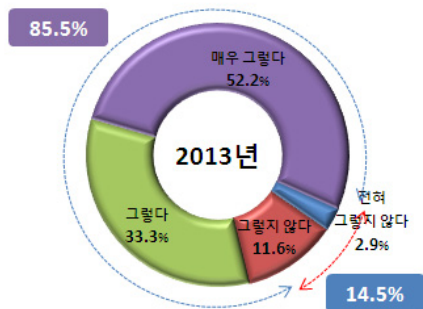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5.5%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5.5%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4.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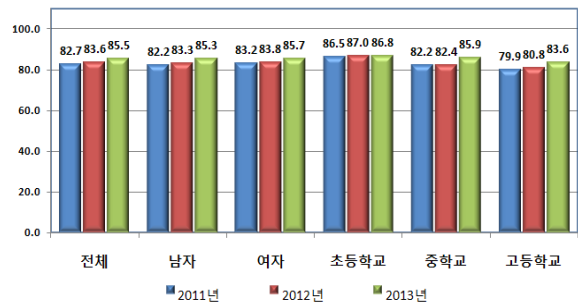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학생(85.7%)이 남학생(85.3%)보다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86.8%)에서 고등학생(83.6%)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1년 82.7%, 2012년 83.6%, 2013년 85.5%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2012년(87.0%) 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33]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표 III-55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9	3.9	2.9	13.4	12.4	11.6	32.8	33.6	33.3	49.9	50.0	52.2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4.5	4.4	3.1	13.3	12.1	11.5	32.1	32.1	31.9	50.1	51.2	53.4	0.0	0.2	0.0
	여	4,561	4,251	4,710	3.2	3.4	2.7	13.5	12.7	11.6	33.5	35.1	34.7	49.7	48.7	51.0	0.1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5	2.8	2.7	11.0	10.0	10.4	29.4	28.9	28.1	57.1	58.1	58.7	0.0	0.2	0.1
	중	2,844	2,986	3,260	4.4	4.9	2.9	13.4	12.8	11.1	34.0	35.4	35.9	48.2	47.0	50.0	0.0	0.0	0.1
	고	3,648	2,574	2,985	4.6	4.3	3.1	15.3	15.0	13.3	34.5	37.3	36.0	45.4	43.5	47.6	0.1	0.0	0.0

7. '2011~2013' 실태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함의

3년간 진행한 설문조사는 총 4개 영역으로 개인영역, 가족영역, 지역사회 영역 및 학교영역에서 실시되었다. 개인영역은 우울, 불안, 게임중독, 자살, 스트레스, 비행 등의 부정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가족영역은 부모의 지원, 가족관계 질 변인, 지역사회 영역은 지역사회 지원과 지역사회 상호작용 변인, 학교영역은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 등의 변인들로 구성되어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 횡단 조사되었고, 본 장에서는 그 변화추이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조사결과에 따른 추이 변화

(1) 개인영역 부정적 조사결과에 따른 추이 변화

개인영역은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실제 3년차에 걸쳐 조사된 결과에서 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부정적 요인은 감소추이를 보이고, 긍정적 요인은 증가추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요인에서 우울을 보면, 세부요인에서 정서적인 표현/ 부정적 인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이며, 이는 여학생 집단, 고등학생 집단, 한부모가정 집단에서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안을 보면, 자율신경계 불안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우울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이었다. 게임 중독을 보면,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이며,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남학생, 중학생, 조손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보면, 자살생각과 시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는 학업진로문제와 가정불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자살시도 경험은 여학생에서 증가하였고, 중학교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스트레스를 보면, 형제·자매 관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부분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여학생, 초등학생, 시군단위, 한부모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을 보면, 음란물 접촉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이며, 이에 대한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경우는 남학생, 고등학생, 광역시, 한부모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결과를 종합하면, 개인영역의 부정적 영향 요인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실제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개인영역에서 조사된 6가지 하위변인별로 target이 되는 대상 집단을 구분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즉, 여학생은 우울, 불안, 자살,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남학생은 게임과 비행에서 음란물 접촉에 대한 예방이 필요할 것이다.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우울, 불안, 음란물 접촉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게임내성과 통제력 상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2) 개인영역 긍정적 조사결과에 따른 추이 변화

개인영역의 긍정적 요인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하부 요인별로 보면, 생활만족도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제일 낮은 평균을 보이는 항목은 학업성적으로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내 적응적 심리요인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부 영역별로 보면, 자아존중감은 여학생, 고등학생, 조손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으며, 자기효능감은 여학생, 고등학생, 시군단위,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인다. 정서조절은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으며, 낙관주의도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여학생의 청소년기의 성별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인 내적인 요인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대상을 여학생, 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영역 조사결과에 따른 추이 변화

가족영역의 부모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하부 요인별로 보면,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모두 감소추세를 보인다.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정서적 지원은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지원은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도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질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향추세를 보인다. 함께 시간을 보냄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이며,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가족영역에 대한 지원 대상을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영역 조사결과에 따른 추이 변화

지역사회 영역의 지역사회 지원과 지역사회 상호작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부 요인별로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지역사회 자원은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상호작용도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개입은 그 지원대상을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학교 영역 조사결과에 따른 추이 변화

학교 영역을 보면, 학교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에서 모두 전반적인 상향 추세를 보인다. 하부 요인별로 집단 간 차이를 보면, 학교수업은 여학생, 고등학생, 시군단위,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도 여학생, 고등학생, 시군단위,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로 집단 간 차이를 보면, 여학생, 고등학생, 시군단위,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로 집단 간 차이를 보면, 고등학생, 시군단위, 한부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개인 내적인 지원대상을 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가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

조사결과 전반적인 경향이 긍정적인 부분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실제 개별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집단군이 형성되는 경향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집중현상을 보이는 집단은 첫째, 여학생 집단, 둘째, 고등학생, 셋째, 한부모가정으로 모아진다.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거주지별로 시군단위가 상대적으로 문제 경향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영역별로 남학생이나 조손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게임 영역에서 내성과 통제력 상실 정도이다.

이러한 집단적 경향을 보이는 대상(여학생, 고등학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학생에 대한 논의이다. 송인섭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성격적 경향에 대해 성 특성 연구에서는 여성은 상냥하고 민감하고 표면적인 긍정적 특성과 의존적, 복종적인 부정적 특성을 가졌다고 보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모든 특성에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많은 부분이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결과이고, 임상 특성에서도 사고혼란, 성격 행동에서 활동성은 특히, 상대적으로 부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국 상황에서 경험하는 공부 압력이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송인섭, 1996). 여학생의 이러한 특성이 실제 조사결과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집단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성격특성에 맞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교에서도 성격의 경향성 이해를 통해서 지도에서 긍정적인 성격 형성을 위한 교육지도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등학생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개입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는 정신질환 중에서도 심각도가 있는 정신병(psychosis)의 호발연령기이다. 때문에 학교에서의 부적응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정신병 초기증상을 간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선별검사를 진행하나, 그 실효성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선별검사와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구성 유형에서 한부모가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부모 가정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빈곤, 한부모와 자녀 간 갈등과 긴장, 한부모자녀의 부적응, 한부모가족의 상실감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호적 및 주민등록과 관련된 법률제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기정, 이무영, 김영희, 2002). 또한 사실상 한부모가정은 한국적 가족정서측면에서 볼 때, 비정상적이거나 병적인 가정으로 보는 경향(김미숙 외, 2000)으로 인해 현실적응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상대적 인 박탈감과 이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위축경향을 보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현재 국가 단위(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가족역량 강화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나, 한부모가족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IV 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 정책적 시사점
2. 정책제언

제 IV 장¹⁶⁾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3년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상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과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 적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었으며, 현장 중심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접근성을 높여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향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정책적 시사점

정신건강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 마련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 조사결과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기는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즉, 정신질환 호발기이다. 정신질환은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 중의 하나이다. WHO(2001)는 정신 및 행동장애로 매년 4억 5천만 명이 고통 받고 있고, 매년 100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WHO,

16) 이 장은 모상현·김형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이선영 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그리고 협동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집필하였음.

2001). Rutter와 Smith(1995)는 청소년의 경우 지난 50년 동안 12-26세 사이의 청소년, 청년기에 품행장애, 물질남용, 우울증, 자살시도가 증가하였다고 역학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Rutter & Smith, 1995). Steinhaus는 아동기에 정신과적 질환을 경험과 성인기이 현황을 분석한 결과, 36세가 되었을 때 남자 아이들 중 4명의 1명은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0명의 3명은 반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매우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라고 보고하였다(Steinhausen, Meier, & Angst, 1998).

둘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성인기로 정신질환이 이완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다시말해서 조기발견을 통해 조기에 개입하므로써 초발정신질환자 미치료 기간(DUP: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를 줄이고 긍정적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Lee Robins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행동문제와 어른이 된 후의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ee Robins는 후향적 연구로 St. Louis 병원의 아동 클리닉을 이용한 아동의 진료기록을 확인(정신과적 문제가 잘 서술되어 있는 아동 중심으로)하고 비교집단으로 이 아동들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던 아동들을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으로 어린시절 정신과적 문제가 기록되었던 아동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동을 3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Lee Robins는 결과보고서에서는 이 두 집단의 아동들이 성인이 된 후 정신과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였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제 이두 집단의 아동들은 성인이 된 후, 정신과적 영역의 질환의 발병율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어린 시절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였던 경우에는 성인이 된 후 “사회병적 인격(sociopathic personaliy)”의 위험 인자가 됨을 제시하였다(Robins , 1991). Lee Robins 연구는 성인기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진단기준(미국정신의학회(APA))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Fergusson 등(2005)은 뉴질랜드에서는 아동·청소년기의 정신병리와 성인기 정신건강문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생 이후부터 성장 발달 단계별로 추적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제시된 결과를 보면, 일부 우울증상을 갖고 있던 17~18세 청소년이 25세가 되었을 때의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청소년 시절 우울증 일부 증상을 갖고 있던 경우에 성인기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사고, 자살시도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Fergusson, Horwood, Ridder, & Beautrais, 2005).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이 매우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Fergusson 등(2005)은 부모 및 교사들이 7~8세 즈음에 반항행동에 대해 보고했던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에게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약물중독에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생활 및 직장 관계에서 적응적이지 못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Fergusson, Horwood, & Ridder, 2005). Haavisto (2004)은 핀란드 1981년 생 소년 2,348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8세 때 자가 우울증 척도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던 경우, 18세 때 우울증을 확인한 결과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었음을 보고하였다(Haavisto et al., 2004).

Mason 등(2004)은 시애틀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808명을 대상으로 아동기(10세와 11세)에 정신병리 중 청소년기 정신병리와 관련 있는 요인에 대한 확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아동기의 다양한 행동 문제들이 청년기의 반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우울성향과도 관련이 깊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아동기 정신병리가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나타남을 제시하였다(Mason et al.,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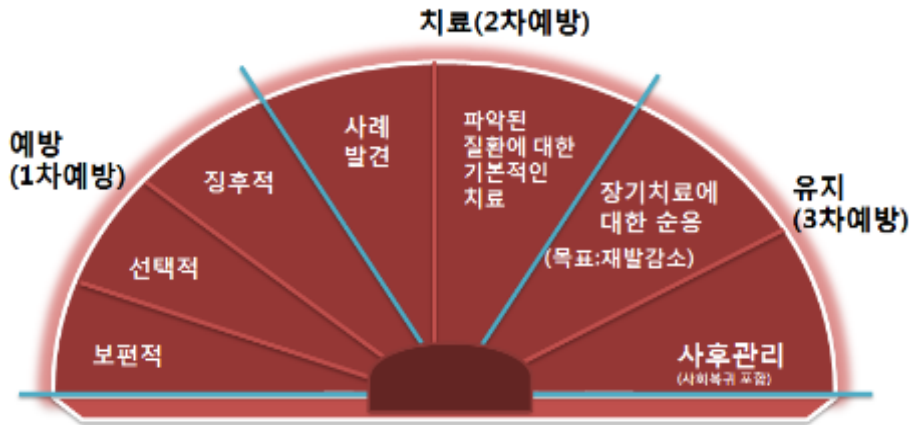
아동·청소년기 정신병리가 방치되거나 치료가 지연될 경우, 성인기까지 그러한 정신병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조기 개입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책제언

1) 예방 중심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은 소위 예방 정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4년 IOM은 인구집단 정신질환의 위험수준에 따른 예방활동 수준을 1차 예방(증진과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 2차 예방(정신질환의 발견과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 3차 예방(치료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 유지 재활)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은 성장발달의 시기라는 특징으로 인해 특히, 1차 예방에 대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이 중요할 것이다.



*출처 : Muñoz, Ricardo F.; Mrazek, Patricia J.; Haggerty, Robert J. (1996). Institute of Medicine report on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s: Summary and commentary.

【그림 IV-1】 인구집단 정신질환의 위험수준에 따른 예방활동 수준의 차이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통합 수행 기전 마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현재 다양하며, 부처별로 다양한 명칭 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처 간 경쟁적 사업추진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 중복을 초래한다. 실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접근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신보건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정보화 역기능 사업’의 하나로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 상담사 양성도 이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부처 사업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는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와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진다.

더불어 이러한 갈등을 통합하고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러한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관간의 협력을 통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부처간 협의 및 협조 강화와 더불어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관여하는 의료인, 교육관계자, 정신건강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3) 학교 기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확대

2007년부터 선별검사 중심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학교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의 분명한 역할 정립과 명시화가 요구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학교-정신보건센터-병원)를 돕는 실무지침서 개발 및 보급도 필요하다.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여하는 전문스텝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신규·보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하며, 비의료인 교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제공도 중요하다.

학교기반 정신건강 증진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는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 추후 관리 시스템 및 과정 등에 대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선별검사 및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제공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 관한 신뢰를 구축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보건센터의 outreach program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새 학년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 의무화, 일차 진료기관을 통한 선별, 신체검사 시 정신건강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켜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나 스티그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차 진료기관을 통한 선별 시 computer-based assessment system을 사용하여 병원 대기시간동안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신뢰로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선별검사 이외에 Classroom-based 예방교육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학교기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4) 사후관리 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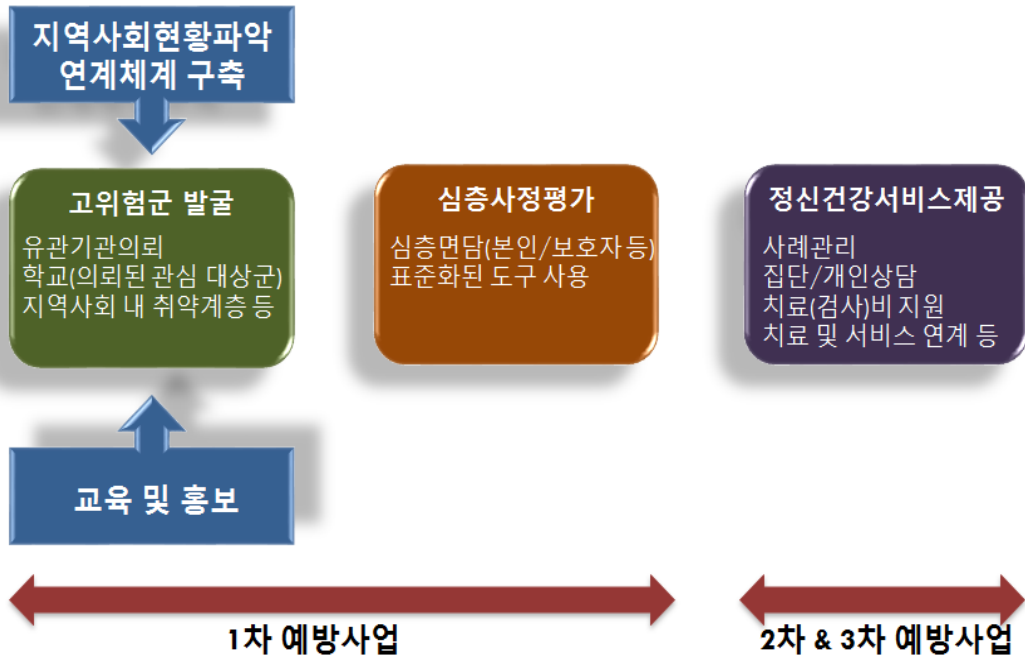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시기이므로 특히나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아동·청소년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센터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은 1명이고, 그 외의 센터는 다른 사업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1,4, 중·고1 대상으로 한 2010년 학생선별검사 결과, 주의군의 비율 2%이다. 이를 학생 전체 수로 환산해 볼 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인구 20만 명으로 가정할 때 학생인구는 대략 36,000명(6~19세는 총인구수의 약 18%, 2010년 인구 총조사)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2%인 약 720명이 고위험군이라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사업인력은 정신보건센터와 wee 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명씩 담당한다고 하여도 실제 250명 이상의 고위험군을 파악하는 상황인데, 이는 실제 질 관리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즉, 제대로 된 사례관리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문제를 발견만 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개입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기관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5)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대통령 산하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정신건강의 문제는 어느 특정 '부처'와 특정 '과'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조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과 소관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일 것이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부의 WEE 센터 등이 일선에서 아동·청소년 정서문제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독관련된 부분은 안전행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등, 많은 부처와 관련 부서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 산하(혹은 국무총리 산하) 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한다면 통합적인 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선 현장에서는 서로의 업무 영역과 기능에 대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부처별 사업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담보하여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역할분담이 기능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함에 통합·조정할 수 있는 headquarter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처의 통합·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혹은 국무총리)의 수준에 두고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출처 : 2013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복지복지부) 제 4장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그림 IV-2】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내용 및 추진 체계

대통령 산하 정신건강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증진, 예방, 치료, 그리고 재활 스펙트럼에서 전문성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6)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계획 수립 및 지표 생성

선진국들은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국가수준의 정신건강 계획 수립을 기본으로 하며,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그리고 예산 투입을 기본적 전제로 한다. 더불어 국가단위 아래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정신건강 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기반 계획과 이에 대한 세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4조의 3에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¹⁷⁾을 국가단위, 광역단위, 시군구 단위로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에 적극적인 결과물을 제시하는 곳은 많지 않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몇몇 광역시에서 일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는 국가단위 정신건강 사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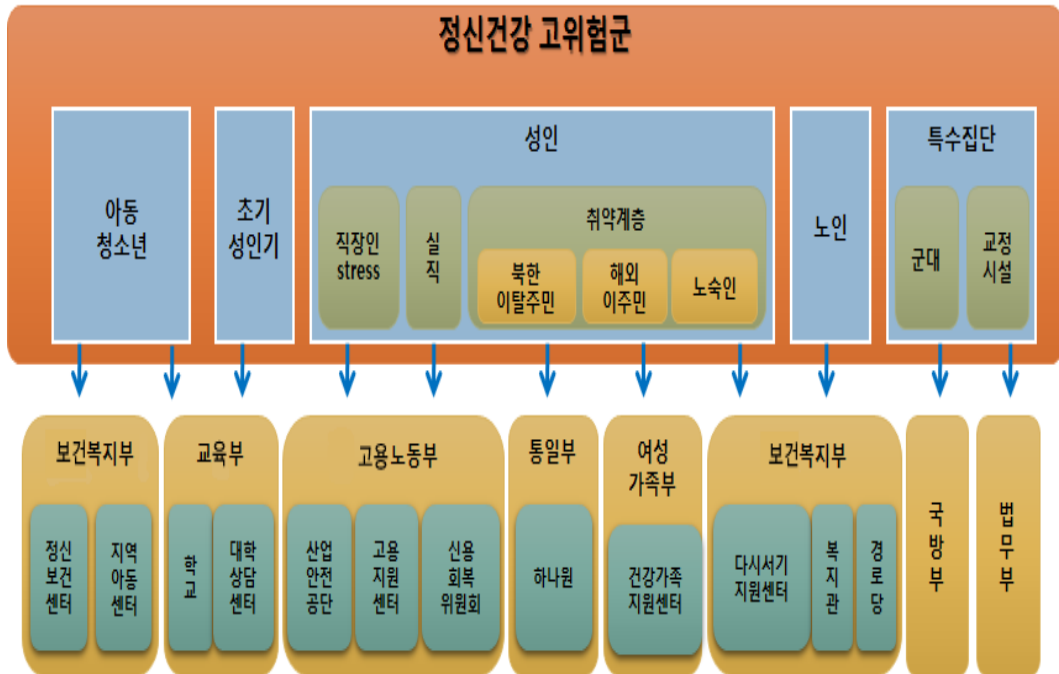
중앙정부의 정신보건계획 수립은 실제 단일 부처에 국한되어 진행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 현장에서 정신건강과 연관된 많은 부처와 기관이 있다. 실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생애주기 와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해볼 때, 이들을 담당하는 부처와 부서는 매우 다양하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주된 담당이고 초기 성인기(대학생)의 경우, 교육부가 담당하며, 성인에서 직장인 및 실직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며, 취약계층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주된 담당이 된다. 노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로 담당하며, 특수집단으로

17) 「정신보건법」 제4조의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방부와 법무부와 연관이 된다. 즉, 국가의 정신보건계획은 이들 전체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국가단위 ‘정신보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출처 : 연구자가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구성함.

【그림 N-3】 정신건강 고위험군 부처별 현황

이와 같은 국가단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계획 수립은 실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중심으로 목표 및 성과측정에 대한 지표를 생성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목표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현재 health plan 2020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수준을 넘는 좀 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지표 생성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기정, 이무영, 김영희 (2002) 한부모가족의 복지지원체계로서의 가상공동체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41-15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보건의료질지표 생산 및 개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곽영숙 · 박순영(역자) (2008).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증진: 개념과 실제**. Mental health promotion and Young people, concepts and practice by Rowling, L., Martin, G., & Walker L. 도서출판 하나의학.
- 국립서울병원 (2010). **한국의 정신보건 정책수립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210-02).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 권양이 (2013).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박영사
- 김민석, 홍현숙, 김진학 (2006).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개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2006-01). 국립서울병원.
- 김선민, 박춘선, 최보람, 김경훈, 정규원 외 (2009). **2009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FA2-2009-113),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수진, 이정숙, 강혜영, 정향인, 최봉실, 권영란 (2008). **청소년정신건강검진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맞춤형 사례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정신건강 증진 확산모형 개발**. (건강증진기금연구사업, 정책, 07-4). 광주: 전남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김윤, 이선영, 오무경, 이은정, 강미영 (2009). **정신건강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연계체계 개발**. 서울: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김윤 · 이명수 · 이선영 · 강상경 · 곽영숙 · 김경희 외 (2010).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011-2015) 수립**. 서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김창대, 오인수, 유현실, 이동혁, 이상민, 이영선 외 (2012). **다면적 성장잠재력 검사 개발**

-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 반건호 (2010). **근거기반의 학교기반정신건강 증진 공동체모델 시범적용**. 국립서울병원, 서울: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 송인섭 (1996). 여학생의 성격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35, 63-84.
- 안동현, 김현정, 현미나, 김윤영, 이해숙, 남동현 외 (2008). **학생정신건강검진 시범운영사업 결과 및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진이, 윤혜순 (2013).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양서원.
- 이선영 (2013). 2013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지역사회정신건강 증진, 어디로 가야 하나?’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진석, 이선영, 김명정, 최혜원, 한혜민 (2011). **학생정신건강관리 체계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충북교육청.
- 이현림 (2007).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정진욱, 이수형, 천재영, 김지은, 백종우, 서동우 (2010).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체계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명호, 정경용, 정지현, (2010). 전국 초, 중, 고학생의 위험행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17(3), 233-252.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3). **2012년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 **2013년 청소년통계**.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한국심리학회**, 22(2).
- 한혜리, 송진희, 노성원 (2010). **정신보건지표개발연구 : 일반 성인을 중심으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홍강의 (2003). 한국 소아·청소년정신의학: 과거, 현재, 미래,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대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4(2), 139~149.
- Erikson, E.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ergusson, David M., L. John Horwood, and Elizabeth M. Ridder. (2005). *Partner*

- violence and mental health outcomes in a New Zealand birth coh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5):1103–1119.
- Haavisto, A., Sourander, A., Multimaki, P., Parkkola, K., Santalahti, P., Helenius, H. et al.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18-year-old boys: a prospective 10-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3, 143–154.
- Hurtado M.P., Swift E.K., Corrigan J.M., des. (2001). Committee on the National Quality Report on Health Care Delivery, Board on Health Care Services. *Envisioning the National Health Care Quality Repor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Mason, C.A., Walker-Barnes, C.J., Tu, S., Simons, J., and Martinez-Arrue, R. (2004). Ethnic differences in the affective meaning of parental control behavior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5, 59–79.
- Maughan B, Rutter M. (1998).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antisocial behaviour from childhood to adult life. In: Ollendick TH, Prinz RJ (Ed.),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New York, Plenum.
- Mrazek, P. J., & Haggerty, R. J. (1994). *Reducing risks for mental disorders: Frontier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Muñoz, Ricardo F.; Mrazek, Patricia J.; Haggerty, Robert J. (1996). Institute of Medicine report on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s: Summary and commentary. *American Psychologist*, Vol 51(11), Nov 1996, 1116–1122. NASMHPD.org.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cited 2009, may 15]]. Available from: <http://www.nasmhpd.org/>.
- Owens PL., Hoagwood K., Horwitz SM., Leaf PL., Poduska JM., & Kellam SG, (2002). Barriers to children's mental health service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1, 731–738.
- Performance assessment 2008/2009 Mental health trust indicators[homepage on the internet]. Care Quality Commission[updated April 29th 2009; cited 2009

- Sept 4]. Available from: <http://www.cqc.org.uk>.
- Resnick, M. D., Bearman, P. S., Blum, R. W., Bauman, K. E., Harris, K. M., Jones, J., Trish Beuhring, J. T., Sieving, R. E., Shew, M., Ireland, M., Bearinger, L. H., & Udry, J. R. (1997).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10), 823–832.
- Robins, L. N. (1991). Conduct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193–212.
- Rowling, L., Martine, G., & Walker, L. (2008).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증진: 개념과 실제. (곽영숙, 박순영 공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서출판 2001).
- Rutter, M., & Smith, D. J. (1995). *Psychosocial disorders in young people: Time, trends, and their causes*. Chichester: Wiley.
- Sourander A., Multimaki P., Nikolakaros G., Haavisto A., Ristkari T., & Helenius H. (2005). Childhood predictors of psychiatric disorders among boys: a prospective community-based follow up study from age 8 years to early adulthood.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4. 756–767.
- Steinhausen, H. C., Meier, M., & Angst, J. (1998). The Zurich long-term outcome stud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disorders in males. *Psychological Medicine*, 28(2), 375–383.
- WHO (2000). *Local Action: Creating Health-promoting Schools*.
- WHO (2001). *Mental health policy project*.
- WHO (2003). *Investing in Mental health*.

<http://www.copmi.net.au>

<http://www.cqc.org.uk/>

<http://www.nasmhpd.org/>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20/en/>

<http://www.youngminds.org.uk/>



부
부

부
록

【부록 1】 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지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

2013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모상현 박사 (02)2188-8803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매우 자주 했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

문 1. 다음 각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4개의 문장 중에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1)	① 나는 슬프지 않다 ② 나는 슬프다 ③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④ 나는 매우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①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② 나는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③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④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①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③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인 것 같다 ④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①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②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③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④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5)	①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③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④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6)	①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③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④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①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②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③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④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②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③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④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내 탓이다
9)	①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②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④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① 나는 평소 우는 것 보다 더 많이 울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③ 나는 요즘 항상 운다 ④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려야 울 기력조차 없다

번호	문 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평소 짜증을 내는 것 보다 더 많이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③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④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이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② 나는 전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④ 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②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③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④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③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④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②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③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④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②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③ 나는 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④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③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④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②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③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④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②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③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④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③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④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②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④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정신건강-2

문 2.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경험한 증상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1)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3

문 3.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 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2)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①	②	③	④
4)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①	②	③	④
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①	②	③	④
6)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11)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3)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14)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건디기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15)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6)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7)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①	②	③	④
18)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19)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①	②	③	④
20)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6

문 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해보았습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	①	②	③	④
1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7

문 7. 다음은 평소 생활의 만족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2) 경제적인 생활수준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여가 생활	①	②	③	④
5) 선생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6)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7) 학업성적	①	②	③	④
8) 건강	①	②	③	④

정신건강-8

문 8. 다음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 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9

문 9.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가장 잘 일치하는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0

문 10. 다음은 평소 부모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①	②	③	④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①	②	③	④
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1)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1

문 11. 다음은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①	②	③	④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①	②	③	④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2

문 12. 다음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정신건강-13

문 13.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6)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배문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이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배문 8. 전반적인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한 편이다

배문 9.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모님(보호자)과 본인의 관심정도는? 해당 되는 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1) 부모님(보호자)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2) 본인의 관심정도	①	②	③	④

배문 10.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게임이나 TV시청을 하는지 적어 주세요.

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게임 을 하나요? (스마트폰, 핸드폰, 컴퓨터나 게임기, PC방)	_____시간
② 휴식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TV 를 시청 하나요?	_____시간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1. 개인영역

1) 부정적 요인

(1) 우울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우울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정서적 표현/부정적 인지(M=0.4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M=0.39)’, ‘죄책감/자기혐오(M=0.37)’, ‘신체적 측면(M=0.35)’의 순이었음.

표 1 2011~2013년도 우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죄책감 /자기혐오	1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슬픔	0.31	0.29	0.28
	3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실패	0.35	0.34	0.34
	5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죄책감	0.31	0.29	0.28
	6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벌	0.44	0.40	0.37
	7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0.48	0.45	0.45
	8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책	0.47	0.42	0.44
	9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살	0.46	0.41	0.42
소계			0.40	0.37	0.37
부정적 자기상 /정신운동 지연	12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0.38	0.36	0.36
	13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결정	0.55	0.50	0.49
	14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0.51	0.46	0.46
	15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일할 의욕	0.40	0.34	0.36
	21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성욕	0.27	0.26	0.29
소계			0.42	0.38	0.39
신체적 측면	16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잠	0.33	0.33	0.32
	17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피곤함	0.74	0.72	0.71
	18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식욕	0.32	0.30	0.30
	19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체중변화	0.22	0.22	0.22
	20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0.24	0.21	0.22
소계			0.37	0.36	0.35
정서적인 표현 /부정적 인지	2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0.42	0.41	0.42
	4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0.55	0.50	0.47
	10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울기	0.24	0.23	0.24
	11	지난 일주일 간의 상태 - 짜증	0.69	0.66	0.63
소계			0.48	0.45	0.44
우울 영역(전체)			0.41	0.38	0.3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우울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인 죄책감/자기혐오,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신체적 측면,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모두에서 거주지 변인을 제외한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 변인의 각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세부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응답자가 양부모가정의 응답자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의 세부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나타나, 거주지 변인을 제외한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 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죄책감 / 자기혐오		부정적 자기상 / 정신운동지연		신체적 측면		정서적인 표현 / 부정적 인지		우울(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0.31 (0.45)	164.152 ***	0.36 (0.51)	39.832 ***	0.32 (0.45)	57.957 ***	0.34 (0.47)	335.051 ***	0.33 (0.40)	177.633 ***
	여자 (n=4,710)	0.43 (0.48)		0.42 (0.49)		0.39 (0.43)		0.53 (0.53)		0.44 (0.41)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0.25 (0.44)	160.359 *** (ab,ac, bc)	0.30 (0.47)	86.258 *** (ab,ac, bc)	0.27 (0.44)	105.568 *** (ab,ac, bc)	0.31 (0.49)	184.769 *** (ab,ac, bc)	0.28 (0.39)	182.019 *** (ab,ac, bc)
	중학교 (n=3,260)	0.39 (0.47)		0.41 (0.48)		0.36 (0.42)		0.47 (0.50)		0.41 (0.40)	
	고등학교 (n=2,985)	0.46 (0.47)		0.47 (0.54)		0.43 (0.46)		0.55 (0.52)		0.48 (0.41)	
거주지	서울 (n=1,539)	0.36 (0.44)	0.380	0.38 (0.47)	0.648	0.35 (0.39)	0.019	0.44 (0.50)	0.081	0.39 (0.38)	0.037
	광역시 (n=2,247)	0.37 (0.47)		0.39 (0.48)		0.35 (0.40)		0.44 (0.50)		0.39 (0.40)	
	시군 (n=5,616)	0.37 (0.47)		0.40 (0.52)		0.35 (0.47)		0.44 (0.52)		0.39 (0.42)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0.35 (0.45)	35.422 *** (gh)	0.38 (0.48)	34.415 *** (gh,gi)	0.34 (0.42)	22.433 *** (gh)	0.42 (0.49)	34.363 *** (gh)	0.37 (0.39)	43.466 *** (gh,gi)
	한부모가정 (n=840)	0.49 (0.58)		0.51 (0.58)		0.44 (0.52)		0.57 (0.63)		0.50 (0.51)	
	조손가정 (n=156)	0.43 (0.59)		0.49 (0.70)		0.41 (0.64)		0.51 (0.69)		0.46 (0.56)	
전체 M(SD)		0.37(0.47)		0.39(0.50)		0.35(0.44)		0.44(0.51)		0.38(0.41)	

* α .05, ** α .01, *** α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1)-①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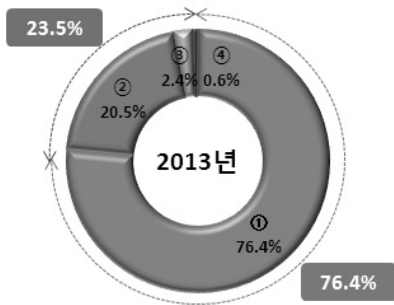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슬픔'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3.5%가 '슬프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슬픔'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3.5%가 '슬프다'라고 응답하였고, 76.4%는 '슬프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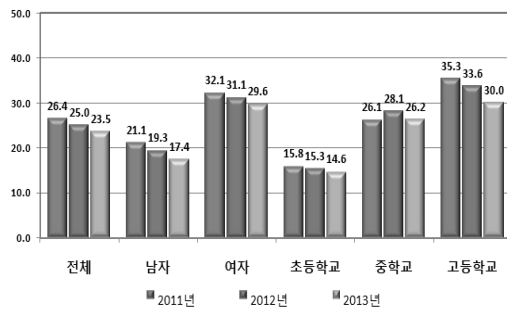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슬프다'는 응답은 남학생(17.4%)보다 여학생(29.6%)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30.0%로 중학생(26.2%) 및 초등학생(1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23.5%로 2012년(25.0%)에 비해 1.5%p, 2011년(26.4%)에 비해 2.9%p 낮게 나타나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의 경우 2013년이 26.2%로 2012년(28.1%)에 비해 1.9%p 낮게 나타났으며, 2011년(26.1%)과 비교해볼 때 0.1%p 증가한 수준이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슬픔

표 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슬픔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슬프지 않다			② 슬프다			③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④ 매우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3.5	74.9	76.4	22.8	21.5	20.5	2.7	2.7	2.4	0.9	0.8	0.6	0.0	0.0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78.9	80.7	82.5	17.6	16.5	15.1	2.5	2.0	1.8	1.0	0.8	0.5	0.0	0.0	0.1
	여	4,561	4,251	4,710	67.8	68.8	70.4	28.3	26.8	25.8	2.9	3.5	3.0	0.9	0.8	0.8	0.0	0.0	0.0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84.1	84.6	85.3	13.1	13.1	12.0	1.7	1.6	1.9	1.0	0.6	0.7	0.0	0.0	0.1
	중	2,844	2,986	3,260	73.8	71.9	73.7	23.1	23.9	23.4	2.3	3.3	2.2	0.7	0.9	0.6	0.0	0.0	0.0
	고	3,648	2,574	2,985	64.7	66.4	70.0	30.3	29.1	26.3	3.9	3.5	3.1	1.1	1.0	0.6	0.1	0.0	0.0

(1)-②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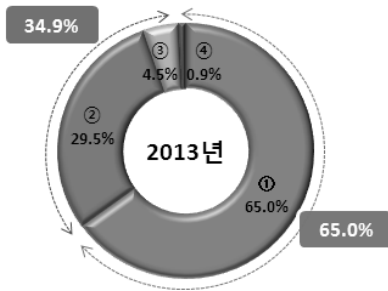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앞날에 대한 기대'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4.9%가 '절망적이라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앞날에 대한 기대'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4.9%가 '절망적이다'라고 응답하였고, 65.0%는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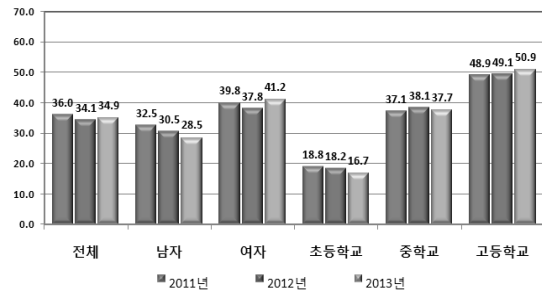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절망적이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학생(28.5%)보다 여학생(41.2%)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6.7%)에서 고등학생(50.9%)으로 올라갈수록 앞날에 대해 절망적으로 느낀다는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34.9%로 2012년(34.1%)에 비해 0.8%p 높게 나타났으나, 2011년(36.0%)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여학생은 전년도에 비해 3.4%p 증가하였다.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매년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응답률이 50.9%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표 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앞날에 대한 기대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별로 낙담하지 않는다			② 앞날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는다			③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④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4.0	65.8	65.0	30.7	28.6	29.5	4.3	4.3	4.5	1.0	1.2	0.9	0.1	0.2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7.5	69.3	71.5	26.8	25.2	23.6	4.4	3.9	3.8	1.3	1.4	1.1	0.1	0.2	0.1
	여	4,561	4,251	4,710	60.2	62.1	58.6	34.8	32.2	35.2	4.3	4.7	5.3	0.7	0.9	0.7	0.0	0.1	0.1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81.1	81.7	83.1	14.2	13.5	12.7	3.6	3.3	3.3	1.0	1.4	0.7	0.1	0.2	0.2
	중	2,844	2,986	3,260	62.9	61.8	62.2	31.3	32.2	32.1	4.7	5.0	4.5	1.1	0.9	1.1	0.1	0.2	0.1
	고	3,648	2,574	2,985	51.0	50.7	49.0	43.4	43.1	44.2	4.6	4.7	5.8	0.9	1.3	0.9	0.1	0.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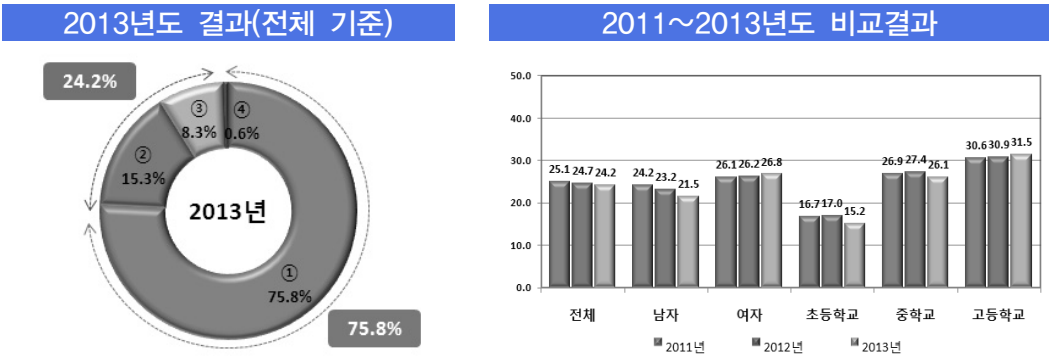
(1)-③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실패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4.2%가 ‘실패자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실패’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4.2%가 ‘실패자다’라고 응답하였고, 75.8%는 ‘실패자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실패자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여학생(26.8%)이 남학생(21.5%)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5.2%)에서 중학생(26.1%), 고등학생(31.5%)으로 올라갈수록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25.1%)에서 2012년(24.7%), 2013년은 24.2%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2011년과 2012년도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전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011년과 2012년도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실패

표 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실패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②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③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다			④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이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4.8	75.3	75.8	15.8	16.3	15.3	8.6	7.9	8.3	0.7	0.5	0.6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75.7	76.8	78.4	16.4	16.2	14.7	6.9	6.4	6.2	0.9	0.6	0.6	0.1	0.0	0.1
	여	4,561	4,251	4,710	73.8	73.7	73.2	15.2	16.3	15.9	10.5	9.5	10.3	0.4	0.4	0.6	0.0	0.1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83.2	83.0	84.6	12.7	13.1	11.1	3.5	3.4	3.5	0.5	0.5	0.6	0.1	0.0	0.1
	중	2,844	2,986	3,260	73.0	72.5	73.9	18.2	18.6	17.2	8.0	8.2	8.3	0.7	0.6	0.6	0.0	0.1	0.0
	고	3,648	2,574	2,985	69.4	68.9	68.5	16.5	17.4	17.7	13.3	13.0	13.2	0.8	0.5	0.6	0.1	0.1	0.0

(1)-④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상생활 만족'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3%가 '불만족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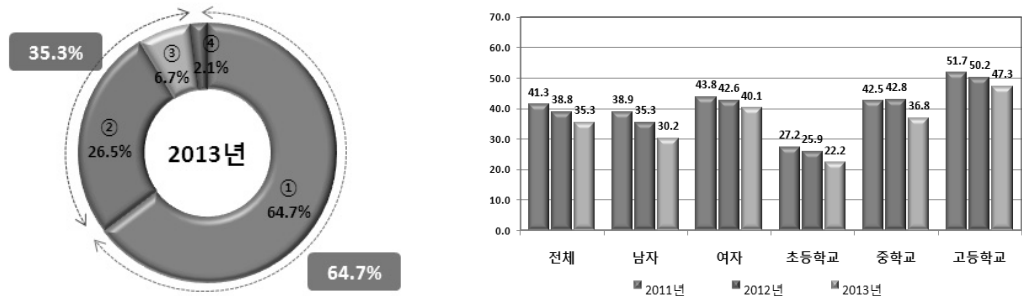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상생활 만족' 관련 문항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35.3%가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고, 64.7%는 '만족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불만족한다'는 응답에 대하여, 성별로는 남학생(30.2%)보다 여학생(40.1%)이 일상생활에 더 불만족 했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47.3%로 중학생(36.8%) 및 초등학교생(22.2%)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35.3%로 2012년(38.8%)에 비해 3.5%p 감소하였으며, 2011년(41.3%)과 비교할 때 6.0%p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급별로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불만족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표 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상생활 만족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②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③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④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58.6	61.1	64.7	30.4	29.5	26.5	8.5	7.0	6.7	2.4	2.3	2.1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0.9	64.6	69.7	30.0	28.0	23.6	6.7	5.7	5.2	2.2	1.6	1.4	0.2	0.1	0.1
	여	4,561	4,251	4,710	56.1	57.4	59.7	30.8	31.1	29.3	10.3	8.5	8.1	2.7	3.0	2.7	0.1	0.1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72.6	74.1	77.7	21.8	21.5	18.3	3.5	3.2	2.7	1.9	1.2	1.2	0.1	0.0	0.1
	중	2,844	2,986	3,260	57.3	57.1	63.1	32.1	32.6	27.8	7.8	7.3	6.9	2.6	2.9	2.1	0.1	0.1	0.1
	고	3,648	2,574	2,985	48.2	49.7	52.7	36.0	35.8	33.7	13.0	11.5	10.7	2.7	2.9	2.9	0.1	0.2	0.0

(1)-⑤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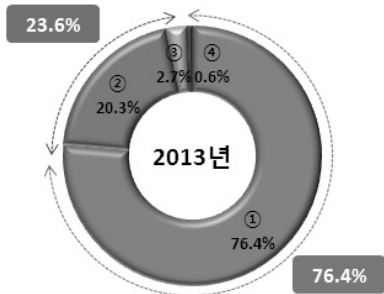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죄책감'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3.6%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죄책감을 느낀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23.6%는 '죄책감을 느낀다', 76.4%는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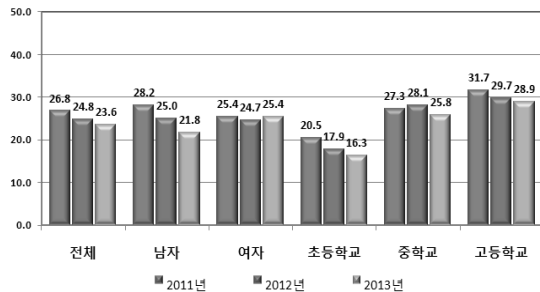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여학생(25.4%)의 경우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남학생(21.8%)보다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6.3%)에서 중학생(25.8%), 고등학생(28.9%)으로 나타나 교급이 올라갈수록 죄책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23.6%로 2012년(24.8%)에 비해 1.2%p, 2011년(26.8%)에 비해 3.2%p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교급별 비교에서도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죄책감

표 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죄책감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②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③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④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3.0	75.1	76.4	23.6	21.6	20.3	2.5	2.5	2.7	0.7	0.7	0.6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71.7	74.9	78.2	24.8	22.1	18.8	2.7	2.2	2.3	0.7	0.7	0.7	0.1	0.1	0.1
	여	4,561	4,251	4,710	74.5	75.2	74.6	22.4	21.2	21.7	2.3	2.8	3.1	0.7	0.7	0.6	0.0	0.1	0.1
연령	초	2,943	3,185	3,157	79.4	82.0	83.6	18.3	16.0	14.3	1.8	1.2	1.5	0.4	0.7	0.5	0.1	0.1	0.1
	중	2,844	2,986	3,260	72.5	71.8	74.2	24.1	24.3	22.1	2.4	3.1	3.1	0.8	0.7	0.6	0.1	0.1	0.1
	고	3,648	2,574	2,985	68.3	70.2	71.0	27.6	25.5	24.6	3.2	3.4	3.5	0.9	0.8	0.8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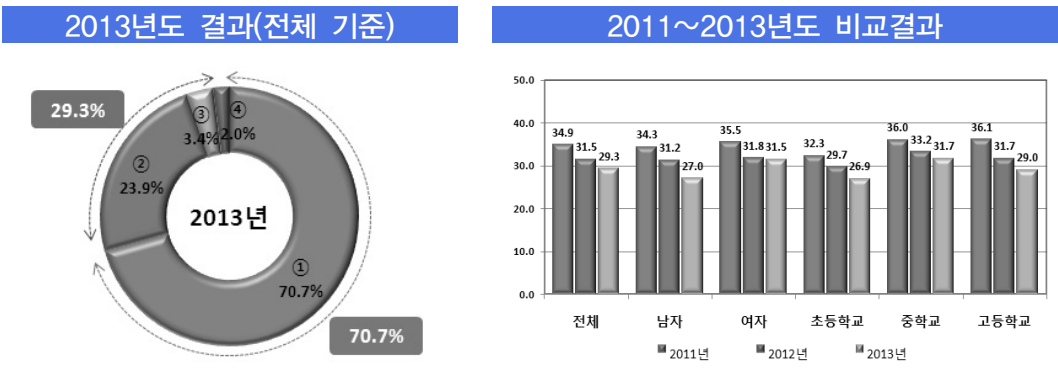
(1)-⑥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벌’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9.3%가 ‘벌을 받고 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벌에 대한 느낌’ 관련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9.3%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응답하였고, 70.7%는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학생(31.5%)이 남학생(27.0%) 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31.7%)이 고등학생(29.0%)과 초등학생(26.9%)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도별 추이] 2011년(34.9%)에서 2012년(31.5%), 2013년은 29.3%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34.3%) 대비 2013년(27.0%)에는 73%p 낮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벌

표 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벌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③ 벌을 받을 것 같다			④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5.0	68.4	70.7	28.3	25.5	23.9	3.9	3.8	3.4	2.7	2.2	2.0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5.6	68.6	72.9	27.8	25.5	22.2	3.9	3.9	3.3	2.6	1.8	1.5	0.1	0.1	0.1
	여	4,561	4,251	4,710	64.3	68.1	68.5	28.9	25.5	25.7	3.9	3.6	3.4	2.7	2.7	2.4	0.1	0.1	0.0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67.6	70.2	73.0	26.6	25.3	22.2	3.7	2.9	3.4	2.0	1.5	1.3	0.1	0.0	0.1
	중	2,844	2,986	3,260	63.8	66.6	68.3	29.0	26.3	26.2	4.4	4.5	3.2	2.6	2.4	2.3	0.1	0.1	0.0
	고	3,648	2,574	2,985	63.8	68.1	70.9	29.2	24.7	23.2	3.7	4.0	3.5	3.2	3.0	2.3	0.1	0.1	0.1

(1)-⑦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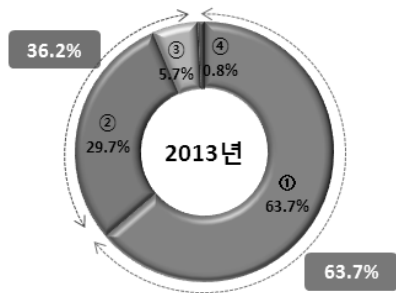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6.2%가 ‘자신에게 실망한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 중 36.2%가 ‘자신에게 실망한다’라고 응답하였고, 63.7%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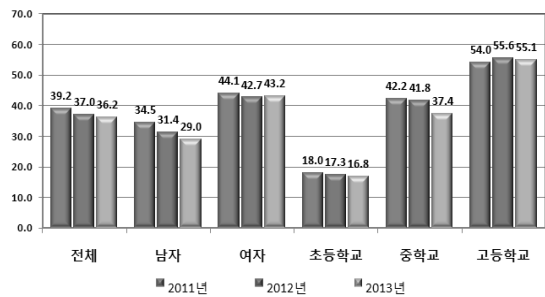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43.2%)이 남학생(29.0%)보다 자신에게 실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36.2%로 2012년(37.0%)에 비해 0.8%p, 2011년(39.2%)에 비해 3.0%p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여학생의 경우 2011년 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전년도보다는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2011년과 2012년도 대비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2012년도 보다는 0.5%p 낮게, 2011년도 보다는 1.1%p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표 II-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에 대한 실망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②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③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④ 나 자신을 중요한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0.7	63.0	63.7	31.9	30.1	29.7	6.3	5.8	5.7	1.0	1.1	0.8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5.3	68.5	70.9	28.1	26.0	24.3	5.3	4.2	3.8	1.1	1.2	0.9	0.1	0.1	0.1
	여	4,561	4,251	4,710	55.8	57.1	56.6	35.8	34.4	35.0	7.4	7.4	7.5	0.9	0.9	0.7	0.0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81.8	82.6	83.0	14.2	14.7	13.9	3.1	1.7	2.2	0.7	0.9	0.7	0.1	0.1	0.2
	중	2,844	2,986	3,260	57.7	58.1	62.4	34.5	33.4	30.6	6.5	7.1	5.7	1.2	1.3	1.1	0.1	0.1	0.1
	고	3,648	2,574	2,985	46.0	44.4	44.8	44.1	45.3	45.3	8.8	9.2	9.2	1.1	1.1	0.6	0.0	0.0	0.0

(1)-⑧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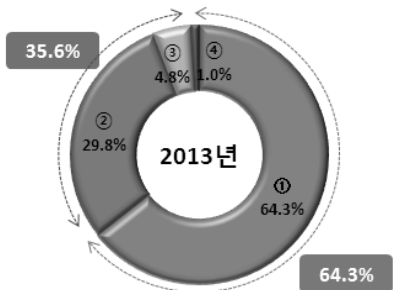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책’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6%가 ‘내 탓이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책감’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5.6%는 ‘내 탓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64.3%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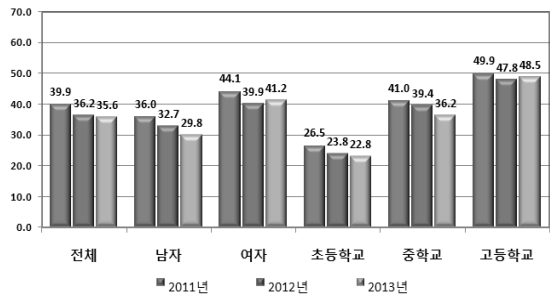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내 탓이라는 응답은 여학생(41.2%)이 남학생(29.8%)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35.6%로 2012년(36.2%)에 비해 0.6%p, 2011년(39.9%)에 비해 4.3%p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여학생은 2012년도 보다 높게 2011년도 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급로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2012년도 보다 높고 2011년도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책

표 II-1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책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②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③ 내가 한 일이 잘못 되었을 때 언제나 나를 탓한다			④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모두 내 탓이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0.0	63.7	64.3	33.7	31.0	29.8	5.0	4.2	4.8	1.2	1.0	1.0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4.0	67.3	70.0	30.4	28.6	25.6	4.5	3.3	3.5	1.1	0.8	0.7	0.1	0.1	0.2
	여	4,561	4,251	4,710	55.7	59.9	58.6	37.3	33.5	33.9	5.5	5.2	6.1	1.3	1.2	1.2	0.1	0.2	0.1
학급	초	2,943	3,185	3,157	73.3	76.2	77.2	22.2	21.0	18.9	3.1	1.9	3.1	1.2	0.9	0.8	0.1	0.1	0.1
	중	2,844	2,986	3,260	59.0	60.4	63.6	35.1	34.0	30.7	4.8	4.4	4.5	1.1	1.0	1.0	0.1	0.2	0.2
	고	3,648	2,574	2,985	49.9	52.0	51.5	41.9	39.9	40.3	6.7	6.8	7.0	1.3	1.1	1.2	0.1	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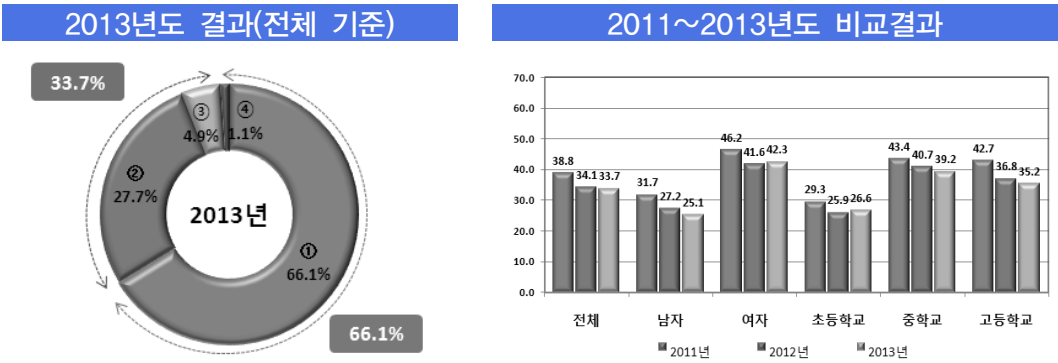
(1)-⑨ 우울 - 죄책감/자기혐오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살’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3.7%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살’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3.7%는 ‘자살을 생각한다’, 66.1%는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성별에서는 여학생(42.3%)이 남학생(25.1%)보다 자살 생각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39.2%)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35.2%), 초등학생(2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38.8%, 2012년 34.1%, 2013년 33.7%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여학생은 2011년도 보다 낮으나 2012년도 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매년 감소하는데 비해 초등학생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살

표 II-1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살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자살 같은건 생각하지 않는다			②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진 않을 것이다			③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④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1.2	65.8	66.1	32.5	28.4	27.7	4.9	4.8	4.9	1.4	0.9	1.1	0.1	0.0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8.2	72.8	74.8	26.8	23.5	21.1	3.8	3.0	3.2	1.1	0.7	0.8	0.1	0.0	0.1
	여	4,561	4,251	4,710	53.7	58.4	57.5	38.5	33.6	34.2	6.1	6.8	6.6	1.6	1.2	1.5	0.1	0.0	0.1
연도별	초	2,943	3,185	3,157	70.7	74.1	73.2	24.3	21.9	21.8	4.1	3.4	4.2	0.9	0.6	0.6	0.1	0.1	0.2
	중	2,844	2,986	3,260	56.6	59.4	60.7	36.4	33.1	31.9	5.5	6.3	5.6	1.5	1.3	1.7	0.1	0.0	0.1
	고	3,648	2,574	2,985	57.2	63.1	64.7	36.0	30.8	29.2	5.1	5.0	4.9	1.6	1.0	1.1	0.1	0.0	0.1

(1)-⑩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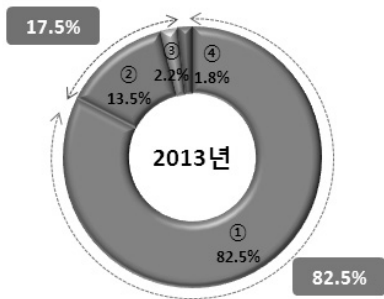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울기’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7.5%가 ‘많이 운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울기’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7.5%가 ‘많이 운다’라고 응답하였고, 82.5%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울지는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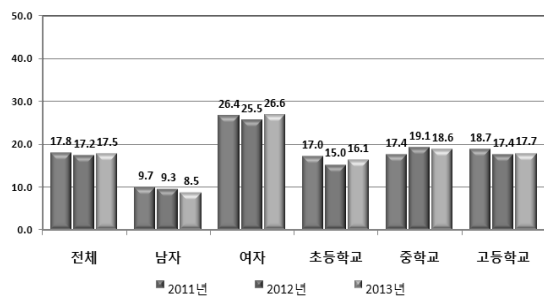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더 많이 운다’는 응답은, 남학생(8.5%)보다 여학생(26.6%)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18.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학생(17.7%), 초등학생(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7.5%로 2012년(17.2%)에 비해 0.3%p 높게, 2011년(17.8%)에 비해 0.3%p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여학생과 남학생은 매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중·고 중 중학생이 2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울기

표 II-1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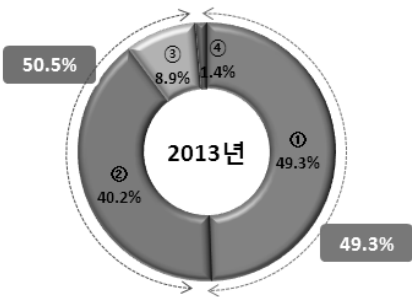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평소 우는 것보다 더 많이 울지는 않는다			② 전 보다 더 많이 운다			③ 요즈음 항상 운다			④ 전에는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 기력조차 없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2.1	82.8	82.5	13.2	13.0	13.5	2.6	2.4	2.2	2.0	1.8	1.8	0.1	0.0	0.0	
성 별	남	4,874	4,494	4,692	90.2	90.7	91.6	6.7	6.9	6.4	1.3	1.0	0.7	1.7	1.4	1.4	0.1	0.0	0.0
	여	4,561	4,251	4,710	73.6	74.4	73.4	20.1	19.5	20.7	4.0	3.8	3.7	2.3	2.2	2.2	0.0	0.1	0.0
교 급	초	2,943	3,185	3,157	82.9	85.0	83.9	12.4	11.4	12.0	2.9	1.8	2.5	1.7	1.8	1.6	0.1	0.0	0.1
	중	2,844	2,986	3,260	82.5	80.7	81.3	13.6	14.1	14.9	2.4	3.4	2.2	1.4	1.6	1.5	0.1	0.1	0.1
	고	3,648	2,574	2,985	81.2	82.5	82.2	13.4	13.8	13.7	2.5	1.7	1.7	2.8	1.9	2.3	0.1	0.1	0.0

(1)-① 우울 - 정서적인 표현/부정적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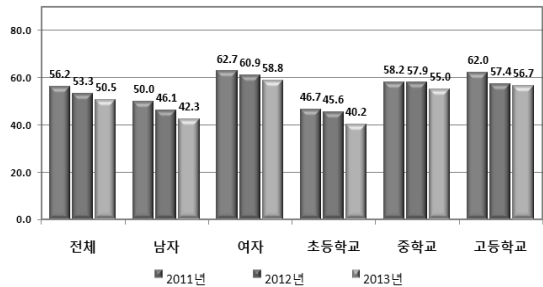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짜증’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0.5%가 ‘짜증이 난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짜증’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0.5%가 ‘전보다 더 짜증이 난다’라고 응답하였고, 49.3%는 ‘평소보다 짜증을 내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이 58.8%로 남학생(42.3%)보다 ‘짜증이 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고등학생(56.7%), 중학생(55.0%), 초등학생(4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50.5%로 2012년(53.3%)에 비해 2.8%p, 2011년(56.2%)에 비해 5.7%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급별 비교 또한 모든 교급에서 짜증난다는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짜증

표 II-1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짜증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지는 않는다			② 전보다 더 쉽게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③ 요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④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3.8	46.7	49.3	45.1	42.3	40.2	9.4	9.5	8.9	1.7	1.5	1.4	0.1	0.0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49.9	53.9	57.7	41.3	38.1	35.3	7.4	6.6	6.0	1.3	1.4	1.0	0.1	0.0	0.1
	여	4,561	4,251	4,710	37.3	39.0	41.1	49.1	46.7	45.1	11.5	12.5	11.9	2.1	1.7	1.8	0.0	0.0	0.1
면피년	초	2,943	3,185	3,157	53.3	54.3	59.7	38.7	38.6	33.3	6.7	5.9	6.0	1.3	1.1	0.9	0.0	0.0	0.1
	중	2,844	2,986	3,260	41.6	42.1	45.0	47.2	44.3	42.8	9.6	11.9	10.6	1.4	1.7	1.6	0.1	0.1	0.0
	고	3,648	2,574	2,985	37.9	42.5	43.1	48.5	44.4	44.7	11.3	11.1	10.3	2.2	1.9	1.7	0.0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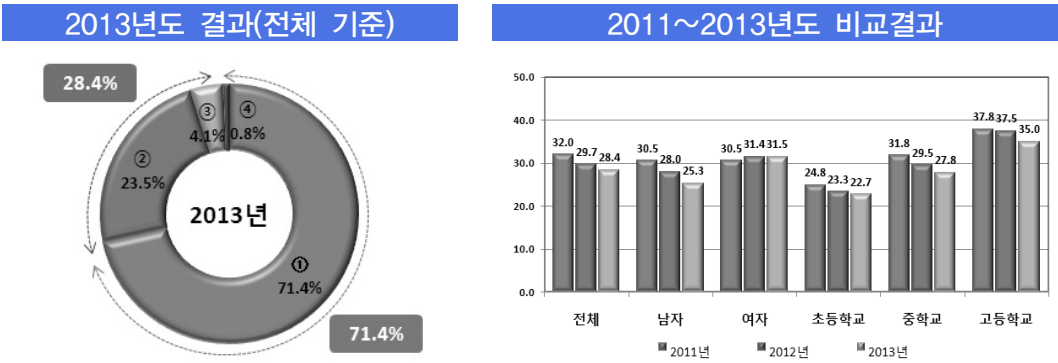
(1)-⑫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타인에 대한 관심'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8.4%가 '관심이 줄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타인에 대한 관심'의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28.4%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71.4%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응답은 남학생(25.3%)보다 여학생(31.5%)에 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22.7%)에서 고등학교(35.0%)으로 올라갈수록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연도별 추이] 2011년 32.0%, 2012년 29.7%, 2013년 28.4%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모든 교급에서 관심이 줄었다는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II-1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표 II-1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타인에 대한 관심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타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② 전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사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④ 사람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8.0	70.3	71.4	27.3	24.5	23.5	3.9	4.2	4.1	0.8	1.0	0.8	0.1	0.1	0.2	
성별	남	4,874	4,494	4,692	69.3	72.0	74.5	26.2	22.8	21.2	3.4	4.0	3.2	0.9	1.2	0.9	0.1	0.0	0.2
	여	4,561	4,251	4,710	69.3	68.6	68.4	26.2	26.3	25.8	3.4	4.4	5.0	0.9	0.7	0.7	0.1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75.1	76.6	77.2	20.8	19.4	18.6	3.0	3.1	3.0	1.0	0.8	1.1	0.1	0.1	0.1
	중	2,844	2,986	3,260	68.0	70.5	72.0	27.6	24.8	23.3	3.5	3.8	3.8	0.7	0.9	0.7	0.1	0.0	0.2
	고	3,648	2,574	2,985	62.2	62.4	64.8	32.2	30.4	28.9	4.9	5.9	5.6	0.7	1.2	0.5	0.1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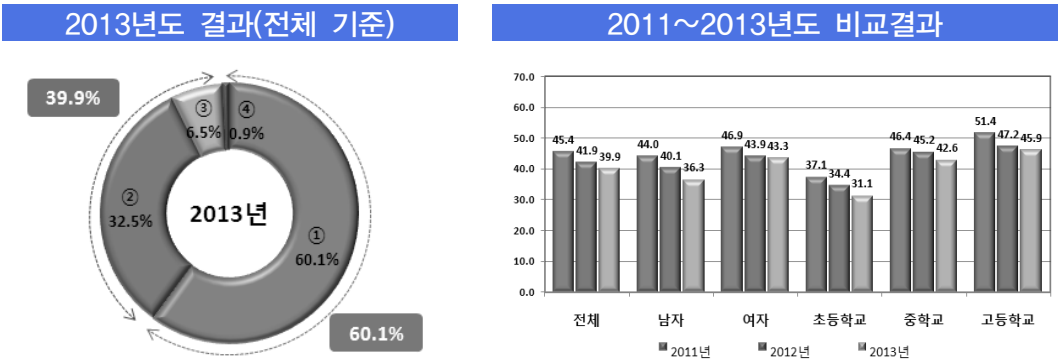
(1)-⑬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결정’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9.9%가 ‘결정을 못 내린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결정’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9.9%는 ‘평소보다 결정을 잘 못 내린다’, 60.1%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남학생(36.3%)보다 여학생(43.3%)이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31.1%)에서 중학생(42.6%), 고등학생(45.9%)으로 올라갈수록 평소보다 결정을 잘 못 내린다고 느꼈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39.9%로 2012년(41.9%)에 비해 2.0%p, 2011년(45.4%)에 비해 5.5%p 낮게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교급별 비교 또한 모든 교급에서 결정을 잘 못 내린다는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결정

표 1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결정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②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③ 전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④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54.5	58.0	60.1	37.1	35.0	32.5	7.6	6.2	6.5	0.7	0.7	0.9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55.8	59.9	63.5	37.3	34.4	30.6	5.8	4.9	4.8	0.9	0.8	0.9	0.1	0.1	0.1
	여	4,561	4,251	4,710	53.1	56.1	56.6	36.8	35.6	34.3	9.5	7.6	8.2	0.6	0.7	0.8	0.1	0.0	0.1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62.8	65.5	68.7	31.1	30.1	26.0	4.9	3.5	4.4	1.1	0.8	0.7	0.1	0.1	0.1
	중	2,844	2,986	3,260	53.6	54.7	57.3	38.7	37.6	35.4	7.1	6.8	6.2	0.6	0.8	1.0	0.1	0.0	0.1
	고	3,648	2,574	2,985	48.6	52.7	53.9	40.6	37.9	36.0	10.3	8.7	9.0	0.5	0.6	0.9	0.1	0.1	0.1

(1)-⑭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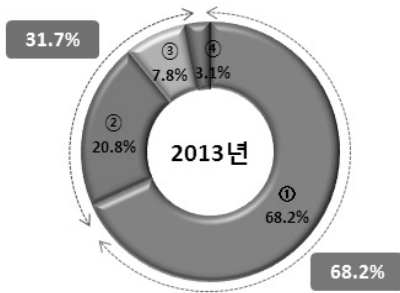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의 매력’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1.7%가 ‘매력이 없어졌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자신의 매력’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1.7%가 ‘매력이 없어졌다’고 응답한 반면, 68.2%는 ‘내 모습이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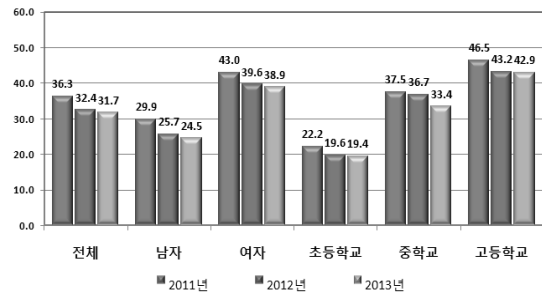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매력이 없어졌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학생(38.9%)의 경우에 매력이 없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24.5%)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9.4%)에서 중학생(33.4%), 고등학생(42.9%)으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자신의 매력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전체적으로 2011년 36.3%, 2012년 32.4%, 2013년 31.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든 교급에서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표 II-1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자신의 매력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③ 내 모습이 매력없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④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3.6	67.5	68.2	24.4	21.7	20.8	8.6	7.4	7.8	3.3	3.3	3.1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9.9	74.2	75.4	21.3	17.9	17.1	6.0	5.2	5.0	2.6	2.6	2.4	0.1	0.2	0.1
	여	4,561	4,251	4,710	57.0	60.3	61.0	27.7	25.7	24.6	11.3	9.9	10.6	4.0	4.0	3.7	0.1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77.6	80.3	80.5	15.7	13.6	13.6	4.3	4.3	4.0	2.2	1.7	1.8	0.1	0.1	0.1
	중	2,844	2,986	3,260	62.3	63.2	66.6	26.2	24.2	22.3	7.9	8.4	7.5	3.4	4.1	3.6	0.2	0.1	0.1
	고	3,648	2,574	2,985	53.4	56.6	57.0	30.0	28.7	26.9	12.5	10.3	12.2	4.0	4.2	3.8	0.0	0.2	0.1

(1)-⑮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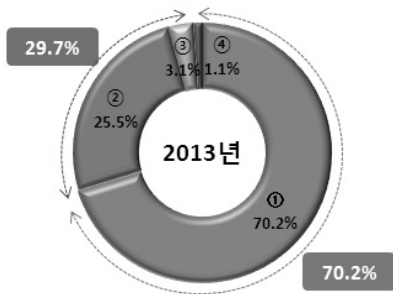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 할 의욕’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9.7%가 ‘일 할 의욕이 없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일 할 의욕’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중 29.7%는 ‘일 할 의욕이 없다’, 대다수인 70.2%는 ‘전처럼 일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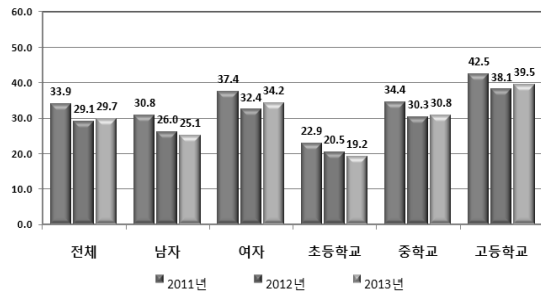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학생(34.2%)의 경우에 일 할 의욕이 없다는 응답이 남학생(25.1%)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 볼 때 초등학생(19.2%)에서 고등학생(39.5%)으로 올라갈수록 일 할 의욕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점점 더 높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29.7%로 2012년(29.1%)에 비해 0.6%p 증가하였으나, 2011년(33.9%)과 비교하여 볼 때 4.2%p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 교급별 비교에서도 2012년 대비 약간 증가한 부분도 있었으나, 2011년과 비교해 볼 때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 할 의욕

표 II-1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일 할 의욕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②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전보다 많은 노력이 든다			③ 무슨 일이라도 하려면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 한다			④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5.9	70.8	70.2	29.4	25.1	25.5	3.6	3.1	3.1	0.9	0.9	1.1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9.1	74.0	74.7	26.7	22.5	21.7	3.3	2.7	2.3	0.8	0.8	1.1	0.2	0.1	0.2
	여	4,561	4,251	4,710	62.6	67.5	65.7	32.2	27.8	29.2	4.1	3.6	3.9	1.1	1.0	1.1	0.0	0.1	0.1
연도별	초	2,943	3,185	3,157	77.0	79.4	80.7	20.4	18.4	17.2	1.8	1.4	1.1	0.7	0.7	0.9	0.1	0.1	0.2
	중	2,844	2,986	3,260	65.4	69.5	69.0	30.5	26.4	27.0	3.2	2.9	2.6	0.7	1.0	1.2	0.1	0.1	0.2
	고	3,648	2,574	2,985	57.5	61.7	60.4	35.7	31.7	32.5	5.5	5.4	5.8	1.3	1.0	1.2	0.1	0.1	0.1

(1)-⑩ 우울 - 신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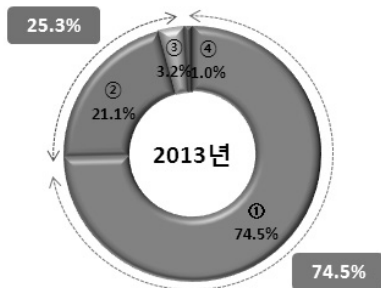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잠'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5.3%가 '잠을 잘 못 잔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숙면 여부'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5.3%가 '평소보다 잠을 잘 못 잔다'라고 응답하였고, 74.5%는 '잠을 잘 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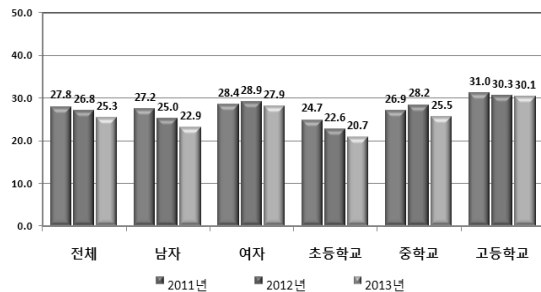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잠을 잘 못 잔다'는 응답은, 남학생(22.9%)보다 여학생(27.9%)에게서 조금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20.7%)에서 중학생(25.5%), 고등학생(30.1%)의 순으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27.8%, 2012년 26.8%, 2013년 25.3%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의 불면 비율이 3년 연속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3년 연속 교급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6】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잠

표 II-1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잠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②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③ 전보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④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2.2	73.1	74.5	23.6	22.2	21.1	3.2	3.3	3.2	1.0	1.3	1.0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72.7	75.1	77.0	22.5	20.8	19.1	3.5	3.0	2.8	1.2	1.2	1.0	0.1	0.0	0.1
	여	4,561	4,251	4,710	71.6	71.0	72.1	24.8	23.8	23.1	2.9	3.7	3.7	0.7	1.4	1.1	0.0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75.3	77.4	79.1	19.0	18.2	15.9	4.2	3.0	3.5	1.5	1.4	1.3	0.1	0.1	0.2
	중	2,844	2,986	3,260	73.0	71.7	74.4	23.6	23.4	21.6	2.5	3.4	3.0	0.8	1.4	0.9	0.1	0.0	0.0
	고	3,648	2,574	2,985	68.9	69.4	69.8	27.3	25.8	26.0	3.0	3.5	3.2	0.7	1.0	0.9	0.1	0.2	0.1

(1)-⑰ 우울 - 신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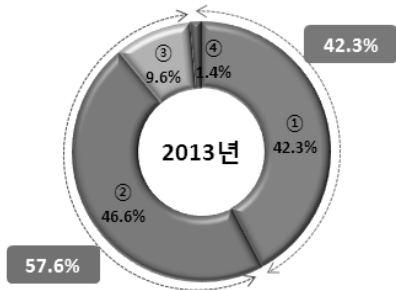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피곤함'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7.6%가 '피곤하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피곤함'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가 넘는 57.6%가 '전보다 피곤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42.3%는 '평소보다 피곤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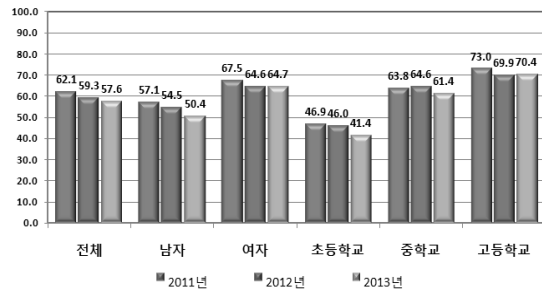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학생(64.7%)이 남학생(50.4%)보다 피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41.4%)에서 중학생(61.4%)으로 올라가면서 관련 응답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고등학생(70.4%)의 경우 피곤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 62.1%, 2012년 59.3%, 2013년 57.6%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3년 연속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3년 연속 교급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69.9%로 낮아졌던 응답률이 다시 70.4%를 나타내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7】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피곤함

표 II-1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피곤함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②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 진다			③ 무엇을 해도 피곤해 진다			④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7.7	40.5	42.3	51.8	48.1	46.6	9.1	9.7	9.6	1.2	1.5	1.4	0.1	0.2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42.6	45.3	49.5	48.3	45.3	42.3	7.7	7.7	7.0	1.1	1.5	1.1	0.2	0.2	0.2
	여	4,561	4,251	4,710	32.5	35.4	35.2	55.6	51.2	50.9	10.6	11.9	12.2	1.3	1.5	1.6	0.0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52.9	53.9	58.4	42.0	40.0	35.6	4.3	5.1	5.0	0.6	0.9	0.8	0.1	0.2	0.2
	중	2,844	2,986	3,260	36.0	35.2	38.5	54.0	51.2	49.2	8.7	11.6	10.7	1.1	1.8	1.5	0.2	0.2	0.1
	고	3,648	2,574	2,985	26.8	30.0	29.5	58.0	54.6	55.5	13.2	13.4	13.1	1.8	1.9	1.8	0.1	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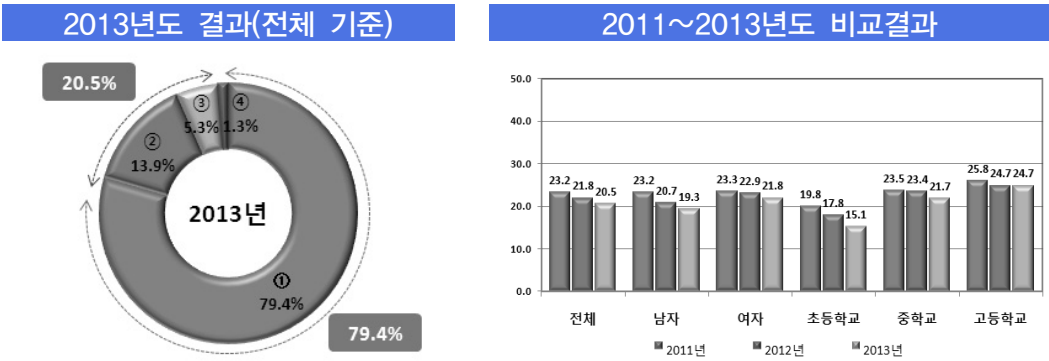
(1)-18 우울 - 신체적 측면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식욕’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0.5%가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식욕’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0.5%는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79.4%는 ‘식욕이 평소와 다름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21.8%)의 경우에 식욕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남학생(19.3%)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5.1%)에서 중학생(21.7%), 고등학생(24.7%)으로 올라갈수록 식욕이 줄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23.2%, 2012년 21.8%, 2013년 20.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낮아지고 있고, 고등학생은 2012년도(24.7%)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II-18】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식욕

표 II-2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식욕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②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③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④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6.7	78.1	79.4	16.0	14.6	13.9	5.8	5.7	5.3	1.4	1.5	1.3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76.6	79.2	80.6	16.0	14.0	13.6	5.9	5.2	4.5	1.3	1.5	1.2	0.2	0.1	0.1
	여	4,561	4,251	4,710	76.7	76.9	78.1	16.0	15.2	14.2	5.7	6.3	6.2	1.6	1.4	1.4	0.1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80.0	82.0	84.6	13.5	12.3	9.9	4.4	4.0	3.8	1.9	1.5	1.4	0.2	0.2	0.2
	중	2,844	2,986	3,260	76.4	76.5	78.2	15.8	15.6	14.9	6.5	6.4	5.5	1.2	1.4	1.3	0.2	0.1	0.1
	고	3,648	2,574	2,985	74.2	75.2	75.1	18.2	16.2	16.9	6.3	7.1	6.7	1.3	1.4	1.1	0.0	0.2	0.1

(1)-19 우울 - 신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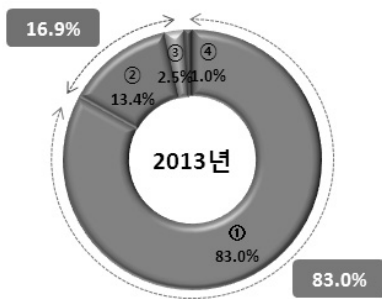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체중변화’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6.9%가 ‘평소보다 체중이 줄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체중변화’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16.9%는 ‘평소보다 체중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3.0%는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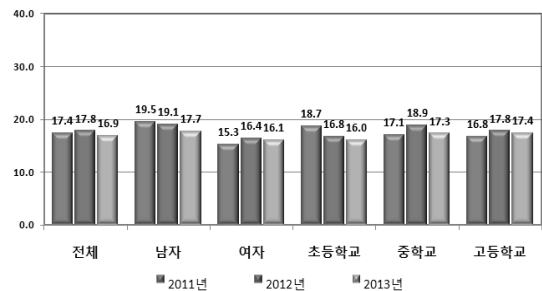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17.7%)이 여학생(16.1%)보다 체중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17.4%), 중학생(17.3%), 초등학생(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6.9%로 2012년(17.8%)에 비해 0.9%p, 2011년(17.4%)에 비해 0.5%p 낮게 나타났다. 성별, 교급별 비교에서도 2012년 대비로는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9】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체중변화

표 II-2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체중변화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②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③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④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2.5	82.1	83.0	13.7	14.3	13.4	2.7	2.6	2.5	1.0	0.9	1.0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80.4	80.8	82.2	14.2	14.6	13.4	3.7	3.2	2.7	1.6	1.3	1.6	0.1	0.1	0.1
	여	4,561	4,251	4,710	84.7	83.6	83.8	13.2	13.9	13.4	1.7	2.0	2.3	0.4	0.5	0.4	0.0	0.1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81.2	83.2	83.8	14.9	13.9	13.3	2.9	2.2	2.2	0.9	0.7	0.5	0.0	0.1	0.1
	중	2,844	2,986	3,260	82.8	81.1	82.6	13.7	15.0	13.8	2.6	2.8	2.5	0.8	1.1	1.0	0.1	0.0	0.0
	고	3,648	2,574	2,985	83.2	82.1	82.5	12.7	13.9	13.1	2.7	2.9	2.8	1.4	1.0	1.5	0.0	0.2	0.1

(1)-20 우울 - 신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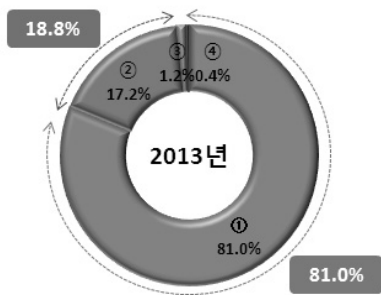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건강에 대한 염려’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8%가 ‘건강이 염려된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건강에 대한 염려’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 중 18.8%는 ‘건강이 염려된다’라고 응답하였고, 81.0%는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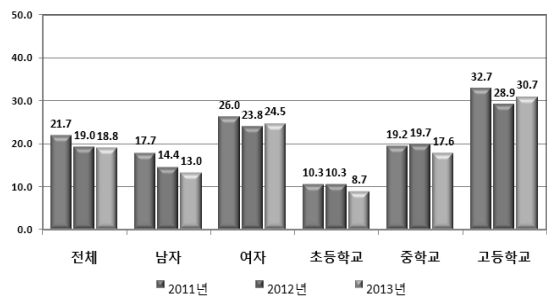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13.0%)보다 여학생(24.5%)이 건강이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7%)에서 중학생(17.6%), 고등학생(30.7%)으로 올라갈수록 건강에 대해 더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21.7%, 2012년 19.0%, 2013년 18.8%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2012년과 비교하여 0.7%p 높아졌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2012년도(28.9%) 대비 2013년(30.7%)에 1.8%p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20】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표 II-22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건강에 대한 염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② 여러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의 신체적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③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④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8.1	80.9	81.0	19.9	17.4	17.2	1.3	1.2	1.2	0.5	0.4	0.4	0.3	0.2	0.2	
성별	남	4,874	4,494	4,692	81.9	85.4	86.6	15.4	12.6	11.4	1.6	1.3	1.2	0.7	0.5	0.4	0.4	0.2	0.3
	여	4,561	4,251	4,710	73.9	76.1	75.4	24.6	22.4	23.0	1.1	1.2	1.2	0.3	0.2	0.3	0.1	0.2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89.4	89.5	90.9	8.6	9.0	7.3	1.2	1.0	1.1	0.5	0.3	0.3	0.3	0.2	0.3
	중	2,844	2,986	3,260	80.3	80.2	82.4	18.1	17.9	15.9	0.9	1.4	1.3	0.2	0.4	0.4	0.4	0.2	0.1
	고	3,648	2,574	2,985	67.2	71.0	69.1	30.3	27.1	29.2	1.8	1.3	1.1	0.6	0.5	0.4	0.2	0.1	0.2

(1)-㉔ 우울 - 부정적 자기상/정신운동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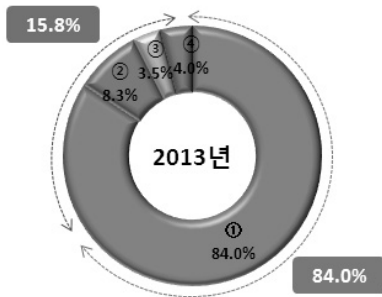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성욕’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5.8%가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응답**

○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중 ‘성에 대한 욕구’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15.8%는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라고 응답하였고, 84.0%는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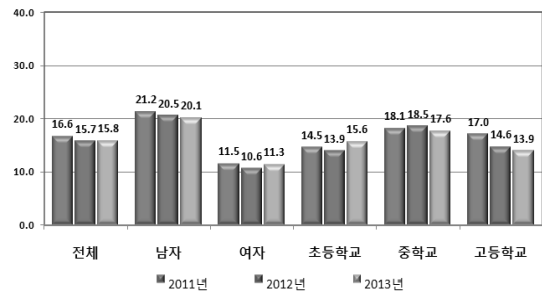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20.1%)에게서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11.3%)보다 8.8%p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7.6%)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15.6%), 고등학생(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5.8%로 2012년(15.7%)에 비해 0.1%p 높게, 2011년(16.6%)에 비해 0.8%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의 응답률이 2012년(10.6%) 대비 2013년(11.3%)에 0.7%p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응답률이 2012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21】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성욕

표 II-23 지난 일주일간의 상태 - 성욕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① 요즈음 성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②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④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3.3	84.2	84.0	9.4	8.8	8.3	3.8	3.5	3.5	3.4	3.4	4.0	0.2	0.1	0.2	
성별	남	4,874	4,494	4,692	78.5	79.3	79.5	12.1	11.3	10.6	5.1	4.9	4.6	4.0	4.3	4.9	0.3	0.2	0.3
	여	4,561	4,251	4,710	88.3	89.3	88.5	6.4	6.1	5.9	2.3	2.1	2.4	2.8	2.4	3.0	0.1	0.1	0.1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85.3	86.0	84.1	7.4	6.3	6.1	2.5	2.9	3.2	4.6	4.7	6.3	0.1	0.1	0.3
	중	2,844	2,986	3,260	81.5	81.3	82.3	9.1	10.1	9.5	5.3	4.7	4.2	3.7	3.7	3.9	0.4	0.1	0.2
	고	3,648	2,574	2,985	83.0	85.2	86.0	11.2	10.2	9.2	3.5	3.0	3.1	2.3	1.4	1.6	0.1	0.2	0.1

(2) 불안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불안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M=0.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불안요인(M=0.40)’,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M=0.38)’, ‘공황적 불안요인(M=0.24)’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3개의 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불안 수준이 2012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표 II-24 2011~2013년도 불안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1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0.45	0.41	0.41
	3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0.50	0.49	0.49
	6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0.69	0.64	0.65
	8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0.60	0.53	0.50
	12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0.26	0.25	0.26
	13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0.27	0.26	0.25
	19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0.11	0.09	0.11
소계		0.41	0.38	0.38
주관적 불안요인	4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0.45	0.40	0.41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53	0.49	0.49
	9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0.57	0.55	0.55
	10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0.51	0.44	0.46
	14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17	0.16	0.16
	17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0.33	0.31	0.32
소계		0.43	0.39	0.40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2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0.39	0.34	0.34
	18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0.52	0.47	0.47
	20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0.33	0.31	0.32
	21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0.85	0.79	0.85
소계		0.52	0.48	0.50
공황적 불안요인	7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0.51	0.46	0.45
	11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 할 것 같다	0.16	0.13	0.15
	15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0.20	0.18	0.20
	16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0.13	0.12	0.14
소계		0.25	0.22	0.24
불안 영역(전체)		0.40	0.37	0.3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불안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25>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요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주관적 불안요인 및 세부요인을 합산한 불안 전체의 경우 거주지 특성을 제외한 성별, 교급별, 가족구성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의 경우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한부모 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공황황적 불안요인에서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및 가족구성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즉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서울시 광역시보다, 한부모 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공황적 불안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사후검증결과가 <표 II-2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25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불안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주관적 불안요인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공황적 불안요인		불안(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0.34 (0.42)	79.33 ***	0.32 (0.48)	196.356 ***	0.47 (0.49)	13.703 ***	0.20 (0.40)	67.291 ***	0.33 (0.37)	109.203 ***
	여자 (n=4,710)	0.42 (0.44)		0.47 (0.57)		0.51 (0.51)		0.27 (0.46)		0.42 (0.42)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0.26 (0.36)	185.779 *** (ab,ac, bc)	0.29 (0.45)	122.744 *** (ab,ac, bc)	0.41 (0.43)	80.649 *** (ab,ac, bc)	0.17 (0.36)	52.49 *** (ab,ac)	0.28 (0.33)	147.469 *** (ab,ac, bc)
	중학교 (n=3,260)	0.42 (0.45)		0.42 (0.54)		0.50 (0.52)		0.25 (0.43)		0.40 (0.41)	
	고등학교 (n=2,985)	0.46 (0.46)		0.49 (0.57)		0.57 (0.53)		0.28 (0.48)		0.45 (0.43)	
거주지	서울 (n=1,539)	0.39 (0.44)	1.667	0.42 (0.53)	1.762	0.53 (0.50)	3.951	0.25 (0.46)	1.240	0.40 (0.40)	2.523 **
	광역시 (n=2,247)	0.37 (0.41)		0.39 (0.50)		0.49 (0.48)		0.23 (0.41)		0.37 (0.38)	
	시군 (n=5,616)	0.38 (0.44)		0.40 (0.54)		0.49 (0.51)		0.23 (0.43)		0.37 (0.4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n=8,221)	0.37 (0.42)	32.844 *** (gh)	0.39 (0.52)	20.736 *** (gh)	0.48 (0.49)	14.641 *** (gh)	0.22 (0.42)	19.314 *** (gh)	0.37 (0.39)	29.059 *** (gh)
	한부모가정 (n=840)	0.49 (0.51)		0.51 (0.59)		0.57 (0.52)		0.32 (0.50)		0.47 (0.45)	
	조손가정 (n=156)	0.39 (0.49)		0.44 (0.58)		0.56 (0.65)		0.26 (0.50)		0.41 (0.48)	
전체 M(SD)		0.38(0.43)		0.40(0.53)		0.49(0.50)		0.23(0.43)		0.38(0.40)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①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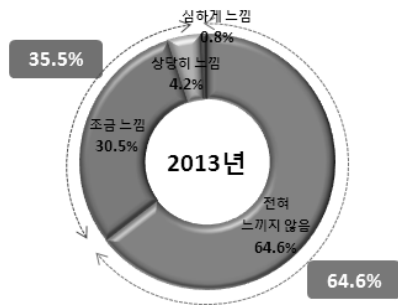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35.5%,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4.6%로 응답**

○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35.5%가 ‘느낀다’, 64.6%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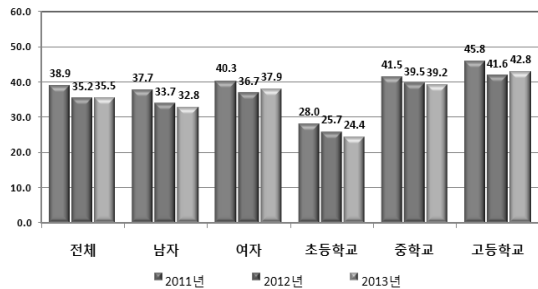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학생(37.9%)이 남학생(32.8%)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24.4%)에서 중학생(39.2%), 고등학생(42.8%)으로 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35.5%로 2012년(35.2%)에 비해 0.3%p 높았으나, 2011년(38.9%)과 비교할 때 3.4%p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응답률이 2012년(36.7%) 대비 2013년(37.9%)에 1.2%p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2012년(41.6%) 대비 2013년(42.8%)에 1.2%p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22]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표 II-26 나는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1.0	64.9	64.6	33.8	30.0	30.5	4.3	4.4	4.2	0.8	0.8	0.8	0.0	0.0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62.3	66.4	67.2	32.6	29.1	28.3	4.1	3.8	3.8	1.0	0.8	0.7	0.0	0.0	0.0
	여	4,561	4,251	4,710	59.7	63.3	62.1	35.1	30.9	32.6	4.5	5.0	4.5	0.7	0.8	0.8	0.0	0.0	0.0
연령	초	2,943	3,185	3,157	72.0	74.3	75.7	24.7	22.5	21.2	2.6	2.5	2.7	0.7	0.7	0.5	0.0	0.0	0.0
	중	2,844	2,986	3,260	58.5	60.5	60.7	36.4	33.0	33.8	4.4	5.7	4.4	0.7	0.8	1.0	0.0	0.0	0.0
	고	3,648	2,574	2,985	54.1	58.4	57.2	39.1	35.7	36.6	5.6	5.1	5.4	1.1	0.8	0.8	0.0	0.1	0.1

(2)-②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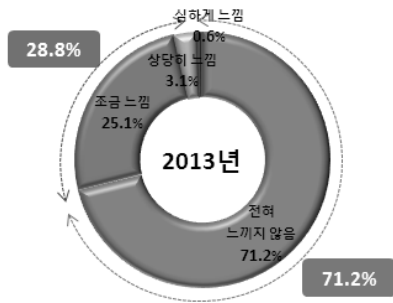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28.8%,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71.2%로 응답**

○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8.8%가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71.2%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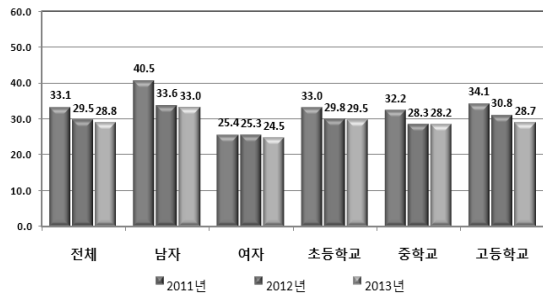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33.0%)의 경우에 자신이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2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 경우 29.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고 고등학생(28.7%), 중학생(28.2%)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 2011년 33.1%, 2012년 29.5%, 2013년 28.8%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 모두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2011년(40.5%) 대비 2013년(33.0%)에 7.5%p 다소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23】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표 II-27 나는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6.8	70.3	71.2	28.6	25.7	25.1	3.7	3.0	3.1	0.8	0.8	0.6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59.4	66.3	66.8	34.4	29.0	28.8	4.8	3.6	3.5	1.3	1.0	0.7	0.1	0.0	0.1
	여	4,561	4,251	4,710	74.6	74.6	75.5	22.5	22.3	21.3	2.5	2.4	2.7	0.4	0.6	0.5	0.1	0.1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66.8	70.1	70.6	28.7	26.0	25.7	3.5	3.1	3.3	0.8	0.7	0.5	0.0	0.1	0.0
	중	2,844	2,986	3,260	67.8	71.6	71.7	28.0	24.8	24.4	3.6	2.7	3.1	0.6	0.8	0.7	0.2	0.1	0.1
	고	3,648	2,574	2,985	66.0	69.2	71.3	29.1	26.4	25.2	3.9	3.3	2.9	1.1	1.1	0.6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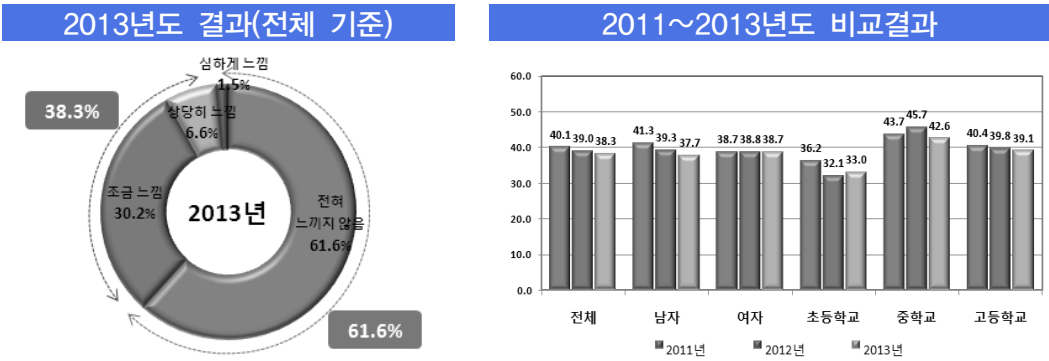
(2)-③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38.3%,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1.6%로 응답**

○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38.3%가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61.6%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38.7%)이 남학생(37.7%)보다 본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42.6%)의 경우에서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등학생(39.1%), 초등학생(33.0%)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 2011년(40.1%), 2012년(39.0%), 2013년은 38.3%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률이 매년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2012년(32.1%) 대비 2013년(33.0%)에 0.9%p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24】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표 II-28 나는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59.7	60.9	61.6	31.6	30.9	30.2	6.9	6.6	6.6	1.6	1.5	1.5	0.2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58.4	60.6	62.1	32.1	30.9	29.5	7.5	6.8	6.7	1.7	1.6	1.5	0.3	0.1	0.2
	여	4,561	4,251	4,710	61.2	61.2	61.1	31.0	31.0	30.8	6.2	6.4	6.4	1.5	1.4	1.5	0.1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63.5	67.7	66.7	29.3	26.3	26.1	5.5	4.8	5.5	1.4	1.0	1.4	0.3	0.2	0.3
	중	2,844	2,986	3,260	56.0	54.2	57.3	33.6	35.1	33.6	8.2	8.9	7.0	1.9	1.7	2.0	0.2	0.1	0.1
	고	3,648	2,574	2,985	59.6	60.1	60.9	31.8	31.9	30.7	7.0	6.1	7.2	1.6	1.8	1.2	0.1	0.1	0.0

(2)-④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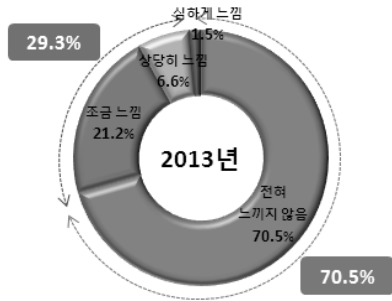
**‘나는 편하게 쉴 수가 없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29.3%,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70.5%로 응답**

○ ‘나는 편하게 쉴 수가 없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29.3%가 ‘느낀다’라고 응답하였고, 70.5%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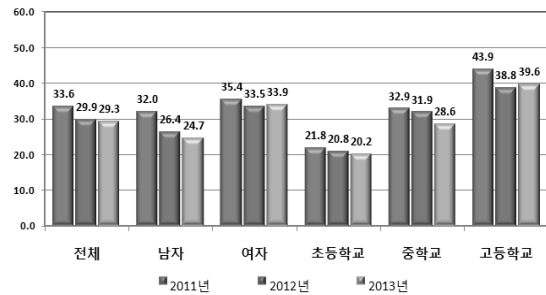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편하게 쉴 수가 없음을 느낀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33.9%로 남학생(24.7%)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20.2%), 중학생(28.6%), 고등학교(39.6%)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상기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29.3%로 2012년(29.9%)에 비해 0.6%p, 2011년(33.6%)에 비해 4.3%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최근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2012년(33.5%) 대비 2013년(33.9%)에 0.4%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38.8%) 대비 2013년(39.6%)에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25】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표 II-29 나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6.1	69.9	70.5	24.1	21.8	21.2	7.5	6.2	6.6	2.0	1.9	1.5	0.2	0.2	0.2	
성별	남	4,874	4,494	4,692	67.7	73.3	75.1	23.2	19.8	18.1	6.5	5.1	5.1	2.3	1.5	1.5	0.2	0.3	0.3
	여	4,561	4,251	4,710	64.3	66.4	66.0	25.0	23.9	24.3	8.7	7.4	8.1	1.7	2.2	1.5	0.2	0.1	0.1
비교단위	초	2,943	3,185	3,157	77.8	79.1	79.7	16.0	15.0	15.1	3.9	3.9	3.6	1.9	1.9	1.5	0.4	0.2	0.1
	중	2,844	2,986	3,260	66.8	67.9	71.1	24.9	23.5	20.0	6.6	6.5	7.1	1.4	1.9	1.5	0.2	0.1	0.4
	고	3,648	2,574	2,985	56.1	61.0	60.2	30.1	28.1	28.8	11.2	8.8	9.2	2.6	1.9	1.6	0.1	0.3	0.2

(2)-⑤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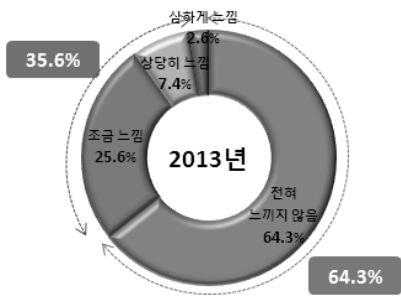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35.6%,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4.3%로 응답**

○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한 문항에서 ‘느낀다’의 응답률은 35.6%,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경우에는 64.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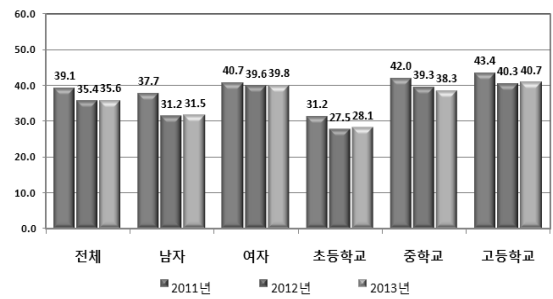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학생(39.8%)이 남학생(31.5%)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8.3%p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28.1%)에서 중학생(38.3%), 고등학교(40.7%)으로 올라갈수록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연도별 추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2013년 35.6%로 2012년(35.4%) 대비 0.2%p 높게, 2011년(39.1%)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013년에는 2011년도 대비 낮게 나타났으나, 2012년과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26】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표 II-30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0.6	64.6	64.3	28.5	25.0	25.6	7.7	7.5	7.4	2.9	2.9	2.6	0.2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2.1	68.6	68.4	27.3	22.2	23.2	7.0	6.5	6.3	3.4	2.5	2.0	0.2	0.2	0.1
	여	4,561	4,251	4,710	59.0	60.3	60.3	29.8	27.9	28.1	8.4	8.5	8.6	2.5	3.2	3.1	0.2	0.1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68.4	72.3	71.8	23.5	20.1	20.6	5.3	4.5	5.1	2.4	2.9	2.4	0.3	0.2	0.1
	중	2,844	2,986	3,260	58.0	60.6	61.7	30.5	27.3	27.7	8.3	9.2	7.7	3.2	2.8	2.9	0.1	0.1	0.1
	고	3,648	2,574	2,985	56.4	59.6	59.2	31.0	28.3	28.8	9.2	9.1	9.6	3.2	2.9	2.3	0.2	0.2	0.1

(2)-⑥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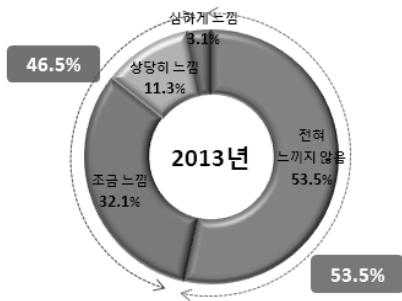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46.5%,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53.5%로 응답**

○ ‘나는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6.5%는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53.5%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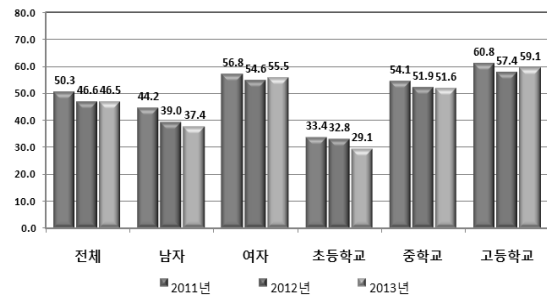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 여학생이 55.5%로 남학생(37.4%)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18.1%p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29.1%)에서 중학생(51.6%), 고등학교(59.1%)으로 교급이 높을수록 현기증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2011년 50.3%, 2012년 46.6%, 2013년 46.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2012년(54.6%) 대비 2013년(55.5%)에는 0.9%p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57.4%) 대비 2013년(59.1%)에 1.7%p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27】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표 II-31 나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9.6	53.3	53.5	35.4	32.4	32.1	11.0	10.7	11.3	3.9	3.5	3.1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55.7	60.9	62.5	31.9	28.3	27.5	9.2	8.1	8.0	3.1	2.6	1.9	0.2	0.2	0.1
	여	4,561	4,251	4,710	43.2	45.3	44.5	39.1	36.8	36.6	12.9	13.4	14.6	4.8	4.4	4.3	0.0	0.1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66.5	67.0	70.8	25.7	25.3	22.2	5.6	5.3	5.2	2.1	2.2	1.7	0.1	0.2	0.1
	중	2,844	2,986	3,260	45.7	48.1	48.3	37.3	33.3	33.3	12.1	14.2	14.2	4.7	4.4	4.1	0.1	0.1	0.1
	고	3,648	2,574	2,985	39.1	42.5	40.9	41.7	40.2	41.1	14.4	13.2	14.6	4.7	4.0	3.4	0.1	0.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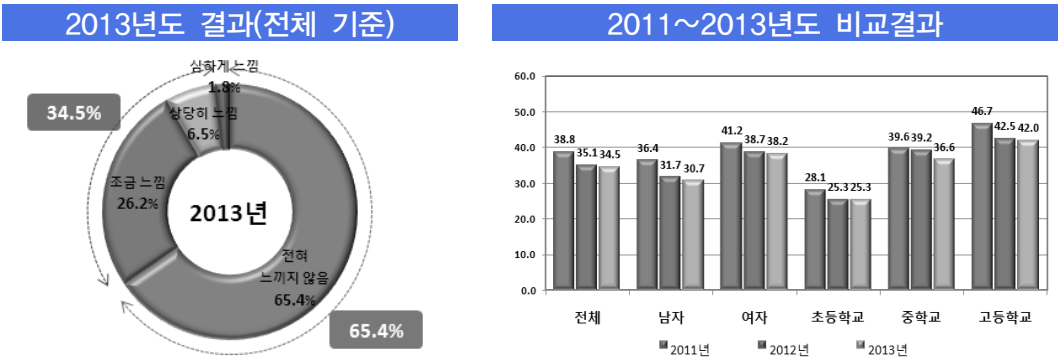
(2)-⑦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뒹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34.5%,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5.4%로 나타남**

○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뒹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34.5%는 ‘느낀다’, 65.4%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38.2%)이 남학생(30.7%)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5%p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42.0%)의 경우에 초등학생(25.3%)이나 중학생(36.6%)에 비해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뒹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38.8%, 2012년 35.1%, 2013년 34.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2012년도와 2013년도가 각각 25.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II-28】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뒹다

표 II-32 나는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뒹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1.2	64.8	65.4	28.8	26.6	26.2	7.8	6.6	6.5	2.2	1.9	1.8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63.4	68.1	69.1	27.2	24.3	23.8	7.1	5.8	5.4	2.1	1.6	1.5	0.1	0.1	0.1
	여	4,561	4,251	4,710	58.8	61.2	61.6	30.4	29.0	28.6	8.6	7.5	7.5	2.2	2.2	2.1	0.1	0.2	0.1
년 령 단 위	초	2,943	3,185	3,157	71.8	74.5	74.7	22.1	20.7	20.4	4.7	3.3	3.8	1.3	1.3	1.1	0.1	0.2	0.0
	중	2,844	2,986	3,260	60.3	60.7	63.3	29.5	29.1	27.3	8.0	8.2	7.1	2.1	1.9	2.2	0.1	0.1	0.1
	고	3,648	2,574	2,985	53.3	57.4	57.8	33.6	31.1	31.2	10.2	8.9	8.7	2.9	2.5	2.1	0.1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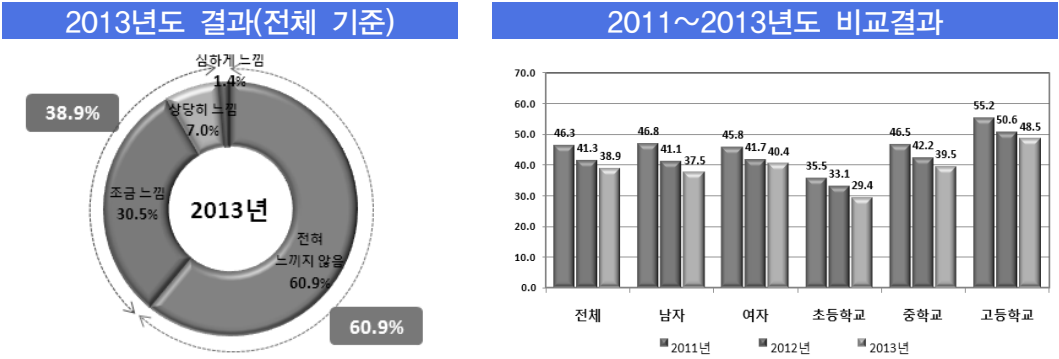
(2)-⑧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38.9%,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0.9%로 응답**

○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9%가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60.9%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침착하지 못함을 느낀다’는, 성별로는 여학생(40.4%)이 남학생(37.5%)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29.4%)에서 중학생(39.5%), 고등학생(48.5%)으로 갈수록 본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38.9%로 2012년(41.3%)에 비해 2.4%p, 2011년(46.3%)에 비해 7.4%p 낮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 역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의 경우 2011년(46.8%) 대비 2013년(37.5%)에 9.3%p 낮게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29】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표 II-33 나는 침착하지 못하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연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53.5	58.5	60.9	35.0	31.7	30.5	8.9	7.4	7.0	2.4	2.2	1.4	0.1	0.2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53.1	58.7	62.4	34.8	31.2	29.6	9.2	7.5	6.7	2.8	2.4	1.2	0.1	0.2	0.1
	여	4,561	4,251	4,710	54.1	58.2	59.5	35.2	32.3	31.5	8.6	7.4	7.2	2.0	2.0	1.7	0.0	0.2	0.1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64.5	66.8	70.4	28.8	26.3	23.7	5.0	4.6	4.5	1.7	2.2	1.2	0.1	0.1	0.1
	중	2,844	2,986	3,260	53.5	57.7	60.5	35.3	31.9	30.9	8.8	7.8	7.0	2.4	2.5	1.6	0.1	0.1	0.1
	고	3,648	2,574	2,985	44.8	49.2	51.4	39.8	38.2	37.4	12.2	10.5	9.6	3.2	1.9	1.5	0.1	0.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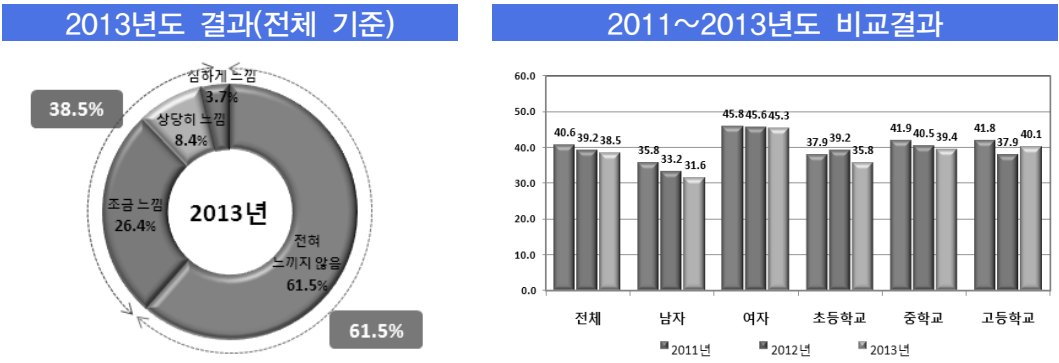
(2)-⑨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은 38.5%,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경우 61.5%로 나타남**

○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38.5%는 ‘느낀다’라고 응답하였고, 61.5%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45.3%)의 경우에 남학생(31.6%)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40.1%)에게서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39.4%), 초등학생(3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40.6%), 2012년(39.2%), 2013년은 38.5%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은 2013년 40.1%로 2012년(37.9%)에 비해 2.2%p 높게, 2011년(41.8%)에 비해 1.7%p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30】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표 II-34 나는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59.2	60.7	61.5	28.2	27.3	26.4	8.9	8.5	8.4	3.5	3.4	3.7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64.0	66.7	68.4	26.4	23.9	23.3	6.8	6.6	5.8	2.6	2.7	2.5	0.2	0.1	0.1
	여	4,561	4,251	4,710	54.1	54.4	54.7	30.1	30.9	29.5	11.2	10.6	10.9	4.5	4.1	4.9	0.1	0.1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61.8	60.8	64.1	26.3	27.3	24.8	7.3	7.9	6.9	4.3	4.0	4.1	0.2	0.1	0.1
	중	2,844	2,986	3,260	57.9	59.5	60.6	29.1	28.0	27.0	9.5	9.0	8.9	3.3	3.5	3.5	0.1	0.0	0.1
	고	3,648	2,574	2,985	58.1	62.0	59.9	29.0	26.6	27.4	9.7	8.7	9.3	3.1	2.6	3.4	0.1	0.1	0.1

(2)-⑩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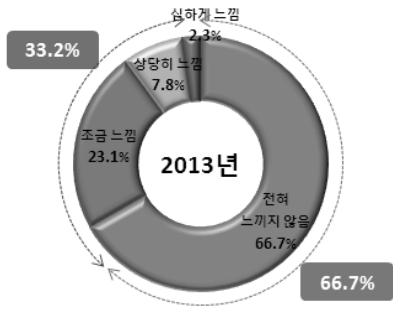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에 대해
‘느낀다’는 33.2%,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6.7%로 나타남**

○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에 관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3.2%는 ‘느낀다’, 66.7%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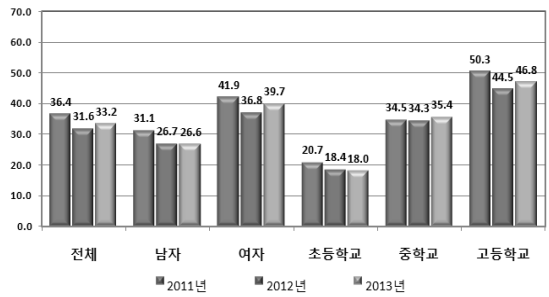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학생(39.7%)의 경우에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는 응답이 남학생(26.6%)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8.0%)에서 중학생(35.4%), 고등학생(46.8%)으로 교급 수준이 높아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점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33.2%로 2012년(31.6%) 대비 1.6%p 높게, 2011년(36.4%) 대비 3.2%p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2013년 39.7%로 2012년(36.8%)에 비해 2.9%p 증가하였으며,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2013년 46.8%로 2012년(44.5%)에 비해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31】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표 II-35 나는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3.6	68.3	66.7	24.5	21.3	23.1	8.9	7.7	7.8	3.0	2.6	2.3	0.1	0.2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8.8	73.2	73.3	21.9	18.7	19.6	7.0	6.0	5.6	2.2	2.0	1.4	0.1	0.2	0.1
	여	4,561	4,251	4,710	58.0	63.0	60.2	27.2	24.0	26.6	10.9	9.6	9.9	3.8	3.2	3.2	0.1	0.3	0.1
연도	초	2,943	3,185	3,157	79.3	81.2	81.9	15.3	13.6	13.4	3.6	3.2	3.2	1.8	1.6	1.4	0.1	0.3	0.1
	중	2,844	2,986	3,260	65.3	65.5	64.5	24.4	23.0	24.5	8.0	8.4	8.1	2.1	2.9	2.8	0.2	0.1	0.1
	고	3,648	2,574	2,985	49.6	55.4	53.1	31.9	28.7	31.8	13.8	12.5	12.2	4.6	3.3	2.8	0.1	0.2	0.1

(2)-①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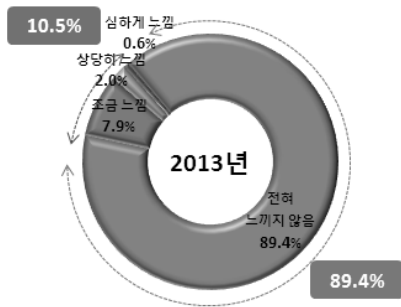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10.5%,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89.4%로 응답**

○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10.5%가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9.4%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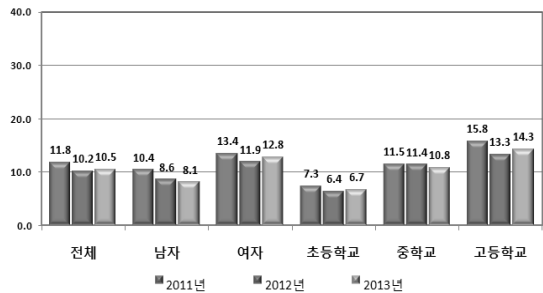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12.8%)이 남학생(8.1%)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고교급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14.3%)의 응답률은 초등학생(6.7%)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0.5%로 2012년(10.2%)에 비해 0.3%p 높게, 2011년(11.8%)에 비해 1.3%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2013년 12.8%로 2012년(11.9%)에 비해 0.9%p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2013년에 2012년 대비 약간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32]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표 II-36 나는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8.1	89.7	89.4	8.8	7.7	7.9	2.2	1.9	2.0	0.8	0.6	0.6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89.4	91.3	91.8	7.9	6.3	6.5	1.6	1.8	1.2	0.9	0.5	0.4	0.2	0.1	0.1
	여	4,561	4,251	4,710	86.6	88.0	87.0	9.8	9.2	9.3	2.8	2.0	2.7	0.8	0.7	0.8	0.0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92.6	93.5	93.3	5.8	5.1	5.1	1.1	0.9	1.1	0.4	0.4	0.5	0.2	0.0	0.1
	중	2,844	2,986	3,260	88.5	88.4	89.1	8.5	8.9	8.1	2.0	1.9	2.1	1.0	0.6	0.6	0.1	0.1	0.1
	고	3,648	2,574	2,985	84.2	86.5	85.7	11.5	9.6	10.7	3.2	3.0	2.8	1.1	0.7	0.8	0.1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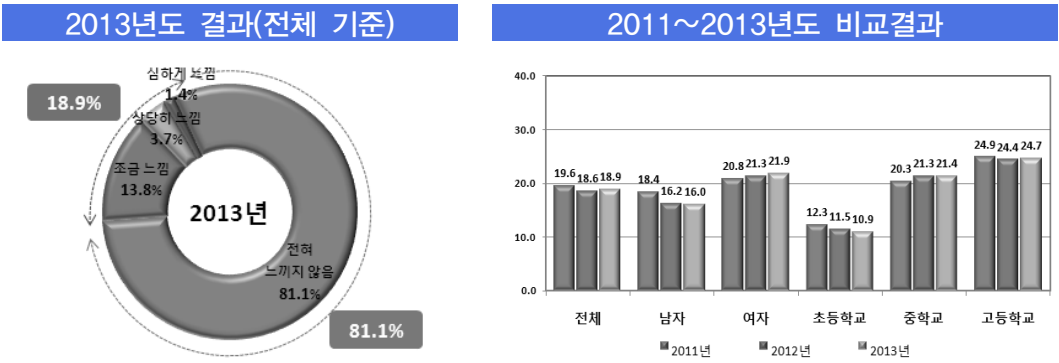
(2)-⑫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18.9%,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81.1%로 나타남**

○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18.9%가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81.1%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자주 손이 떨림을 느낀다’는, 성별로는 여학생(21.9%)이 남학생(16.0%)보다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0.9%)에서 중학생(21.4%), 고등학교(24.7%)으로 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8.9%로 2012년(18.6%)에 비해 0.3%p 높았으나, 2011년(19.6%)과 비교하여 0.7%p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의 응답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응답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3】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표 II-37 나는 자주 손이 떨린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0.3	81.2	81.1	14.6	13.7	13.8	3.6	3.5	3.7	1.4	1.4	1.4	0.1	0.1	0.0	
성 별	남	4,874	4,494	4,692	81.4	83.8	84.0	13.7	11.8	11.7	3.4	3.0	3.0	1.3	1.4	1.3	0.1	0.1	0.0
	여	4,561	4,251	4,710	79.2	78.6	78.1	15.6	15.7	15.9	3.7	4.1	4.5	1.5	1.5	1.5	0.0	0.1	0.0
교 급 단 위	초	2,943	3,185	3,157	87.7	88.4	89.1	9.8	9.1	8.6	1.8	1.6	1.6	0.7	0.8	0.7	0.0	0.0	0.1
	중	2,844	2,986	3,260	79.6	78.5	78.5	15.0	15.4	15.0	3.7	4.4	4.4	1.6	1.5	2.0	0.2	0.1	0.0
	고	3,648	2,574	2,985	75.0	75.6	75.3	18.2	17.4	17.9	4.9	4.8	5.2	1.8	2.2	1.6	0.1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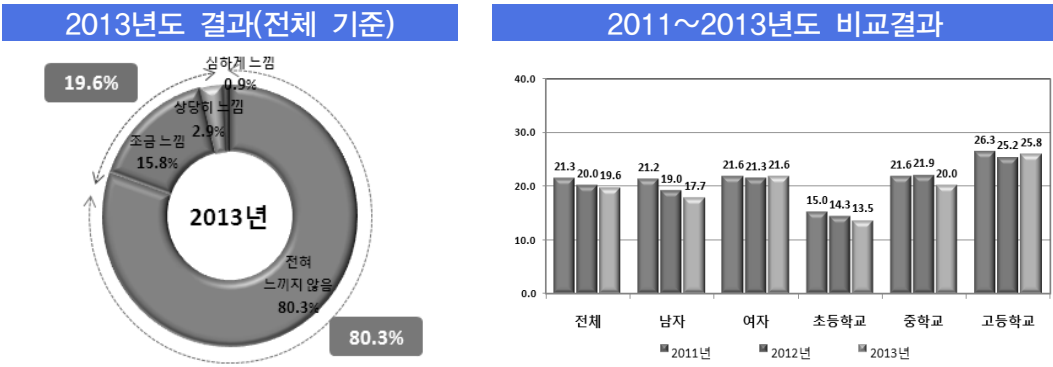
(2)-⑬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19.6%,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80.3%로 응답**

○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19.6%가 ‘느낀다’, 80.3%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21.6%)이 남학생(17.7%)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9%p 더 높았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25.8%)의 경우, 초등학생(13.5%) 및 중학생(20.0%)에 비해서 안절부절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 21.3%, 2012년 20.0%, 2013년 19.6%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응답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응답률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2012년 대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2012년도(25.2%) 대비 2013년도(25.8%)에 0.6%p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4】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표 II-38 나는 안절부절 못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8.5	79.8	80.3	17.0	15.6	15.8	3.3	3.4	2.9	1.0	1.0	0.9	0.1	0.0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78.7	81.0	82.2	16.9	14.9	14.6	3.1	3.2	2.4	1.2	0.9	0.7	0.1	0.0	0.1
	여	4,561	4,251	4,710	78.4	78.7	78.3	17.2	16.4	17.0	3.5	3.7	3.5	0.9	1.2	1.1	0.0	0.0	0.0
연령	초	2,943	3,185	3,157	84.8	85.7	86.5	12.5	11.3	11.2	1.9	2.0	1.6	0.6	1.0	0.7	0.1	0.0	0.0
	중	2,844	2,986	3,260	78.3	78.0	79.8	17.2	16.5	16.2	3.2	4.5	2.9	1.2	0.9	0.9	0.1	0.0	0.1
	고	3,648	2,574	2,985	73.6	74.7	74.1	20.6	20.0	20.2	4.5	4.0	4.4	1.2	1.2	1.2	0.1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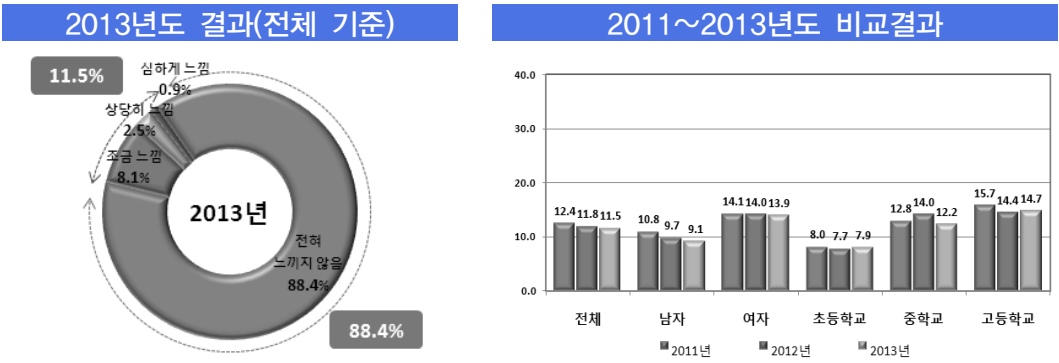
(2)-⑭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11.5%,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대다수인 88.4%가 응답**

○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11.5%가 ‘느낀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8.4%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여학생(13.9%)이 남학생(9.1%)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7.9%)에서 중학생(12.2%), 고등학교(14.7%)으로 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2.4%, 2012년 11.8%, 2013년 11.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는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2012년도 대비 각각 0.2%p, 0.3%p 높게 나타났으나, 중학생의 경우 2013년도(12.2%)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II-35】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표 II-39 나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7.5	88.1	88.4	9.1	8.7	8.1	2.3	2.3	2.5	1.0	0.8	0.9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89.1	90.2	90.8	8.1	7.2	6.8	1.7	1.8	1.7	1.0	0.7	0.6	0.1	0.1	0.1
	여	4,561	4,251	4,710	85.8	85.9	86.1	10.2	10.3	9.4	3.0	2.7	3.2	0.9	1.0	1.3	0.0	0.1	0.0
학 급	초	2,943	3,185	3,157	91.9	92.3	92.1	5.6	5.5	5.4	1.7	1.4	1.7	0.7	0.8	0.8	0.1	0.1	0.0
	중	2,844	2,986	3,260	87.1	85.9	87.7	9.7	10.4	8.4	2.0	2.8	2.7	1.1	0.8	1.1	0.1	0.1	0.1
	고	3,648	2,574	2,985	84.3	85.5	85.3	11.5	10.6	10.7	3.2	2.8	3.0	1.0	1.0	1.0	0.0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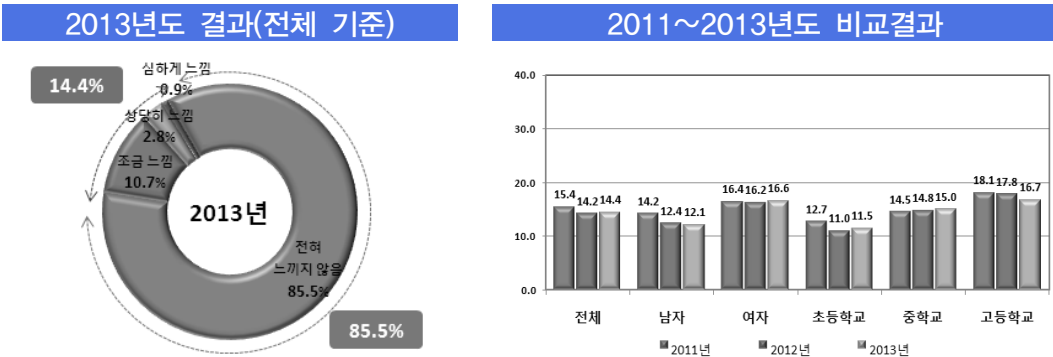
(2)-⑮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14.4%,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85.5%로 나타남**

○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14.4%가 ‘느낀다’라고 응답했고, 85.5%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16.6%)이 남학생(12.1%)보다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11.5%)에서 중학생(15.0%), 고등학생(16.7%)으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4.4%로 2012년(14.2%)에 비해 0.2%p 높게, 2011년(15.4%)에 비해 1.0%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응답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응답률은 최근 3년 중 2013년도(16.6%)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2013년도에 2012년도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림 II-36】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표 II-40 나는 가끔씩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4.6	85.7	85.5	11.8	11.2	10.7	2.6	2.2	2.8	1.0	0.8	0.9	0.0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85.7	87.5	87.7	11.0	9.6	9.2	2.2	2.1	2.2	1.0	0.7	0.7	0.1	0.0	0.1
	여	4,561	4,251	4,710	83.5	83.7	83.3	12.5	12.9	12.2	3.0	2.3	3.3	0.9	1.0	1.1	0.0	0.1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87.3	89.0	88.4	10.2	8.8	9.0	1.8	1.6	2.0	0.7	0.6	0.5	0.0	0.1	0.1
	중	2,844	2,986	3,260	85.4	85.1	84.8	11.1	11.7	11.0	2.4	2.2	3.0	1.0	0.9	1.0	0.1	0.0	0.1
	고	3,648	2,574	2,985	81.9	82.2	83.2	13.6	13.8	12.3	3.4	2.9	3.3	1.1	1.1	1.1	0.0	0.1	0.2

(2)-⑯ 불안 - 공황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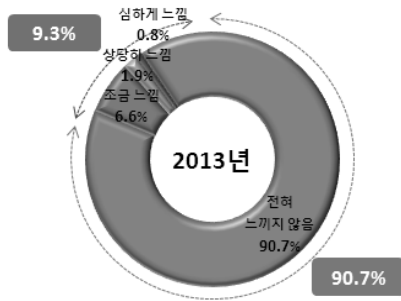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9.3%,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90.7%로 응답**

○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에 대해서 ‘느낀다’의 응답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9.3%에 불과하였으나, ‘전혀 느끼지 않는다’로 응답한 비율은 대다수인 90.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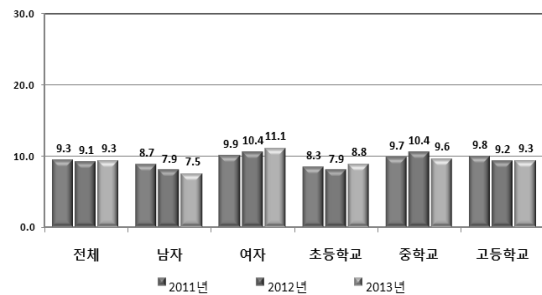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학생(11.1%)이 남학생(7.5%)보다 상기 증상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6%p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9.6%)의 경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생(9.3%), 초등학생(8.8%)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9.3%로 2012년(9.1%)에 비해 0.2%p 높게, 2011년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응답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응답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도(8.8%)의 응답률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37】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표 II-41 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90.6	90.8	90.7	6.7	6.6	6.6	1.9	1.7	1.9	0.7	0.8	0.8	0.0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91.3	91.9	92.5	6.2	5.7	5.6	1.7	1.5	1.3	0.8	0.7	0.6	0.0	0.1	0.1
	여	4,561	4,251	4,710	90.0	89.5	88.9	7.2	7.6	7.5	2.1	2.0	2.5	0.6	0.8	1.1	0.0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91.5	92.0	91.1	6.0	5.8	6.2	1.5	1.2	1.7	0.8	0.9	0.9	0.0	0.2	0.1
	중	2,844	2,986	3,260	90.3	89.5	90.3	6.6	7.4	6.9	2.3	2.3	1.8	0.8	0.7	0.9	0.1	0.1	0.1
	고	3,648	2,574	2,985	90.2	90.7	90.6	7.3	6.9	6.5	1.9	1.6	2.1	0.6	0.7	0.7	0.0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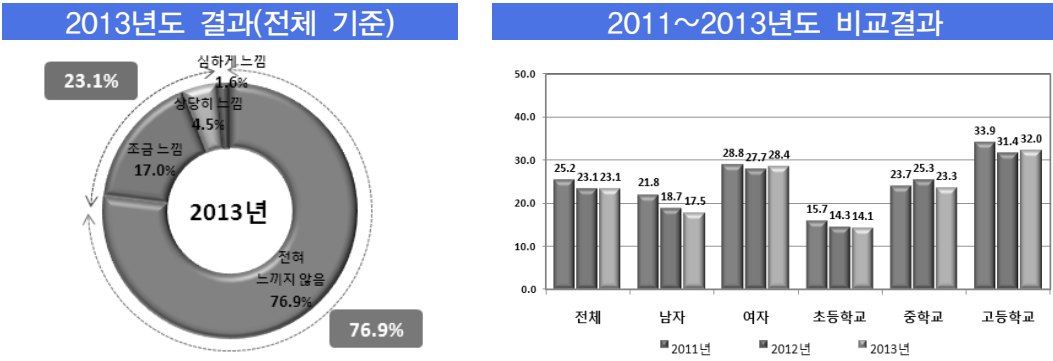
(2)-⑰ 불안 - 주관적 불안요인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23.1%,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76.9%로 나타남**

○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3.1%는 ‘느낀다’, 76.9%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불안한 상태임을 느낀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학생(28.4%)이 남학생(17.5%)보다 10.9%p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14.1%)에서 중학생(23.3%), 고등학교(32.0%)으로 갈수록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23.1%로 2012년과 동일하게, 2011년(25.2%)에 비해 2.1%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응답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2012년도(27.7%) 대비 0.7%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 고등학생은 2012년(31.4%) 대비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8】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표 II-42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4.8	76.7	76.9	19.0	17.0	17.0	4.5	4.4	4.5	1.7	1.7	1.6	0.1	0.2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78.1	81.1	82.4	16.7	14.3	13.5	3.7	3.2	3.1	1.4	1.2	0.9	0.1	0.2	0.1
	여	4,561	4,251	4,710	71.1	72.1	71.4	21.4	20.0	20.4	5.3	5.5	5.8	2.1	2.2	2.2	0.1	0.1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84.2	85.4	85.9	12.5	10.9	11.0	2.1	2.4	2.1	1.1	1.0	1.0	0.1	0.2	0.0
	중	2,844	2,986	3,260	76.2	74.5	76.3	17.8	18.7	17.1	4.4	4.7	4.5	1.5	1.9	1.7	0.1	0.2	0.3
	고	3,648	2,574	2,985	66.0	68.5	67.9	25.1	22.7	23.1	6.4	6.4	6.9	2.4	2.3	2.0	0.1	0.1	0.1

(2)-18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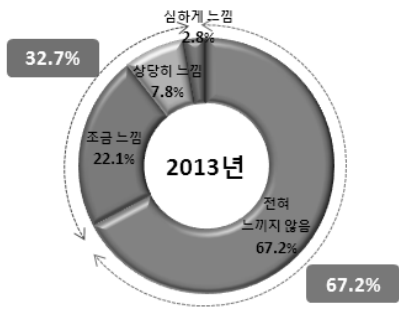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32.7%,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67.2%로 응답**

○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2.7%가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67.2%가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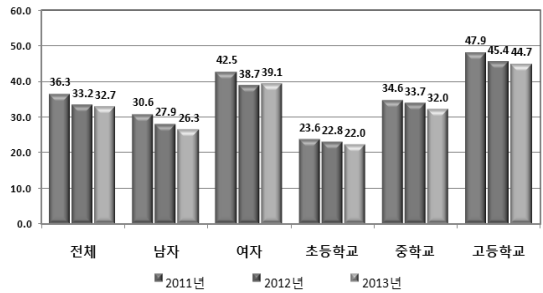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상기 문항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응답은, 여학생(39.1%)이 남학생(26.3%)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22.0%)에서 중학생(32.0%), 고등학교(44.7%)으로 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 36.3%, 2012년 33.2%, 2013년 32.7%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응답률은 매년 낮아지는 반면, 여학생은 2013년도(39.1%)에 2012년도(38.7%) 대비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모든 교급에서 매년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39】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표 II-43 나는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3.7	66.8	67.2	24.5	22.2	22.1	8.3	7.7	7.8	3.5	3.3	2.8	0.0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9.5	72.0	73.6	21.1	19.4	19.3	7.1	6.1	5.1	2.4	2.4	1.9	0.0	0.1	0.1
	여	4,561	4,251	4,710	57.5	61.2	60.9	28.2	25.1	24.9	9.6	9.3	10.4	4.7	4.3	3.8	0.1	0.1	0.0
연령	초	2,943	3,185	3,157	76.4	77.1	78.0	18.5	17.2	17.5	3.8	3.9	3.4	1.3	1.7	1.1	0.0	0.1	0.1
	중	2,844	2,986	3,260	65.4	66.2	67.9	23.3	22.6	21.8	8.3	7.5	7.3	3.0	3.6	2.9	0.0	0.0	0.1
	고	3,648	2,574	2,985	52.0	54.5	55.2	30.3	27.8	27.3	12.0	12.5	12.8	5.6	5.1	4.6	0.1	0.2	0.1

(2)-⑱ 불안 - 신경생리학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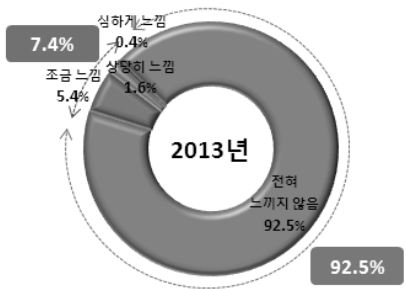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7.4%,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92.5%로 응답**

○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라는 문항과 관련해서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4%,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대다수인 9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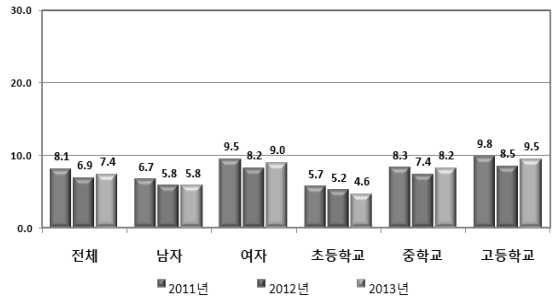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9.0%)이 남학생(5.8%)보다 자신이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초등학교(4.6%)에서 중학생(8.2%), 고등학교(9.5%)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가끔 기절할 것 같다’는 응답은 2013년에는 7.4%로 2012년(6.9%)에 비해 0.5%p 증가하였으나, 2011년(8.1%)에 비해 0.7%p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2013년도와 2012년도 각각 5.8%로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응답률은 2013년도(9.0%)에 2012년도(8.2%) 대비 0.8%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교급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0]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표 II-44 나는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91.8	92.8	92.5	6.2	5.2	5.4	1.3	1.2	1.6	0.6	0.5	0.4	0.2	0.2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93.1	94.0	94.1	5.1	4.3	4.1	1.0	1.0	1.3	0.6	0.5	0.4	0.2	0.2	0.1
	여	4,561	4,251	4,710	90.4	91.6	91.0	7.3	6.3	6.7	1.6	1.4	1.9	0.6	0.5	0.4	0.1	0.2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94.2	94.6	95.4	4.6	3.9	3.5	0.8	0.9	0.9	0.3	0.4	0.2	0.1	0.1	0.0
	중	2,844	2,986	3,260	91.5	92.2	91.6	6.4	5.4	6.1	1.3	1.4	1.7	0.6	0.6	0.4	0.3	0.3	0.2
	고	3,648	2,574	2,985	90.1	91.3	90.5	7.4	6.6	6.7	1.6	1.4	2.3	0.8	0.5	0.5	0.1	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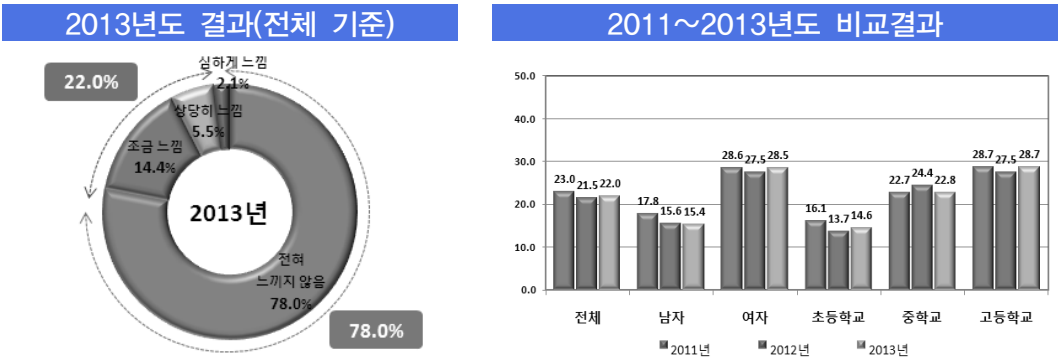
(2)-20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에 대해
‘느낀다’는 22.0%,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78.0%로 나타남**

○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22.0%가 ‘느낀다’고 응답했고, 78.0%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28.5%)이 남학생(15.4%)보다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4.6%)에서 중학생(22.8%), 고등학생(28.7%)으로 갈수록 동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22.0%로 2012년(21.5%)에 비해 0.5%p 높게, 2011년(23.0%)에 비해 1.0%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응답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응답률은 2013년도(28.5%)에 2012년도(27.5%) 대비 1.0%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매년 교급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41】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표 II-45 나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6.9	78.5	78.0	15.6	14.3	14.4	5.1	5.0	5.5	2.3	2.2	2.1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82.1	84.2	84.6	12.5	11.0	10.3	3.7	3.0	3.5	1.6	1.6	1.6	0.1	0.1	0.0
	여	4,561	4,251	4,710	71.3	72.4	71.4	19.0	17.7	18.4	6.5	7.0	7.4	3.1	2.8	2.7	0.1	0.2	0.1
학 급	초	2,943	3,185	3,157	83.7	86.2	85.3	12.1	10.4	10.5	2.7	2.4	2.7	1.3	0.9	1.4	0.1	0.2	0.0
	중	2,844	2,986	3,260	77.1	75.5	77.1	15.3	14.9	15.0	5.2	6.7	5.6	2.2	2.8	2.2	0.2	0.1	0.1
	고	3,648	2,574	2,985	71.2	72.4	71.2	18.7	18.5	17.8	6.8	6.0	8.2	3.2	3.0	2.7	0.0	0.1	0.1

(2)-㉔ 불안 - 자율신경계적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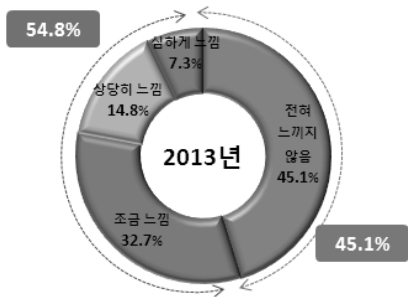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에 대해
‘느낀다’의 응답률이 54.8%,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45.1%로 응답**

○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4.8%가 ‘느낀다’라고 응답한 반면, 45.1%가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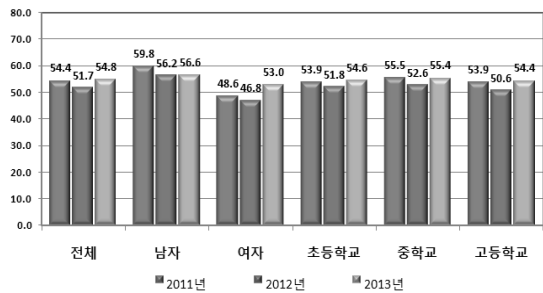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느낀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56.6%로 여학생(53.0%)보다 3.6%p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55.4%)의 경우가 초등학생(54.6%) 및 고등학생(54.4%)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54.4%), 2012년(51.7%), 2013년은 54.8%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 모든 응답자 특성이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2】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표 II-46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상당히 느낌			심하게 느낌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5.6	48.3	45.1	31.3	31.5	32.7	15.3	13.4	14.8	7.8	6.8	7.3	0.0	0.1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40.1	43.7	43.3	31.3	31.8	30.7	18.0	15.6	16.6	10.5	8.8	9.3	0.0	0.1	0.1
	여	4,561	4,251	4,710	51.4	53.1	47.0	31.3	31.3	34.7	12.3	10.9	12.9	5.0	4.6	5.4	0.0	0.0	0.0
비교기준	초	2,943	3,185	3,157	46.1	48.2	45.3	32.3	32.7	34.0	13.9	12.3	13.8	7.7	6.8	6.8	0.0	0.1	0.0
	중	2,844	2,986	3,260	44.4	47.4	44.6	31.4	32.3	32.3	16.0	13.4	15.3	8.1	6.9	7.8	0.1	0.1	0.1
	고	3,648	2,574	2,985	46.1	49.4	45.6	30.4	29.3	31.8	15.8	14.7	15.2	7.7	6.6	7.4	0.0	0.1	0.0

(3) 게임 중독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게임 중독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M=1.2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게임지향적 생활(M=1.20)’,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M=1.14)’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항목 및 요인의 평균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남.

표 II-47 2011~2013년도 게임 중독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게임 지향적 생활	1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1.42	1.35	1.37
	2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1.25	1.21	1.21
	3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1.18	1.13	1.14
	4 게임에서 사귀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1.16	1.13	1.13
	5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1.20	1.16	1.15
	6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27	1.20	1.21
소계		1.25	1.20	1.20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7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1.38	1.28	1.30
	8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1.31	1.24	1.27
	9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23	1.19	1.19
	1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1.34	1.26	1.27
	11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28	1.22	1.23
	12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1.37	1.28	1.30
13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1.24	1.20	1.22	
소계		1.31	1.24	1.25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14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1.19	1.15	1.16
	15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1.26	1.22	1.24
	16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1.07	1.06	1.07
	17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1.08	1.06	1.06
	18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1.12	1.09	1.10
	19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1.28	1.21	1.20
20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1.18	1.14	1.13	
소계		1.17	1.13	1.14
게임 중독 영역(전체)		1.24	1.19	1.19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게임 중독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세부요인인 게임지향적 생활, 게임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금단과 정서경험에 대해 응답자별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에 대한 거주지별 집단 간 차이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게임중독의 모든 세부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모든 요인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이 광역시에 비해 게임내성과 통제력 상실을 제외한 전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에 비해 모든 세부요인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게임중독별 세부요인을 합산한 전체에서도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및 가족구성에 따른 집단 수준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항목별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는 <표 II-4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48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게임 중독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 중독 (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1.26 (0.45)	205.697***	1.37 (0.55)	563.312***	1.21 (0.44)	416.196***	1.28 (0.42)	510.889***
	여자 (n=4,710)	1.14 (0.34)		1.14 (0.36)		1.06 (0.25)		1.12 (0.27)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1.18 (0.38)	11.258*** (ab)	1.19 (0.39)	38.161*** (ab,ac)	1.10 (0.29)	25.189*** (ab,ac)	1.16 (0.30)	28.437*** (ab,ac)
	중학교 (n=3,260)	1.23 (0.41)		1.29 (0.51)		1.16 (0.39)		1.23 (0.38)	
	고등학교 (n=2,985)	1.19 (0.41)		1.28 (0.52)		1.15 (0.40)		1.21 (0.39)	
거주지	서울 (n=1,539)	1.21 (0.40)	4.172***	1.24 (0.45)	1.963	1.13 (0.33)	1.731	1.20 (0.34)	2.928*
	광역시 (n=2,247)	1.18 (0.36)		1.24 (0.44)		1.13 (0.33)		1.18 (0.32)	
	사군 (n=5,616)	1.21 (0.42)		1.26 (0.50)		1.14 (0.38)		1.20 (0.38)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1.19 (0.39)	21.754*** (gh,gi)	1.25 (0.46)	13.470*** (gh)	1.13 (0.35)	9.471*** (gi)	1.18 (0.32)	18.419*** (gh,gi)
	한부모가정 (n=840)	1.26 (0.44)		1.32 (0.54)		1.16 (0.38)		1.24 (0.41)	
	조손가정 (n=156)	1.31 (0.51)		1.34 (0.66)		1.21 (0.52)		1.25 (0.36)	
전체 M(SD)		1.20(0.40)		1.25(0.48)		1.14(0.36)		1.19(0.36)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3)-①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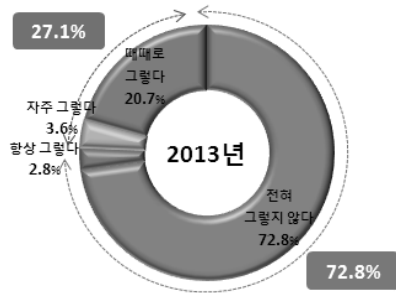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27.1%, ‘그렇지 않다’는 72.8%가 응답

○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7.1%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72.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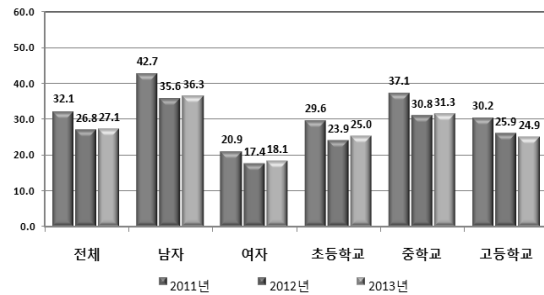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학생(18.1%)에 비해 남학생(36.3%)이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는 응답이 높았다. 교급별에서는 중학생의 경우에 3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등학생(25.0%), 고등학생(2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27.1%로 2012년(26.8%)에 비해 0.3%p 높게, 2011년(32.1%)에 비해 5.0%p 낮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교급별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3】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표 II-49 게임을 하는 것이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1	2.4	2.8	4.0	3.4	3.6	25.0	21.0	20.7	67.8	73.1	72.8	0.0	0.0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4.0	2.6	3.2	5.4	4.6	4.6	33.3	28.4	28.5	57.3	64.3	63.6	0.0	0.0	0.1
	여	4,561	4,251	4,710	2.2	2.1	2.4	2.6	2.2	2.7	16.1	13.1	13.0	79.1	82.5	82.0	0.0	0.0	0.0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4.4	2.9	2.9	3.5	3.0	3.4	21.7	18.0	18.7	70.3	76.0	75.0	0.0	0.1	0.1
	중	2,844	2,986	3,260	3.0	2.5	3.2	4.9	4.0	4.0	29.2	24.3	24.1	62.9	69.2	68.7	0.0	0.0	0.0
	고	3,648	2,574	2,985	2.1	1.6	2.2	3.8	3.4	3.5	24.3	20.9	19.2	69.7	74.1	75.1	0.1	0.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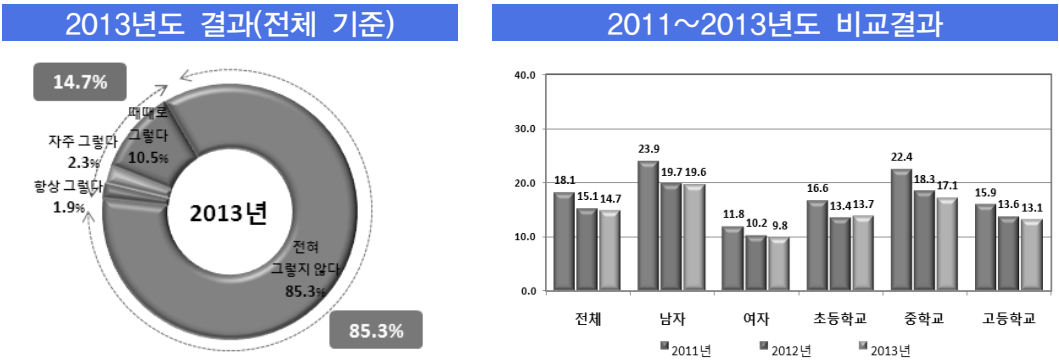
(3)-②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14.7%, ‘그렇지 않다’는 85.3%로 나타남**

○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와 관련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4.7%,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대다수인 85.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남학생(19.6%)이 여학생(9.8%)보다 상기 문항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배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17.1%)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13.7%), 고등학생(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더 좋다’는 응답은, 2011년 18.1%, 2012년 15.1%, 2013년 14.7%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도 이 같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은 2013년도 (13.7%)에 2012년도(13.4%)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4】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표 II-50 게임공간에서의 생활이 실제생활보다 더 좋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0	1.6	1.9	2.7	2.2	2.3	13.4	11.3	10.5	81.8	84.8	85.3	0.1	0.0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2.6	1.9	2.4	3.5	2.9	2.8	17.8	14.9	14.4	76.0	80.2	80.5	0.1	0.1	0.0
	여	4,561	4,251	4,710	1.4	1.3	1.4	1.8	1.4	1.8	8.6	7.5	6.6	88.0	89.8	90.1	0.1	0.0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2.7	1.9	2.4	2.0	1.8	2.1	11.9	9.7	9.2	83.4	86.6	86.3	0.1	0.0	0.0
	중	2,844	2,986	3,260	2.1	1.7	2.0	3.5	3.0	2.6	16.8	13.6	12.5	77.4	81.6	82.9	0.1	0.1	0.0
	고	3,648	2,574	2,985	1.4	1.2	1.3	2.7	1.8	2.2	11.8	10.6	9.6	84.0	86.4	86.8	0.1	0.0	0.1

(3)-③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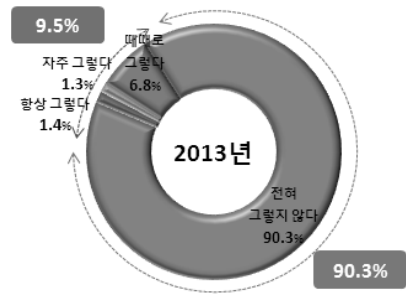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90.3%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5%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90.3%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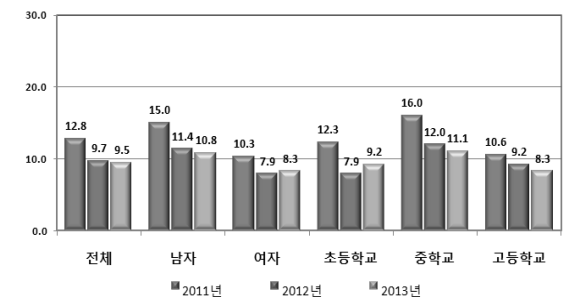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상기문항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남학생(10.8%)이 여학생(8.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1.1%)이 초등학생(9.2%) 및 고등학생(8.3%)에 비해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2.8%, 2012년 9.7%, 2013년 9.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2013년도(8.3%)에 2012년도(7.9%) 대비 0.4%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은 2013년도(9.2%)에 2012년도(7.9%) 대비 1.3%p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5]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표 II-51 게임 속의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3	1.0	1.4	2.1	1.5	1.3	9.4	7.2	6.8	87.2	90.2	90.3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1.6	1.2	1.7	2.7	2.0	1.6	10.7	8.2	7.5	84.9	88.5	89.0	0.1	0.2	0.1
	여	4,561	4,251	4,710	0.9	0.9	1.1	1.4	0.9	1.0	8.0	6.1	6.2	89.5	92.1	91.7	0.1	0.0	0.1
연령	초	2,943	3,185	3,157	1.8	1.2	1.8	1.8	1.0	1.1	8.7	5.7	6.3	87.6	91.9	90.7	0.1	0.2	0.1
	중	2,844	2,986	3,260	1.3	1.1	1.6	2.6	2.0	1.5	12.1	8.9	8.0	83.9	87.9	88.9	0.1	0.0	0.0
	고	3,648	2,574	2,985	0.8	0.7	0.9	1.9	1.5	1.2	7.9	7.0	6.2	89.3	90.8	91.6	0.0	0.1	0.1

(3)-④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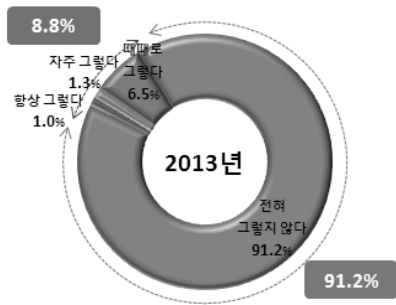
**‘게임에서 사귄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8.8%, ‘그렇지 않다’는 91.2%가 응답**

○ ‘게임에서 사귄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와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 중 8.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91.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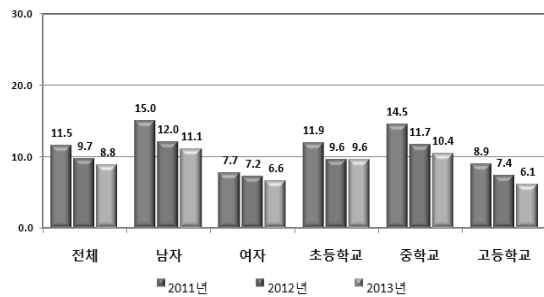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게임에서 사귄 친구들이 나를 더 알아준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학생(11.1%)이 여학생(6.6%)보다 4.5%p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10.4%)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어 초등학생(9.6%), 고등학생(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1.5%, 2012년 9.7%, 2013년 8.8%로 매년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 모두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를 보였으며,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은 2013년도와 2012년도가 각각 9.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6】 게임에서 사귄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표 II-52 게임에서 사귄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알아준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1	0.9	1.0	1.9	1.6	1.3	8.5	7.2	6.5	88.4	90.2	91.2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1.7	1.0	1.4	2.7	2.4	1.6	10.6	8.6	8.1	84.9	87.9	88.9	0.1	0.1	0.1
	여	4,561	4,251	4,710	0.5	0.8	0.7	1.0	0.8	1.0	6.2	5.6	4.9	92.2	92.8	93.4	0.1	0.0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1.9	1.0	1.3	1.8	1.8	1.4	8.2	6.8	6.9	88.0	90.2	90.3	0.1	0.1	0.0
	중	2,844	2,986	3,260	1.1	1.0	1.1	2.5	2.1	1.5	10.9	8.6	7.8	85.5	88.2	89.5	0.1	0.0	0.1
	고	3,648	2,574	2,985	0.6	0.7	0.7	1.6	0.9	0.8	6.7	5.8	4.6	91.1	92.6	93.9	0.1	0.0	0.1

(3)-⑤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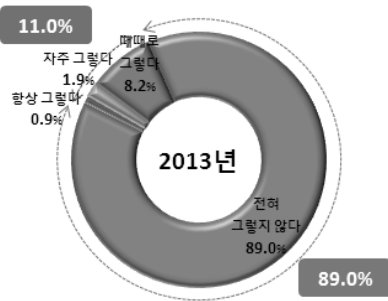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89.0%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11.0%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9.0%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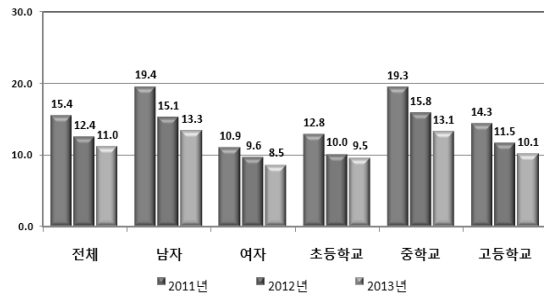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13.3%)이 여학생(8.5%)보다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가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10.1%), 초등학생(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5.4%, 2012년 12.4%, 2013년 11.0%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 모두 이 같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 2011년도(19.3%) 대비 6.2%p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7】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표 II-53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1	1.0	0.9	2.5	1.9	1.9	11.8	9.5	8.2	84.5	87.5	89.0	0.1	0.1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1.6	1.4	1.1	3.1	2.6	2.3	14.7	11.1	9.9	80.4	84.7	86.6	0.1	0.1	0.1
	여	4,561	4,251	4,710	0.5	0.7	0.6	1.8	1.2	1.4	8.6	7.7	6.5	88.9	90.5	91.5	0.1	0.0	0.0
연령	초	2,943	3,185	3,157	1.6	1.2	1.0	2.3	1.7	1.5	8.9	7.1	7.0	87.1	89.8	90.5	0.1	0.1	0.0
	중	2,844	2,986	3,260	1.1	1.2	1.1	3.5	2.4	2.5	14.7	12.2	9.5	80.5	84.2	86.9	0.2	0.0	0.0
	고	3,648	2,574	2,985	0.6	0.7	0.5	1.9	1.6	1.6	11.8	9.2	8.0	85.6	88.5	89.8	0.1	0.0	0.1

(3)-⑥ 게임 중독 - 게임 지향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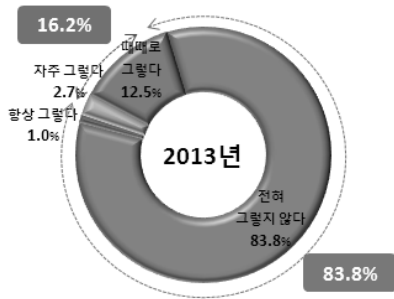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에 대해
‘그렇다’는 16.2%, ‘그렇지 않다’는 83.8%로 나타남**

○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83.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16.2%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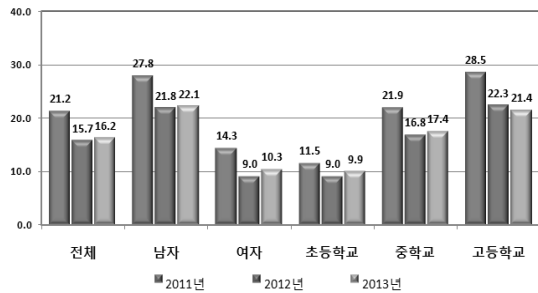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22.1%)이 여학생(10.3%)보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9.9%), 중학생(17.4%), 고등학생(21.4%)으로 교급수준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6.2%로 2012년(15.7%)에 비해 0.5%p 높게, 2011년(21.2%)에 비해 5.0%p 낮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체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를 보였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8】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표 II-54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1	0.9	1.0	3.7	2.7	2.7	16.4	12.1	12.5	78.7	84.4	83.8	0.1	0.0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1.6	1.3	1.4	5.1	3.9	3.9	21.1	16.6	16.8	72.2	78.1	77.9	0.1	0.1	0.1
	여	4,561	4,251	4,710	0.7	0.4	0.5	2.1	1.4	1.6	11.5	7.2	8.2	85.7	90.9	89.8	0.0	0.0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1.1	0.7	0.7	1.5	1.3	1.5	8.9	7.0	7.7	88.4	91.0	90.1	0.1	0.1	0.0
	중	2,844	2,986	3,260	0.8	0.9	1.3	3.8	2.9	2.7	17.3	13.0	13.4	78.0	83.1	82.6	0.0	0.0	0.0
	고	3,648	2,574	2,985	1.4	1.0	0.9	5.3	4.1	4.1	21.8	17.2	16.4	71.4	77.6	78.5	0.0	0.0	0.1

(3)-⑦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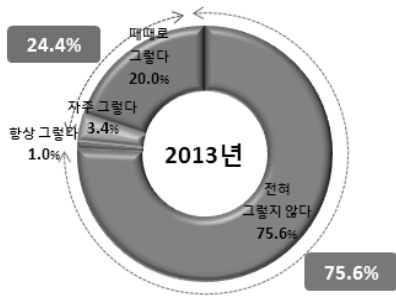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24.4%, ‘그렇지 않다’는 75.6%가 응답**

○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라는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24.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75.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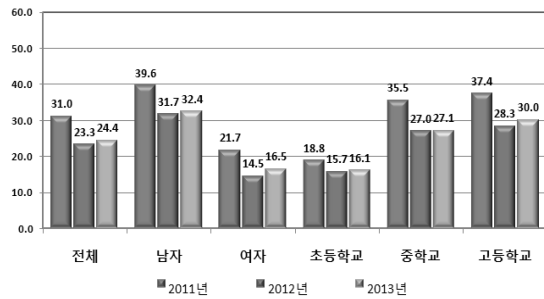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상기 문항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32.4%)이 여학생(16.5%)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6.1%), 중학생(27.1%), 고등학생(30.0%)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동 척도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24.4%로 2012년(23.3%)에 비해 1.1%p 높게, 2011년(31.0%)에 비해 6.6%p 낮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체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를 보였으며, 교급별로는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 2013년 27.1%로 2011년(35.5%) 대비 8.4%p가 낮게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49】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표 II-55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2	0.8	1.0	4.7	3.0	3.4	25.1	19.5	20.0	68.9	76.6	75.6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1.5	1.2	1.4	6.6	4.4	4.8	31.5	26.1	26.2	60.3	68.3	67.5	0.1	0.1	0.1
	여	4,561	4,251	4,710	0.8	0.4	0.6	2.6	1.5	2.0	18.3	12.6	13.9	78.2	85.5	83.5	0.0	0.0	0.0
연령	초	2,943	3,185	3,157	0.8	0.7	0.5	1.8	1.4	1.3	16.2	13.6	14.3	81.2	84.2	83.8	0.1	0.0	0.0
	중	2,844	2,986	3,260	1.2	1.0	1.3	5.5	3.5	3.5	28.8	22.5	22.3	64.5	72.9	72.7	0.0	0.1	0.1
	고	3,648	2,574	2,985	1.5	0.8	1.0	6.4	4.2	5.4	29.5	23.3	23.6	62.5	71.6	69.9	0.0	0.0	0.1

(3)-⑧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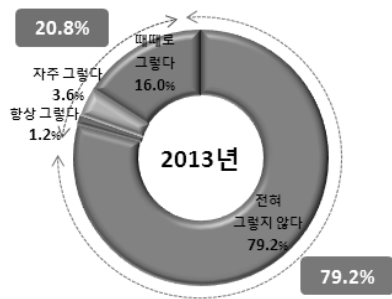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20.8%, ‘그렇지 않다’는 79.2%가 응답**

○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0.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79.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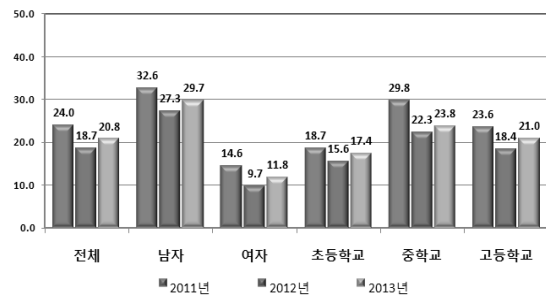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29.7%)이 여학생(11.8%)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23.8%)이 고등학생(21.0%)과 초등학생(17.4%)에 비해 상기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20.8%로 2012년(18.7%)에 비해 2.1%p 높게, 2011년(24.0%)에 비해 3.2%p 낮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체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를 보였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2013년 23.8%로, 2011년(29.8%) 대비 6.0%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50】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표 II-56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3	1.0	1.2	4.3	3.2	3.6	18.4	14.5	16.0	76.0	81.3	79.2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1.8	1.6	1.8	6.2	5.0	5.4	24.6	20.7	22.5	67.3	72.7	70.1	0.1	0.1	0.1
	여	4,561	4,251	4,710	0.7	0.4	0.6	2.2	1.3	1.8	11.7	8.0	9.4	85.3	90.4	88.2	0.1	0.0	0.0
연령	초	2,943	3,185	3,157	1.1	0.8	0.9	2.6	2.1	2.4	15.0	12.7	14.1	81.3	84.4	82.6	0.0	0.1	0.1
	중	2,844	2,986	3,260	1.3	1.2	1.5	5.7	4.0	4.4	22.8	17.1	17.9	70.0	77.7	76.1	0.2	0.0	0.0
	고	3,648	2,574	2,985	1.4	1.0	1.2	4.5	3.6	4.0	17.7	13.8	15.8	76.5	81.6	78.9	0.1	0.0	0.1

(3)-⑨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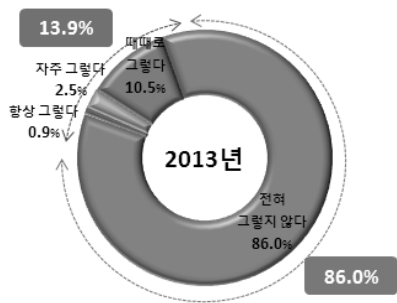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13.9%만이 ‘그렇다’라고 응답**

○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3.9%에 불과하였고, 대다수인 86.0%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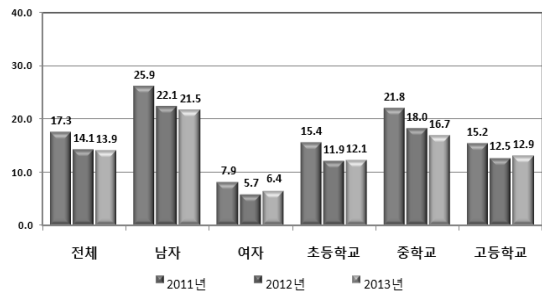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상기 문항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은 남학생 21.5%, 여학생 6.4%로, 15.1%p의 차이를 보였다. 교급별에서는 중학생(16.7%)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어 고등학생(12.9%), 초등학생(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7.3%, 2012년 14.1%, 2013년 13.9%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은 매년 감소 추세이나, 여학생은 2012년 대비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2013년에 2012년 대비 각각 0.2%p,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51】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표 II-57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3	1.1	0.9	2.9	2.4	2.5	13.1	10.6	10.5	82.6	85.8	86.0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1.9	1.8	1.5	4.4	4.0	4.0	19.6	16.3	16.0	73.9	77.8	78.5	0.2	0.1	0.1
	여	4,561	4,251	4,710	0.5	0.5	0.4	1.3	0.6	1.0	6.1	4.6	5.0	92.0	94.2	93.5	0.0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1.2	1.4	0.8	2.2	1.6	1.8	12.0	8.9	9.5	84.4	87.9	87.8	0.2	0.2	0.1
	중	2,844	2,986	3,260	1.5	1.3	1.1	4.4	2.8	3.5	15.9	13.9	12.1	78.0	82.0	83.3	0.2	0.0	0.1
	고	3,648	2,574	2,985	1.1	0.7	0.9	2.4	2.8	2.1	11.7	9.0	9.9	84.8	87.5	87.0	0.0	0.1	0.1

(3)-⑩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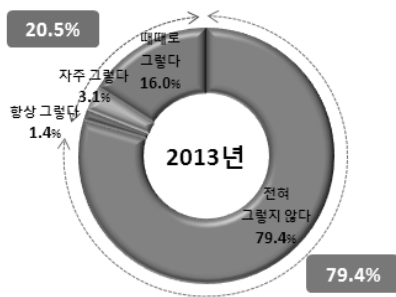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에 대해
‘그렇다’는 20.5%, ‘그렇지 않다’는 79.4%로 나타남**

○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20.5%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79.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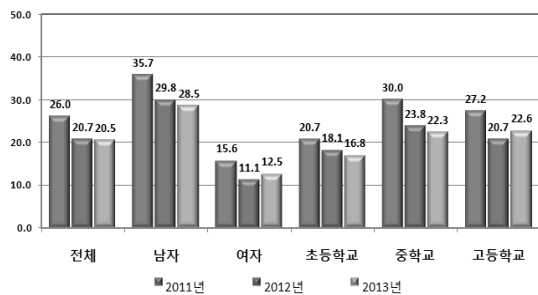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학생(12.5%)보다 남학생(28.5%)의 경우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22.6%)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22.3%), 초등학생(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26.0%, 2012년 20.7%, 2013년 20.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 최근 3년간 남학생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여학생은 2012년(11.1%) 대비 1.4%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은 2013년에 22.6%로 2012년(20.7%) 대비 1.9%p가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52】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표 II-58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7	1.1	1.4	4.4	3.0	3.1	19.9	16.6	16.0	73.9	79.2	79.4	0.1	0.0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2.5	1.7	2.2	6.6	4.6	4.8	26.6	23.5	21.5	64.1	70.1	71.5	0.2	0.1	0.1
	여	4,561	4,251	4,710	0.8	0.5	0.6	2.1	1.4	1.4	12.7	9.2	10.5	84.4	88.8	87.3	0.0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1.7	1.4	1.2	3.2	1.9	2.2	15.8	14.8	13.4	79.2	81.9	83.2	0.2	0.0	0.0
	중	2,844	2,986	3,260	1.8	1.0	1.7	5.4	3.8	3.4	22.8	19.0	17.2	69.8	76.2	77.6	0.1	0.1	0.1
	고	3,648	2,574	2,985	1.6	1.0	1.3	4.7	3.7	3.7	20.9	16.0	17.6	72.8	79.2	77.4	0.1	0.0	0.1

(3)-①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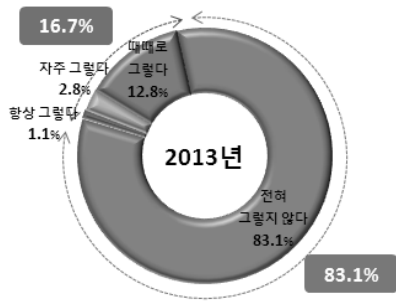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16.7%, ‘그렇지 않다’는 83.1%로 나타남**

○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와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 중 16.7%는 ‘그렇다’, 83.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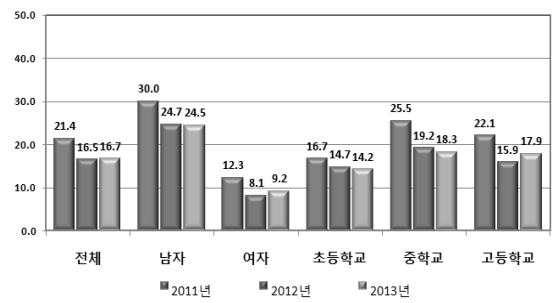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24.5%)이 여학생(9.2%)보다 15.3%p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18.3%), 고등학생(17.9%), 초등학생(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6.7%로 2012년(16.5%)에 비해 0.2%p 높게, 2011년(21.4%)에 비해 4.7%p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최근 3년간 남학생의 응답률이 여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3년 17.9%로 2012년(15.9%) 대비 2.0%p가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53】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표 II-59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7	1.2	1.1	3.3	2.6	2.8	16.4	12.7	12.8	78.5	83.4	83.1	0.1	0.0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2.7	2.0	1.8	4.7	4.2	4.3	22.6	18.5	18.4	69.9	75.3	75.4	0.1	0.0	0.1
	여	4,561	4,251	4,710	0.7	0.4	0.5	1.7	1.0	1.4	9.9	6.7	7.3	87.7	91.9	90.8	0.0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1.8	1.2	1.0	2.2	2.0	2.0	12.7	11.5	11.2	83.1	85.2	85.6	0.1	0.1	0.2
	중	2,844	2,986	3,260	1.6	1.4	1.4	4.1	3.2	3.0	19.8	14.6	13.9	74.5	80.8	81.6	0.0	0.0	0.0
	고	3,648	2,574	2,985	1.9	1.0	1.0	3.4	2.8	3.5	16.8	12.1	13.4	77.9	84.1	82.0	0.0	0.0	0.1

(3)-⑫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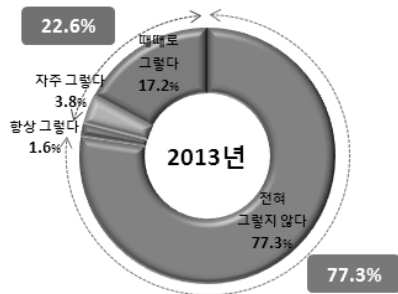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에 대해
‘그렇다’는 22.6%, ‘그렇지 않다’는 전체 응답자의 77.3%가 응답**

○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에 대해서 응답자의 22.6%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77.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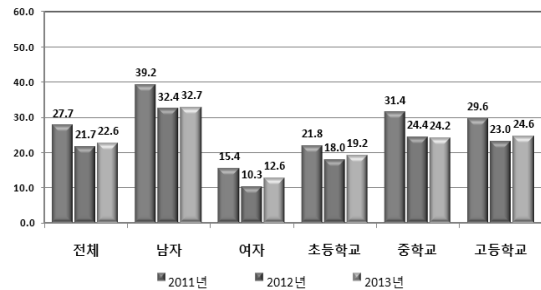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32.7%)의 경우 여학생(12.6%)보다 안하겠다고 마음먹어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가 24.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24.2%), 초등학생(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22.6%로 2012년(21.7%)에 비해 0.9%p 높게, 2011년(27.7%)에 비해 5.1%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체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의 응답률은 2013년 24.2%로 2012년(24.4%) 대비 0.2%p, 2011년(31.4%) 대비 7.2%p 낮게 나타나면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54】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표 II-60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2	1.5	1.6	5.0	3.5	3.8	20.5	16.7	17.2	72.3	78.2	77.3	0.0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3.5	2.3	2.7	7.6	5.7	5.8	28.1	24.4	24.2	60.8	67.5	67.3	0.0	0.1	0.1
	여	4,561	4,251	4,710	0.9	0.5	0.5	2.1	1.2	1.9	12.4	8.6	10.2	84.6	89.6	87.3	0.0	0.1	0.0
연 령 단 위	초	2,943	3,185	3,157	1.9	1.5	1.2	3.0	2.1	2.6	16.9	14.4	15.4	78.3	81.9	80.9	0.0	0.1	0.0
	중	2,844	2,986	3,260	2.4	1.4	1.8	6.3	4.2	4.0	22.7	18.8	18.4	68.5	75.4	75.7	0.0	0.2	0.1
	고	3,648	2,574	2,985	2.4	1.4	1.8	5.5	4.5	5.0	21.7	17.1	17.8	70.4	77.0	75.3	0.1	0.0	0.1

(3)-⑬ 게임 중독 - 게임 내성과 통제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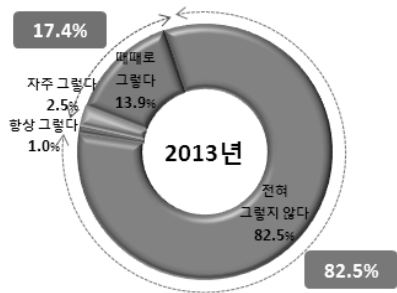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17.4%, ‘그렇지 않다’는 82.5%로 나타남**

○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 중 17.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82.5%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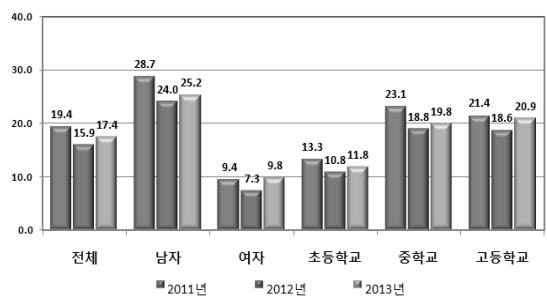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25.2%)이 여학생(9.8%)보다 게임 생각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20.9%), 중학생(19.8%), 초등학생(11.8%)의 순으로 교급수준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7.4%로 2012년(15.9%)에 비해 1.5%p 높게, 2011년(19.4%)에 비해 2.0%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체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 중 2013년에 9.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2012년 7.3%, 2011년 9.4%)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55】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표 II-61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1	0.9	1.0	2.7	2.2	2.5	15.6	12.8	13.9	80.6	84.1	82.5	0.0	0.1	0.0	
성 별	남	4,874	4,494	4,692	1.8	1.4	1.7	4.1	3.3	3.8	22.8	19.3	19.7	71.2	75.9	74.8	0.1	0.2	0.1
	여	4,561	4,251	4,710	0.4	0.3	0.4	1.2	1.0	1.3	7.8	6.0	8.1	90.6	92.7	90.2	0.0	0.0	0.0
년 급	초	2,943	3,185	3,157	0.8	0.8	0.8	1.7	1.4	1.4	10.8	8.6	9.6	86.6	89.0	88.2	0.0	0.2	0.0
	중	2,844	2,986	3,260	1.0	1.1	1.4	3.2	2.9	3.1	18.9	14.8	15.3	76.8	81.1	80.2	0.1	0.0	0.0
	고	3,648	2,574	2,985	1.5	0.6	0.9	3.2	2.3	3.0	16.7	15.7	17.0	78.5	81.3	79.0	0.0	0.0	0.1

(3)-⑭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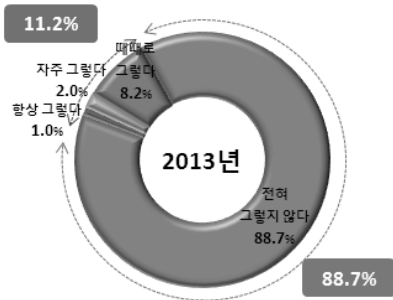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건디기 힘든 일이다’에 대해
대다수인 88.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건디기 힘든 일이다’라는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11.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8.7%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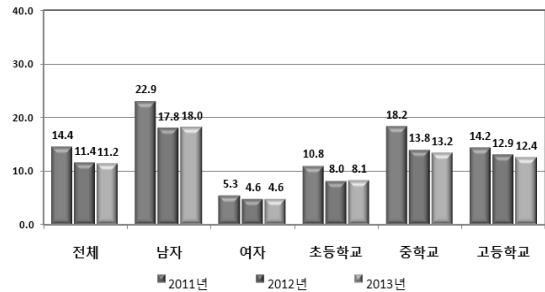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18.0%)이 여학생(4.6%)보다 게임을 못하는 것이 건디기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배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3.2%)에서 상기 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으며, 고등학생(12.4%), 초등학생(8.1%)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4.4%, 2012년 11.4%, 2013년 11.2%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은 2013년도와 2012년도가 각각 4.6%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2013년 18.0%로 2012년(17.8%) 대비 0.2%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은 2013년에 8.1%로 2012년(8.0%) 대비 0.1%p가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56】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건디기 힘든 일이다

표 II-62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건디기 힘든 일이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2	1.0	1.0	2.4	1.7	2.0	10.8	8.7	8.2	85.5	88.5	88.7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2.0	1.6	1.7	4.0	2.8	3.1	16.9	13.4	13.2	77.1	82.1	81.9	0.1	0.1	0.1
	여	4,561	4,251	4,710	0.3	0.3	0.4	0.6	0.6	1.0	4.4	3.7	3.2	94.6	95.4	95.4	0.1	0.0	0.0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1.1	1.0	0.7	1.7	1.3	1.3	8.0	5.7	6.1	89.0	91.8	91.9	0.2	0.1	0.0
	중	2,844	2,986	3,260	1.5	1.1	1.2	2.9	1.9	2.5	13.8	10.8	9.5	81.7	86.2	86.7	0.0	0.0	0.1
	고	3,648	2,574	2,985	1.0	0.8	1.1	2.4	2.1	2.3	10.8	10.0	9.0	85.7	87.2	87.5	0.1	0.0	0.1

(3)-⑮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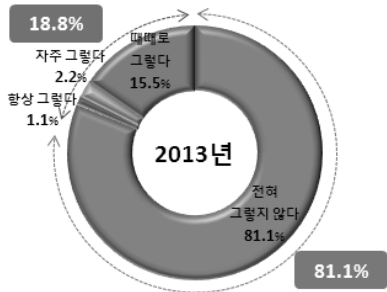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18.8%, ‘그렇지 않다’는 81.1%로 나타남**

○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81.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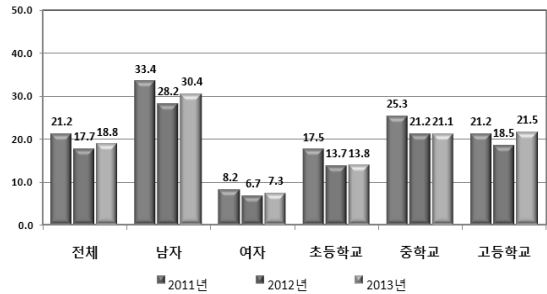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남학생(30.4%)의 경우 게임을 계속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7.3%)보다 4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중학생(21.1%), 초등학생(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8.8%로 2012년(17.7%)에 비해 1.1%p 높게, 2011년(21.2%)에 비해 2.4%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체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의 응답률은 2013년 21.1%로 2012년(21.2%) 대비 0.1%p, 2011년(25.3%) 대비 4.2%p 낮게 나타나면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57】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표 II-63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생각을 하게 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0.9	0.9	1.1	2.7	2.2	2.2	17.6	14.6	15.5	78.6	82.2	81.1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1.6	1.5	1.9	4.6	3.7	3.7	27.2	23.0	24.8	66.4	71.7	69.5	0.2	0.1	0.1
	여	4,561	4,251	4,710	0.2	0.3	0.3	0.7	0.7	0.7	7.3	5.7	6.3	91.7	93.3	92.7	0.0	0.0	0.0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1.2	0.9	1.0	1.9	1.4	1.5	14.4	11.4	11.3	82.3	86.1	86.1	0.2	0.2	0.1
	중	2,844	2,986	3,260	0.9	1.1	1.1	3.6	2.9	2.6	20.8	17.2	17.4	74.6	78.7	78.7	0.0	0.0	0.2
	고	3,648	2,574	2,985	0.7	0.6	1.2	2.7	2.4	2.4	17.8	15.5	17.9	78.8	81.4	78.5	0.1	0.1	0.1

(3)-⑯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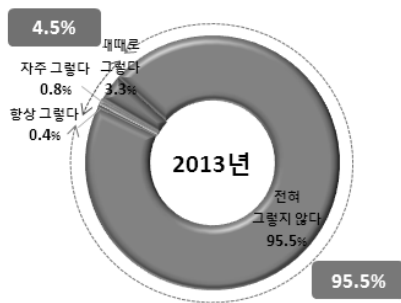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5%만이 ‘그렇다’라고 응답**

○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5%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95.5%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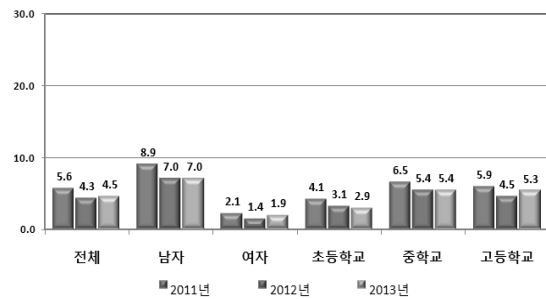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우선 성별로는 남학생(7.0%)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1.9%)보다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이 5.4%로 초등학생(2.9%) 및 고등학생(5.3%)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4.5%로 2012년(4.3%)에 비해 0.2%p 높게, 2011년(5.6%)에 비해 1.1%p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률은 10%내의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성별로는 여학생의 경우 2012년도(1.4%) 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2012년(4.5%) 대비 0.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58】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표 II-64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게임을 해야 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0.4	0.4	0.4	0.8	0.6	0.8	4.4	3.3	3.3	94.4	95.7	95.5	0.1	0.0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0.7	0.6	0.7	1.3	1.0	1.1	6.9	5.4	5.2	91.1	92.9	92.9	0.1	0.1	0.1
	여	4,561	4,251	4,710	0.1	0.2	0.1	0.3	0.1	0.4	1.7	1.1	1.4	97.9	98.6	98.0	0.1	0.0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0.4	0.3	0.3	0.4	0.6	0.4	3.3	2.2	2.2	95.7	96.9	97.2	0.1	0.1	0.0
	중	2,844	2,986	3,260	0.3	0.4	0.5	1.1	0.7	1.2	5.1	4.3	3.7	93.4	94.6	94.6	0.1	0.0	0.0
	고	3,648	2,574	2,985	0.4	0.5	0.4	0.8	0.5	0.8	4.7	3.5	4.1	94.1	95.5	94.6	0.1	0.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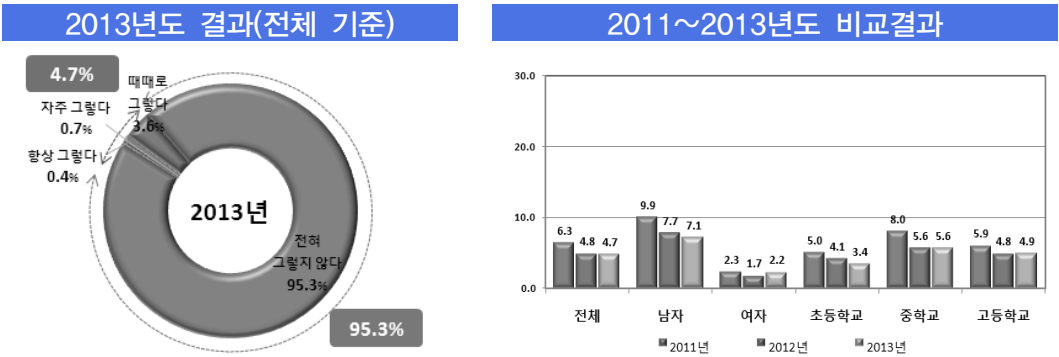
(3)-⑰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초하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4.7%, ‘그렇지 않다’는 95.3%가 응답**

○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초하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4.7%,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95.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7.1%), 여학생(2.2%)으로 남학생의 경우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초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응답률이 5.6%로 가장 높고 고등학생(4.9%), 초등학생(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6.3%, 2012년 4.8%, 2013년 4.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은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2013년 2.2%로 2012년(1.7%) 대비 0.5%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2013년에 4.9%로 2012년(4.8%) 대비 0.1%p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59]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표 II-65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0.4	0.4	0.4	0.8	0.6	0.7	5.1	3.8	3.6	93.7	95.1	95.3	0.0	0.0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0.6	0.7	0.6	1.4	0.9	0.8	7.9	6.1	5.7	90.0	92.3	92.8	0.0	0.0	0.1
	여	4,561	4,251	4,710	0.1	0.1	0.2	0.1	0.2	0.5	2.1	1.4	1.5	97.6	98.1	97.8	0.0	0.0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0.6	0.4	0.3	0.6	0.5	0.4	3.8	3.2	2.7	94.9	95.9	96.6	0.0	0.0	0.0
	중	2,844	2,986	3,260	0.3	0.4	0.6	1.2	0.7	0.7	6.5	4.5	4.3	92.0	94.3	94.3	0.0	0.1	0.1
	고	3,648	2,574	2,985	0.2	0.5	0.4	0.7	0.4	0.8	5.0	3.9	3.7	94.1	95.2	95.1	0.0	0.0	0.1

(3)-⑱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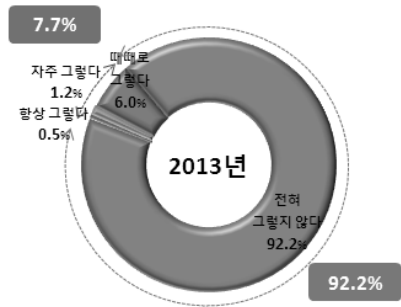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2.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2.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 7.7%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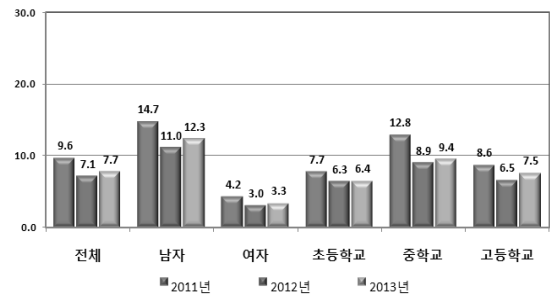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12.3%)이 여학생(3.3%)보다 ‘그렇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9.4%)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7.5%), 초등학생(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7.7%로 2012년(7.1%)에 비해 0.6%p 높게, 2011년(9.6%)에 비해 1.9%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응답률이,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응답률이 3년 연속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60】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표 II-66 다른 일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0.6	0.5	0.5	1.2	1.0	1.2	7.8	5.6	6.0	90.3	92.7	92.2	0.1	0.1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0.9	0.8	0.8	2.0	1.7	2.0	11.8	8.5	9.5	85.2	88.8	87.6	0.1	0.1	0.1
	여	4,561	4,251	4,710	0.2	0.2	0.3	0.4	0.2	0.5	3.6	2.6	2.5	95.8	96.8	96.8	0.0	0.1	0.0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0.7	0.6	0.5	1.0	0.7	0.8	6.0	5.0	5.1	92.2	93.6	93.6	0.0	0.1	0.0
	중	2,844	2,986	3,260	0.5	0.6	0.7	1.6	1.5	1.5	10.7	6.8	7.2	87.1	91.1	90.6	0.1	0.1	0.0
	고	3,648	2,574	2,985	0.5	0.5	0.4	1.0	0.8	1.4	7.1	5.2	5.7	91.3	93.5	92.5	0.1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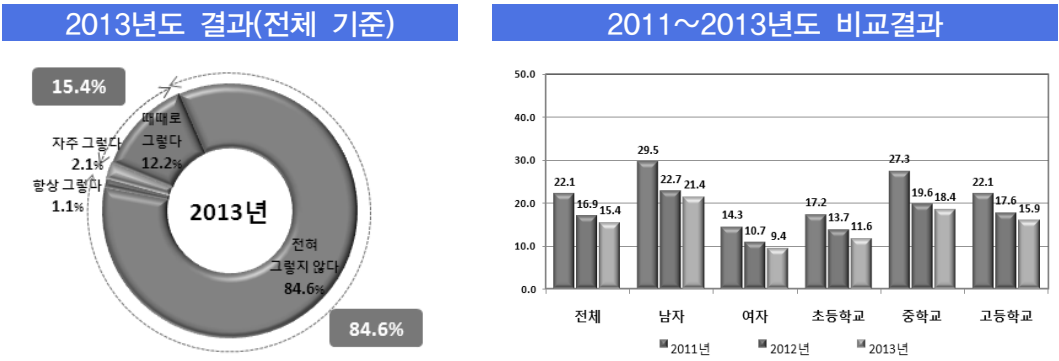
(3)-⑱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15.4%, ‘그렇지 않다’는 84.6%가 응답**

○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5.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84.6%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21.4%)이 여학생(9.4%)보다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18.4%)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고등학생(15.9%), 초등학생(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22.1%, 2012년 16.9%, 2013년 15.4%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응답률이,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의 응답률이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II-61】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표 II-67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신경질이 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4	1.0	1.1	3.1	2.2	2.1	17.6	13.7	12.2	77.7	83.1	84.6	0.1	0.0	0.0	
성 별	남	4,874	4,494	4,692	2.0	1.4	1.6	4.5	3.1	2.9	23.0	18.2	16.9	70.4	77.2	78.5	0.1	0.0	0.1
	여	4,561	4,251	4,710	0.7	0.6	0.6	1.7	1.1	1.3	11.9	9.0	7.5	85.6	89.3	90.7	0.1	0.0	0.0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1.6	0.9	0.9	2.2	1.6	1.4	13.4	11.2	9.3	82.7	86.2	88.4	0.1	0.1	0.0
	중	2,844	2,986	3,260	1.4	1.2	1.5	3.9	2.7	2.6	22.0	15.7	14.3	72.5	80.3	81.5	0.1	0.0	0.0
	고	3,648	2,574	2,985	1.2	0.9	0.7	3.3	2.2	2.3	17.6	14.5	12.9	77.8	82.4	84.0	0.1	0.0	0.1

(3)-㉔ 게임 중독 - 게임 금단과 정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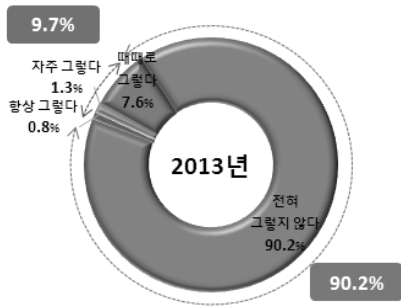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9.7%, ‘그렇지 않다’는 90.2%로 나타남**

○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9.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90.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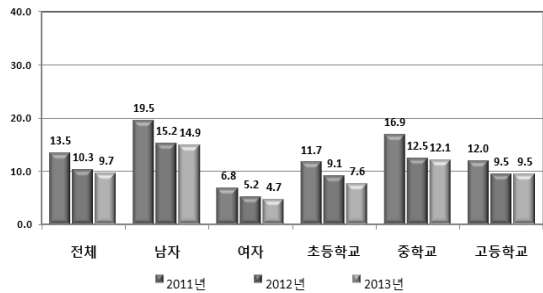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14.9%)이 여학생(4.7%)보다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3배 이상 더 높았다. 교급별에서는 중학생이 12.1%로 초등학생(7.6%) 및 고등학생(9.5%)보다 더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3.5%, 2012년 10.3%, 2013년 9.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체적으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2013년과 2012년이 각각 9.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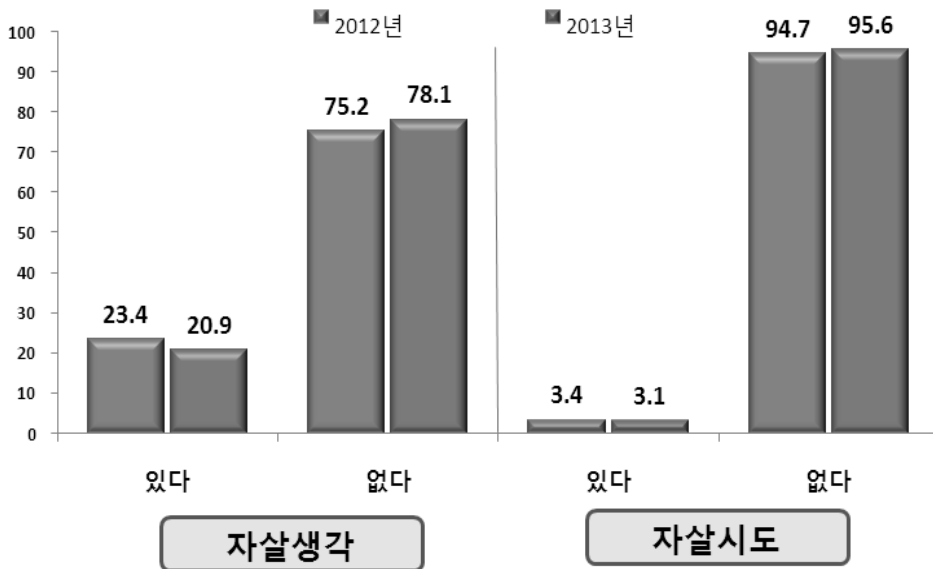
【그림 II-62】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표 II-68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1	1.0	0.8	2.0	1.3	1.3	10.4	8.0	7.6	86.5	89.6	90.2	0.1	0.0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1.7	1.5	1.2	2.9	2.1	2.0	14.9	11.6	11.7	80.4	84.7	85.0	0.1	0.0	0.1
	여	4,561	4,251	4,710	0.3	0.5	0.4	1.0	0.5	0.7	5.5	4.2	3.6	93.1	94.7	95.3	0.1	0.0	0.0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1.3	1.1	0.8	1.8	1.1	1.0	8.6	6.9	5.8	88.3	90.8	92.4	0.0	0.1	0.1
	중	2,844	2,986	3,260	1.0	1.0	1.0	2.5	1.9	1.5	13.4	9.6	9.6	83.0	87.4	87.9	0.1	0.0	0.0
	고	3,648	2,574	2,985	0.9	1.0	0.6	1.7	0.9	1.5	9.4	7.6	7.4	87.9	90.5	90.4	0.1	0.0	0.1

(4) 자살 - 항목별 백분율

자살에 대한 항목별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N=9,402) 중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가 20.9%(N=1,963),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3.1%(N=292)로 나타남.
2012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그림 II-63】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표 II-69 전체 응답자 대비 자살의 항목별 백분율

	문항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8,745	9,402	23.4	20.9	75.2	78.1	1.5	1.0
2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	8,745	9,402	3.4	3.1	94.7	95.6	1.9	1.3

(4)-① 자살 -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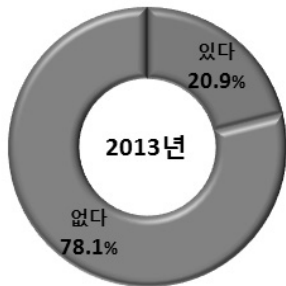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0.9%가 '있다', 78.1%가 '없다'라고 응답함**

○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0.9%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8.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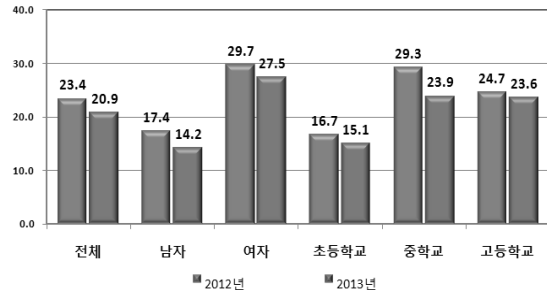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있다'라는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27.5%)이 남학생(14.2%)보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23.9%), 고등학생(23.6%), 초등학생(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이 20.9%로 2012년(23.4%)에 비해 2.5%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의 경우는 2012년(29.3%) 대비 2013년(23.9%)에 5.4%p가 낮게 나타나며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2~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64]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표 II-70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전체		8,745	9,402	23.4	20.9	75.2	78.1	1.5	1.0
성별	남	4,494	4,692	17.4	14.2	81.1	84.9	1.6	0.9
	여	4,251	4,710	29.7	27.5	69.0	71.4	1.3	1.1
교급별	초	3,185	3,157	16.7	15.1	81.5	84.1	1.8	0.8
	중	2,986	3,260	29.3	23.9	69.5	74.9	1.2	1.2
	고	2,574	2,985	24.7	23.6	74.0	75.4	1.3	1.0

(4)-② 자살 -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학업·진로문제(38.5%)’가 가장 높았고 ‘가정불화(25.0%)’, ‘기타(18.6%)’, ‘학교폭력(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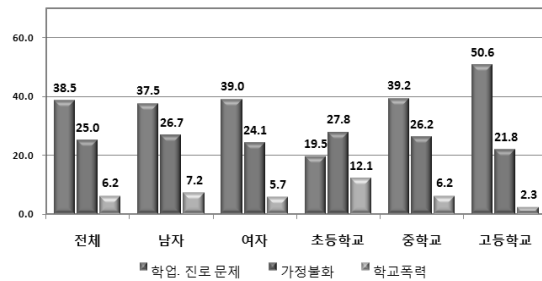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업 및 진로문제(38.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불화(25.0%)’, ‘기타(18.6%)’, ‘학교폭력(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응답률 상위 3가지(

기타 항목은 제외) 항목을 중심으로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학업 및 진로, 가정불화, 학교폭력의 모든 항목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 및 진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으나, 가정불화 및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낮아졌다. 특히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과 달리 ‘가정불화’ 항목이 자살을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그림 II-65]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표 II-71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경제적 문제	학업·진로 문제	건강문제	학교폭력	외모문제	가정불화	이성문제	기타	무응답	
전체	1,963	2.4	38.5	1.3	6.2	2.2	25.0	2.3	18.6	3.5	
성별	남	666	2.7	37.5	2.0	7.2	1.2	26.7	4.4	15.3	3.0
	여	1,297	2.2	39.0	0.9	5.7	2.7	24.1	1.3	20.3	3.7
교급	초	478	2.5	19.5	2.1	12.1	5.4	27.8	1.7	26.4	2.5
	중	780	1.9	39.2	0.8	6.2	1.4	26.2	2.3	18.6	3.5
	고	705	2.8	50.6	1.3	2.3	0.9	21.8	2.8	13.3	4.1

(4)-③ 자살 -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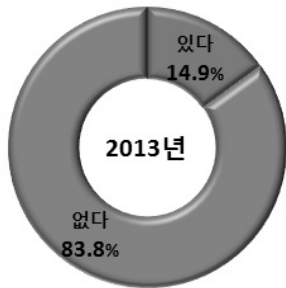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
자살 생각 경험자 중 14.9%가 '있다', 83.8%가 '없다'고 응답함**

○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 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한 청소년들의 14.9%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3.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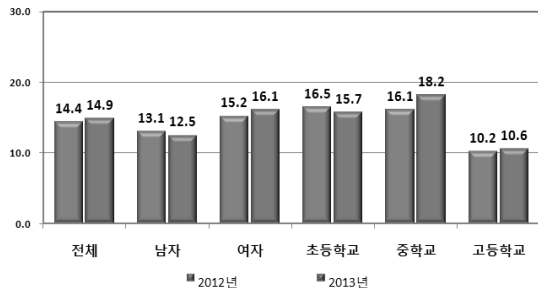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학생(16.1%)이 남학생(12.5%)보다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18.2%), 초등학생(15.7%), 고등학생(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과거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3년은 14.9%로 2012년(14.4%)에 비해 0.5%p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2012년(15.2%) 대비 2013년(16.1%)에 0.9%p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2012년 대비 2013년에 각각 2.1%p, 0.4%p가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



2012~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66】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표 II-72 자살 생각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전체		2,043	1,963	14.4	14.9	83.5	83.8	2.1	1.3
성별	남	780	666	13.1	12.5	85.0	85.7	1.9	1.8
	여	1,263	1,297	15.2	16.1	82.6	82.8	2.2	1.1
교급	초	533	478	16.5	15.7	80.9	83.7	2.6	0.6
	중	875	780	16.1	18.2	82.5	80.1	1.4	1.7
	고	635	705	10.2	10.6	87.1	87.9	2.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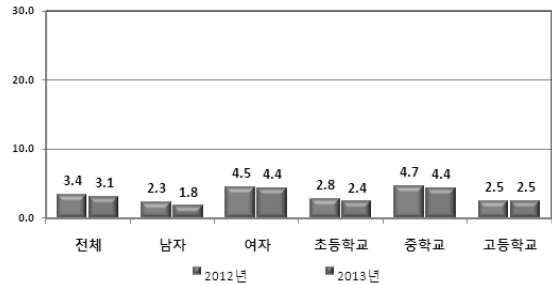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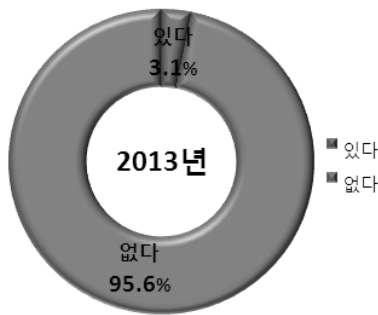
(4)-③-1 자살 -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
전체 청소년 중 3.1%가 '있다', 95.6%가 '없다'고 응답함**

○ 전체 청소년에 대해 최근 1년 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청소년 중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1%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5.6%였다.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4.4%)이 남학생(1.8%)보다 2배 가까이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2.4%)이 고등학생(2.5%)의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은 거의 비슷하나 고등학생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2~2013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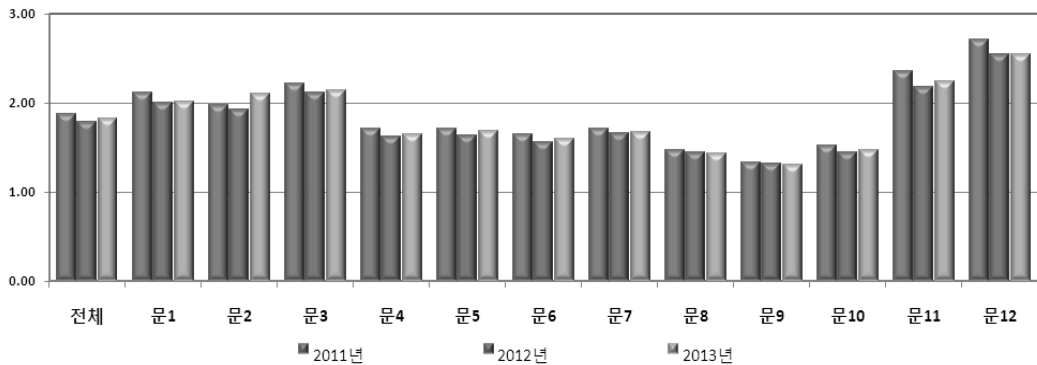
【그림 II-67】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표 II-73 전체 청소년 대비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경험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있다		없다		무응답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12년	13년
전체		8,745	9,402	3.4	3.1	94.7	95.6	1.9	1.3
성별	남	4,494	4,692	2.3	1.8	95.8	97.1	1.9	1.2
	여	4,251	4,710	4.5	4.4	93.5	94.2	2.0	1.4
교급	초	3,185	3,157	2.8	2.4	95.0	96.7	2.2	0.9
	중	2,986	3,260	4.7	4.4	93.6	94.0	1.6	1.6
	고	2,574	2,985	2.5	2.5	95.5	96.2	2.0	1.3

(5) 스트레스 - 항목별 평균

스트레스에 대한 항목별 평균에선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M=2.55)’가 가장 높았고 ‘진로문제(M=2.24)’, ‘외모(M=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후배 관계(M=1.30)’가 가장 낮았음. 2012년과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3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스트레스 항목에서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평균점수가 높아 스트레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68】 2011~2013년도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표 II-74 2011~2013년도 스트레스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1	부모님과의 관계	2.11	2.00	2.02
2	형제·자매와의 관계	1.98	1.92	2.10
3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2.22	2.12	2.14
4	신체건강	1.71	1.62	1.65
5	심리건강	1.71	1.64	1.68
6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1.65	1.56	1.59
7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1.71	1.66	1.67
8	이성과의 관계	1.47	1.44	1.43
9	선·후배 관계	1.33	1.32	1.30
10	선생님과의 관계	1.52	1.44	1.47
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2.35	2.18	2.24
12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2.71	2.55	2.55
스트레스 영역(전체)		1.87	1.78	1.82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영역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영역의 12개 세부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및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 비교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12개의 모든 세부영역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는데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영역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든 스트레스 영역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형제·자매관계, 선·후배관계를 제외한 영역에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75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부모 관계		형제·자매관계		외모		신체건강		심리건강		가정형편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1.92 (1.01)	95.146 ***	2.02 (1.68)	22.003 ***	1.86 (1.01)	691.049 ***	1.53 (0.90)	160.51 ***	1.47 (0.86)	431.236 ***	1.46 (0.85)	167.099 ***						
	여자 (n=4,710)	2.13 (1.04)		2.18 (1.58)		2.42 (1.05)		1.78 (0.98)		1.88 (1.06)		1.71 (1.01)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1.75 (0.98)	180.113 ***	2.21 (1.81)	31.038 ***	1.73 (1.00)	416.194 ***	1.42 (0.84)	191.548 ***	1.35 (0.80)	336.168 ***	1.31 (0.78)	289.241 ***						
	중학교 (n=3,260)	2.16 (1.04)		(ab,ac)		2.17 (1.62)		(ac,bc)		2.23 (1.06)		(ab,ac, bc)		1.67 (0.96)	(ab,ac, bc)	1.71 (0.99)	(ab,ac, bc)	1.59 (0.93)	(ab,ac, bc)
	고등학교 (n=2,985)	2.17 (1.01)		1.91 (1.43)		2.47 (1.00)		1.88 (0.99)		1.98 (1.05)		1.87 (1.03)							
거주지	서울 (n=1,539)	2.08 (1.04)	3.369	2.07 (1.59)	2.791 **	2.14 (1.05)	0.009	1.64 (0.95)	0.165	1.68 (0.96)	0.084	1.58 (0.90)	0.159						
	광역시 (n=2,247)	2.00 (1.02)		2.04 (1.55)		2.14 (1.06)		1.65 (0.94)		1.67 (0.97)		1.59 (0.96)							
	시군 (n=5,616)	2.02 (1.03)		2.13 (1.68)		2.14 (1.07)		1.66 (0.96)		1.68 (0.99)		1.59 (0.95)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2.00 (1.02)	18.985 ***	2.00 (1.41)	372.226 ***	2.11 (1.05)	23.925 ***	1.63 (0.92)	22.943 ***	1.65 (0.97)	25.473 ***	1.53 (0.90)	152.986 ***						
	한부모가정 (n=840)	2.21 (1.11)		(gh)		2.43 (2.13)		(gh,hi)		2.37 (1.11)		(gh)		1.85 (1.08)	(gh)	1.91 (1.10)	(gh)	2.11 (1.15)	(gh)
	조손가정 (n=156)	-		1.35 (3.86)		2.27 (1.36)		1.79 (1.22)		1.66 (0.88)		1.72 (0.93)							
전체 M(SD)		2.02(1.03)		2.10(1.63)		2.14(1.07)		1.65(0.95)		1.68(0.99)		1.59(0.94)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친구관계		이성관계		선·후배관계		선생님관계		진로문제		학업문제		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1.48 (0.86)	300.074 ***	1.39 (0.84)	20.845 ***	1.26 (0.70)	21.747 ***	1.40 (0.86)	43.066 ***	2.00 (1.16)	368.36 3	2.32 (1.19)	366.69 3	1.68 (0.65)	420.22 4		
	여자 (n=4,710)	1.86 (1.02)		1.47 (0.88)		1.33 (0.76)		1.53 (0.92)		2.47 (1.21)	3	2.79 (1.13)	3	1.96 (0.70)	***		
교육 별	초등학교 (n=3,157)	1.50 (0.92)	76.959 *** (ab,ac)	1.26 (0.77)	106.78 3 ***	1.30 (0.76)	3.772 *	1.34 (0.85)	50.015 *** (ab,ac)	1.42 (0.89)	1800. 508 ***	1.87 (1.09)	1053. 642 ***	1.54 (0.64)	478.56 2 ***		
	중학교 (n=3,260)	1.74 (0.99)		1.47 (0.88)	(ab,ac)	1.33 (0.76)		1.51 (0.93)		2.35 (1.16)	2.71 (1.12)	1.89 (0.69)	***	(ab,a	1.89 (0.69)	***	(ab,a
	고등학교 (n=2,985)	1.78 (0.96)		1.57 (0.90)	(bc)	1.27 (0.67)		1.55 (0.88)		2.98 (1.01)	3.09 (0.99)	2.04 (0.64)	(c,bc)	2.04 (0.64)	(c,bc)	2.04 (0.64)	(c,bc)
거주 지	서울 (n=1,539)	1.66 (0.93)	0.709	1.48 (0.93)	3.440	1.26 (0.66)	5.217 *	1.41 (0.83)	11.54 4* (ef)	2.23 (1.18)	1.852 (ef)	2.57 (1.14)	2.050 ***	1.82 (0.65)	0.039		
	광역시 (n=2,247)	1.66 (0.95)		1.44 (0.88)		1.28 (0.70)		1.54 (0.92)		2.28 (1.20)		2.59 (1.18)		1.82 (0.69)			
	사군 (n=5,616)	1.68 (0.98)		1.42 (0.83)		1.32 (0.76)		1.45 (0.89)		2.22 (1.21)		2.53 (1.19)		1.82 (0.7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1.65 (0.94)	30.81 9 ** (gh)	1.41 (0.84)	14.401 *** (gh)	1.29 (0.71)	10.317 ***	1.44 (0.86)	21.552 ** (gh)	2.21 (1.19)	18.704 *** (gh)	2.54 (1.18)	7.074 ***	1.79 (0.67)	80.088 *** (gh)		
	한부모가정 (n=840)	1.90 (1.09)		1.57 (0.97)		1.38 (0.81)		1.64 (1.10)		2.48 (1.25)		2.69 (1.17)		2.05 (0.76)			
	조손가정 (n=156)	1.88 (1.07)		1.56 (0.97)		1.46 (0.92)		1.63 (1.07)		2.33 (1.45)		2.63 (1.23)		-			
전체		M(SD)		1.43(0.86)		1.30(0.73)		1.47(0.89)		2.24(1.21)		2.55(1.18)		1.82(0.69)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거주지별로는 형제·자매관계, 선·후배관계, 선생님관계, 학업문제 스트레스만이 지역별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형제·자매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시·군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선·후배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광역시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로는 스트레스의 모든 세부영역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선·후배관계 영역에서는 조손가정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서 한부모가정의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각 세부요인별 평균과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사후검증 결과는 <표 II-75>에 제시되어 있다.

(5)-① 스트레스 - 부모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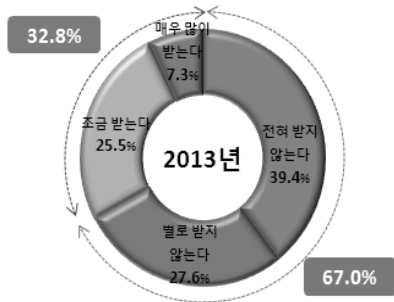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2.8%가 '받는다', 67.0%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32.8%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67.0%는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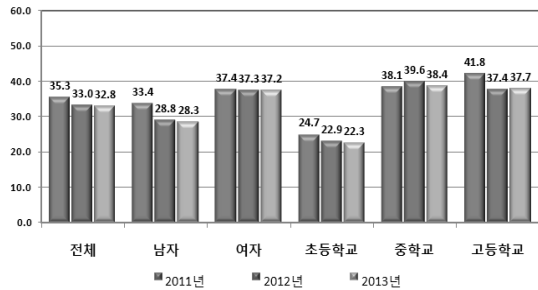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학생(37.2%)이 남학생(28.3%)보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38.4%)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고, 이어 고등학생(37.7%), 초등학생(22.3%)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 2011년 35.3%, 2012년 33.0%, 2013년 32.8%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체적으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2013년 37.7%로 2012년(37.4%) 대비 0.3%p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6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부모님과의 관계

표 II-7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부모님과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연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1	7.5	7.3	27.2	25.5	25.5	29.2	26.3	27.6	33.0	36.8	39.4	2.4	4.0	0.2	
성별	남	4,874	4,494	4,692	7.6	6.3	6.3	25.8	22.5	22.0	29.1	26.7	27.4	35.2	40.3	44.0	2.3	4.3	0.2
	여	4,561	4,251	4,710	8.7	8.7	8.2	28.7	28.6	29.0	29.4	25.9	27.8	30.8	33.2	34.7	2.4	3.7	0.3
교급	초	2,943	3,185	3,157	6.3	4.8	5.3	18.4	18.1	17.0	25.8	22.3	23.2	47.3	49.7	54.3	2.2	5.0	0.2
	중	2,844	2,986	3,260	8.0	8.6	8.6	30.1	31.0	29.8	32.1	26.6	28.7	27.5	29.9	32.6	2.3	3.8	0.3
	고	3,648	2,574	2,985	9.7	9.4	7.9	32.1	28.0	29.8	29.8	30.8	31.1	25.9	28.9	30.9	2.5	3.0	0.3

(5)-② 스트레스 - 형제·자매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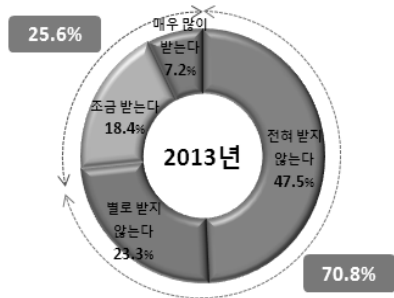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5.6%가 ‘받는다’, 70.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형제·자매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25.6%가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70.8%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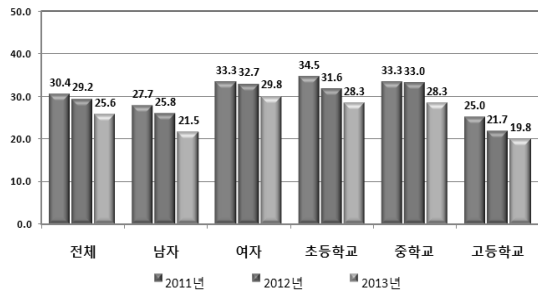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학생(29.8%)이 남학생(21.5%)보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28.3%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19.8%로 가장 낮았다.

[연도별 추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2011년 30.4%, 2012년 29.2%, 2013년 25.6%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형제·자매와의 관계

표 II-7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형제·자매와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5	8.4	7.2	21.9	20.8	18.4	27.4	24.9	23.3	41.3	45.4	47.5	0.9	0.5	3.5	
성별	남	4,874	4,494	4,692	8.0	7.4	6.1	19.7	18.4	15.4	26.2	24.3	22.1	45.2	49.3	52.6	0.8	0.6	3.9
	여	4,561	4,251	4,710	9.1	9.4	8.4	24.2	23.3	21.4	28.7	25.6	24.6	37.1	41.2	42.5	0.9	0.4	3.2
교급	초	2,943	3,185	3,157	11.5	10.1	9.4	23.0	21.5	18.9	23.1	21.1	18.2	41.9	46.7	48.9	0.6	0.6	4.6
	중	2,844	2,986	3,260	9.4	9.6	7.8	23.9	23.4	20.5	29.5	25.6	25.1	36.6	40.9	43.3	0.7	0.5	3.5
	고	3,648	2,574	2,985	5.5	4.8	4.3	19.5	16.9	15.5	29.3	28.9	26.9	44.4	48.8	50.7	1.3	0.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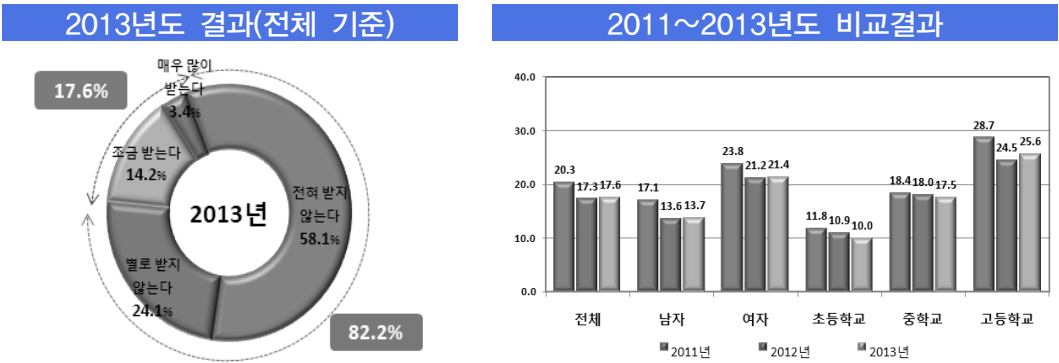
(5)-④ 스트레스 - 신체건강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신체건강’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7.6%가 ‘받는다’, 82.2%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신체건강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17.6%가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82.2%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21.4%)이 남학생(13.7%)보다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10.0%)에서 고등학교(25.6%)으로 올라갈수록 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7.6%로 2012년(17.3%)에 비해 0.3%p 높게, 2011년(20.3%)에 비해 2.7%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반면,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매년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은 2013년 25.6%로 2012년(24.5%) 대비 1.1%p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신체건강

표 II-7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신체건강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2	3.4	3.4	16.1	13.9	14.2	26.0	24.0	24.1	53.0	58.3	58.1	0.6	0.4	0.3	
성별	남	4,874	4,494	4,692	3.9	3.0	2.6	13.2	10.6	11.1	23.8	21.6	20.3	58.6	64.4	65.6	0.6	0.4	0.3
	여	4,561	4,251	4,710	4.5	3.9	4.1	19.3	17.3	17.3	28.4	26.5	27.8	47.1	51.9	50.5	0.7	0.4	0.4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3.5	2.8	2.6	8.3	8.1	7.4	18.2	16.0	16.9	69.7	72.8	72.9	0.3	0.3	0.3
	중	2,844	2,986	3,260	3.7	3.5	3.5	14.7	14.5	14.0	27.5	27.9	25.6	53.5	53.6	56.5	0.6	0.5	0.4
	고	3,648	2,574	2,985	5.2	4.2	4.0	23.5	20.3	21.6	31.2	29.4	29.9	39.3	45.8	44.1	0.8	0.3	0.4

(5)-⑤ 스트레스 - 심리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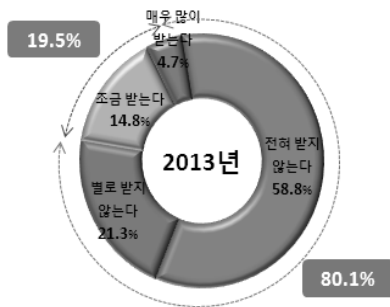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심리건강’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0.1%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심리건강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19.5%가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0.1%는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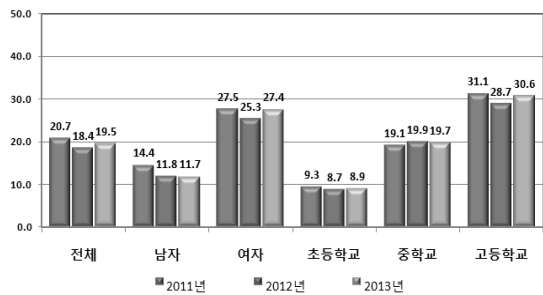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심리건강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학생(27.4%)의 경우에 남학생(11.7%)보다 상기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9%)에서 중학생(19.7%), 고등학교(30.6%)으로 올라갈수록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9.5%로 2012년(18.4%)에 비해 1.1%p 높게, 2011년(20.7%)에 비해 1.2%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매년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2013년에 27.4%로 2012년(25.3%) 보다 2.1%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3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심리건강

표 II-8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심리건강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5.5	5.0	4.7	15.2	13.4	14.8	23.7	21.6	21.3	55.0	59.6	58.8	0.5	0.4	0.3	
성별	남	4,874	4,494	4,692	3.5	3.3	2.7	10.9	8.5	9.0	21.8	19.7	18.7	63.3	68.1	69.4	0.5	0.4	0.3
	여	4,561	4,251	4,710	7.7	6.7	6.8	19.8	18.6	20.6	25.8	23.7	23.9	46.2	50.7	48.4	0.6	0.3	0.3
교급	초	2,943	3,185	3,157	3.0	3.0	2.2	6.3	5.7	6.7	14.5	12.2	13.2	75.9	78.8	77.6	0.2	0.3	0.3
	중	2,844	2,986	3,260	4.6	5.2	4.9	14.5	14.7	14.8	26.8	26.1	23.8	53.5	53.6	56.1	0.6	0.4	0.3
	고	3,648	2,574	2,985	8.3	7.1	7.2	22.8	21.6	23.4	28.8	28.1	27.0	39.4	42.9	42.0	0.7	0.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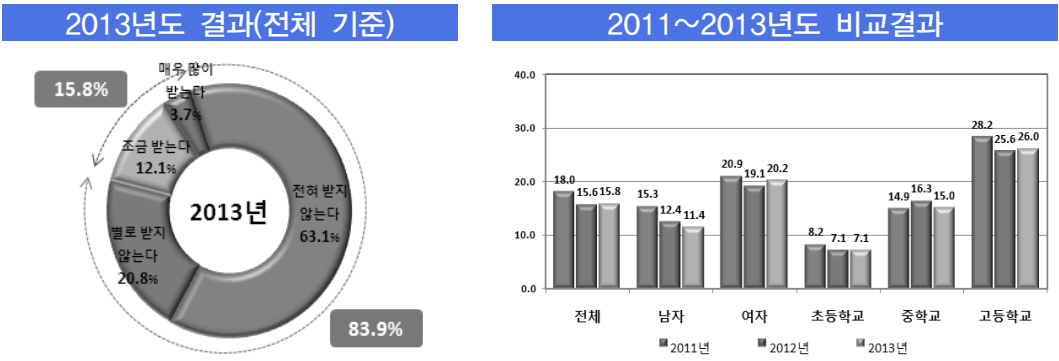
(5)-⑥ 스트레스 - 가정형편(경제적 문제)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가정형편(경제적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5.8%가 '받는다', 83.9%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가정형편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응답자 중 대다수인 83.9%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15.8%만이 '받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20.2%)이 남학생(11.4%)보다 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7.1%)에서 고등학생(26.0%)으로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5.8%로 2012년(15.6%)에 비해 0.2%p 높게, 2011년(18.0%)에 비해 2.2%p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매년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2012년(19.1%) 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2013년 26.0%로 2012년(25.6%)과 비교하여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가정형편

표 II-81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가정형편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6	3.3	3.7	13.4	12.3	12.1	23.7	20.8	20.8	57.7	63.1	63.1	0.6	0.4	0.3	
성별	남	4,874	4,494	4,692	4.0	2.4	2.5	11.3	10.0	8.9	22.3	18.9	18.9	61.8	68.3	69.5	0.6	0.4	0.3
	여	4,561	4,251	4,710	5.2	4.3	4.9	15.7	14.8	15.3	25.1	22.9	22.8	53.3	57.7	56.6	0.7	0.4	0.4
교급	초	2,943	3,185	3,157	2.3	1.9	1.9	5.9	5.2	5.2	14.5	12.6	12.7	76.8	80.1	79.9	0.4	0.3	0.3
	중	2,844	2,986	3,260	3.3	3.2	3.3	11.6	13.1	11.7	25.3	23.1	23.1	59.1	60.2	61.6	0.6	0.5	0.3
	고	3,648	2,574	2,985	7.3	5.2	6.0	20.9	20.4	20.0	29.8	28.4	26.9	41.2	45.6	46.8	0.8	0.4	0.3

(5)-⑦ 스트레스 -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친구와의 관계(친구갈등, 폭력 등)'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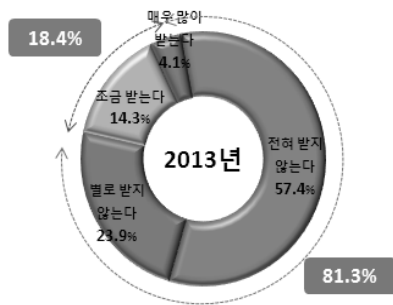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18.4%가 '받는다', 81.3%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다수인 81.3%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18.4%는 '받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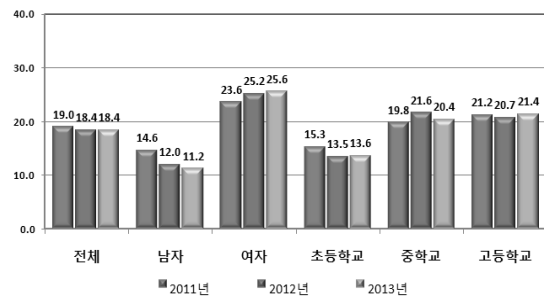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여학생(25.6%)이 남학생(11.2%)보다 친구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의 응답률이 13.6%로 본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학생(20.4%), 고등학생(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8.4%로 2012년과는 동일하게, 2011년(19.0%)에 비해 0.6%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매년 응답률이 낮아지는 반면, 여학생은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 특히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2013년 21.4%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친구와의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5]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친구와의 관계

표 II-82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친구와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9	4.6	4.1	14.1	13.8	14.3	27.6	24.6	23.9	52.8	56.6	57.4	0.6	0.4	0.3	
성별	남	4,874	4,494	4,692	3.9	3.1	2.6	10.7	8.9	8.6	26.2	21.9	20.9	58.7	65.6	67.6	0.6	0.5	0.3
	여	4,561	4,251	4,710	5.9	6.2	5.7	17.7	19.0	19.9	29.2	27.4	26.8	46.5	47.1	47.2	0.7	0.4	0.3
교급	초	2,943	3,185	3,157	4.8	3.6	3.7	10.5	9.9	9.9	21.5	18.1	16.9	62.8	67.9	69.2	0.4	0.5	0.3
	중	2,844	2,986	3,260	5.6	5.8	4.9	14.2	15.8	15.5	28.7	26.6	25.7	50.7	51.3	53.6	0.8	0.4	0.3
	고	3,648	2,574	2,985	4.4	4.4	3.8	16.8	16.3	17.6	31.7	30.2	29.1	46.3	48.7	49.2	0.7	0.3	0.3

(5)-⑧ 스트레스 - 이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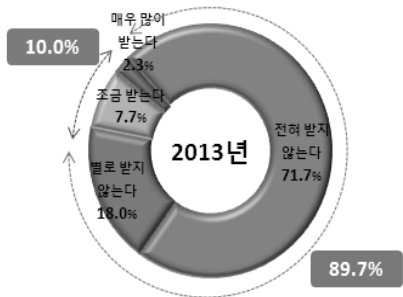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89.7%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이성과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10.0%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89.7%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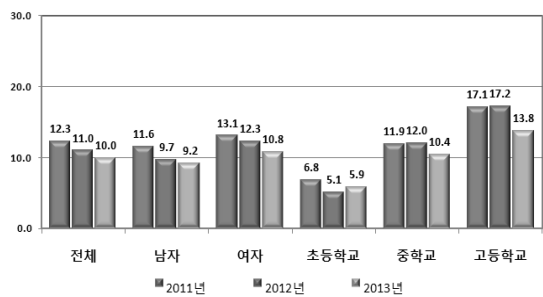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상기 응답내용에 대해 성별로는 여학생(10.8%)의 경우가 남학생(9.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5.9%)에서 고등학생(13.8%)으로 올라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2.3%, 2012년 11.0%, 2013년 10.0%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 5.9%로 2012년(5.1%) 보다 0.8%p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3년에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이성과의 관계

표 II-83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이성과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3	2.9	2.3	9.0	8.1	7.7	19.1	18.5	18.0	68.0	70.1	71.7	0.6	0.4	0.4	
성별	남	4,874	4,494	4,692	3.3	2.6	2.2	8.3	7.1	7.0	18.7	16.4	15.9	69.1	73.3	74.6	0.5	0.5	0.3
	여	4,561	4,251	4,710	3.3	3.2	2.4	9.8	9.1	8.4	19.5	20.7	20.1	66.9	66.6	68.7	0.6	0.3	0.4
교급	초	2,943	3,185	3,157	1.9	1.6	1.6	4.9	3.5	4.3	11.1	9.7	9.6	81.8	84.7	84.1	0.3	0.4	0.4
	중	2,844	2,986	3,260	3.3	3.1	2.2	8.6	8.9	8.2	20.2	21.8	21.0	67.3	65.8	68.2	0.6	0.4	0.4
	고	3,648	2,574	2,985	4.4	4.4	3.1	12.7	12.8	10.7	24.6	25.5	23.5	57.5	56.9	62.4	0.7	0.4	0.3

(5)-⑨ 스트레스 - 선·후배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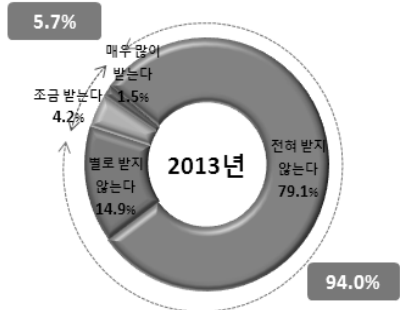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선·후배 관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94.0%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선·후배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7%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대다수인 94.0%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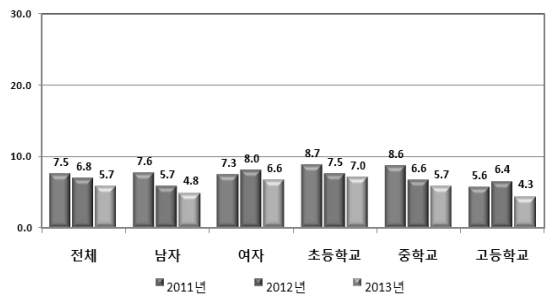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선·후배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여학생(6.6%)이 남학생(4.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이 7.0%로 중학생(5.7%) 및 고등학생(4.3%)보다 선·후배 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7.5%, 2012년 6.8%, 2013년 5.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성별과 교급별 모두 살펴보았을 때, 각각 2013년도 응답률이 최근 3년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선·후배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후배 관계

표 II-84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후배 관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0	1.8	1.5	5.5	5.0	4.2	16.2	16.0	14.9	75.7	76.8	79.1	0.6	0.4	0.3	
성별	남	4,874	4,494	4,692	2.3	1.6	1.3	5.3	4.1	3.5	15.3	14.3	13.3	76.5	79.6	81.6	0.6	0.4	0.3
	여	4,561	4,251	4,710	1.6	2.1	1.7	5.7	5.9	4.9	17.3	17.9	16.5	74.8	73.8	76.7	0.7	0.3	0.3
교급	초	2,943	3,185	3,157	2.6	2.3	2.3	6.1	5.2	4.7	12.8	10.7	11.7	78.0	81.5	81.2	0.5	0.4	0.2
	중	2,844	2,986	3,260	2.4	1.7	1.3	6.2	4.9	4.4	18.2	18.0	16.9	72.6	75.2	77.0	0.6	0.3	0.3
	고	3,648	2,574	2,985	1.2	1.5	0.8	4.4	4.9	3.5	17.5	20.4	16.2	76.1	72.8	79.3	0.8	0.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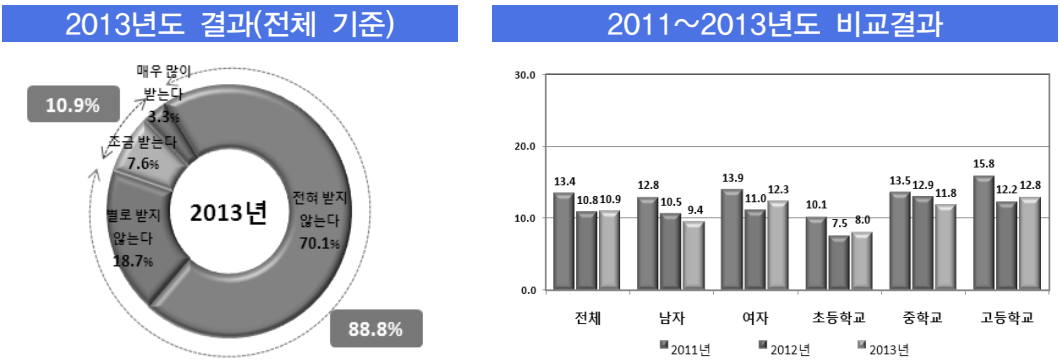
(5)-⑩ 스트레스 - 선생님과의 관계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0.9%가 '받는다', 88.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10.9%는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다수인 88.8%는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12.3%)이 남학생(9.4%)보다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조금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고등학생(12.8%), 중학생(11.8%), 초등학생(8.0%)의 순으로 교급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0.9%로 2012년(10.8%)에 비해 0.1%p 높게, 2011년(13.4%)에 비해 2.5%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매년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2013년에 12.3%로 2012년(11.0%) 대비 1.3%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2013년에 12.8%로 2011년(15.8%) 대비 3.0%p가 낮아지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78】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생님과의 관계

표 II-85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선생님과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5	3.3	3.3	8.9	7.5	7.6	20.5	19.0	18.7	65.5	69.7	70.1	0.6	0.5	0.4	
성별	남	4,874	4,494	4,692	5.1	3.7	3.3	7.7	6.8	6.1	18.8	16.3	15.8	67.8	72.6	74.4	0.6	0.6	0.3
	여	4,561	4,251	4,710	3.8	2.8	3.2	10.1	8.2	9.1	22.4	21.9	21.5	63.1	66.7	65.7	0.6	0.4	0.4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4.1	2.6	2.9	6.0	4.9	5.1	13.6	11.5	11.8	75.9	80.5	79.8	0.4	0.5	0.4
	중	2,844	2,986	3,260	4.5	3.7	3.8	9.0	9.2	8.0	22.7	21.2	20.2	63.0	65.4	67.6	0.7	0.4	0.4
	고	3,648	2,574	2,985	4.8	3.6	3.1	11.0	8.6	9.7	24.4	25.8	24.4	59.1	61.4	62.5	0.7	0.6	0.3

(5)-① 스트레스 -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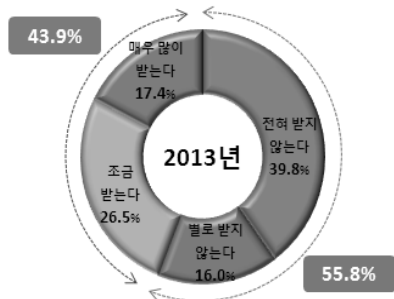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3.9%가 ‘받는다’, 55.8%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진로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3.9%가 ‘받는다’라고 응답하였고, 55.8%는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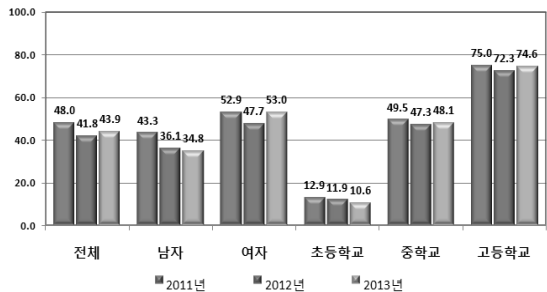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학생(53.0%)의 경우에, 남학생(34.8%)보다 관련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74.6%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초등학교(10.6%)와 중학생(48.1%)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43.9%로 2012년(41.8%)에 비해 2.1%p 높게, 2011년(48.0%)에 비해 4.1%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매년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2013년에 53.0%로 2012년(47.7%) 대비 5.3%p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79】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표 II-86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진로문제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0.8	16.8	17.4	27.2	25.0	26.5	16.9	17.5	16.0	34.5	40.3	39.8	0.7	0.4	0.3	
성별	남	4,874	4,494	4,692	17.8	13.8	12.5	25.5	22.3	22.3	17.4	17.9	16.0	38.7	45.6	48.9	0.7	0.4	0.3
	여	4,561	4,251	4,710	24.0	20.0	22.2	28.9	27.7	30.8	16.3	17.1	16.1	30.0	34.7	30.6	0.7	0.4	0.4
교급	초	2,943	3,185	3,157	4.6	3.7	2.9	8.3	8.2	7.7	14.9	14.4	14.8	71.6	73.4	74.2	0.6	0.3	0.4
	중	2,844	2,986	3,260	18.5	17.1	16.8	31.0	30.2	31.3	22.0	23.4	19.4	27.7	28.8	32.2	0.7	0.5	0.3
	고	3,648	2,574	2,985	35.6	32.8	33.3	39.4	39.5	41.3	14.5	14.6	13.6	9.8	12.7	11.6	0.7	0.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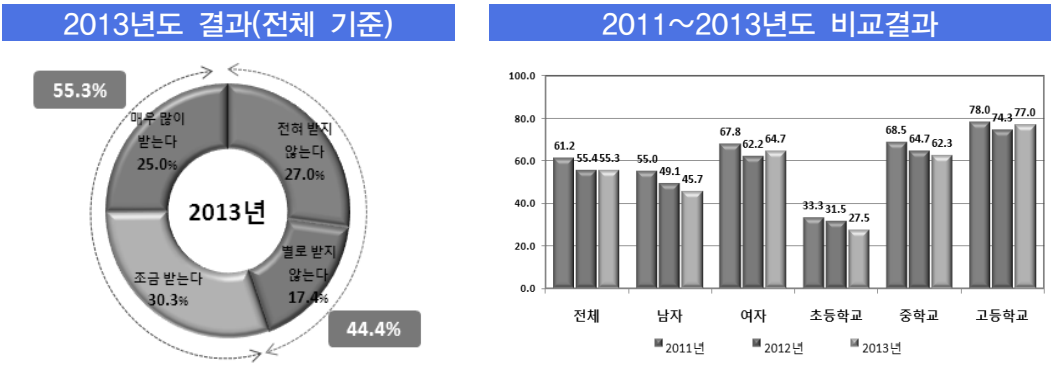
(5)-⑫ 스트레스 -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5.3%가 ‘받는다’, 44.4%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

○ ‘학업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응답자의 55.3%가 ‘받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44.4%는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여학생(64.7%)이 남학생(45.7%)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77.0%, 중학생 62.3%, 초등학생 27.5%로 교급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61.2%, 2012년 55.4%, 2013년 55.3%로 매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2012년(62.2%) 대비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2012년(74.3%)과 비교하여 2.7%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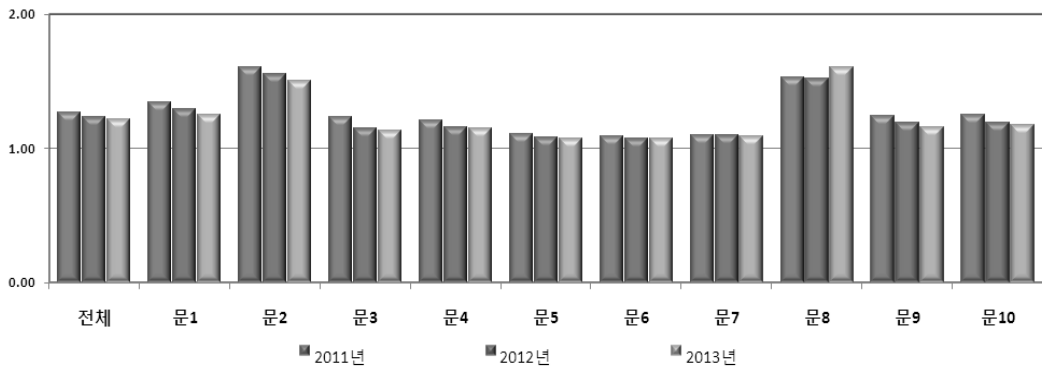
【그림 II-80】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표 II-87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 학업문제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무응답		
년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0.2	25.5	25.0	31.0	29.9	30.3	17.6	18.4	17.4	20.7	25.9	27.0	0.6	0.3	0.3
성별	남	4,874	4,494	4,692	26.0	21.6	19.1	29.0	27.5	26.6	19.2	19.2	18.8	25.2	31.4	35.2	0.5	0.4	0.3
	여	4,561	4,251	4,710	34.7	29.7	30.7	33.1	32.5	34.0	15.8	17.6	16.1	15.8	20.0	18.9	0.6	0.2	0.3
교급	초	2,943	3,185	3,157	12.8	11.5	9.2	20.5	20.0	18.3	23.2	22.2	20.9	43.2	46.1	51.4	0.3	0.3	0.3
	중	2,844	2,986	3,260	33.0	30.8	26.8	35.5	33.9	35.5	17.3	18.4	17.7	13.5	16.5	19.7	0.7	0.3	0.3
	고	3,648	2,574	2,985	42.1	36.7	39.6	35.9	37.6	37.4	13.2	13.7	13.5	8.1	11.6	9.2	0.7	0.3	0.2

(6) 비행 - 항목별 평균

비행영역의 항목별 평균에서는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M=1.6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술을 마신 적이 있다(M=1.50)’,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M=1.25)’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흡연율과 음주율은 감소추세에 있음.



【그림 II-81】 2011~2013년도 비행의 항목별 평균

표 II-88 2011~2013년도 비행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34	1.29	1.25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60	1.55	1.50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23	1.15	1.13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21	1.16	1.15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1.11	1.08	1.07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09	1.07	1.07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10	1.10	1.09
8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1.53	1.52	1.60
9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1.24	1.19	1.16
1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1.25	1.19	1.17
비행 영역(전체)		1.27	1.23	1.22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 영역의 항목별 차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영역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89>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비행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남녀차이가 유의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비행 경험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행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교급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흡연과 무단결석, 음란물 접촉, 도박 등의 항목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높았고, 음주, 절도, 폭력, 갈취경험, 가출, 기물파손의 항목에서는 중학생의 점수가 초등학교이나 고등학생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89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행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흡연		음주		절도		폭력		갈취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1.38 (0.93)	234.906 ***	1.60 (1.00)	113.837 ***	1.16 (0.53)	44.136 ***	1.21 (0.59)	153.931 ***	1.09 (0.47)	39.658 ***			
	여자 (n=4,710)	1.13 (0.60)		1.40 (0.83)		1.10 (0.46)		1.08 (0.43)		1.04 (0.35)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1.03 (0.30)	268.384 ***	1.25 (0.62)	416.803 ***	1.09 (0.41)	15.367 ***	1.15 (0.51)	15.441 ***	1.05 (0.39)	9.602 ***			
	중학교 (n=3,260)	1.26 (0.77)		(ab,ac, bc)		(ab,ac, bc)		(0.56)		(ab)		(0.59)	(bc)	1.09 (0.46)
	고등학교 (n=2,985)	1.49 (1.05)		1.87 (1.13)		1.14 (0.51)		1.11 (0.46)		1.07 (0.40)				
거주지	서울 (n=1,539)	1.24 (0.76)	0.874	1.45 (0.86)	3.929 **	1.13 (0.45)	0.526	1.15 (0.54)	0.502	1.07 (0.47)	0.424			
	광역시 (n=2,247)	1.24 (0.76)		1.48 (0.92)		1.12 (0.45)		1.14 (0.49)		1.06 (0.36)				
	사군 (n=5,616)	1.26 (0.81)		1.52 (0.94)		1.13 (0.53)		1.15 (0.53)		1.07 (0.42)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1.23 (0.76)	21.080 ***	1.47 (0.90)	24.103 ***	1.12 (0.49)	3.509 **	1.14 (0.50)	11.334 ***	1.06 (0.40)	2.214			
	한부모가정 (n=840)	1.42 (0.96)		(gh)		(gh)		(0.57)		(gh)		1.21 (0.62)	1.08 (0.46)	
	조손가정 (n=156)	1.31 (0.88)		1.66 (0.99)		1.17 (0.51)		1.27 (0.84)		1.12 (0.72)				
전체 M(SD)		1.25(0.79)		1.50(0.92)		1.13(0.50)		1.15(0.52)		1.07(0.42)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 접촉		도박		기물파손		비행(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1.08 (0.40)	4.015 **	1.10 (0.42)	9.014 ***	1.90 (1.28)	702.53 5 ***	1.26 (0.75)	250.32 4 ***	1.24 (0.60)	130.736 ***	1.30 (0.43)	430.43 5 ***
	여자 (n=4,710)	1.06 (0.40)		1.08 (0.44)		1.20 (0.57)		1.06 (0.42)		1.11 (0.46)		1.14 (0.34)	
교급 별	초등학교 (n=3,157)	1.02 (0.27)	30.807 *** (ab,ac)	1.06 (0.34)	12.686 *** (ab,ac)	1.09 (0.47)	780.149 *** (ab,ac,bc)	1.04 (0.40)	128.093 *** (ab,ac,bc)	1.10 (0.43)	46.883 *** (ab,ac)	1.09 (0.27)	354.484 *** (ab,ac,bc)
	중학교 (n=3,260)	1.08 (0.43)		1.11 (0.47)		1.64 (1.09)		1.14 (0.55)		1.22 (0.60)		1.23 (0.41)	
	고등학교 (n=2,985)	1.10 (0.47)		1.09 (0.46)		2.11 (1.32)		1.30 (0.81)		1.20 (0.57)		1.35 (0.45)	
거주 지	서울 (n=1,539)	1.08 (0.40)	0.417	1.10 (0.44)	1.023	1.63 (1.13)	4.096 **	1.14 (0.54)	2.259	1.16 (0.47)	1.081	1.21 (0.36)	0.339
	광역시 (n=2,247)	1.06 (0.38)		1.08 (0.37)		1.65 (1.09)		1.15 (0.58)		1.18 (0.55)		1.22 (0.36)	
	사군 (n=5,616)	1.07 (0.41)		1.09 (0.45)		1.58 (1.10)		1.17 (0.65)		1.18 (0.55)		1.22 (0.42)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1.06 (0.37)	22.026 *** (gh)	1.08 (0.41)	10.537 *** (gh)	1.59 (1.09)	11.302 *** (gh)	1.15 (0.60)	6.952 **	1.17 (0.52)	6.435 **	1.21 (0.38)	27.475 *** (gh)
	한부모가정 (n=840)	1.15 (0.55)		1.13 (0.49)		1.78 (1.19)		1.22 (0.75)		1.23 (0.65)		1.31 (0.45)	
	조손가정 (n=156)	1.12 (0.42)		1.19 (0.75)		1.57 (1.15)		1.26 (0.89)		1.24 (0.86)		1.29 (0.50)	
전체 M(SD)		1.07(0.40)		1.09(0.43)		1.60(1.10)		1.16(0.62)		1.17(0.54)		1.22(0.39)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거주지별로는 음주, 음란물 접촉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들 항목 모두 광역시에서 서울이나 시·군지역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가족구성별에서는 가출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흡연, 음주, 무단결석, 음란물 접촉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폭력, 갈취, 가출, 도박 항목은 조손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비행영역(전체)을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t=430.435$, $p < .001$),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54.484$, $p < .001$). 또한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F=27.475$, $p < .001$). 각 세부항목별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는 <표 II-89>에 제시되어 있다.

(6)-① 비행 - 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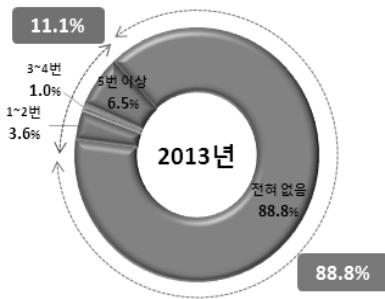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1.1%가 '있다', 88.8%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1.1%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88.8%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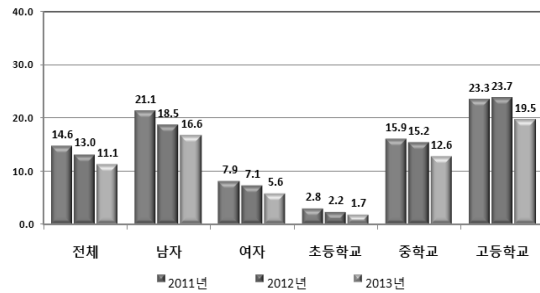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학생(16.6%)이 여학생(5.6%)보다 흡연경험 비율이 약 3배 정도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1.7%에 불과한 반면 중학생(12.6%)으로 올라가면서 급증하였고 고등학생(19.5%)의 흡연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4.6%, 2012년 13.0%, 2013년 11.1%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2011년 23.3%에서 2012년에 23.7%로 0.4%p 높아졌고 다시 2013년도에는 19.5%로 2012년 대비 4.2%p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82】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표 II-90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5.2	87.0	88.8	4.9	4.6	3.6	1.0	1.0	1.0	8.7	7.4	6.5	0.1	0.0	0.0	
성 별	남	4,874	4,494	4,692	78.9	81.4	83.4	6.7	6.2	5.3	1.3	1.2	1.4	13.1	11.1	9.9	0.1	0.0	0.0
	여	4,561	4,251	4,710	92.0	92.9	94.3	3.0	2.9	1.9	0.8	0.7	0.6	4.1	3.5	3.1	0.0	0.0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97.1	97.7	98.2	2.3	1.7	1.1	0.2	0.3	0.3	0.3	0.2	0.3	0.1	0.0	0.1
	중	2,844	2,986	3,260	84.0	84.8	87.4	6.9	6.8	5.5	1.4	1.5	1.3	7.6	6.9	5.8	0.1	0.0	0.1
	고	3,648	2,574	2,985	76.7	76.2	80.5	5.4	5.6	4.3	1.5	1.2	1.3	16.4	16.9	13.9	0.0	0.0	0.0

(6)-② 비행 -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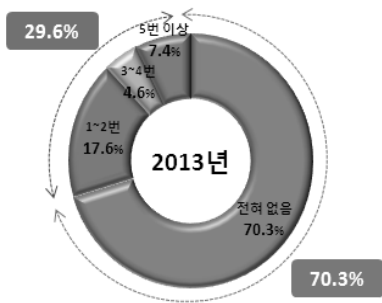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9.6%가 ‘있다’, 70.3%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에 대해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29.6%, ‘전혀 없다’의 경우에는 70.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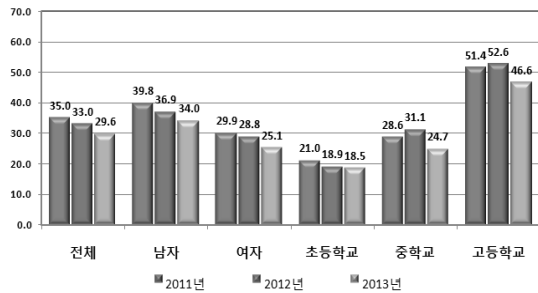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34.0%)이 여학생(25.1%)보다 음주경험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18.5%)에서 중학생(24.7%), 고등학생(46.6%)으로 올라갈수록 음주경험이 더 많았는데, 고등학생의 음주경험률은 초등학생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였다.

[연도별 추이] 2011년 35.0%, 2012년 33.0%, 2013년 29.6%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2011년 대비 2012년에 높아진 비율이 2013년도에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83】 술을 마신 적이 있다

표 II-91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4.9	67.0	70.3	20.0	19.6	17.6	5.3	4.8	4.6	9.7	8.6	7.4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0.1	63.0	65.8	21.2	20.3	18.9	5.4	5.4	5.1	13.2	11.2	10.0	0.1	0.1	0.1
	여	4,561	4,251	4,710	70.0	71.2	74.8	18.8	18.9	16.3	5.1	4.0	4.0	6.0	5.9	4.8	0.0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78.9	80.9	81.4	16.6	13.9	14.7	2.3	2.6	2.1	2.1	2.4	1.7	0.1	0.1	0.1
	중	2,844	2,986	3,260	71.4	68.9	75.2	18.4	20.4	15.6	4.5	4.6	4.0	5.7	6.1	5.1	0.0	0.1	0.1
	고	3,648	2,574	2,985	48.5	47.4	53.3	24.1	25.7	22.8	8.3	7.7	7.9	19.0	19.2	15.9	0.1	0.0	0.1

(6)-③ 비행 - 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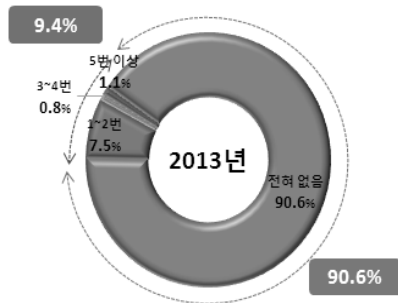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4%가 '있다', 90.6%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9.4%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90.6%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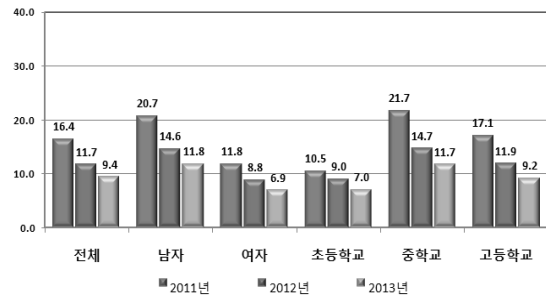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먼저 성별 비교의 경우 남학생(11.8%)이 여학생(6.9%)보다 절도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1.7%)의 경우가 절도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9.2%), 초등학생(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6.4%, 2012년 11.7%, 2013년 9.4%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의 경우 2011년(21.7%)과 비교하여 2013년(11.7%)에 10.0%p가 낮아지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84】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표 II-92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3.5	88.1	90.6	12.8	9.4	7.5	1.9	1.0	0.8	1.7	1.3	1.1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79.3	85.2	88.1	15.7	11.5	9.2	2.6	1.2	1.0	2.4	1.9	1.6	0.1	0.2	0.0
	여	4,561	4,251	4,710	88.0	91.1	93.1	9.6	7.3	5.7	1.2	0.8	0.6	1.0	0.7	0.6	0.1	0.1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89.3	91.0	92.9	8.9	7.6	5.8	1.1	0.5	0.5	0.5	0.9	0.7	0.2	0.1	0.1
	중	2,844	2,986	3,260	78.3	85.2	88.2	17.0	11.4	9.6	2.4	1.5	0.9	2.3	1.8	1.2	0.1	0.2	0.2
	고	3,648	2,574	2,985	82.8	88.0	90.7	12.6	9.5	6.9	2.3	1.0	0.9	2.2	1.4	1.4	0.1	0.2	0.1

(6)-④ 비행 -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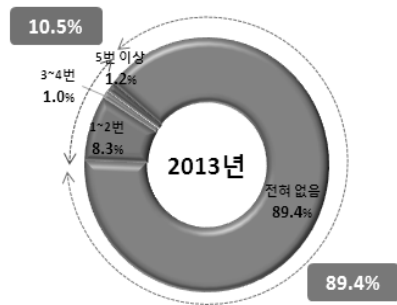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0.5%가 ‘있다’, 89.4%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10.5%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89.4%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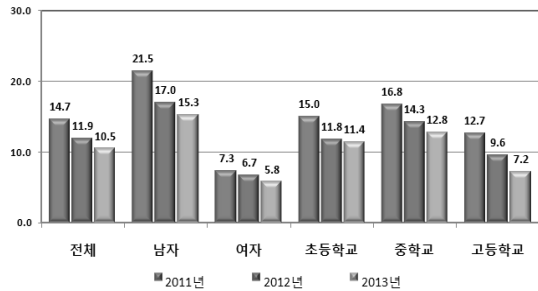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15.3%)이 여학생(5.8%)보다 폭력 가해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2.8%)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초등학생(11.4%), 고등학생(7.2%)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 2011년 14.7%, 2012년 11.9%, 2013년 10.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학생과 비교해 볼 때 남학생의 응답률이 매년 높은 수치를 나타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85】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표 II-93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5.3	87.9	89.4	11.1	9.3	8.3	2.0	1.3	1.0	1.6	1.3	1.2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78.3	82.8	84.6	16.0	12.8	11.7	2.9	2.0	1.5	2.6	2.2	2.1	0.2	0.2	0.0
	여	4,561	4,251	4,710	92.7	93.3	94.1	5.8	5.6	4.9	1.0	0.6	0.6	0.5	0.5	0.3	0.0	0.0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84.8	88.1	88.4	11.6	9.7	9.4	2.0	1.2	1.2	1.4	0.9	0.8	0.1	0.1	0.1
	중	2,844	2,986	3,260	83.2	85.6	87.1	12.6	10.9	10.0	2.6	1.6	1.4	1.6	1.8	1.4	0.1	0.2	0.2
	고	3,648	2,574	2,985	87.2	90.5	92.8	9.5	7.0	5.2	1.5	1.2	0.5	1.7	1.4	1.5	0.1	0.0	0.0

(6)-⑤ 비행 - 갈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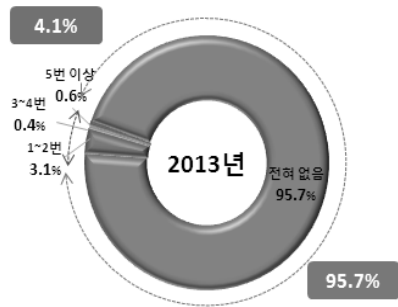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1%가 '있다', 95.7%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1%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95.7%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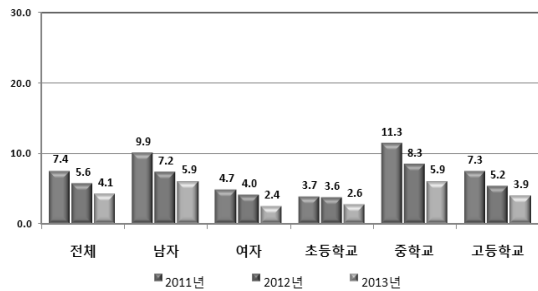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5.9%)이 여학생(2.4%)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5.9%)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는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생(3.9%), 초등학교(2.6%)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4.1%로 2012년(5.6%)에 비해 1.5%p, 2011년(7.4%)에 비해 3.3%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전체 응답률과 같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갈취경험률이 6% 미만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86】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표 II-94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92.6	94.3	95.7	5.5	4.4	3.1	0.9	0.6	0.4	1.0	0.6	0.6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90.0	92.7	94.0	7.2	5.3	4.2	1.1	0.9	0.6	1.6	1.0	1.1	0.1	0.1	0.1
	여	4,561	4,251	4,710	95.2	95.9	97.4	3.7	3.4	2.0	0.6	0.3	0.3	0.4	0.3	0.1	0.0	0.1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96.2	96.3	97.3	3.0	3.3	2.0	0.3	0.2	0.4	0.4	0.1	0.2	0.1	0.1	0.2
	중	2,844	2,986	3,260	88.7	91.7	94.0	8.5	6.3	4.6	1.4	1.0	0.4	1.4	1.0	0.9	0.0	0.1	0.1
	고	3,648	2,574	2,985	92.6	94.8	96.0	5.2	3.7	2.6	0.9	0.7	0.5	1.2	0.8	0.8	0.1	0.0	0.1

(6)-⑥ 비행 - 무단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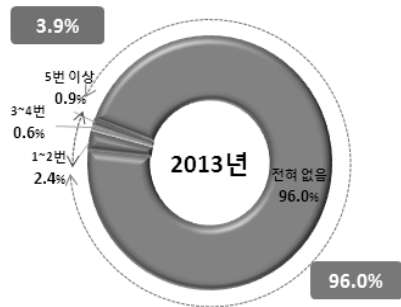
**최근 1년간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9%가 ‘있다’, 96.0%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9%, ‘전혀 없다’의 경우는 96.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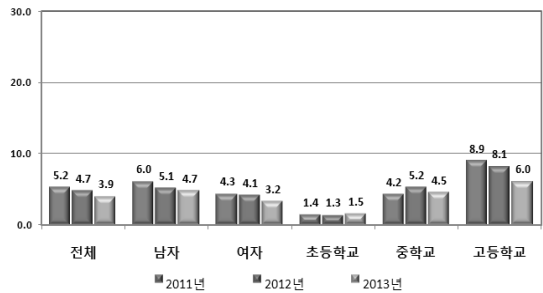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4.7%)이 여학생(3.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1.5%)에서 중학생(4.5%), 고등학생(6.0%)으로 올라갈수록 무단결석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5.2%, 2012년 4.7%, 2013년 3.9%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의 응답률은 2011년 대비 2012년에 낮아진 비율이 2013년도에 다시 높아져 최근 3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87】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표 II-95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94.8	95.3	96.0	3.1	2.9	2.4	0.9	0.7	0.6	1.2	1.1	0.9	0.0	0.0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94.0	94.8	95.3	3.5	3.0	3.0	1.0	0.8	0.7	1.5	1.3	1.0	0.0	0.1	0.0
	여	4,561	4,251	4,710	95.6	95.9	96.7	2.8	2.8	1.9	0.7	0.5	0.5	0.8	0.8	0.8	0.0	0.0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98.6	98.6	98.4	1.2	1.1	1.2	0.1	0.1	0.2	0.1	0.1	0.1	0.0	0.1	0.1
	중	2,844	2,986	3,260	95.6	94.8	95.5	2.8	3.4	2.7	0.7	0.7	0.7	0.7	1.1	1.1	0.0	0.0	0.1
	고	3,648	2,574	2,985	91.1	91.9	94.0	4.9	4.5	3.5	1.6	1.3	1.0	2.4	2.3	1.5	0.0	0.0	0.0

(6)-⑦ 비행 - 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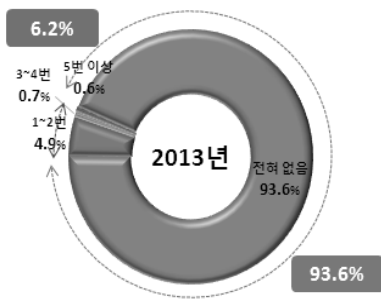
**최근 1년간 '가출을 한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2%가 '있다', 93.6%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가출을 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2%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93.6%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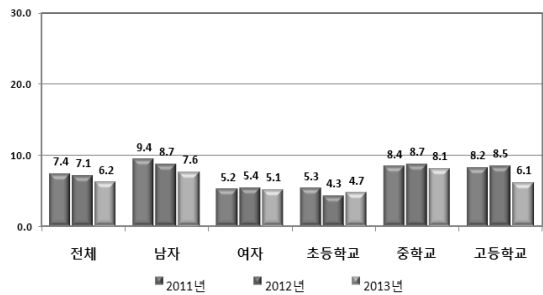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7.6%)이 여학생(5.1%)보다 가출 경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6.1%), 중학생(8.1%), 초등학생(4.7%)의 순으로 나타나 교급수준이 높을수록 가출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7.4%, 2012년 7.1%, 2013년 6.2%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3년간 약간의 등락을 보였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5.3%) 대비 2012년(4.3%)에 1.0%p 낮아진 비율이 2013년도(4.7%)에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88】 가출을 한 적이 있다

표 II-96 가출을 한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92.6	92.8	93.6	5.7	5.3	4.9	0.9	1.0	0.7	0.8	0.8	0.6	0.0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90.4	91.1	92.4	7.0	6.4	5.9	1.3	1.3	0.8	1.1	1.0	0.9	0.1	0.2	0.0
	여	4,561	4,251	4,710	94.8	94.5	94.8	4.2	4.2	4.0	0.6	0.7	0.7	0.4	0.5	0.4	0.0	0.1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94.7	95.5	95.2	3.9	3.5	4.0	0.7	0.6	0.5	0.7	0.2	0.2	0.0	0.1	0.1
	중	2,844	2,986	3,260	91.5	91.1	91.8	6.9	6.5	6.3	0.9	1.3	0.9	0.6	0.9	0.9	0.1	0.1	0.1
	고	3,648	2,574	2,985	91.7	91.3	93.8	6.1	6.1	4.4	1.1	1.2	0.8	1.0	1.2	0.9	0.0	0.2	0.1

(6)-⑧ 비행 -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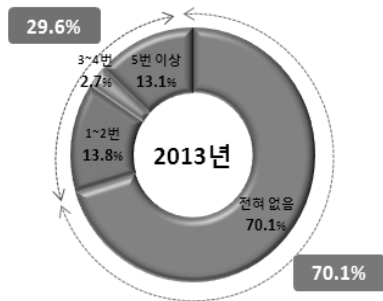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9.6%가 ‘있다’, 70.1%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에 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9.6%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70.1%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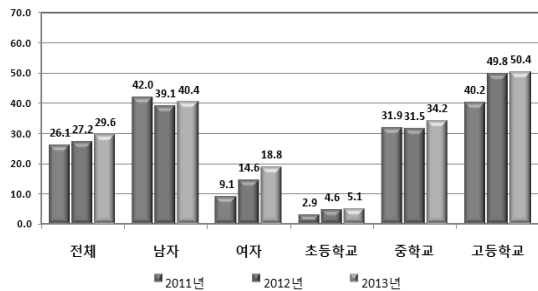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40.4%)이 여학생(18.8%)보다 음란물을 보았던 경험률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은 5.1%에 불과하였으나 중학생(34.2%)의 경우 초등학생과 비교해 6배 이상 높았고, 고등학생(50.4%)의 음란물 접촉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 26.1%, 2012년 27.2%, 2013년 29.6%로 나타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특히 여학생의 음란물 접촉 경험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3년도에는 50.4%를 나타내며 고등학생 절반이상이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89]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표 II-97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3.8	72.6	70.1	11.7	13.2	13.8	2.7	3.0	2.7	11.7	11.0	13.1	0.1	0.3	0.2	
성별	남	4,874	4,494	4,692	57.8	60.6	59.2	16.3	15.4	15.3	4.0	4.3	3.6	21.7	19.4	21.5	0.2	0.4	0.3
	여	4,561	4,251	4,710	90.8	85.3	81.0	6.8	10.8	12.3	1.3	1.6	1.8	1.0	2.2	4.7	0.1	0.1	0.2
교급	초	2,943	3,185	3,157	97.0	95.2	94.7	2.1	3.5	3.6	0.4	0.5	0.4	0.6	1.1	0.0	0.2	0.1	
	중	2,844	2,986	3,260	67.9	68.1	65.4	16.0	17.6	19.1	4.1	3.5	3.3	11.8	10.4	11.8	0.2	0.3	0.3
	고	3,648	2,574	2,985	59.6	49.9	49.3	16.0	20.0	18.7	3.5	5.3	4.5	20.7	24.5	27.2	0.2	0.3	0.2

(6)-⑨ 비행 - 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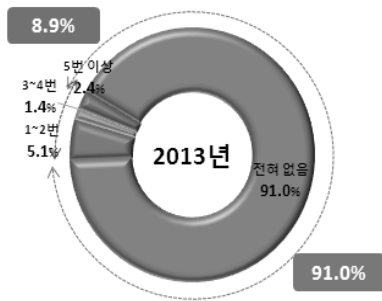
**최근 1년간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9%가 '있다', 91.0%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인터넷 포함)'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8.9%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91.0%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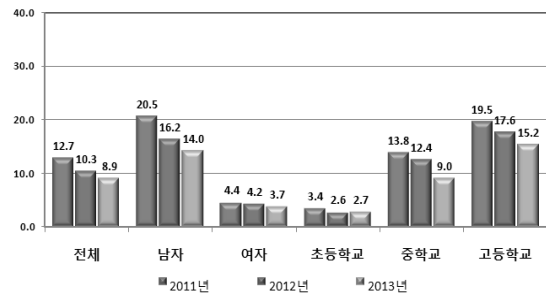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학생(14.0%)이 여학생(3.7%)보다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생이 2.7%이며 중학생으로 올라가면서 9.0%로 급증하였고 고등학생은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9%로 2012년(10.3%)에 비해 1.4%p, 2011년(12.7%)에 비해 3.8%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전체 응답률과 같이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0】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표 II-98 돈내기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7.2	89.5	91.0	6.3	5.5	5.1	1.7	1.5	1.4	4.7	3.3	2.4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79.4	83.7	85.9	9.4	7.8	7.4	2.8	2.7	2.2	8.3	5.7	4.4	0.1	0.1	0.1
	여	4,561	4,251	4,710	95.5	95.7	96.2	2.9	3.0	2.8	0.6	0.3	0.5	0.9	0.9	0.4	0.0	0.1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96.4	97.4	97.1	2.2	1.6	2.0	0.5	0.3	0.4	0.7	0.7	0.3	0.1	0.1	0.2
	중	2,844	2,986	3,260	86.2	87.5	91.0	7.4	7.0	6.0	2.0	2.0	1.3	4.4	3.4	1.7	0.0	0.1	0.1
	고	3,648	2,574	2,985	80.5	82.2	84.7	8.7	8.5	7.3	2.5	2.6	2.4	8.3	6.5	5.5	0.0	0.2	0.1

(6)-⑩ 비행 - 기물파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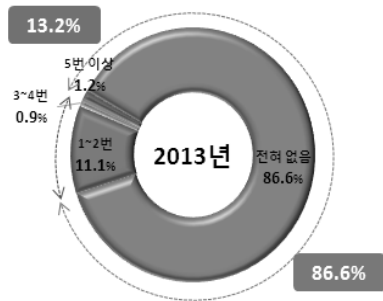
최근 1년간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3.2%가 ‘있다’, 86.6%가 ‘전혀 없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3.2%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86.6%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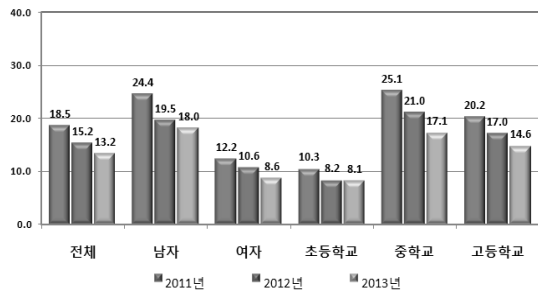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기물파손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학생(18.0%)이 여학생(8.6%)보다 상기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중학생(17.1%)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14.6%), 초등학생(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13.2%로 2012년(15.2%)에 비해 2.0%p, 2011년(18.5%)에 비해 5.3%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1】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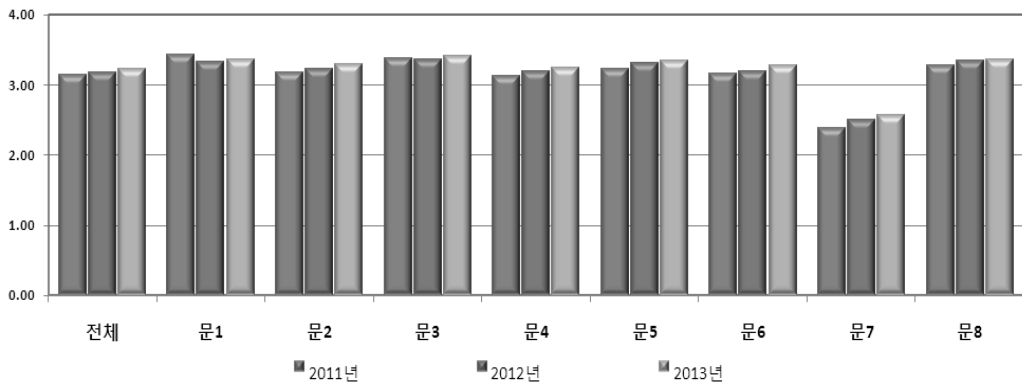
표 II-9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1.3	84.7	86.6	14.9	12.5	11.1	1.8	1.5	0.9	1.8	1.2	1.2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75.5	80.2	81.9	18.7	15.6	14.7	2.6	2.0	1.3	3.1	1.9	2.0	0.1	0.2	0.1
	여	4,561	4,251	4,710	87.6	89.4	91.2	10.9	9.3	7.6	0.9	0.9	0.5	0.4	0.4	0.5	0.0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89.6	91.7	91.8	9.6	7.3	7.4	0.5	0.6	0.4	0.2	0.3	0.3	0.1	0.1	0.1
	중	2,844	2,986	3,260	74.9	78.8	82.7	20.3	17.6	14.4	2.5	1.9	1.2	2.3	1.5	1.5	0.1	0.1	0.1
	고	3,648	2,574	2,985	79.7	82.8	85.3	15.1	13.1	11.5	2.3	2.0	1.2	2.8	1.9	1.9	0.1	0.2	0.0

2) 긍정적 요인

(1) 생활만족도 - 항목별 평균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평균에서는 ‘친구와의 관계(M=3.4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님과의 관계(M=3.36)’, ‘건강(M=3.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항목에서 생활만족도의 평균점수가 더 높아졌음.



【그림 II-92】 2011~2013년도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표 II-100 2011~2013년도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1	부모님과의 관계	3.42	3.32	3.36
2	경제적인 생활수준	3.18	3.23	3.30
3	친구와의 관계	3.37	3.36	3.41
4	여가 생활	3.13	3.19	3.25
5	선생님과의 관계	3.23	3.31	3.35
6	학교생활	3.16	3.19	3.27
7	학업성적	2.38	2.50	2.56
8	건강	3.28	3.34	3.36
생활만족도(전체)		3.14	3.18	3.23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영역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 II-101>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며, 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지별 분석에서는 학교생활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학교생활의 경우 서울지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가족구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세부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든 항목에서 양부모 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1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인 생활수준		친구와의 관계		여가 생활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43 (0.85)	56.458 ***	3.39 (0.83)	93.696 ***	3.55 (0.76)	281.077 ***	3.40 (0.88)	219.021 ***
	여자 (n=4,710)	3.30 (0.91)		3.21 (0.91)		3.27 (0.88)		3.11 (0.98)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61 (0.77)	191.655 *** (ab,ac)	3.64 (0.73)	501.168 *** (ab,ac, bc)	3.57 (0.81)	97.447 *** (ab,ac, bc)	3.63 (0.79)	547.727 *** (ab,ac, bc)
	중학교 (n=3,260)	3.27 (0.91)		3.28 (0.86)		3.38 (0.85)		3.24 (0.92)	
	고등학교 (n=2,985)	3.21 (0.90)		2.97 (0.90)		3.28 (0.80)		2.87 (0.97)	
거주지	서울 (n=1,539)	3.32 (0.90)	2.295	3.28 (0.89)	1.868	3.41 (0.84)	0.002	3.26 (0.98)	0.005
	광역시 (n=2,247)	3.36 (0.86)		3.28 (0.86)		3.41 (0.79)		3.25 (0.94)	
	시군 (n=5,616)	3.38 (0.88)		3.32 (0.87)		3.41 (0.83)		3.25 (0.94)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40 (0.86)	51.839 *** (gh)	3.35 (0.84)	12.555 *** (gh)	3.43 (0.82)	18.249 *** (gh)	3.27 (0.94)	11.055 *** (gh)
	한부모가정 (n=840)	3.09 (0.99)		2.85 (0.98)		3.25 (0.87)		3.11 (0.98)	
	조손가정 (n=156)	-		3.21 (1.02)		3.31 (1.00)		3.18 (1.04)	
전체 M(SD)		3.36(0.88)		3.30(0.87)		3.41(0.83)		3.25(0.94)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적		건강		생활만족도 (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40 (0.85)	32,909 ***	3.37 (0.89)	104,358 ***	2.71 (1.10)	174,049 ***	3.46 (0.82)	136,404 ***	3.34 (0.63)	238.6 ***				
	여자 (n=4,710)	3.30 (0.88)		3.18 (0.93)		2.41 (1.08)		3.25 (0.88)		3.13 (0.68)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62 (0.77)	274,524 ***	3.55 (0.82)	304,923 ***	3.28 (0.95)	1487.321 ***	3.65 (0.72)	418,806 ***	3.57 (0.60)	835.316 ***				
	중학교 (n=3,260)	3.28 (0.91)		(ab,ac, bc)		3.25 (0.93)		(ab,ac, bc)		2.37 (1.03)		(ab,ac, bc)	3.36 (0.83)	(ab,ac, bc)	3.18 (0.64)
	고등학교 (n=2,985)	3.13 (0.82)				2.99 (0.91)				1.99 (0.89)			3.04 (0.89)		2.94 (0.59)
거주지	서울 (n=1,539)	3.42 (0.82)	16,473 (df)	3.32 (0.88)	4,053 ** (df)	2.53 (1.08)	1,922	3.36 (0.84)	0.174	3.24 (0.66)	1.497				
	광역시 (n=2,247)	3.26 (0.92)		3.24 (0.92)		2.53 (1.08)		3.36 (0.84)		3.21 (0.65)					
	사군 (n=5,616)	3.36 (0.85)		3.27 (0.92)		2.58 (1.11)		3.36 (0.86)		3.24 (0.6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37 (0.85)	21,341 ***	3.30 (0.91)	32,055 ***	2.59 (1.10)	31,087 ***	3.38 (0.84)	21,437 ***	3.26 (0.66)	62,624 ***				
	한부모가정 (n=840)	3.17 (0.93)		(gh)		3.05 (0.95)		(gh)		2.28 (1.04)		(gh)	3.18 (0.93)	(gh)	3.00 (0.67)
	조손가정 (n=156)	3.26 (1.04)				3.07 (1.00)				2.53 (1.16)			3.29 (0.90)	-	
전체 M(SD)		3.35(0.86)		3.27(0.92)		2.56(1.10)		3.36(0.85)		3.23(0.66)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생활만족도 영역 전체를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t=238.6, p<.001$)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F=835.316, p<.001$),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낮아졌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F=1.497, p>.05$),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 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t=62.624, p<.001$), 양부모가정 내 아동·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① 생활만족도 - 부모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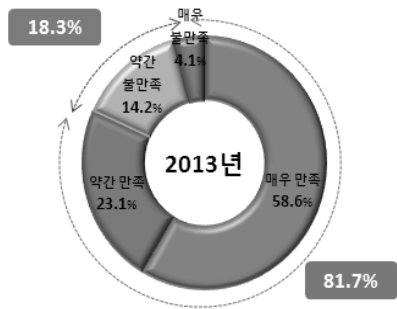
**‘부모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1.7%가 ‘만족한다고 응답**

○ ‘부모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1.7%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18.3%는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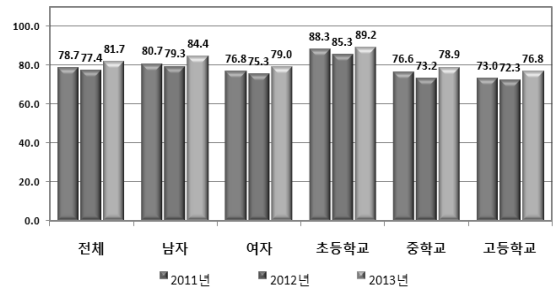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84.4%)이 여학생(79.0%)보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이 89.2%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78.9%), 고등학생(76.8%)의 순으로 나타나 교급이 올라갈수록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더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1.7%로 2012년(77.4%)에 비해 4.3%p, 2011년(78.7%)에 비해 3.0%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교급별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2013년도 응답률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3】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표 II-102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년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0	4.4	4.1	15.3	14.5	14.2	25.0	23.5	23.1	53.7	53.9	58.6	1.9	3.8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3.9	4.3	3.9	13.5	12.3	11.7	24.9	22.8	21.6	55.8	56.5	62.8	1.9	4.1	0.0
	여	4,561	4,251	4,710	4.2	4.4	4.3	17.2	16.8	16.6	25.2	24.2	24.6	51.6	51.1	54.4	1.8	3.4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5	2.7	3.1	7.2	7.2	7.7	17.0	17.1	15.0	71.3	68.2	74.2	2.1	4.8	0.1
	중	2,844	2,986	3,260	4.1	5.2	4.9	17.5	18.1	16.1	27.5	25.9	26.0	49.1	47.3	52.9	1.8	3.6	0.1
	고	3,648	2,574	2,985	5.2	5.4	4.3	20.1	19.5	18.9	29.7	28.6	28.6	43.3	43.7	48.2	1.8	2.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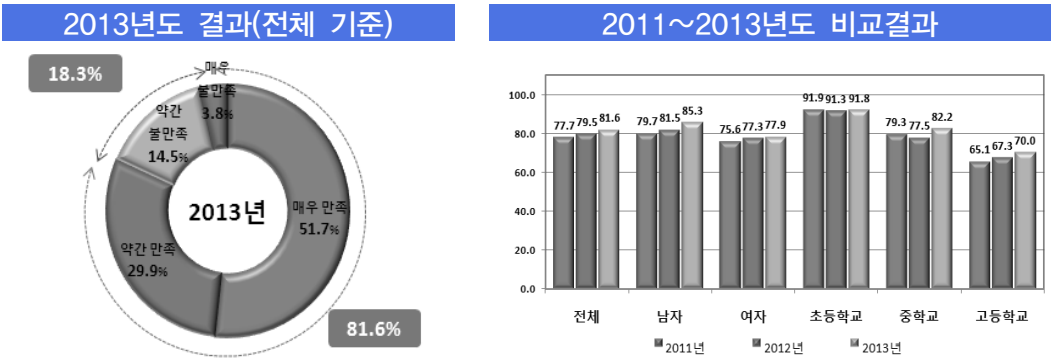
(1)-② 생활만족도 - 경제적인 생활수준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1.6%가 ‘만족한다고 응답**

○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1.6%가 ‘만족한다’, 18.3%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85.3%)이 여학생(77.9%)보다 경제적 생활수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91.8%)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중학생(82.2%), 고등학생(7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정도는, 2011년 77.7%, 2012년 79.5%, 2013년 81.6%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경우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낮아졌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94】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표 II-103 경제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6	4.9	3.8	17.6	15.5	14.5	33.2	31.2	29.9	44.5	48.3	51.7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4.3	4.9	3.4	16.0	13.3	11.3	33.2	29.4	28.7	46.5	52.1	56.6	0.1	0.2	0.1
	여	4,561	4,251	4,710	5.0	4.8	4.2	19.3	17.9	17.7	33.3	33.0	31.1	42.3	44.3	46.8	0.1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2	3.1	2.4	5.8	5.4	5.6	22.9	21.1	18.1	69.0	70.2	73.7	0.3	0.2	0.1
	중	2,844	2,986	3,260	3.9	4.7	3.4	16.8	17.6	14.3	36.0	34.9	34.5	43.3	42.6	47.7	0.0	0.2	0.2
	고	3,648	2,574	2,985	7.2	7.3	5.8	27.6	25.5	24.2	39.5	39.4	37.4	25.6	27.9	32.6	0.0	0.0	0.0

(1)-③ 생활만족도 -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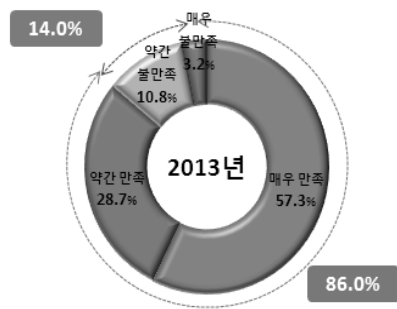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86.0%가 ‘만족한다고 응답

○ ‘친구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관해서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86.0%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14.0%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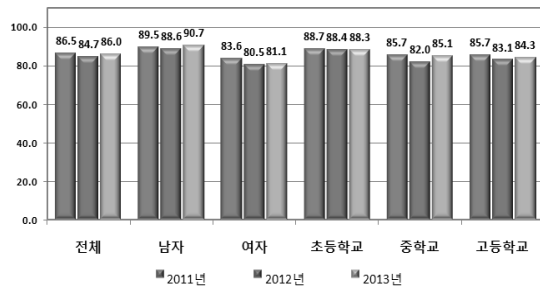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81.1%)보다 남학생(90.7%)의 경우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8.3%)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생(85.1%), 고등학생(8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6.0%로 2012년(84.7%)에 비해 1.3%p 높게, 2011년(86.5%)에 비해 0.5%p 낮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응답률이 2013년에 90.7%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나, 매년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5】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표 II-104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3	3.8	3.2	10.0	11.5	10.8	33.2	30.0	28.7	53.3	54.7	57.3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2.9	3.4	2.6	7.5	7.9	6.5	31.0	27.5	24.4	58.5	61.1	66.3	0.1	0.1	0.1
	여	4,561	4,251	4,710	3.7	4.1	3.7	12.7	15.3	15.0	35.7	32.6	32.8	47.9	47.9	48.3	0.1	0.1	0.2
교 급	초	2,943	3,185	3,157	3.7	3.6	3.3	7.3	7.9	8.2	22.0	20.1	17.9	66.7	68.3	70.4	0.2	0.2	0.2
	중	2,844	2,986	3,260	3.8	4.4	3.7	10.5	13.4	11.1	33.1	30.9	29.9	52.6	51.1	55.2	0.0	0.1	0.2
	고	3,648	2,574	2,985	2.5	3.1	2.5	11.8	13.7	13.1	42.5	41.1	38.7	43.2	42.0	45.6	0.0	0.0	0.1

(1)-④ 생활만족도 - 여가 생활

‘여가 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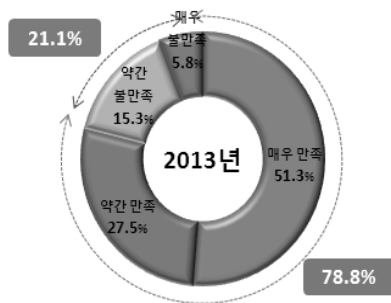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78.8%가 ‘만족한다고 응답

○ ‘여가 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78.8%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고, 21.1%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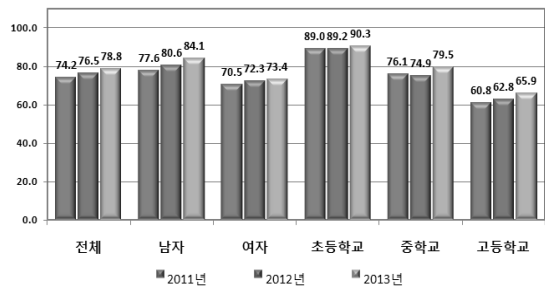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여학생(73.4%)보다 남학생(84.1%)의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90.3%)에서 고등학생(65.9%)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1년 74.2%, 2012년 76.5%, 2013년 78.8%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모두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의 경우는 2011년(76.1%) 대비 2012년도(74.9%)에 1.2%p 낮아졌다 2013년도(79.5%)에 4.6%p가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6】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표 II-105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4	7.0	5.8	18.3	16.3	15.3	29.2	27.2	27.5	45.0	49.3	51.3	0.1	0.1	0.2	
성 별	남	4,874	4,494	4,692	6.6	6.7	4.7	15.6	12.6	11.0	27.7	25.9	24.7	49.9	54.7	59.4	0.2	0.2	0.1
	여	4,561	4,251	4,710	8.3	7.5	6.9	21.0	20.2	19.5	30.8	28.7	30.2	39.7	43.6	43.2	0.1	0.1	0.2
교 급	초	2,943	3,185	3,157	3.6	4.2	3.3	7.2	6.5	6.2	18.2	17.7	16.2	70.8	71.5	74.1	0.3	0.2	0.2
	중	2,844	2,986	3,260	6.3	7.2	5.0	17.6	17.8	15.4	32.1	30.7	31.0	44.0	44.2	48.5	0.0	0.1	0.2
	고	3,648	2,574	2,985	11.4	10.5	9.4	27.6	26.7	24.7	35.9	35.1	35.6	24.9	27.7	30.3	0.1	0.0	0.1

(1)-⑤ 생활만족도 - 선생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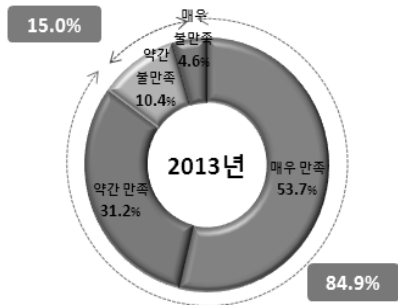
**‘선생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4.9%가 ‘만족한다고 응답**

○ ‘선생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와 관련하여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84.9%, ‘만족하지 않는다’는 15.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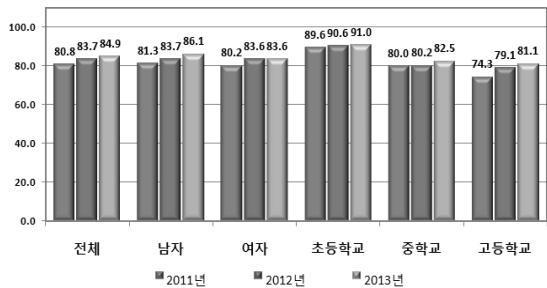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선생님과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여학생(83.6%) 보다 남학생(86.1%)이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91.0%)에서 중학생(82.5%), 고등학생(81.1%)으로 올라갈수록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80.8%, 2012년 83.7%, 2013년 84.9%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모두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과 2013년이 각각 83.6%로 동일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7】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표 II-106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연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5.9	5.3	4.6	13.2	10.9	10.4	33.7	31.3	31.2	47.1	52.4	53.7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5	6.2	4.6	12.0	9.9	9.2	32.7	29.8	28.1	48.6	53.9	58.0	0.1	0.2	0.0
	여	4,561	4,251	4,710	5.2	4.4	4.6	14.5	12.0	11.5	34.8	32.8	34.2	45.4	50.8	49.4	0.1	0.0	0.2
교급	초	2,943	3,185	3,157	4.0	4.0	3.8	6.3	5.2	5.2	18.0	17.7	16.9	71.6	72.9	74.1	0.1	0.2	0.1
	중	2,844	2,986	3,260	6.5	6.7	5.8	13.5	13.1	11.6	36.0	35.0	32.5	44.0	45.2	50.0	0.1	0.1	0.2
	고	3,648	2,574	2,985	7.0	5.4	4.4	18.6	15.4	14.5	44.6	43.7	44.8	29.7	35.4	36.3	0.1	0.1	0.0

(1)-⑥ 생활만족도 -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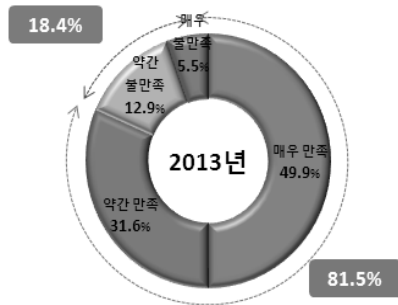
**‘학교 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1.5%가 ‘만족한다고 응답**

○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1.5%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18.4%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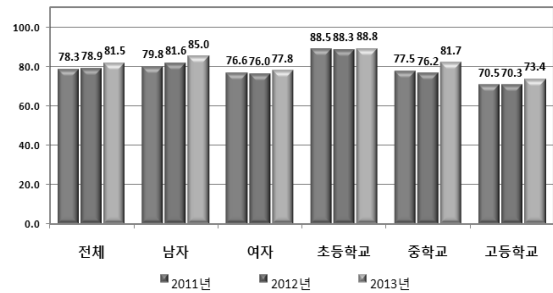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만족한다’는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5.0%)이 여학생(77.8%)보다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를 살펴보면 초등학생(88.8%)에서 고등학생(73.4%)으로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더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1년 78.3%, 2012년 78.9%, 2013년 81.5%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가 2013년도에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98】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표 II-107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6	7.0	5.5	15.0	14.0	12.9	34.8	32.0	31.6	43.5	46.9	49.9	0.1	0.2	0.2	
성별	남	4,874	4,494	4,692	6.4	7.1	5.3	13.7	11.2	9.6	33.6	30.8	29.2	46.2	50.8	55.8	0.1	0.2	0.2
	여	4,561	4,251	4,710	6.9	6.9	5.6	16.4	17.0	16.3	36.0	33.3	33.9	40.6	42.7	43.9	0.1	0.2	0.2
교급	초	2,943	3,185	3,157	3.7	4.0	3.8	7.7	7.4	7.3	22.0	21.2	19.9	66.5	67.1	68.9	0.1	0.2	0.2
	중	2,844	2,986	3,260	6.8	8.1	5.6	15.5	15.6	12.4	35.8	34.7	34.4	41.7	41.5	47.3	0.2	0.2	0.3
	고	3,648	2,574	2,985	8.9	9.3	7.1	20.4	20.3	19.5	44.3	42.3	40.8	26.2	28.0	32.6	0.1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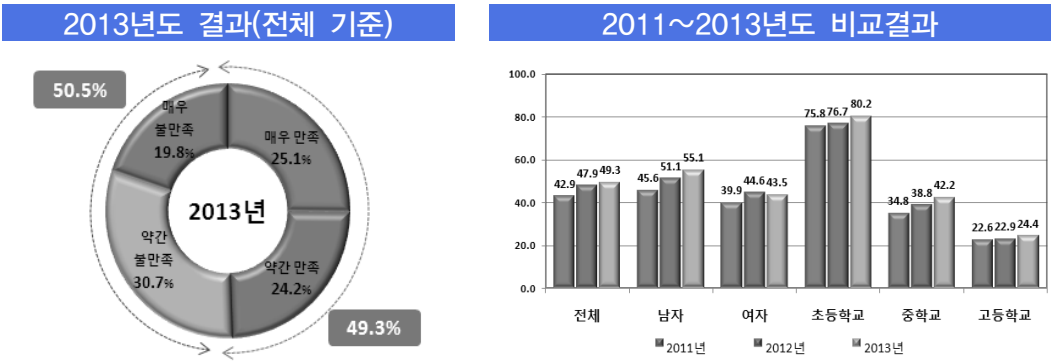
(1)-⑦ 생활만족도 - 학업성적

‘학업성적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9.3%가 ‘만족한다’, 50.5%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 ‘학업 성적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50.5%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49.3%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만족한다’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55.1%)이 여학생(43.5%)보다 학업성적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80.2%)의 경우 다른 교급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학업성적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중학생(42.2%), 고등학생(24.4%)의 순으로 나타나 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적에는 불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연도별 추이] 2011년 42.9%, 2012년 47.9%, 2013년 49.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44.6%)과 비교하여 2013년(43.5%)에 1.1%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9】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표 II-108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4.8	21.6	19.8	32.2	30.4	30.7	23.7	24.3	24.2	19.2	23.6	25.1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23.0	20.2	16.5	31.2	28.6	28.2	23.4	24.5	24.1	22.2	26.6	31.0	0.1	0.1	0.1
	여	4,561	4,251	4,710	26.7	23.1	23.1	33.3	32.3	33.2	24.0	24.2	24.2	15.9	20.4	19.3	0.1	0.1	0.2
교급	초	2,943	3,185	3,157	7.6	7.1	5.9	16.4	16.0	13.7	31.2	29.7	27.9	44.6	47.0	52.3	0.2	0.2	0.2
	중	2,844	2,986	3,260	27.3	25.4	21.6	37.9	35.8	36.0	23.9	25.2	26.8	10.9	13.6	15.4	0.1	0.1	0.2
	고	3,648	2,574	2,985	36.7	35.1	32.5	40.6	41.9	43.0	17.5	16.6	17.4	5.1	6.3	7.0	0.1	0.1	0.0

(1)-⑧ 생활만족도 -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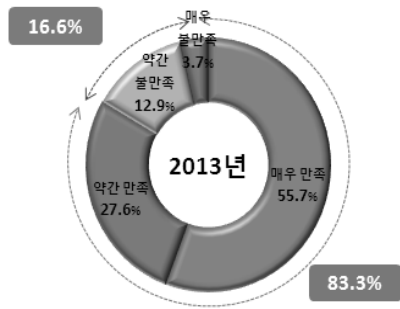
‘건강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3.3%가 ‘만족한다’, 16.6%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 ‘건강에 얼마나 만족합니까?’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3%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16.6%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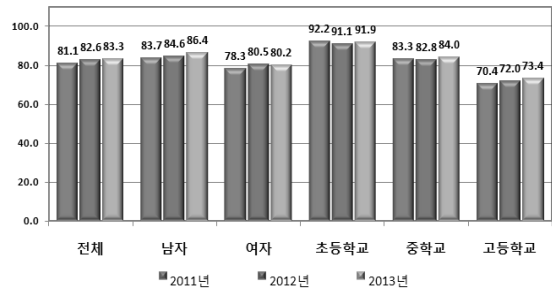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만족한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6.4%)이 여학생(80.2%)보다 건강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91.9%)에서 중학생(84.0%), 고등학생(73.4%)으로 갈수록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점점 더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1년(81.1%), 2012년(82.6%), 2013년은 83.3%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응답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3년(80.2%)로 2012년(80.5%) 대비 0.3%p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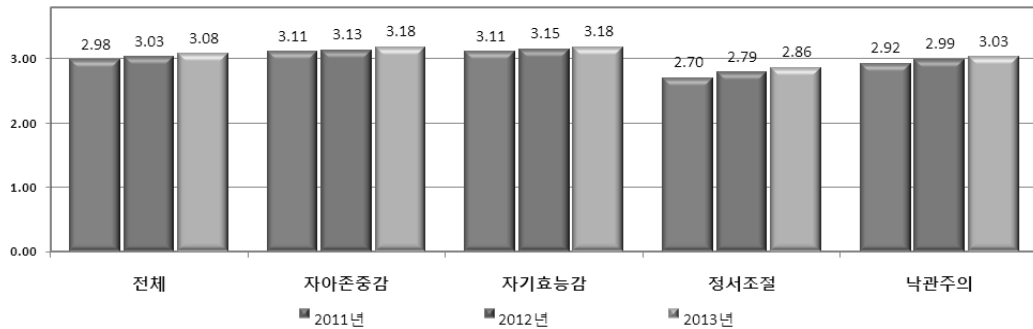
【그림 II-100】 건강에 대한 만족도

표 II-109 건강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연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3	4.3	3.7	14.6	13.0	12.9	29.6	27.3	27.6	51.5	55.3	55.7	0.0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8	4.5	3.5	12.5	10.7	10.1	28.0	24.1	23.6	55.7	60.5	62.8	0.1	0.1	0.0
	여	4,561	4,251	4,710	4.8	4.1	4.0	16.9	15.3	15.7	31.3	30.7	31.5	47.0	49.8	48.7	0.0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7	3.1	2.9	5.1	5.7	5.2	17.9	17.3	16.5	74.3	73.8	75.4	0.1	0.1	0.1
	중	2,844	2,986	3,260	3.6	4.6	3.2	13.1	12.5	12.7	31.4	30.3	29.4	51.9	52.5	54.6	0.0	0.1	0.1
	고	3,648	2,574	2,985	6.1	5.5	5.3	23.5	22.4	21.3	37.7	36.3	37.3	32.7	35.7	36.1	0.0	0.0	0.0

(2)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2-1 자아존중감/2-2 자기효능감/2-3 정서조절 /2-4 낙관주의)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자아존중감(M=3.18)’, ‘자기효능감(M=3.18)’이 가장 높았으며, ‘낙관주의(M=3.03)’, ‘정서조절(M=2.86)’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및 낙관주의 등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그림 II-101】 2011~2013년도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평균

표 II-110 2011~2013년도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자아 존중감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9	3.11	3.16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00	3.03	3.10
	3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3.20	3.22	3.26
	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11	3.13	3.18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3.13	3.16	3.21
소계		3.11	3.13	3.18
자기 효능감	1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3.22	3.25	3.26
	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3.09	3.14	3.17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02	3.06	3.10
소계		3.11	3.15	3.18
정서 조절	1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2.59	2.69	2.75
	2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2.73	2.81	2.88
	3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2.79	2.87	2.95
소계		2.70	2.79	2.86
낙관 주의	1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2.73	2.83	2.89
	2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97	3.02	3.06
	3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3.07	3.11	3.14
소계		2.92	2.99	3.03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전체)		2.98	3.03	3.0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II-111>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 요인별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차이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남녀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교급별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요인의 평균점수는 더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서울지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가족구성별에서는 모든 요인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는 아래 <표 II-111>과 같다.

표 II-111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23 (0.72)	40,586 ***	3.22 (0.68)	37,079 ***	2.98 (0.76)	235,794 ***	3.11 (0.72)	100,498 ***	3.14 (0.63)	117,387 ***
	여자 (n=4,710)	3.14 (0.74)		3.13 (0.70)		2.74 (0.81)		2.95 (0.76)		2.99 (0.68)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32 (0.79)	98,771 *** (ab,ac,bc)	3.38 (0.71)	228,016 *** (ab,ac,bc)	3.17 (0.81)	473,984 *** (ab,ac,bc)	3.28 (0.78)	304,587 *** (ab,ac,bc)	3.29 (0.69)	333,197 *** (ab,ac,bc)
	중학교 (n=3,260)	3.15 (0.72)		3.13 (0.69)		2.81 (0.77)		2.97 (0.73)		3.02 (0.64)	
	고등학교 (n=2,985)	3.07 (0.65)		3.02 (0.63)		2.58 (0.70)		2.84 (0.65)		2.88 (0.57)	
거주지	서울 (n=1,539)	3.20 (0.73)	8,050 ***	3.22 (0.70)	5,263 ***	2.88 (0.80)	0,351	3.06 (0.75)	2,111	3.09 (0.66)	2,404 **
	광역시 (n=2,247)	3.21 (0.72)		3.19 (0.68)		2.86 (0.79)		3.05 (0.72)		3.07 (0.64)	
	사군 (n=5,616)	3.17 (0.74)		3.16 (0.70)		2.86 (0.80)		3.02 (0.75)		3.05 (0.6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21 (0.72)	29,415 *** (gh,gi)	3.19 (0.69)	25,303 *** (gh)	2.88 (0.79)	28,976 *** (gh)	3.05 (0.74)	29,873 *** (gh)	3.08 (0.65)	35,671 *** (gh,gi)
	한부모가정 (n=840)	3.03 (0.76)		3.03 (0.68)		2.67 (0.82)		2.86 (0.75)		2.90 (0.66)	
	조손가정 (n=156)	3.02 (0.86)		3.07 (0.79)		2.76 (0.84)		2.93 (0.84)		2.95 (0.74)	
전체 M(SD)		3.18(0.73)		3.18(0.69)		2.86(0.80)		3.03(0.74)		3.08(0.66)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1)-①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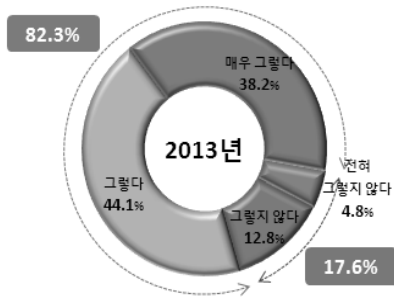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2.3%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2.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7.6%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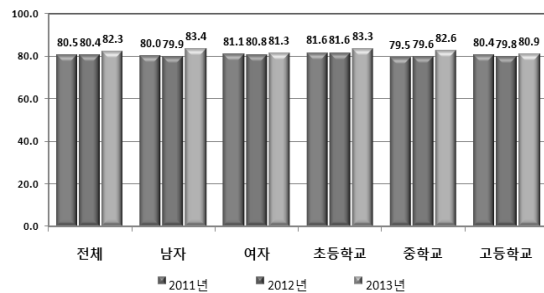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83.4%)이 여학생(81.3%)보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83.3%), 중학생(82.6%), 고등학생(8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2.3%로 2012년(80.4%)에 비해 1.9%p, 2011년(80.5%)에 비해 1.8%p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012년(79.9%) 대비 2013년(83.4%)에 3.5%p 높게 나타나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으며, 교급별 비교에서 역시 중학생이 2013년에 2012년 대비 3.0%p 높게 나타나 큰 상승률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표 II-11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5.4	5.8	4.8	14.0	13.8	12.8	46.7	43.8	44.1	33.8	36.6	38.2	0.1	0.0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6.3	7.3	5.2	13.6	12.7	11.4	45.4	42.7	42.3	34.6	37.2	41.1	0.1	0.1	0.0
	여	4,561	4,251	4,710	4.5	4.3	4.4	14.4	14.9	14.2	48.2	44.9	45.9	32.9	35.9	35.4	0.0	0.0	0.1
교 단 별	초	2,943	3,185	3,157	8.6	8.7	7.4	9.8	9.6	9.2	38.7	34.1	33.1	42.9	47.5	50.2	0.1	0.1	0.1
	중	2,844	2,986	3,260	5.2	4.8	3.5	15.2	15.6	13.8	47.0	47.5	47.6	32.5	32.1	35.0	0.0	0.0	0.1
	고	3,648	2,574	2,985	3.0	3.4	3.5	16.5	16.8	15.5	53.0	51.4	51.9	27.4	28.4	29.0	0.1	0.0	0.0

(2-1)-②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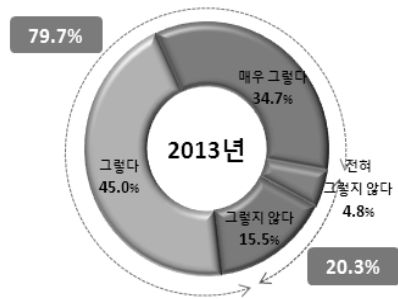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9.7%가 ‘그렇다’, 20.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0.3%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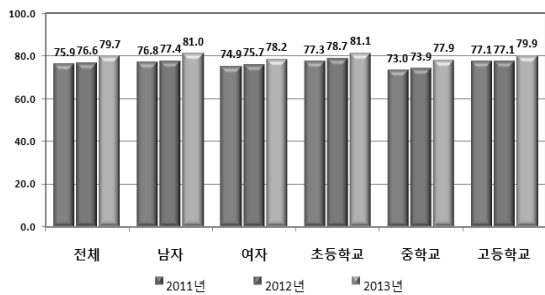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81.0%)이 여학생(78.2%)보다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8%p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81.1%)이 중학생(77.9%) 및 고등학교생(79.9%)에 비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75.9%), 2012년(76.6%), 2013년은 7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는 모두 전체 응답률과 같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의 경우 2013년(77.9%)에 2012년(73.9%) 대비 4.0%p가 높게 나타나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3】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표 II-113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5.6	5.7	4.8	18.5	17.6	15.5	46.8	44.4	45.0	29.1	32.2	34.7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6.2	7.0	5.0	16.9	15.5	13.8	45.3	43.2	42.9	31.5	34.2	38.1	0.1	0.1	0.1
	여	4,561	4,251	4,710	5.0	4.4	4.5	20.1	19.8	17.2	48.4	45.6	47.0	26.5	30.1	31.2	0.0	0.1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8.4	8.4	7.5	14.2	12.6	11.2	40.1	37.6	36.6	37.2	41.1	44.5	0.1	0.2	0.2
	중	2,844	2,986	3,260	5.7	5.1	3.7	21.3	21.1	18.3	47.5	46.8	47.5	25.5	27.1	30.4	0.0	0.1	0.2
	고	3,648	2,574	2,985	3.3	3.1	3.1	19.6	19.7	17.0	51.6	50.1	51.0	25.5	27.0	28.9	0.1	0.0	0.0

(2-1)-③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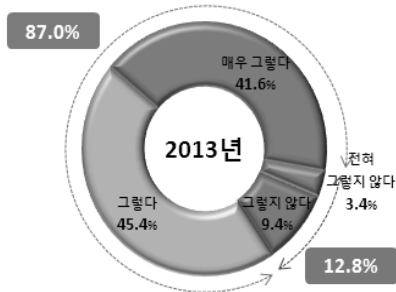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7.0%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7.0%,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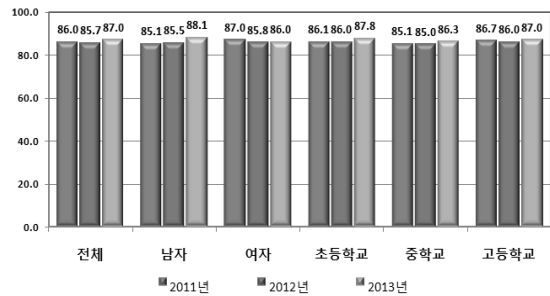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88.1%)과 여학생(86.0%)이 상기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2.1%p 정도로 나타났으며, 교급별 응답결과는 초등학생(87.8%), 고등학생(87.0%), 중학생(8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7.0%로 2012년(85.7%)에 비해 1.3%p, 2011년(86.0%)에 비해 1.0%p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는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최근 3년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중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의 경우 2011년(85.1%) 대비 2013년(88.1%)에 3.0%p가 높게 나타나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표 II-11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7	4.1	3.4	10.2	10.1	9.4	48.8	45.2	45.4	37.2	40.5	41.6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4.1	5.3	3.9	10.7	9.1	7.9	47.5	43.8	44.1	37.6	41.7	44.0	0.1	0.1	0.1
	여	4,561	4,251	4,710	3.2	2.9	3.0	9.7	11.0	10.8	50.2	46.6	46.8	36.8	39.2	39.2	0.1	0.2	0.2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5.9	6.1	5.3	7.9	7.6	6.8	37.2	32.5	32.8	48.9	53.5	55.0	0.2	0.3	0.1
	중	2,844	2,986	3,260	3.6	3.5	2.9	11.3	11.5	10.6	50.7	50.1	49.8	34.4	34.9	36.5	0.1	0.1	0.2
	고	3,648	2,574	2,985	1.9	2.5	2.1	11.3	11.4	10.9	56.7	55.1	53.9	30.0	30.9	33.1	0.1	0.1	0.1

(2-1)-④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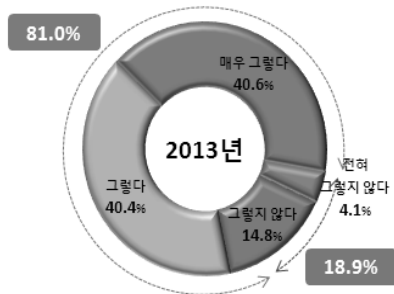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1.0%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1.0%가 ‘그렇다’, 18.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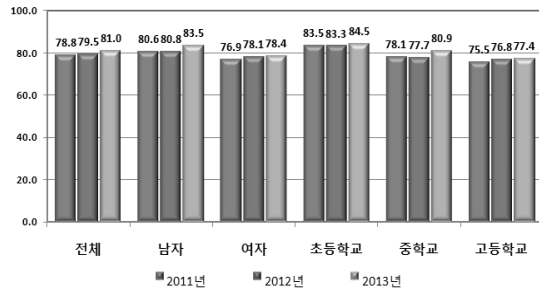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남학생(83.5%)이 여학생(78.4%)에 비해 응답률이 더 높았으며, 초등학교가 84.5%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1년 78.8%, 2012년 79.5%, 2013년 81.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표 II-11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3	4.9	4.1	16.8	15.5	14.8	43.6	41.4	40.4	35.2	38.1	40.6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4.4	5.7	4.3	14.8	13.4	12.1	43.6	40.9	40.1	37.0	39.9	43.4	0.2	0.1	0.1
	여	4,561	4,251	4,710	4.1	4.1	3.8	19.0	17.7	17.6	43.7	41.9	40.7	33.2	36.2	37.7	0.1	0.1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5.2	6.1	5.5	11.1	10.5	9.8	37.3	33.9	32.3	46.2	49.4	52.2	0.2	0.2	0.2
	중	2,844	2,986	3,260	3.7	4.8	3.4	18.0	17.3	15.5	44.5	43.6	43.4	33.6	34.1	37.5	0.1	0.1	0.2
	고	3,648	2,574	2,985	3.9	3.6	3.2	20.6	19.6	19.4	48.1	47.9	45.8	27.4	28.9	31.6	0.1	0.0	0.0

(2-1)-⑤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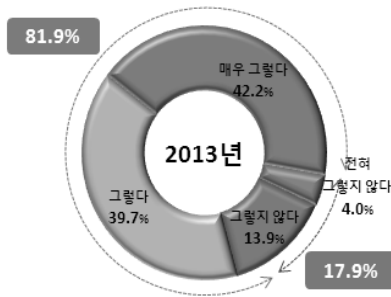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1.9%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81.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7.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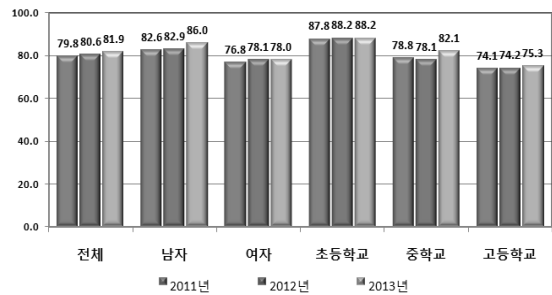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남학생(86.0%)이 여학생(78.0%)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초등학생(88.2%), 중학생(82.1%), 고등학생(75.3%)의 순으로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1년 79.8%, 2012년 80.6%, 2013년 81.9%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78.1%) 대비 2013년(78.0%)에 0.1%p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표 II-11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5	4.9	4.0	15.6	14.4	13.9	43.0	40.0	39.7	36.8	40.6	42.2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4.2	5.3	3.8	13.1	11.6	10.2	42.7	39.4	39.0	39.9	43.5	47.0	0.1	0.1	0.1
	여	4,561	4,251	4,710	4.8	4.4	4.2	18.3	17.4	17.6	43.3	40.6	40.5	33.5	37.5	37.5	0.1	0.1	0.1
학 급	초	2,943	3,185	3,157	4.6	5.4	4.8	7.4	6.2	6.8	31.9	28.9	27.3	55.9	59.3	60.9	0.2	0.2	0.1
	중	2,844	2,986	3,260	4.7	5.0	3.5	16.5	16.9	14.3	44.9	44.4	44.7	33.9	33.7	37.4	0.0	0.1	0.1
	고	3,648	2,574	2,985	4.3	4.1	3.8	21.5	21.6	20.9	50.4	48.6	47.5	23.7	25.6	27.8	0.1	0.0	0.0

(2-2)-①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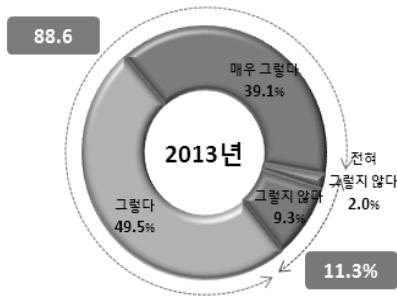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8.6%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8.6%가 ‘그렇다’, 11.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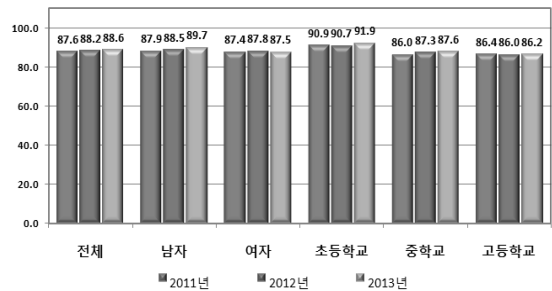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89.7%)이 여학생(87.5%)보다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91.9%로 가장 높고 중학생(87.6%), 고등학생(86.2%)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8.6%로 2012년(88.2%)에 비해 0.4%p, 2011년(87.6%)에 비해 1.0%p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응답률이 상승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87.8%) 대비 2013년(87.5%)에 0.3%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7】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표 II-117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1	2.5	2.0	10.2	9.3	9.3	51.1	48.8	49.5	36.5	39.4	39.1	0.0	0.0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2.5	2.8	2.2	9.6	8.6	8.1	49.9	47.7	48.2	38.0	40.8	41.5	0.1	0.0	0.0
	여	4,561	4,251	4,710	1.7	2.1	1.8	10.9	10.1	10.5	52.3	49.9	50.9	35.1	37.9	36.6	0.0	0.0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2.4	2.9	2.7	6.6	6.3	5.3	38.1	36.8	37.3	52.8	53.9	54.6	0.1	0.0	0.1
	중	2,844	2,986	3,260	2.1	2.5	2.0	11.8	10.2	10.2	53.2	53.0	52.8	32.8	34.3	34.8	0.0	0.0	0.1
	고	3,648	2,574	2,985	1.8	1.9	1.2	11.9	12.0	12.6	59.9	58.6	59.0	26.5	27.4	27.2	0.0	0.0	0.0

(2-2)-②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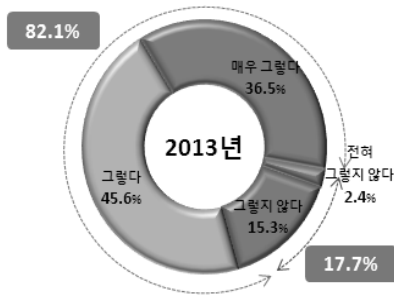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2.1%가 ‘그렇다’고 응답**

○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82.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7.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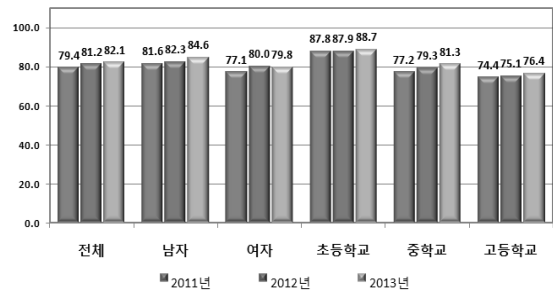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84.6%로 여학생(79.8%)에 비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교급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79.4%), 2012년(81.2%), 2013년은 82.1%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여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80.0%) 대비 2013년(79.8%)에 0.2%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8】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표 II-118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6	2.7	2.4	17.9	16.1	15.3	48.0	45.4	45.6	31.4	35.8	36.5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2.5	2.9	2.5	15.8	14.6	12.9	48.5	45.1	45.6	33.1	37.2	39.0	0.1	0.1	0.0
	여	4,561	4,251	4,710	2.7	2.4	2.3	20.2	17.5	17.8	47.5	45.8	45.7	29.6	34.2	34.1	0.1	0.0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2.4	2.9	2.5	9.8	9.1	8.7	39.4	37.3	35.5	48.4	50.6	53.2	0.1	0.1	0.1
	중	2,844	2,986	3,260	3.0	2.6	2.6	19.7	18.1	16.0	50.0	49.3	49.3	27.2	30.0	32.0	0.1	0.0	0.1
	고	3,648	2,574	2,985	2.4	2.5	2.1	23.1	22.3	21.5	53.4	51.0	52.4	21.0	24.1	24.0	0.1	0.0	0.0

(2-2)-③ 자기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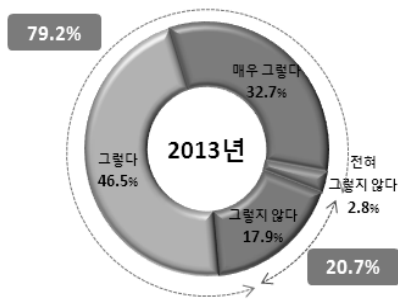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9.2%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79.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0.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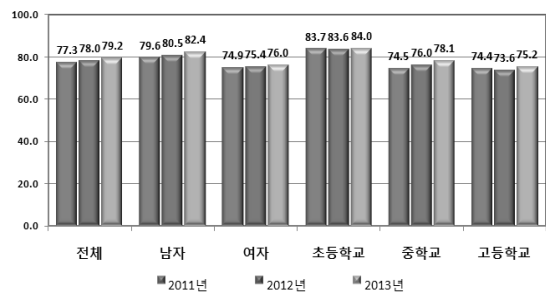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남학생(82.4%)이 여학생(76.0%)에 비해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4.0%), 중학생(78.1%), 고등학생(75.2%)의 순으로 교급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77.3%, 2012년 78.0%, 2013년 79.2%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09】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표 II-119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0	3.3	2.8	19.6	18.5	17.9	49.8	46.4	46.5	27.5	31.6	32.7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2.9	3.6	2.9	17.5	15.8	14.7	49.8	46.7	47.0	29.8	33.8	35.4	0.1	0.1	0.0
	여	4,561	4,251	4,710	3.1	3.0	2.7	21.9	21.5	21.2	49.8	46.1	46.1	25.1	29.3	29.9	0.1	0.1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3.0	3.9	3.6	13.3	12.4	12.3	42.2	39.3	37.0	41.5	44.3	47.0	0.1	0.1	0.1
	중	2,844	2,986	3,260	3.5	3.7	2.7	21.9	20.3	19.1	50.1	49.4	49.1	24.4	26.6	29.0	0.0	0.1	0.1
	고	3,648	2,574	2,985	2.6	2.3	2.0	22.9	24.0	22.7	55.7	51.8	53.8	18.7	21.8	21.4	0.1	0.0	0.0

(2-3)-① 정서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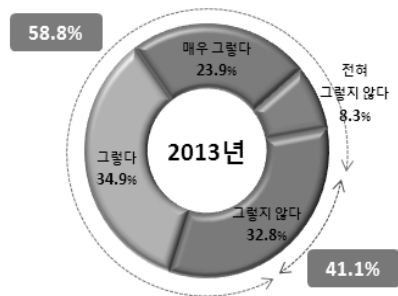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은 58.8%, ‘그렇지 않다’는 41.1%로 나타남**

○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58.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1.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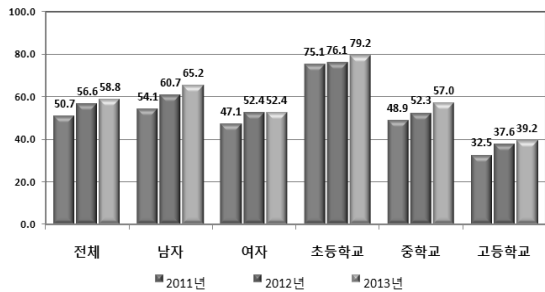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긍정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65.2%)이 여학생(52.4%)보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79.2%)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57.0%), 고등학생(39.2%)으로 갈수록 응답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50.7%, 2012년 56.6%, 2013년 58.8%로 매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여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과 2013년이 각각 52.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0】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표 II-120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0.7	9.5	8.3	38.4	33.7	32.8	33.0	34.8	34.9	17.7	21.8	23.9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9.6	8.6	6.8	36.1	30.5	27.9	34.5	36.5	37.0	19.6	24.2	28.2	0.2	0.1	0.1
	여	4,561	4,251	4,710	11.9	10.5	9.7	40.9	37.1	37.8	31.5	33.1	32.8	15.6	19.3	19.6	0.1	0.1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5.2	5.1	4.8	19.5	18.6	15.8	40.0	39.0	38.4	35.1	37.1	40.8	0.2	0.2	0.2
	중	2,844	2,986	3,260	10.6	10.1	7.9	40.5	37.4	35.1	35.8	36.0	37.0	13.1	16.3	20.0	0.1	0.1	0.1
	고	3,648	2,574	2,985	15.3	14.2	12.3	52.1	48.1	48.5	25.3	28.3	28.9	7.2	9.3	10.3	0.1	0.0	0.0

(2-3)-② 정서조절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65.4%, ‘그렇지 않다’는 34.4%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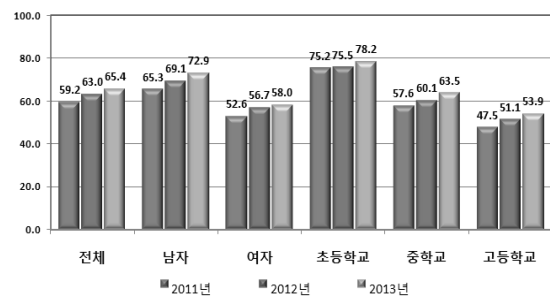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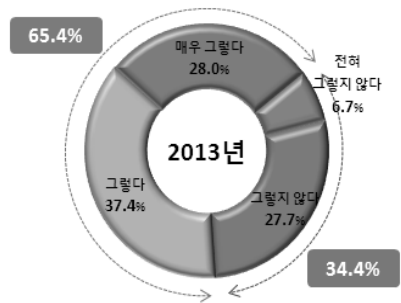
○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5.4%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34.4%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72.9%)이 여학생(58.0%)보다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78.2%)에서 고등학교(53.9%)으로 교급이 높아질수록 긍정응답률이 더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65.4%로 2012년(63.0%)에 비해 2.4%p 높게, 2011년(59.2%)과 비교해 보면 6.2%p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를 보여, 최근 3년간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III】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표 II-121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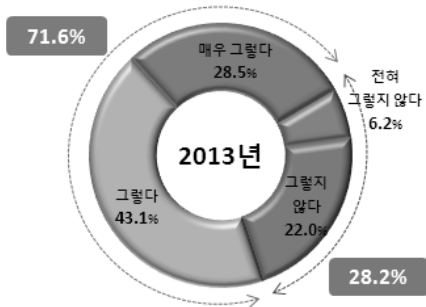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8.5	7.5	6.7	32.2	29.3	27.7	37.6	37.3	37.4	21.6	25.7	28.0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7.0	6.3	5.0	27.5	24.5	22.1	40.3	39.3	39.0	25.0	29.8	33.9	0.1	0.2	0.0
	여	4,561	4,251	4,710	10.0	8.9	8.4	37.3	34.3	33.4	34.8	35.3	35.9	17.8	21.4	22.1	0.1	0.1	0.2
교급	초	2,943	3,185	3,157	6.7	6.4	6.0	17.9	18.0	15.6	37.3	34.5	33.6	37.9	41.0	44.6	0.2	0.2	0.2
	중	2,844	2,986	3,260	8.2	8.2	6.0	34.1	31.7	30.3	40.2	40.0	39.3	17.4	20.1	24.2	0.1	0.1	0.1
	고	3,648	2,574	2,985	10.0	8.2	8.2	42.3	40.6	37.8	35.9	37.9	39.5	11.6	13.2	14.4	0.1	0.1	0.0

(2-3)-③ 정서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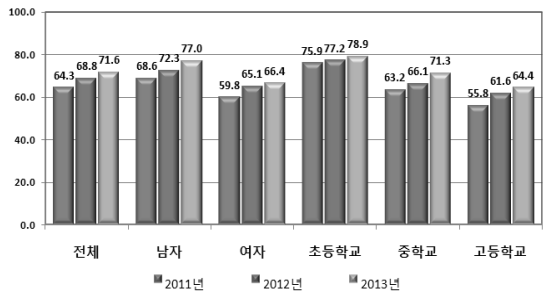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71.6%, ‘그렇지 않다’는 28.2%로 나타남**

-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71.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8.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학생(77.0%)이 여학생(66.4%)보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생(78.9%)에서 고등학생(64.4%)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추이]** 2011년 64.3%, 2012년 68.8%, 2013년 71.6%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표 II-122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연도	9,435	8,745	9,402	8.2	8.1	6.2	27.4	23.1	22.0	42.0	42.5	43.1	22.3	26.3	28.5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7.6	7.3	5.1	23.8	20.3	17.9	42.9	42.5	43.7	25.7	29.8	33.3	0.1	0.1	0.1
	여	4,561	4,251	4,710	8.9	8.9	7.3	31.2	25.9	26.2	41.0	42.4	42.6	18.8	22.7	23.8	0.0	0.0	0.2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5.9	6.8	5.6	18.0	16.0	15.3	40.2	38.1	37.6	35.7	39.1	41.3	0.1	0.1	0.3
	중	2,844	2,986	3,260	7.7	8.2	6.0	29.1	25.7	22.6	43.1	44.8	46.2	20.1	21.3	25.1	0.0	0.0	0.2
	고	3,648	2,574	2,985	10.5	9.6	7.0	33.6	28.7	28.6	42.5	45.2	45.7	13.3	16.4	18.7	0.1	0.0	0.0

(2-4)-① 낙관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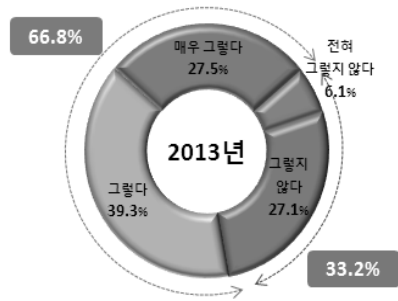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66.8%, ‘그렇지 않다’는 33.2%로 나타남**

○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66.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3.2%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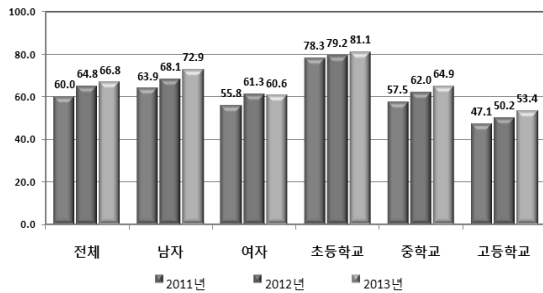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72.9%)의 경우에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60.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81.1%), 중학생(64.9%), 고등학생(5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66.8%로 2012년(64.8%)에 비해 2.0%p, 2011년(60.0%)에 비해 6.8%p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여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61.3%) 대비 2013년(60.6%)에 0.7%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3】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표 II-123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9	7.3	6.1	32.0	27.8	27.1	39.9	39.2	39.3	20.1	25.6	27.5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7.2	6.9	5.1	28.9	24.9	22.0	41.1	39.2	40.8	22.8	28.9	32.1	0.1	0.1	0.1
	여	4,561	4,251	4,710	8.6	7.8	7.1	35.5	30.8	32.1	38.6	39.2	37.8	17.2	22.1	22.8	0.1	0.1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5.5	5.8	5.4	16.1	14.8	13.4	41.3	36.9	35.7	37.0	42.3	45.4	0.1	0.2	0.1
	중	2,844	2,986	3,260	7.6	7.3	5.8	34.8	30.7	29.2	40.9	42.8	42.1	16.6	19.2	22.8	0.1	0.1	0.2
	고	3,648	2,574	2,985	10.0	9.2	7.3	42.8	40.4	39.1	37.9	37.8	39.9	9.2	12.4	13.5	0.1	0.1	0.1

(2-4)-② 낙관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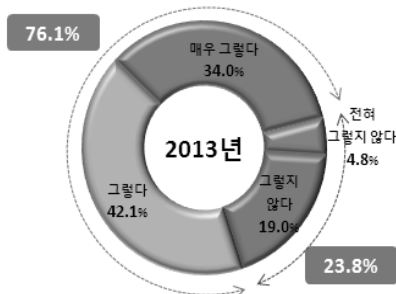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76.1%, ‘그렇지 않다’는 23.8%가 응답**

○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과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 중 76.1%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23.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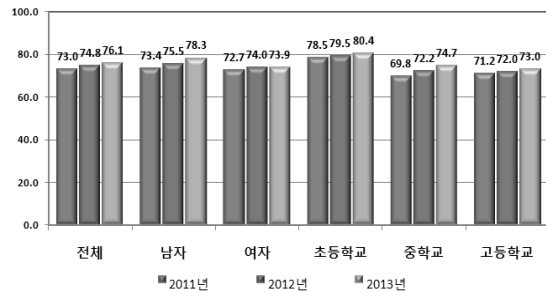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78.3%)이 여학생(73.9%)보다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0.4%)가 가장 높았고 중학생(74.7%)과 고등학교(73.0%)은 그 차이가 미미했다.

[연도별 추이] 2011년(73.0%), 2012년(74.8%), 2013년은 76.1%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여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74.0%) 대비 2013년(73.9%)에 0.1%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II-124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5.6	5.3	4.8	21.3	19.7	19.0	44.2	42.3	42.1	28.8	32.5	34.0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6.0	5.8	4.5	20.6	18.6	17.2	43.4	41.8	41.6	30.0	33.7	36.7	0.1	0.1	0.0
	여	4,561	4,251	4,710	5.3	4.8	5.0	21.9	21.0	20.9	45.1	42.8	42.6	27.6	31.2	31.3	0.1	0.1	0.2
교급	초	2,943	3,185	3,157	6.3	5.7	6.2	15.1	14.7	13.1	36.3	33.6	32.8	42.2	45.9	47.6	0.2	0.2	0.2
	중	2,844	2,986	3,260	6.1	5.6	4.7	24.1	22.1	20.5	46.0	46.1	45.2	23.8	26.1	29.5	0.0	0.1	0.1
	고	3,648	2,574	2,985	4.8	4.6	3.3	24.0	23.3	23.7	49.2	48.6	48.4	22.0	23.4	24.6	0.1	0.0	0.0

(2-4)-③ 낙관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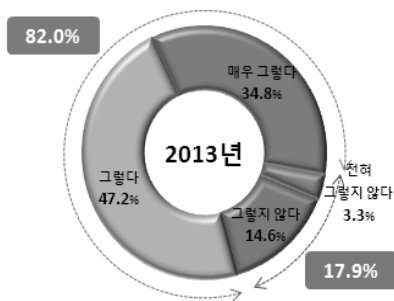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률이 82.0%, ‘그렇지 않다’는 17.9%로 나타남**

○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2.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7.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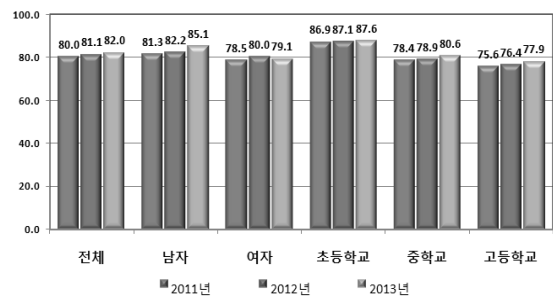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85.1%)이 여학생(79.1%)보다 실패하더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의 긍정응답률이 87.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80.6%), 고등학생(77.9%)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2.0%로 2012년(81.1%)에 비해 0.9%p, 2011년(80.0%)에 비해 2.0%p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여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전체 응답률과 같은 추세를 보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80.0%) 대비 2013년(79.1%)에 0.9%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5]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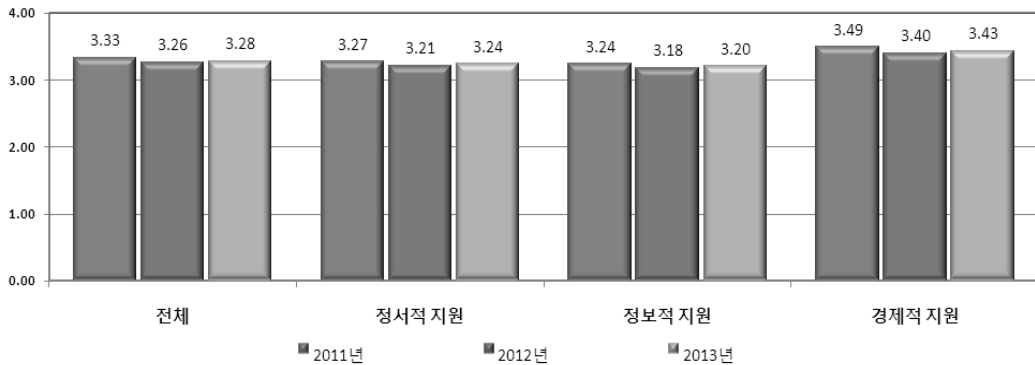
표 II-125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0	4.3	3.3	16.0	14.6	14.6	49.8	46.6	47.2	30.2	34.5	34.8	0.0	0.0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9	4.4	3.1	14.7	13.4	11.8	49.3	45.2	46.1	32.0	37.0	39.0	0.0	0.0	0.1
	여	4,561	4,251	4,710	4.0	4.1	3.5	17.4	15.9	17.3	50.2	48.1	48.4	28.3	31.9	30.7	0.0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3.8	4.2	3.8	9.2	8.7	8.5	37.0	35.0	34.3	49.9	52.1	53.3	0.1	0.0	0.1
	중	2,844	2,986	3,260	3.9	4.6	3.2	17.6	16.4	16.1	53.0	51.7	50.8	25.4	27.2	29.8	0.0	0.0	0.2
	고	3,648	2,574	2,985	4.1	3.9	2.8	20.2	19.7	19.3	57.5	55.1	57.1	18.1	21.3	20.8	0.0	0.0	0.0

2. 가족영역

1) 부모의 지원 - 항목별 평균

부모의 지원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경제적 지원(M=3.43)'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지원(M=3.24)', '정보적 지원(M=3.20)'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모두 2012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음. 즉,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원은 2012년에 증가하였음.



【그림 II-116】 2011~2013년도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평균

표 II-126 2011~2013년도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정서적 지원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3.23	3.17	3.21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3.22	3.17	3.19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3.40	3.32	3.35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3.17	3.12	3.16
	5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3.34	3.28	3.30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3.26	3.20	3.24
소계			3.27	3.21	3.24
정보적 지원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3.26	3.19	3.21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3.28	3.22	3.23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3.12	3.09	3.09
	10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3.31	3.24	3.26
소계			3.24	3.18	3.20
경제적 지원	11	용돈을 주신다	3.37	3.27	3.31
	12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3.58	3.48	3.50
	13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3.62	3.51	3.53
	14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3.41	3.33	3.38
소계			3.49	3.40	3.43
부모의 지원 영역(전체)			3.33	3.26	3.28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지원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127>과 같다. 먼저 부모의 지원의 세부요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의 경우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교급별로는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졌다.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교급별(F=94.727, p<.001), 가족구성별(t=32.394, p<.001)에서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졌고, 광역시가 서울이나 시·군 지역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127 부모의 지원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부모의 지원(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30 (0.72)	60.086 ***	3.26 (0.75)	63.515 ***	3.44 (0.61)	1.864 ***	3.33 (0.61)	46.124 ***
	여자 (n=4,710)	3.18 (0.75)		3.14 (0.79)		3.42 (0.60)		3.25 (0.63)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52 (0.68)	371.193 *** (ab,ac,bc)	3.50 (0.69)	483.232 *** (ab,ac,bc)	3.55 (0.60)	94.727 *** (ab,ac)	3.52 (0.59)	391.24 *** (ab,ac,bc)
	중학교 (n=3,260)	3.16 (0.74)		3.16 (0.75)		3.39 (0.61)		3.24 (0.62)	
	고등학교 (n=2,985)	3.04 (0.71)		2.92 (0.75)		3.35 (0.59)		3.11 (0.58)	
거주지	서울 (n=1,539)	3.23 (0.73)	1.033	3.22 (0.76)	1.033	3.41 (0.61)	1.146	3.29 (0.61)	0.559
	광역시 (n=2,247)	3.26 (0.74)		3.20 (0.77)		3.44 (0.60)		3.30 (0.63)	
	사군 (n=5,616)	3.24 (0.74)		3.19 (0.77)		3.43 (0.61)		3.29 (0.62)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27 (0.73)	40.655 ***	3.23 (0.76)	56.442 ***	3.45 (0.59)	32.394 ***	3.32 (0.61)	55.41 ***
	한부모가정 (n=840)	3.04 (0.77)		2.94 (0.82)		3.28 (0.63)		3.09 (0.65)	
전체 M(SD)		3.24(0.75)		3.20(0.77)		3.43(0.61)		3.28(0.62)	

*p<.05, **p<.01, ***p<.001

*주1: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주2: 가족구성의 조손가정은 무응답으로 처리

1)-①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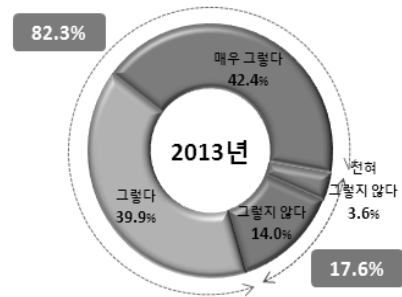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나를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82.3%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를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의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82.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7.6%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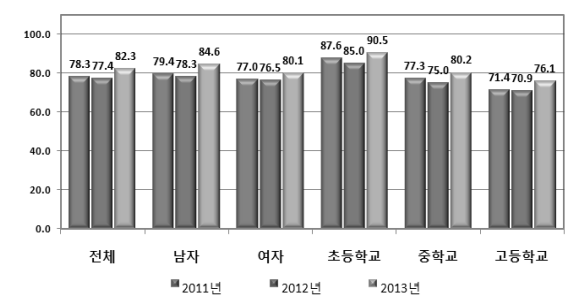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여학생(80.1%)보다 상대적으로 남학생(84.6%)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응답결과를 보면 초등학교(90.5%)에서 중학생(80.2%), 고등학생(76.1%)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2.3%로 2012년(77.4%)에 비해 4.9%p, 2011년(78.3%)에 비해 4.0%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교급별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최근 3년 중 2013년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7】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표 II-128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2	4.2	3.6	15.7	14.5	14.0	42.3	38.3	39.9	36.0	39.1	42.4	1.9	3.8	0.0	
성 별	남	4,874	4,494	4,692	4.5	4.7	3.6	14.2	12.8	11.8	41.9	37.7	38.2	37.5	40.6	46.4	1.9	4.1	0.0
	여	4,561	4,251	4,710	3.9	3.7	3.6	17.2	16.3	16.3	42.7	39.0	41.6	34.3	37.5	38.5	1.9	3.5	0.0
교 급	초	2,943	3,185	3,157	3.0	2.8	2.5	7.3	7.3	6.9	31.3	27.6	28.3	56.3	57.4	62.2	2.1	4.8	0.1
	중	2,844	2,986	3,260	4.1	4.7	3.6	16.9	16.6	16.2	45.0	42.6	43.6	32.3	32.4	36.6	1.7	3.7	0.0
	고	3,648	2,574	2,985	5.3	5.4	4.7	21.4	20.9	19.2	49.0	46.6	48.3	22.4	24.3	27.8	1.9	2.7	0.0

1)-②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80.1%가 ‘그렇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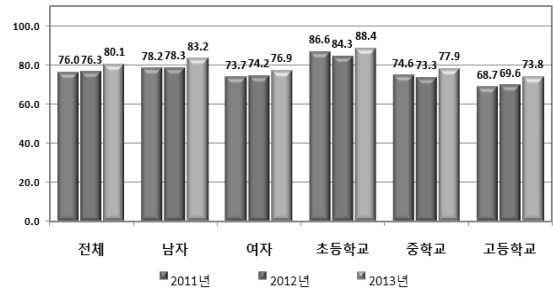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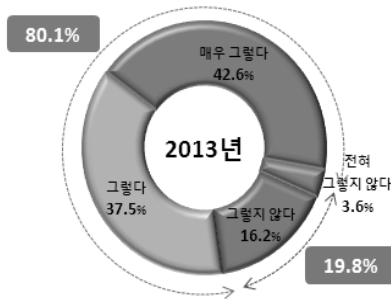
○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80.1%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9.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여학생(76.9%)보다 남학생(83.2%)의 경우에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8.4%)에서 고등학생(73.8%)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76.0%, 2012년 76.3%, 2013년 80.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8】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표 II-129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3	4.1	3.6	17.7	15.9	16.2	39.5	36.3	37.5	36.5	40.0	42.6	2.0	3.8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3.9	4.2	3.3	16.0	13.5	13.4	39.5	36.0	36.8	38.7	42.3	46.4	2.0	4.1	0.0
	여	4,561	4,251	4,710	4.7	3.9	4.0	19.6	18.4	19.0	39.5	36.7	38.2	34.2	37.5	38.7	2.0	3.5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4	2.6	2.3	8.9	8.2	9.2	29.2	26.1	26.4	57.4	58.2	62.0	2.1	4.9	0.1
	중	2,844	2,986	3,260	4.3	4.6	4.0	19.4	18.5	18.2	41.5	40.1	40.9	33.1	33.2	37.0	1.8	3.6	0.0
	고	3,648	2,574	2,985	5.8	5.3	4.7	23.6	22.3	21.6	46.3	44.5	45.6	22.4	25.1	28.2	1.9	2.7	0.0

1)-③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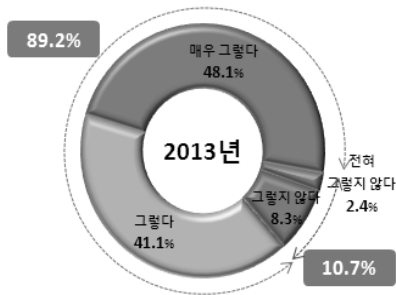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89.2%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9.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0.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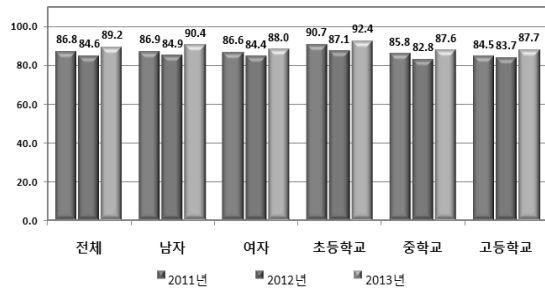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는 남학생(90.4%)이 여학생(88.0%)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92.4%)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87.7%), 중학생(8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9.2%로 2012년(84.6%)에 비해 4.6%p, 2011년(86.8%)에 비해 2.4%p 높게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19】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표 II-130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7	2.7	2.4	8.6	8.9	8.3	44.4	39.8	41.1	42.4	44.8	48.1	1.9	3.8	0.0	
성 별	남	4,874	4,494	4,692	2.7	3.0	2.4	8.4	8.1	7.2	43.9	38.9	39.3	43.0	46.0	51.1	1.9	4.1	0.0
	여	4,561	4,251	4,710	2.6	2.4	2.5	8.8	9.7	9.4	44.8	40.9	42.8	41.8	43.5	45.2	1.9	3.5	0.0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2.0	2.2	2.3	5.3	5.9	5.2	30.2	25.1	26.9	60.5	62.0	65.5	2.1	4.9	0.1
	중	2,844	2,986	3,260	2.7	2.8	2.7	9.7	10.6	9.7	46.7	44.9	45.7	39.1	37.9	41.9	1.8	3.7	0.1
	고	3,648	2,574	2,985	3.2	3.1	2.3	10.5	10.5	10.1	54.0	52.2	51.1	30.5	31.5	36.6	1.9	2.7	0.0

1)-④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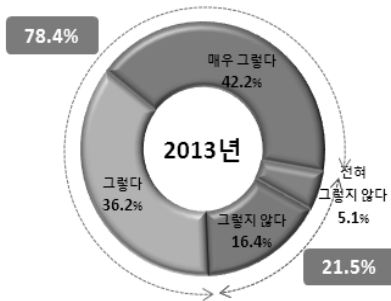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78.4%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1.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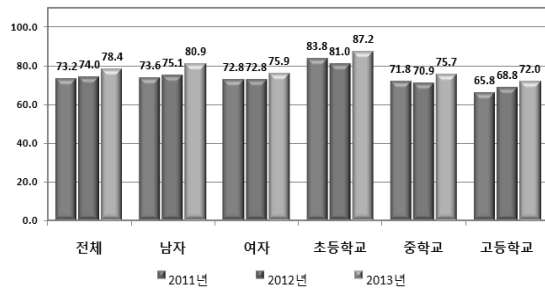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75.9%)보다 남학생(80.9%)의 경우에 부모님께서 고민을 들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긍정응답률이 87.2%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75.7%), 고등학생(72.0%)의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 2011년 73.2%, 2012년 74.0%, 2013년 78.4%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0】 고민을 들어 주신다

표 II-131 고민을 들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0	5.6	5.1	18.9	16.6	16.4	36.9	34.7	36.2	36.3	39.3	42.2	1.9	3.8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5.9	5.9	4.8	18.5	15.0	14.2	36.6	34.3	35.8	37.0	40.8	45.1	2.0	4.1	0.1
	여	4,561	4,251	4,710	6.1	5.3	5.4	19.3	18.4	18.6	37.2	35.1	36.7	35.6	37.7	39.2	1.9	3.5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3.9	3.5	3.3	10.2	10.6	9.3	28.3	24.1	26.5	55.5	56.9	60.7	2.1	4.9	0.1
	중	2,844	2,986	3,260	6.5	6.2	5.6	20.0	19.4	18.6	39.2	37.9	39.1	32.6	33.0	36.6	1.8	3.6	0.1
	고	3,648	2,574	2,985	7.3	7.5	6.3	24.9	20.9	21.6	42.0	44.0	43.4	23.8	24.8	28.6	1.9	2.7	0.0

1)-⑤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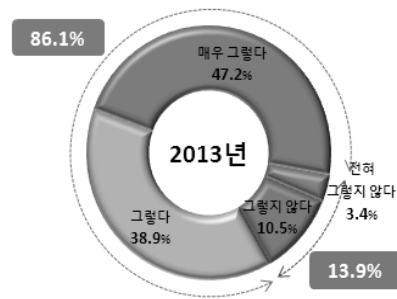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86.1%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86.1%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3.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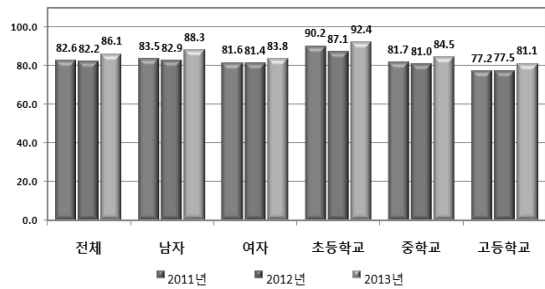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88.3%)이 여학생(83.8%)보다 부모님께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92.4%)에서 고등학교(81.1%)으로 갈수록 긍정 응답한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82.6%) 대비 2012년도(82.2%)에 0.4%p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86.1%)에 다시 3.9%p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하락 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1】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표 II-132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7	3.5	3.4	11.7	10.5	10.5	40.8	37.9	38.9	41.8	44.3	47.2	2.0	3.8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8	3.6	3.0	10.8	9.4	8.7	40.6	36.7	37.8	42.9	46.2	50.5	2.0	4.1	0.0
	여	4,561	4,251	4,710	3.8	3.5	3.7	12.6	11.6	12.3	41.0	39.2	40.0	40.6	42.2	43.8	2.0	3.5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1	2.2	2.3	5.6	5.8	5.2	27.7	24.1	25.5	62.5	63.0	66.9	2.1	4.9	0.1
	중	2,844	2,986	3,260	4.1	3.5	3.7	12.4	11.8	11.7	43.6	42.8	43.6	38.1	38.2	40.9	1.9	3.7	0.1
	고	3,648	2,574	2,985	4.9	5.1	4.1	16.0	14.7	14.8	49.3	49.4	48.0	27.9	28.1	33.1	1.9	2.7	0.0

1)-⑥ 부모의 지원 - 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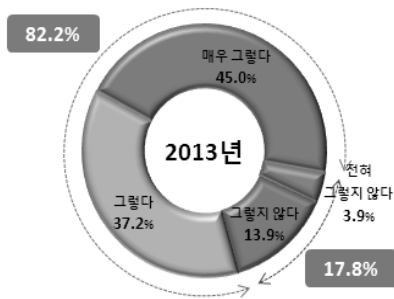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82.2%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의 문항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82.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7.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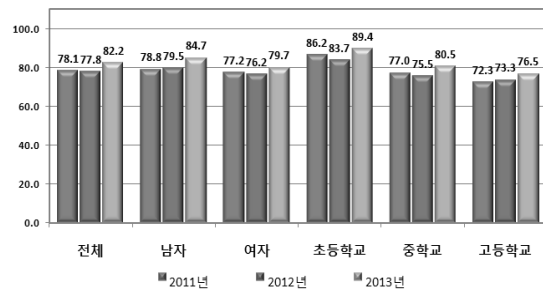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84.7%)이 여학생(79.7%)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 부모님께서 자신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89.4%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80.5%), 고등학생(76.5%)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2.2%로 2012년(77.8%)에 비해 4.4%p, 2011년(78.1%)에 비해 4.1%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과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하락 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2】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표 II-133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8	4.7	3.9	15.1	13.6	13.9	39.6	36.1	37.2	38.5	41.7	45.0	2.0	3.9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4.6	4.6	3.5	14.5	11.8	11.8	38.9	35.7	36.1	39.9	43.8	48.6	2.0	4.1	0.0
	여	4,561	4,251	4,710	5.0	4.7	4.3	15.9	15.5	15.9	40.3	36.6	38.3	36.9	39.6	41.4	1.9	3.7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3.2	3.0	3.0	8.5	8.3	7.5	27.9	24.6	25.5	58.3	59.1	63.9	2.1	5.0	0.1
	중	2,844	2,986	3,260	5.2	5.1	4.2	15.9	15.7	15.3	42.2	39.4	40.9	34.8	36.1	39.6	1.8	3.7	0.0
	고	3,648	2,574	2,985	5.7	6.3	4.5	20.0	17.7	19.0	47.0	46.5	45.6	25.3	26.8	30.9	2.0	2.7	0.0

1)-⑦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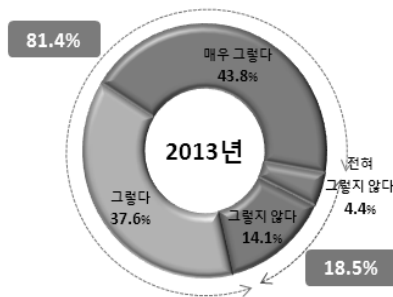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81.4%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81.4%, ‘그렇지 않다’는 18.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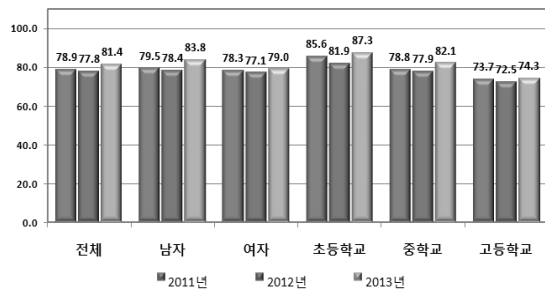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남학생(83.8%)이 여학생(79.0%)보다 부모님께서 진학이나 진로 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7.3%)에서 중학생(82.1%), 고등학생(74.3%)으로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은 점점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1.4%로 2012년(77.8%)에 비해 3.6%p, 2011년(78.9%)에 비해 2.5%p 높게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 중 2013년도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3】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표 II-134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5.1	5.0	4.4	13.9	13.4	14.1	40.2	36.0	37.6	38.7	41.8	43.8	1.9	3.8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5.3	5.2	4.2	13.3	12.3	12.1	39.5	35.0	36.1	40.0	43.4	47.7	1.9	4.1	0.1
	여	4,561	4,251	4,710	5.2	4.8	4.7	14.6	14.6	16.1	40.9	37.1	39.1	37.4	40.0	39.9	1.9	3.6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4.2	4.4	3.9	8.2	8.9	8.6	30.8	25.5	27.5	54.8	56.4	59.8	2.1	4.9	0.2
	중	2,844	2,986	3,260	4.6	4.4	4.4	14.9	14.0	13.4	41.1	39.2	41.7	37.7	38.7	40.4	1.8	3.6	0.1
	고	3,648	2,574	2,985	6.6	6.4	5.0	17.9	18.4	20.7	47.1	45.2	43.8	26.6	27.3	30.5	1.9	2.7	0.1

1)-⑧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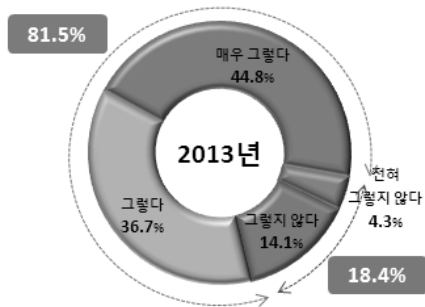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81.5%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1.5%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8.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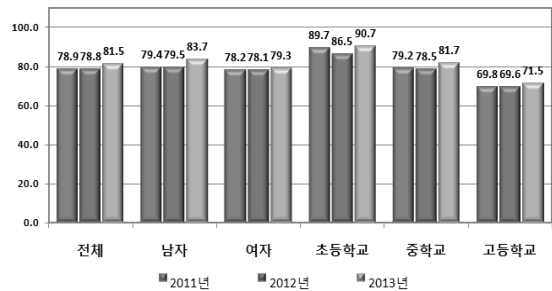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83.7%)이 여학생(79.3%)보다 부모님께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90.7%), 중학생(81.7%), 고등학교(71.5%)의 순으로 교급수준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78.9%) 대비 2012년도(78.8%)에 0.1%p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81.5%)에 다시 2.7%p 상승한 추세이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하락 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4】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표 II-135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6	4.4	4.3	14.6	12.9	14.1	38.6	36.3	36.7	40.3	42.5	44.8	2.0	3.9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4.7	4.7	4.2	14.0	11.7	12.0	37.7	35.1	35.3	41.7	44.4	48.4	1.9	4.1	0.1
	여	4,561	4,251	4,710	4.5	4.1	4.3	15.3	14.2	16.3	39.4	37.5	38.2	38.8	40.6	41.1	2.0	3.6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2.6	2.4	3.0	5.6	6.1	6.2	28.0	24.5	25.2	61.7	62.0	65.5	2.1	5.0	0.1
	중	2,844	2,986	3,260	4.2	4.4	4.0	14.9	13.4	14.2	41.6	40.8	42.1	37.6	37.7	39.6	1.8	3.7	0.1
	고	3,648	2,574	2,985	6.5	6.8	6.0	21.7	20.8	22.4	44.6	45.6	43.1	25.2	24.0	28.4	2.0	2.8	0.1

1)-⑨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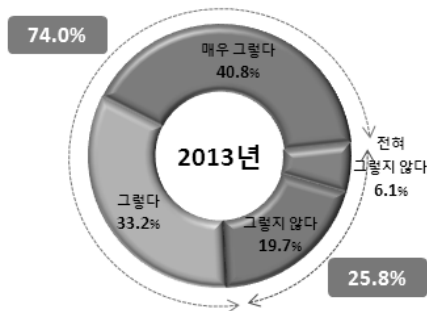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중 74.0%가 ‘그렇다’라고 응답

○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74.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5.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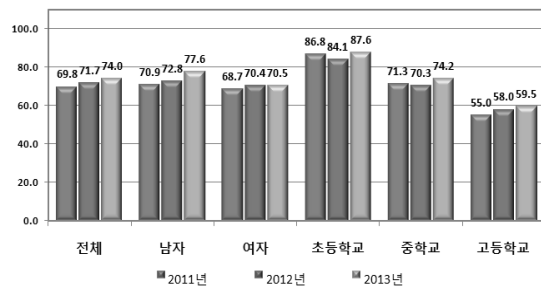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77.6%)이 여학생(70.5%)보다 부모님께서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7.6%)에서 고등학생(59.5%)으로 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69.8%, 2012년 71.7%, 2013년 74.0%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5]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표 II-136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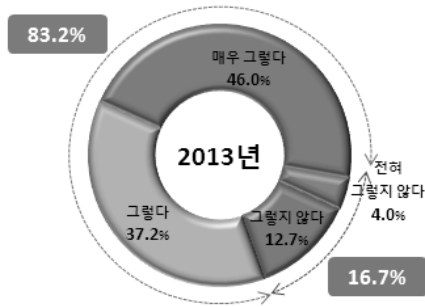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년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9	6.1	6.1	21.3	18.4	19.7	34.6	32.6	33.2	35.2	39.1	40.8	1.9	3.8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7.2	6.4	5.6	20.0	16.6	16.8	33.8	31.7	33.0	37.1	41.1	44.6	1.9	4.1	0.1
	여	4,561	4,251	4,710	6.7	5.8	6.7	22.6	20.2	22.6	35.5	33.5	33.5	33.2	36.9	37.0	1.9	3.6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3.2	2.8	3.4	7.8	8.3	8.9	28.3	24.4	24.5	58.5	59.7	63.1	2.1	4.9	0.2
	중	2,844	2,986	3,260	6.2	6.5	5.8	20.7	19.6	19.8	38.6	36.7	38.2	32.7	33.6	36.0	1.8	3.6	0.2
	고	3,648	2,574	2,985	10.6	9.9	9.4	32.6	29.4	31.1	36.7	38.0	37.1	18.3	20.0	22.4	1.9	2.8	0.0

1)-⑩ 부모의 지원 - 정보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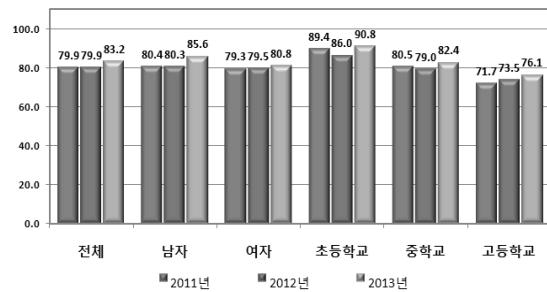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83.2%가 ‘그렇다’, 16.7%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3.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6.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학생(85.6%)이 여학생(80.8%)보다 부모님께서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90.8%)에서 중학생(82.4%), 고등학생(76.1%)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도와 2012년도는 각각 79.9%로 동일했으며, 2013년은 83.2%로 전년도에 비해 3.3%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교급별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최근 3년 중 2013년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6】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표 II-137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7	4.1	4.0	13.4	12.1	12.7	38.5	36.5	37.2	41.4	43.4	46.0	2.0	3.9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4.9	4.3	3.7	12.8	11.2	10.6	38.4	35.6	36.3	42.0	44.7	49.3	2.0	4.2	0.1
	여	4,561	4,251	4,710	4.4	3.8	4.3	14.3	13.1	14.8	38.5	37.5	38.1	40.8	42.0	42.7	2.0	3.6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5	2.4	2.7	5.9	6.6	6.5	28.3	25.1	25.9	61.1	60.9	64.9	2.1	5.0	0.1
	중	2,844	2,986	3,260	4.4	4.1	4.0	13.2	13.2	13.4	41.6	40.0	41.2	38.9	39.0	41.2	1.9	3.7	0.2
	고	3,648	2,574	2,985	6.6	6.1	5.3	19.8	17.6	18.6	44.2	46.7	44.9	27.5	26.8	31.2	2.0	2.8	0.1

1)-⑪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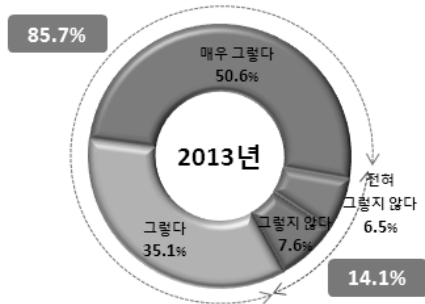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85.7%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5.7%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의 경우는 14.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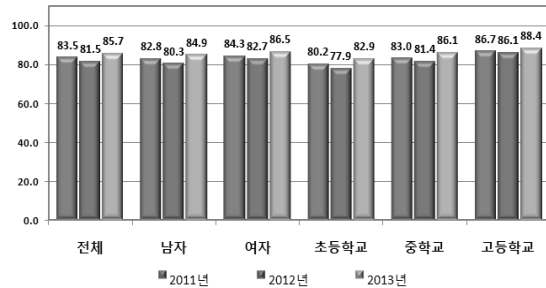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여학생(86.5%)이 남학생(84.9%)보다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2.9%)에서 중학생(86.1%), 고등학생(88.4%)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83.5%) 대비 2012년도(81.5%)에 2.0%p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85.7%)에 다시 4.2%p 상승한 추세이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이며, 최근 3년 중 2013년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7】 용돈을 주신다

표 II-138 용돈을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4	6.8	6.5	8.1	7.8	7.6	36.9	34.3	35.1	46.6	47.2	50.6	1.9	3.9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7.4	8.1	7.5	7.7	7.5	7.4	36.6	33.0	33.3	46.2	47.3	51.6	2.0	4.1	0.1
	여	4,561	4,251	4,710	5.4	5.6	5.5	8.5	8.1	7.8	37.2	35.6	36.9	47.1	47.1	49.6	1.9	3.6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8.8	8.9	9.6	8.9	8.1	7.3	28.2	25.5	25.5	52.0	52.4	57.4	2.1	5.1	0.1
	중	2,844	2,986	3,260	6.6	6.9	6.2	8.6	8.1	7.6	36.3	34.9	37.5	46.7	46.5	48.6	1.8	3.6	0.2
	고	3,648	2,574	2,985	4.4	4.2	3.6	7.0	7.0	7.9	44.4	44.6	42.7	42.3	41.5	45.7	1.9	2.7	0.1

1)-⑫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부모님께서 내가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92.8%가 ‘그렇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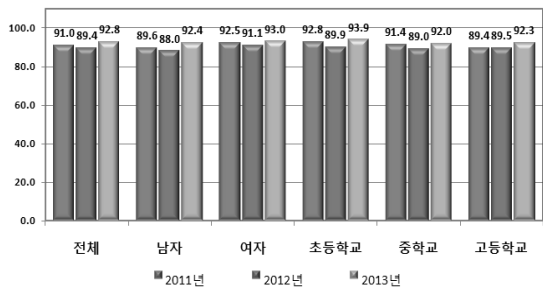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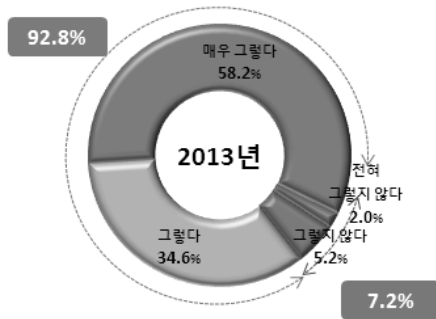
○ ‘부모님께서 내가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2.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7.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93.0%)이 남학생(92.4%)보다 부모님께서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초등학생(93.9%)이었고 고등학생(92.3%), 중학생(9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92.8%로 2012년(89.4%)에 비해 3.4%p, 2011년(91.0%)에 비해 1.8%p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3년도에는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90% 이상의 응답률이 나타나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8】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표 II-139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0	2.2	2.0	5.0	4.4	5.2	36.5	34.5	34.6	54.5	54.9	58.2	2.0	3.9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2.4	2.9	2.3	5.9	4.9	5.1	36.6	33.8	33.6	53.0	54.2	58.8	2.1	4.2	0.1
	여	4,561	4,251	4,710	1.4	1.4	1.7	4.1	4.0	5.2	36.3	35.4	35.5	56.2	55.7	57.5	1.9	3.6	0.1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1.7	1.6	2.0	3.2	3.5	3.9	28.1	24.6	23.9	64.7	65.3	70.0	2.4	5.0	0.2
	중	2,844	2,986	3,260	1.8	2.4	2.2	5.1	4.7	5.7	37.9	37.0	39.6	53.5	52.0	52.4	1.8	3.8	0.1
	고	3,648	2,574	2,985	2.2	2.5	1.7	6.5	5.3	5.9	42.2	44.0	40.4	47.2	45.5	51.9	1.9	2.7	0.1

1)-⑬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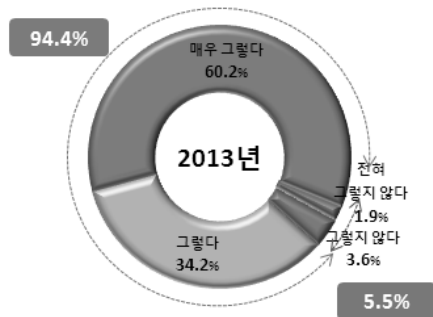
**‘부모님께서 내가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4.4%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 내가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94.4%가 ‘그렇다’, 5.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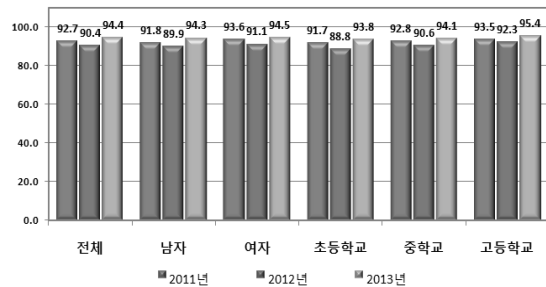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94.5%와 94.3%로, 준비물이 필요할 때 부모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93.8%)에서 중학생(94.1%), 고등학생(95.4%)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94.4%로 2012년(90.4%)에 비해 4.0%p, 2011년(92.7%)에 비해 1.7%p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2013년도 응답률이 93.8%로 2012년(88.8%) 대비 5.0%p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29】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표 II-140 준비물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9	2.1	1.9	3.4	3.6	3.6	35.6	33.9	34.2	57.1	56.5	60.2	2.0	3.9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2.5	2.7	2.3	3.7	3.4	3.4	35.7	33.8	33.5	56.1	56.1	60.8	2.0	4.1	0.0
	여	4,561	4,251	4,710	1.4	1.4	1.4	3.0	3.8	3.9	35.5	34.1	34.9	58.1	57.0	59.6	2.0	3.7	0.1
교급별	초	2,943	3,185	3,157	2.5	2.4	2.3	3.5	3.6	3.6	25.2	22.4	22.6	66.5	66.4	71.2	2.2	5.1	0.2
	중	2,844	2,986	3,260	1.7	2.0	2.0	3.8	3.8	3.8	36.5	36.7	38.6	56.3	53.9	55.5	1.8	3.7	0.0
	고	3,648	2,574	2,985	1.7	1.7	1.2	2.9	3.2	3.4	43.4	44.9	41.6	50.1	47.4	53.8	1.9	2.7	0.0

1)-⑭ 부모의 지원 - 경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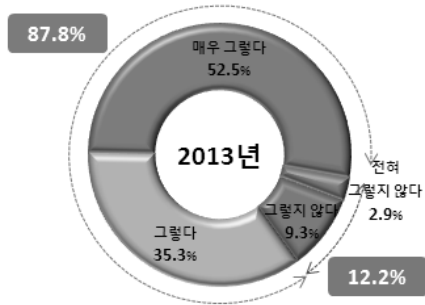
**‘부모님께서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7.8%가 ‘그렇다’고 응답**

○ ‘부모님께서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2.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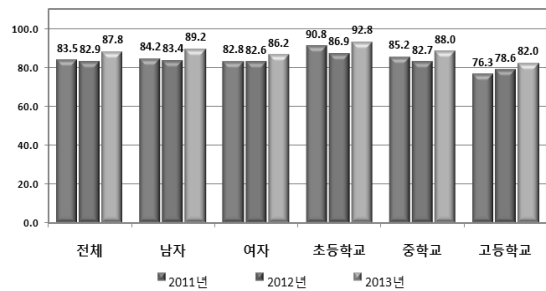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남학생(89.2%)이 여학생(86.2%)보다 부모님께서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2.8%)에서 중학생(88.0%), 고등학생(82.0%)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1년(83.5%) 대비 2012년도(82.9%)에 0.6%p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87.8%)에 다시 4.9%p 상승하였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이며, 최근 3년 중 2013년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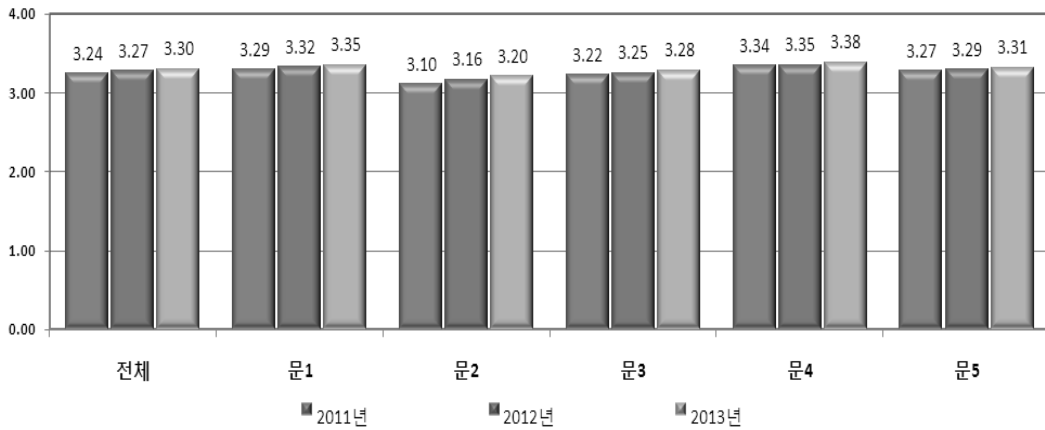
【그림 II-130】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표 II-141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연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4	3.4	2.9	11.1	9.7	9.3	36.5	34.4	35.3	47.0	48.5	52.5	2.0	3.9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4	3.5	2.8	10.4	8.9	7.9	36.6	33.6	33.8	47.6	49.8	55.4	2.0	4.2	0.1
	여	4,561	4,251	4,710	3.6	3.3	3.0	11.8	10.5	10.6	36.3	35.4	36.7	46.5	47.2	49.5	1.9	3.6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1.9	2.6	2.0	5.1	5.7	4.9	27.0	23.0	24.6	63.8	63.9	68.2	2.1	5.0	0.2
	중	2,844	2,986	3,260	3.0	3.6	2.8	10.0	10.0	9.2	39.8	38.5	39.2	45.4	44.2	48.8	1.8	3.8	0.1
	고	3,648	2,574	2,985	5.1	4.3	4.1	16.7	14.4	13.9	41.5	44.0	42.2	34.8	34.6	39.8	1.9	2.7	0.1

2) 가족관계 질 - 항목별 평균

가족관계 질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M=3.38)’가 가장 높았고,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M=3.3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M=3.31)’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2012년에 비해 더 높아져, 2013년의 경우 가족관계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31】 2011~2013년도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표 II-142 2011~2013년도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평균 비교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1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3.29	3.32	3.35
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3.10	3.16	3.20
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	3.22	3.25	3.28
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3.34	3.35	3.38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3.27	3.29	3.31
가족관계 질 영역(전체)		3.24	3.27	3.30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 분석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14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 대해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는 낮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 항목의 경우에는 성별 ($t=37.984, p<.05$), 교급별($F=264.487, p<.001$) 및 가족구성별($F=40.811, p<.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초·고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3 가족관계 질의 항목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서로 아껴줌		함께 시간을 보냄		서로 의지하고 도와줌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39 (0.72)	24.797 ***	3.24 (0.84)	15.807 ***	3.33 (0.77)	37.984 ***
	여자 (n=4,710)	3.31 (0.72)		3.17 (0.88)		3.23 (0.80)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56 (0.68)	217.269 *** (ab,ac,bc)	3.49 (0.77)	315.987 *** (ab,ac,bc)	3.53 (0.74)	264.487 *** (ab,ac,bc)
	중학교 (n=3,260)	3.28 (0.75)		3.15 (0.85)		3.23 (0.78)	
	고등학교 (n=2,985)	3.21 (0.71)		2.96 (0.88)		3.09 (0.78)	
거주지	서울 (n=1,539)	3.35 (0.73)	0.656	3.22 (0.85)	0.692	3.29 (0.79)	2.049
	광역시 (n=2,247)	3.37 (0.73)		3.21 (0.86)		3.31 (0.79)	
	사군 (n=5,616)	3.35 (0.72)		3.20 (0.86)		3.27 (0.79)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38 (0.71)	42.318 *** (gh)	3.23 (0.85)	53.255 *** (gh)	3.31 (0.77)	40.811 *** (gh)
	한부모가정 (n=840)	3.15 (0.78)		2.92 (0.93)		3.06 (0.86)	
	조손가정 (n=156)	3.20 (0.75)		3.15 (1.05)		3.14 (0.85)	
전체 M(SD)		3.35(0.72)		3.20(0.86)		3.28(0.79)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응답자의 특성		친밀함		서로에게 관심이 많음		가족관계 질 (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40 (0.76)	5.114	3.36 (0.77)	34.385 ***	3.35 (0.69)	27.251 ***
	여자 (n=4,710)	3.37 (0.76)		3.27 (0.81)		3.27 (0.71)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59 (0.69)	185.551 *** (ab,ac,bc)	3.53 (0.74)	183.706 *** (ab,ac,bc)	3.54 (0.64)	295.224 *** (ab,ac,bc)
	중학교 (n=3,260)	3.32 (0.77)		3.25 (0.81)		3.24 (0.70)	
	고등학교 (n=2,985)	3.24 (0.76)		3.17 (0.78)		3.13 (0.69)	
거주지	서울 (n=1,539)	3.39 (0.74)	0.067	3.33 (0.78)	0.773	3.32 (0.70)	0.726
	광역시 (n=2,247)	3.39 (0.76)		3.32 (0.78)		3.32 (0.71)	
	사군 (n=5,616)	3.38 (0.76)		3.31 (0.80)		3.30 (0.70)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3.41 (0.74)	36.884 *** (gh,gi)	3.34 (0.78)	34.108 *** (gh)	3.33 (0.69)	51.894 *** (gh)
	한부모가정 (n=840)	3.19 (0.84)		3.11 (0.85)		3.08 (0.75)	
	조손가정 (n=156)	3.22 (0.99)		3.22 (0.99)		3.19 (0.81)	
전체 M(SD)		3.38(0.76)		3.31(0.79)		3.31(0.70)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항목에서는 교급별($F=185.551, p<.001$) 및 가족구성별($F=36.884, p<.001$)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는 낮았고,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이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항목의 경우에는 성별($t=34.385, p<.001$), 교급별($F=183.706, p<.001$), 가족구성별($F=34.108, p<.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즉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졌으며, 양부모가정이 다른 유형의 가정에 비해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질의 각 항목을 합산한 전체의 경우,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 변인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세부항목별 평균의 차이와 사후검증 결과는 <표 II-143>에 제시되어 있다.

2)-①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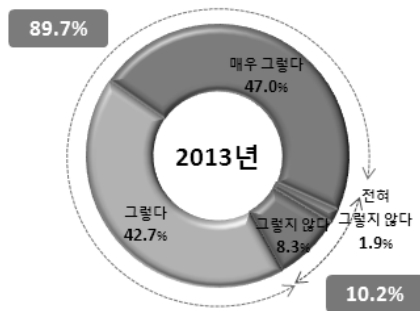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9.7%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에 대해 89.7%가 ‘그렇다’, 10.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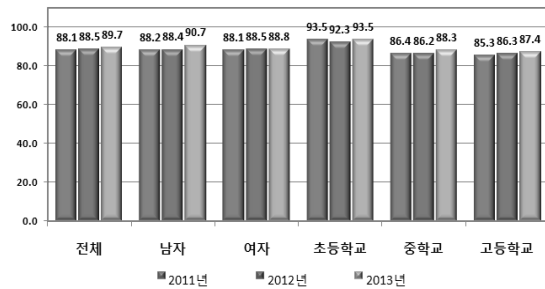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의 경우 남학생(90.7%)과 여학생(88.8%)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생(93.5%)의 경우가 가장 높고, 중학생(88.3%)과 고등학생(87.4%)의 응답률은 거의 비슷했다.

[연도별 추이] 2011년 88.1%, 2012년 88.5%, 2013년 89.7%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2]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표 II-144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5	2.3	1.9	9.3	9.2	8.3	44.8	42.6	42.7	43.3	45.9	47.0	0.1	0.1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2.8	2.7	2.0	8.9	8.8	7.2	43.6	41.3	40.8	44.6	47.1	49.9	0.1	0.1	0.0
	여	4,561	4,251	4,710	2.3	1.9	1.8	9.6	9.5	9.3	46.1	44.0	44.7	42.0	44.5	44.1	0.1	0.1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1.5	1.5	1.6	5.0	6.0	4.8	32.6	30.5	29.7	60.9	61.8	63.8	0.1	0.2	0.1
	중	2,844	2,986	3,260	2.9	2.7	2.2	10.8	11.1	9.5	47.9	46.9	46.8	38.5	39.3	41.5	0.0	0.1	0.0
	고	3,648	2,574	2,985	3.1	2.9	1.9	11.5	10.8	10.7	52.2	52.5	52.1	33.1	33.8	35.3	0.1	0.0	0.0

2)-②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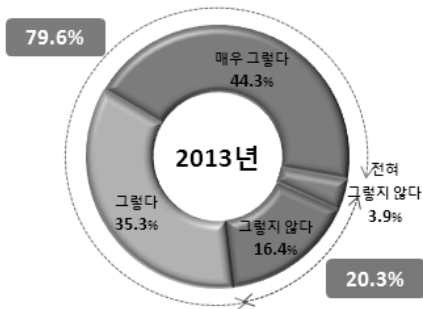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9.6%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9.6%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20.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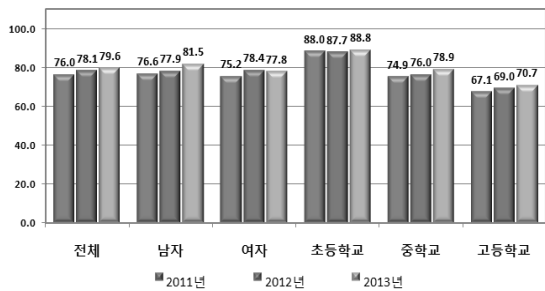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1.5%)이 여학생(77.8%)보다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이 88.8%로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78.9%), 고등학생(7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는 응답이 2011년(76.0%), 2012년 (78.1%), 2013년(79.6%)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78.4%) 대비 2013년(77.8%)에 0.6%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3】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표 II-145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8	4.4	3.9	19.1	17.3	16.4	37.5	36.3	35.3	38.5	41.8	44.3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4.9	4.6	3.7	18.3	17.4	14.8	38.2	35.7	35.7	38.4	42.2	45.8	0.1	0.2	0.0
	여	4,561	4,251	4,710	4.6	4.2	4.2	20.1	17.3	18.0	36.7	37.0	35.0	38.5	41.4	42.8	0.1	0.1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2.5	2.7	2.5	9.3	9.5	8.6	30.9	29.3	26.6	57.1	58.4	62.2	0.2	0.2	0.1
	중	2,844	2,986	3,260	4.6	4.6	4.0	20.5	19.3	17.1	40.0	39.8	39.2	34.9	36.2	39.7	0.0	0.1	0.0
	고	3,648	2,574	2,985	6.7	6.3	5.2	26.1	24.7	24.0	40.9	41.1	40.4	26.2	27.9	30.3	0.1	0.0	0.1

2)-③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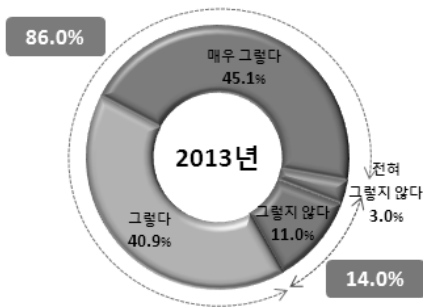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6.0%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의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86.0%,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4.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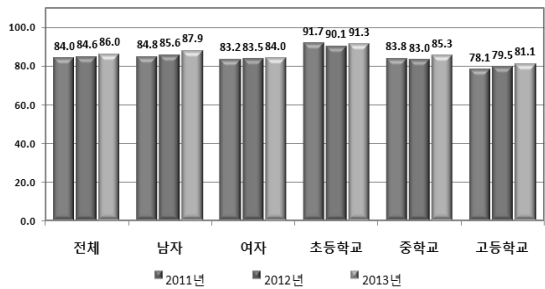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87.9%)이 여학생(84.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1.3%)에서 중학생(85.3%), 고등학생(81.1%)으로 교급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이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84.0%), 2012년(84.6%), 2013년은 86.0%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다시 상승하였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4】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표 II-146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4	3.5	3.0	12.5	11.8	11.0	43.7	41.0	40.9	40.3	43.6	45.1	0.1	0.2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4	3.6	2.9	11.7	10.6	9.2	43.8	41.1	39.7	41.0	44.5	48.2	0.1	0.2	0.0
	여	4,561	4,251	4,710	3.4	3.4	3.1	13.4	13.0	12.8	43.5	40.9	42.1	39.7	42.6	41.9	0.1	0.1	0.1
연령	초	2,943	3,185	3,157	1.7	2.4	2.3	6.5	7.3	6.3	32.7	30.3	28.3	59.0	59.8	63.0	0.1	0.2	0.1
	중	2,844	2,986	3,260	3.8	3.7	3.2	12.4	13.1	11.5	46.5	45.2	44.7	37.3	37.8	40.6	0.0	0.2	0.0
	고	3,648	2,574	2,985	4.4	4.7	3.5	17.3	15.7	15.4	50.3	49.3	50.1	27.8	30.2	31.0	0.1	0.1	0.0

2)-④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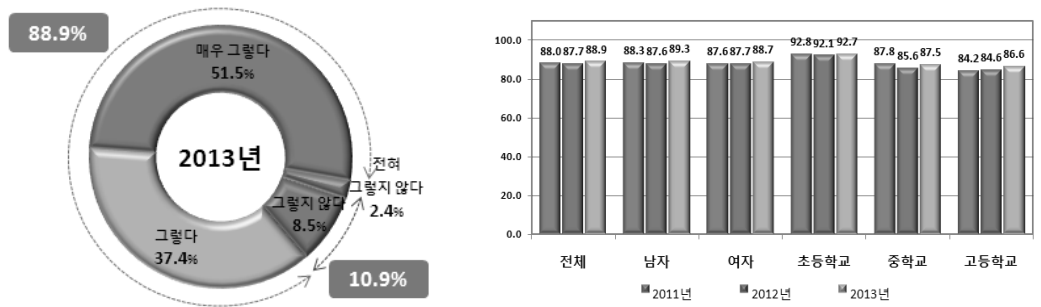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8.9%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88.9%가 ‘그렇다’, 10.9%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89.3%)과 여학생(88.7%)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92.7%)에서 중학생(87.5%), 고등학생(86.6%)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88.0%) 대비 2012년도(87.7%)에 0.3%p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88.9%)에 다시 1.2%p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과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하락 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5】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표 II-147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7	2.7	2.4	9.2	9.5	8.5	40.1	37.7	37.4	47.9	50.0	51.5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2.9	2.9	2.4	8.7	9.3	8.3	41.1	37.4	36.3	47.2	50.2	53.0	0.2	0.1	0.1
	여	4,561	4,251	4,710	2.5	2.5	2.5	9.8	9.7	8.8	39.0	38.0	38.6	48.6	49.7	50.1	0.1	0.1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1.6	1.4	1.8	5.6	6.3	5.4	28.6	27.3	25.4	64.2	64.8	67.3	0.1	0.2	0.1
	중	2,844	2,986	3,260	2.5	3.3	2.8	9.6	11.0	9.7	43.5	41.0	40.5	44.3	44.6	47.0	0.1	0.1	0.1
	고	3,648	2,574	2,985	3.8	3.6	2.7	11.8	11.8	10.6	46.7	46.7	46.8	37.5	37.9	39.8	0.2	0.0	0.1

2)-⑤ 가족관계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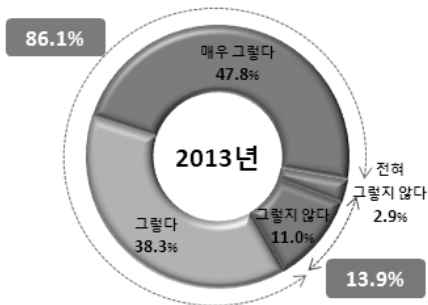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6.1%가 ‘그렇다’고 응답**

○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6.1%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3.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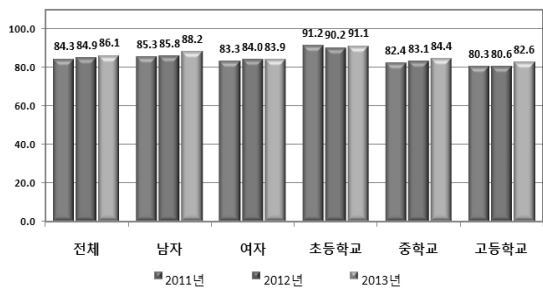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가족 간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응답은, 여학생(83.9%)보다 남학생(88.2%)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1.1%)에서 중학생(84.4%), 고등학생(82.6%)으로 올라갈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84.3%, 2012년 84.9%, 2013년 86.1%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84.0%) 대비 2013년(83.9%)에 0.1%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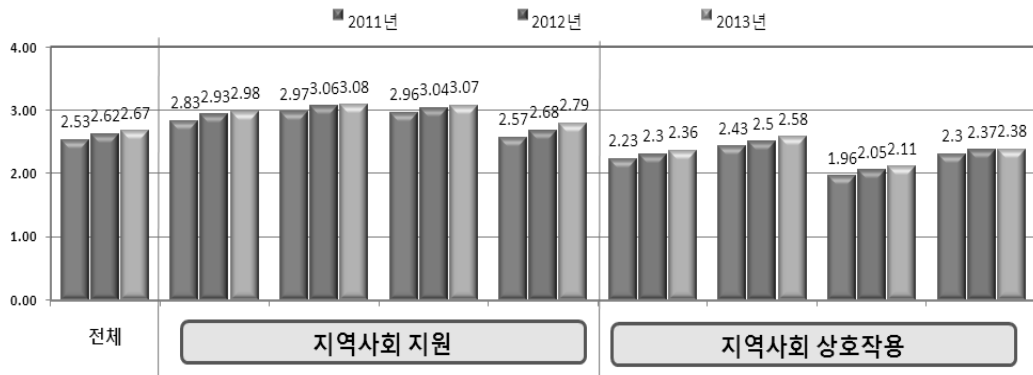
【그림 II-136】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표 II-148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2	3.4	2.9	12.4	11.5	11.0	39.4	38.0	38.3	44.9	46.9	47.8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2	3.4	2.8	11.5	10.7	8.9	39.5	37.7	37.9	45.8	48.1	50.3	0.1	0.1	0.1
	여	4,561	4,251	4,710	3.2	3.4	3.0	13.5	12.5	13.1	39.3	38.4	38.6	44.0	45.6	45.3	0.1	0.1	0.1
연도	초	2,943	3,185	3,157	2.2	2.7	2.4	6.6	7.0	6.4	29.6	29.3	27.7	61.6	60.9	63.4	0.1	0.1	0.1
	중	2,844	2,986	3,260	3.2	3.7	3.4	14.4	13.1	12.1	40.9	41.1	41.4	41.5	42.0	43.0	0.0	0.1	0.1
	고	3,648	2,574	2,985	4.0	4.0	2.8	15.6	15.3	14.5	46.1	45.3	46.1	34.2	35.3	36.5	0.2	0.0	0.0

3. 지역사회 영역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지역사회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지역사회 지원(M=2.98)’, ‘지역사회 상호작용(M=2.36)’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3년의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지역사회 지원 및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37】 2011~2013년도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표 II-149 2011~2013년도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지역사회 지원	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2.97	3.06	3.08
	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96	3.04	3.07
	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2.57	2.68	2.79
소계		2.83	2.93	2.98
지역사회 상호작용	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2.43	2.50	2.58
	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1.96	2.05	2.11
	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2.30	2.37	2.38
소계		2.23	2.30	2.36
지역사회 영역(전체)		2.53	2.62	2.67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150>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지원의 경우, 성별($t=136.263, p<.001$), 교급별($F=423.396, p<.001$), 가족구성별($F=19.834, p<.001$) 각 항목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M=3.08$)이 여학생($M=2.87$)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초등학교($M=3.29$)에서 중학생($M=2.96$)·고등학교($M=2.67$)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아졌다. 또한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다른 유형의 가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상호작용에서는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았고, 가족구성별로는 한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각 세부 요인별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15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50 지역사회 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 상호작용		지역사회 영역(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3.08 (0.83)	136.263 ***	2.38 (0.92)	10.509 ***	2.73 (0.76)	75.355 ***
	여자 (n=4,710)	2.87 (0.89)		2.33 (0.81)		2.60 (0.73)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29 (0.80)	423.396*** (ab,ac,bc)	2.56 (0.92)	178.709*** (ab,ac,bc)	2.92 (0.73)	396.769*** (ab,ac,bc)
	중학교 (n=3,260)	2.96 (0.84)		2.34 (0.86)		2.65 (0.73)	
	고등학교 (n=2,985)	2.67 (0.85)		2.15 (0.76)		2.41 (0.68)	
거주지	서울 (n=1,539)	2.98 (0.88)	0.032	2.34 (0.87)	0.497	2.66 (0.76)	0.222
	광역시 (n=2,247)	2.97 (0.88)		2.36 (0.89)		2.66 (0.76)	
	사군 (n=5,616)	2.98 (0.86)		2.36 (0.85)		2.67 (0.73)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2.99 (0.87)	19.834 *** (gh)	2.37 (0.87)	13.178 *** (gh)	2.68 (0.75)	21.796 *** (gh)
	한부모가정 (n=840)	2.80 (0.89)		2.21 (0.81)		2.51 (0.73)	
	조손가정 (n=156)	2.99 (0.77)		2.43 (0.88)		2.71 (0.71)	
전체 M(SD)		2.98(0.87)		2.36(0.86)		2.67(0.74)	

* $p<.05$,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1)-① 지역사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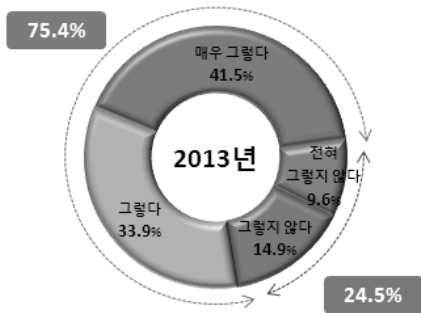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5.4%가 ‘그렇다’고 응답**

○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24.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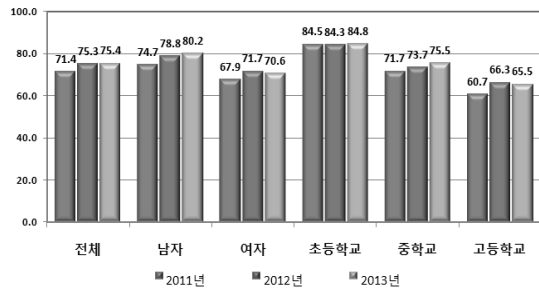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70.6%)보다 남학생(80.2%)의 경우에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4.8%)에서 고등학교(65.5%)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1년(71.4%), 2012년(75.3%), 2013년은 75.4%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은 2012년(71.7%) 대비 2013년(70.6%)에 1.1%p가 낮게 나타났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고등학생이 2012년(66.3%) 대비 2013년(65.5%)에 0.8%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8】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표 II-151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1.2	8.8	9.6	17.3	15.7	14.9	35.3	35.6	33.9	36.1	39.7	41.5	0.0	0.1	0.0	
성별	남	4,874	4,494	4,692	10.3	7.7	7.8	15.0	13.3	12.0	37.5	36.4	34.2	37.2	42.4	46.0	0.0	0.1	0.0
	여	4,561	4,251	4,710	12.2	9.9	11.4	19.8	18.3	17.9	33.0	34.8	33.5	34.9	36.9	37.1	0.0	0.1	0.0
교급	초	2,943	3,185	3,157	6.5	6.3	6.1	9.0	9.3	9.2	32.3	29.6	26.8	52.2	54.7	58.0	0.0	0.1	0.0
	중	2,844	2,986	3,260	10.1	9.0	9.0	18.2	17.3	15.5	37.4	39.8	38.6	34.3	33.9	36.9	0.0	0.0	0.1
	고	3,648	2,574	2,985	15.9	11.6	14.0	23.3	21.9	20.4	36.2	38.3	36.3	24.5	28.0	29.2	0.1	0.2	0.0

1)-② 지역사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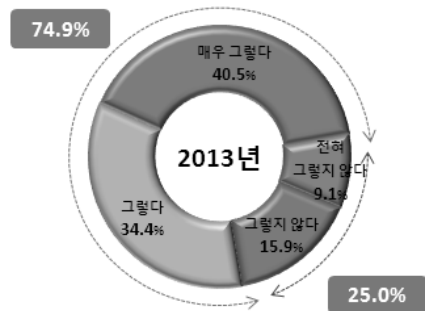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4.9%가 ‘그렇다’고 응답**

○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4.9%가 ‘그렇다’, 25.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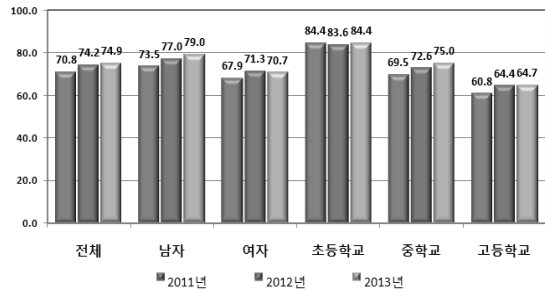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학생(70.7%)보다 남학생(79.0%)의 경우에 친지 외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84.4%)에서 중학생(75.0%), 고등학생(64.7%)으로 올라갈수록 긍정 응답률이 낮아졌다.

[연도별 추이] 2011년 70.8%, 2012년 74.2%, 2013년 74.9%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71.3%) 대비 2013년(70.7%)에 0.6%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39】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표 II-152 가족, 친구, 선생님 외에 주위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0.7	8.8	9.1	18.4	16.9	15.9	35.3	35.7	34.4	35.5	38.5	40.5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10.1	8.0	7.2	16.4	14.8	13.7	37.5	36.1	35.0	36.0	40.9	44.0	0.1	0.2	0.1
	여	4,561	4,251	4,710	11.5	9.6	11.0	20.5	19.1	18.2	32.8	35.3	33.7	35.1	36.0	37.0	0.1	0.0	0.1
연 급	초	2,943	3,185	3,157	5.7	6.4	5.7	9.8	9.8	9.8	31.8	30.2	27.2	52.6	53.4	57.2	0.1	0.2	0.0
	중	2,844	2,986	3,260	10.1	8.8	8.3	20.4	18.5	16.5	36.8	38.7	38.7	32.7	33.9	36.3	0.0	0.1	0.1
	고	3,648	2,574	2,985	15.4	11.7	13.5	23.7	23.8	21.7	36.8	39.0	37.2	24.0	25.4	27.5	0.1	0.0	0.0

1)-③ 지역사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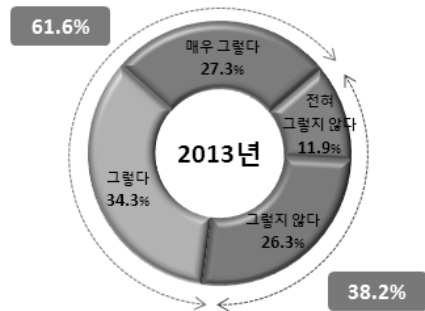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의 응답률은 61.6%, ‘그렇지 않다’는 38.2%로 응답**

○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의 61.6%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38.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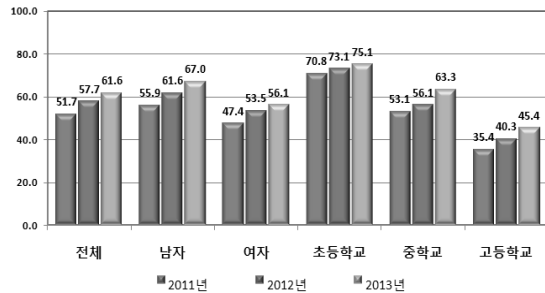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긍정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67.0%)이 여학생(56.1%)보다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교(75.1%)에서 중학생(63.3%), 고등학생(45.4%)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51.7%), 2012년(57.7%), 2013년은 61.6%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도의 응답률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0】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표 II-153 주위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6.7	13.6	11.9	31.3	28.4	26.3	31.3	33.5	34.3	20.4	24.2	27.3	0.3	0.3	0.3	
성 별	남	4,874	4,494	4,692	16.4	13.4	10.6	27.4	24.7	22.2	33.5	33.8	35.2	22.4	27.8	31.8	0.3	0.4	0.2
	여	4,561	4,251	4,710	17.1	13.9	13.2	35.3	32.3	30.3	29.0	33.1	33.4	18.4	20.4	22.7	0.2	0.3	0.3
교 단 위	초	2,943	3,185	3,157	9.7	9.5	8.0	19.1	17.0	16.6	33.8	34.2	31.2	37.0	38.9	43.9	0.4	0.4	0.3
	중	2,844	2,986	3,260	15.4	13.5	11.0	31.3	30.0	25.4	35.1	36.2	38.6	18.0	19.9	24.7	0.2	0.3	0.3
	고	3,648	2,574	2,985	23.5	18.9	17.1	41.0	40.5	37.4	26.4	29.3	32.9	9.0	11.0	12.5	0.2	0.3	0.1

2)-① 지역사회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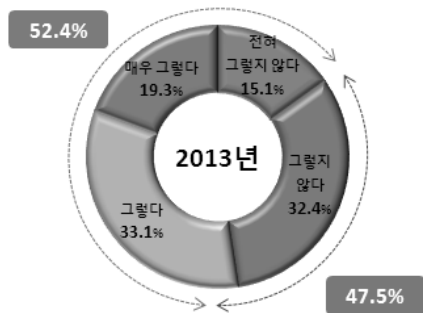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는 52.4%, ‘그렇지 않다’는 47.5%가 응답**

○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52.4%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47.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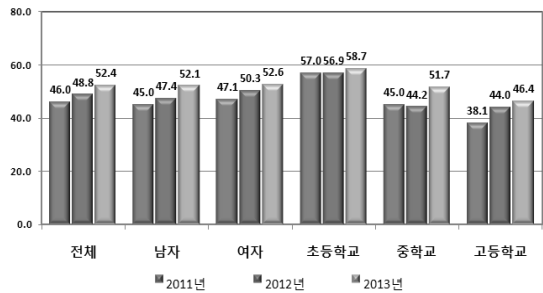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학생(52.6%)의 경우에 남학생(52.1%)보다 긍정응답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초등학교생이 58.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51.7%), 고등학생(4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46.0%), 2012년(48.8%), 2013년은 52.4%로 매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2년(44.2%)과 비교해 볼 때 7.5%p의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1]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표 II-154 나는 자원봉사나 후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8.2	16.6	15.1	35.7	34.4	32.4	31.4	31.3	33.1	14.6	17.5	19.3	0.1	0.2	0.2	
성별	남	4,874	4,494	4,692	20.0	18.6	16.7	34.9	33.8	31.0	29.3	28.8	31.5	15.7	18.6	20.6	0.1	0.3	0.2
	여	4,561	4,251	4,710	16.1	14.5	13.4	36.6	35.1	33.8	33.6	33.9	34.6	13.5	16.4	18.0	0.1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13.9	14.7	14.5	29.1	28.1	26.7	33.2	31.2	31.8	23.8	25.7	26.9	0.1	0.3	0.1
	중	2,844	2,986	3,260	18.0	16.6	14.7	37.0	39.0	33.3	31.5	30.7	33.3	13.5	13.5	18.4	0.0	0.2	0.3
	고	3,648	2,574	2,985	21.7	18.9	16.1	40.1	36.9	37.4	29.9	31.9	34.1	8.2	12.1	12.3	0.2	0.2	0.1

2)-② 지역사회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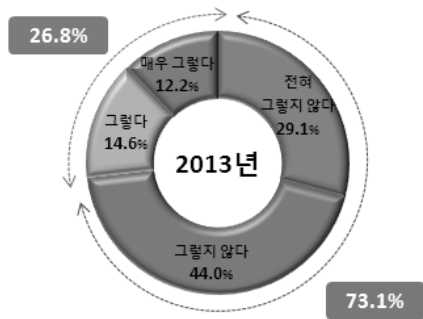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6.8%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6.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73.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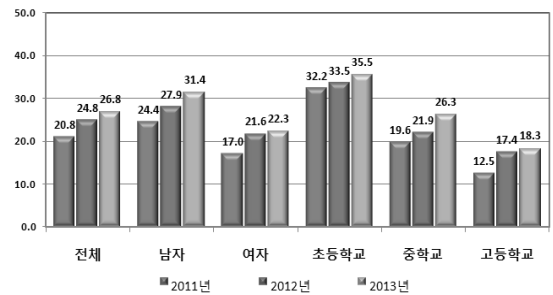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31.4%)이 여학생(22.3%)보다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고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35.5%)에서 고등학교(18.3%)으로 올라갈수록 상기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낮았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26.8%로 2012년(24.8%)에 비해 2.0%p, 2011년(20.8%)에 비해 6.0%p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냈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최근 3년 중 2013년도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2]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표 II-155 나는 지역사회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4.6	30.9	29.1	44.4	44.1	44.0	12.0	14.1	14.6	8.8	10.7	12.2	0.1	0.2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5.1	32.2	29.8	40.3	39.7	38.7	13.9	14.9	16.4	10.5	13.0	15.0	0.1	0.2	0.1
	여	4,561	4,251	4,710	34.2	29.6	28.4	48.8	48.7	49.2	10.1	13.3	12.9	6.9	8.3	9.4	0.1	0.1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7.3	28.2	26.8	40.3	38.0	37.6	15.9	17.1	16.5	16.3	16.4	19.0	0.2	0.3	0.1
	중	2,844	2,986	3,260	35.4	31.6	27.9	45.0	46.4	45.7	11.8	13.2	14.9	7.8	8.7	11.4	0.0	0.1	0.1
	고	3,648	2,574	2,985	40.1	33.6	32.9	47.2	49.0	48.8	9.1	11.5	12.4	3.4	5.9	5.9	0.2	0.2	0.1

2)-③ 지역사회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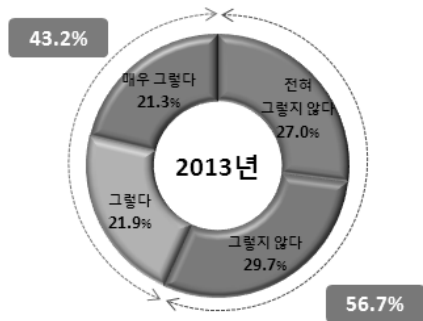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의 응답률은 43.2%, ‘그렇지 않다’는 56.7%로 응답**

○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3.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56.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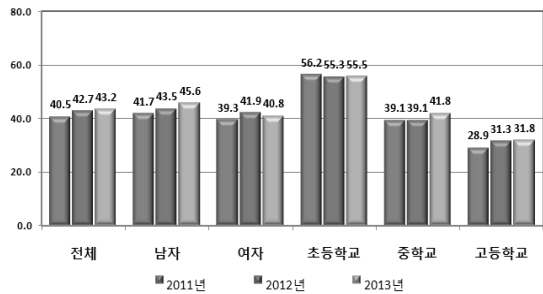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45.6%)이 여학생(40.8%)보다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55.5%)에서 고등학생(31.8%)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 40.5%, 2012년 42.7%, 2013년 43.2%로 매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41.9%) 대비 2013년(40.8%)에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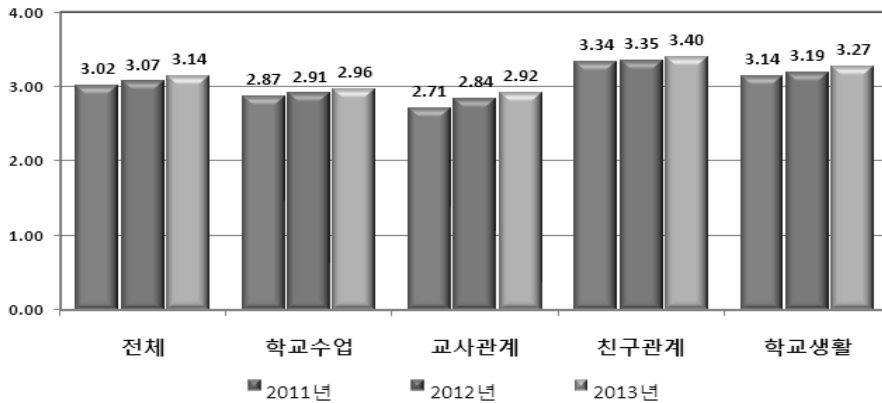
【그림 II-143】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표 II-156 나는 복지관, 교회, 절 등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9.6	27.8	27.0	29.8	29.4	29.7	21.7	21.1	21.9	18.8	21.6	21.3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1.2	29.7	28.6	27.1	26.6	25.7	22.1	20.6	22.6	19.6	22.9	23.0	0.1	0.2	0.1
	여	4,561	4,251	4,710	27.9	25.7	25.4	32.8	32.3	33.7	21.3	21.7	21.2	18.0	20.2	19.6	0.0	0.1	0.1
연령	초	2,943	3,185	3,157	20.5	22.8	22.7	23.2	21.7	21.6	25.2	22.0	21.4	31.0	33.3	34.1	0.0	0.2	0.2
	중	2,844	2,986	3,260	31.6	27.9	26.1	29.3	32.8	32.0	21.9	21.5	23.6	17.2	17.6	18.2	0.0	0.1	0.1
	고	3,648	2,574	2,985	35.4	33.7	32.5	35.6	35.0	35.7	18.7	19.7	20.6	10.2	11.6	11.2	0.1	0.0	0.0

4. 학교영역 -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학교영역에 대한 요인별 평균에서는 ‘친구관계(M=3.4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M=3.27)’, ‘학교 수업(M=2.96)’, ‘교사관계(M=2.92)’의 순으로 나타남.
2012년도와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학교 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의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증가하여, 2013년에 학교에서의 적응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



【그림 II-144】 2011~2013년도 학교영역의 요인별 평균

표 II-157 2011~2013년도 학교영역의 요인별 및 항목별 평균 비교

요인	문항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학교 수업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한다	3.16	3.21	3.23
	2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2.78	2.81	2.87
	3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2.65	2.71	2.79
소계		2.87	2.91	2.96
교사 관계	4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2.89	3.00	3.05
	5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2.56	2.69	2.78
	6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2.70	2.82	2.92
소계		2.71	2.84	2.92
친구 관계	7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3.36	3.37	3.42
	8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3.31	3.32	3.38
	9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3.36	3.37	3.41
소계		3.34	3.35	3.40
학교 생활	10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3.14	3.17	3.27
	11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3.00	3.09	3.18
	12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3.29	3.30	3.35
소계		3.14	3.19	3.27
학교영역(전체)		3.02	3.07	3.14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학교영역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I-158>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의 경우에는 성별, 교급별, 거주지별, 가족구성별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교급수준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광역시 및 시·군지역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가족구성별에서는 양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의 경우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여학생보다 더 높았고,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더 낮아졌으며, 한부모가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밖에 각 세부 요인별 평균과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II-15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58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학교 수업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학교영역(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4,692)	2.98 (0.71)	3,357**	3.01 (0.82)	108,844***	3.42 (0.65)	10,47***	3.27 (0.63)	0,047	3.17 (0.57)	30,297***
	여자 (n=4,710)	2.95 (0.68)		2.82 (0.88)		3.38 (0.67)		3.27 (0.62)		3.10 (0.56)	
교급별	초등학교 (n=3,157)	3.22 (0.69)	357.645*** (ab,ac, bc)	3.31 (0.78)	631,581*** (ab,ac, bc)	3.55 (0.66)	170,015*** (ab,ac, bc)	3.40 (0.63)	114,021*** (ab,ac, bc)	3.37 (0.57)	492,503*** (ab,ac, bc)
	중학교 (n=3,260)	2.89 (0.70)		2.83 (0.83)		3.39 (0.66)		3.22 (0.64)		3.08 (0.55)	
	고등학교 (n=2,985)	2.78 (0.62)		2.60 (0.80)		3.25 (0.62)		3.17 (0.58)		2.95 (0.48)	
거주지	서울 (n=1,539)	3.01 (0.68)	7,093***	2.98 (0.85)	4,871***	3.45 (0.62)	6,041***	3.32 (0.61)	8,574*** (df)	3.19 (0.55)	9,411*** (df)
	광역시 (n=2,247)	2.99 (0.70)		2.91 (0.86)		3.41 (0.66)		3.28 (0.61)		3.15 (0.57)	
	사군 (n=5,616)	2.94 (0.70)		2.90 (0.85)		3.38 (0.67)		3.25 (0.63)		3.12 (0.57)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n=8,221)	2.99 (0.69)	54,935*** (gh,gi)	2.94 (0.85)	23,238*** (gh)	3.42 (0.65)	39,882*** (gh)	3.29 (0.61)	49,849*** (gh,gi)	3.16 (0.56)	62,061*** (gh,gi)
	한부모가정 (n=840)	2.75 (0.68)		2.73 (0.85)		3.24 (0.69)		3.08 (0.65)		2.95 (0.55)	
	조손가정 (n=156)	2.82 (0.66)		2.85 (0.88)		3.25 (0.71)		3.15 (0.74)		3.02 (0.60)	
전체 M(SD)		2.96(0.70)		2.92(0.86)		3.40(0.66)		3.27(0.62)		3.14(0.57)	

* $p < .05$, ** $p < .01$, *** $p < .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사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1)-① 학교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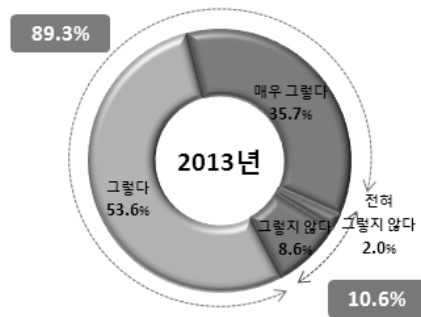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9.3%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9.3%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0.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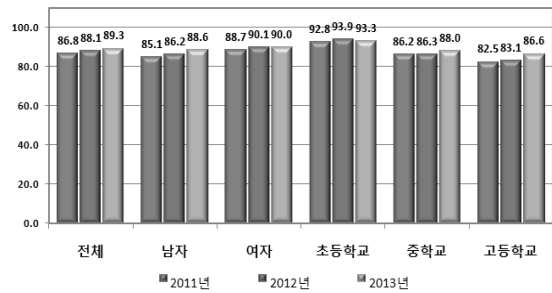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여학생(90.0%)의 경우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88.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3.3%)에서 고등학생(86.6%)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86.8%, 2012년 88.1%, 2013년 89.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과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2012년 대비 2013년에 각각 0.1%p, 0.6%p가 낮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5】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표 II-15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4	2.3	2.0	10.7	9.5	8.6	55.3	53.1	53.6	31.5	35.0	35.7	0.1	0.0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3.0	3.2	2.3	11.9	10.5	9.0	54.9	51.8	52.1	30.2	34.4	36.5	0.1	0.1	0.0
	여	4,561	4,251	4,710	1.8	1.4	1.6	9.5	8.5	8.3	55.8	54.4	55.0	32.9	35.7	35.0	0.0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1.3	1.4	1.8	5.8	4.7	4.8	44.3	41.2	40.9	48.5	52.7	52.4	0.0	0.1	0.1
	중	2,844	2,986	3,260	2.6	3.0	2.0	11.3	10.7	9.9	57.5	58.6	57.3	28.7	27.7	30.7	0.0	0.0	0.1
	고	3,648	2,574	2,985	3.1	2.7	2.1	14.3	14.1	11.3	62.5	61.3	62.9	20.0	21.8	23.7	0.1	0.0	0.0

1)-② 학교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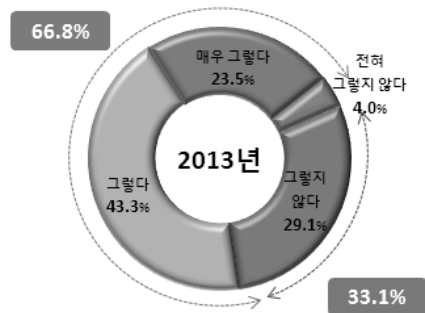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6.8%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6.8%,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33.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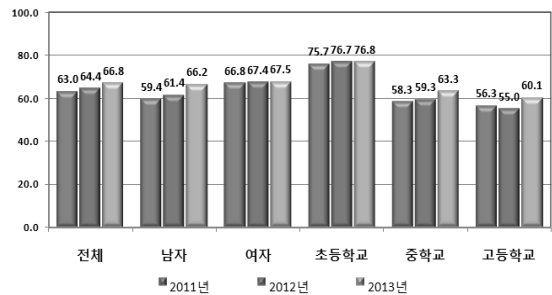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성별비교에서는 여학생(67.5%)이 남학생(66.2%)보다 긍정응답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8%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63.3%), 고등학생(60.1%)으로 교급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도별 추이] 2011년 63.0%, 2012년 64.4%, 2013년 66.8%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성별 비교에서의 여학생과 교급별 비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에는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표 II-16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정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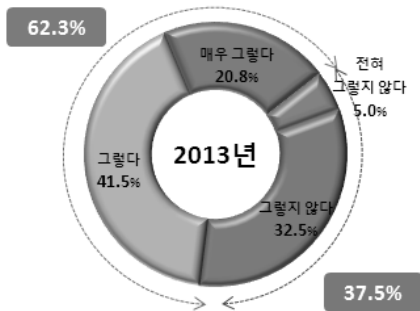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4.5	4.7	4.0	32.4	30.9	29.1	43.6	43.5	43.3	19.4	20.9	23.5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5.5	5.9	5.0	35.0	32.5	28.8	40.8	40.9	41.5	18.6	20.5	24.7	0.1	0.1	0.1
	여	4,561	4,251	4,710	3.5	3.4	3.1	29.6	29.2	29.4	46.7	46.2	45.1	20.1	21.2	22.4	0.1	0.0	0.0
교 급	초	2,943	3,185	3,157	2.5	3.0	3.5	21.6	20.3	19.6	42.7	43.5	39.7	33.0	33.2	37.1	0.1	0.1	0.1
	중	2,844	2,986	3,260	5.1	5.7	4.5	36.5	34.9	32.1	42.7	43.6	43.7	15.6	15.7	19.6	0.1	0.1	0.2
	고	3,648	2,574	2,985	5.7	5.7	4.1	38.0	39.4	35.8	45.1	43.4	46.6	11.2	11.6	13.5	0.1	0.0	0.0

1)-③ 학교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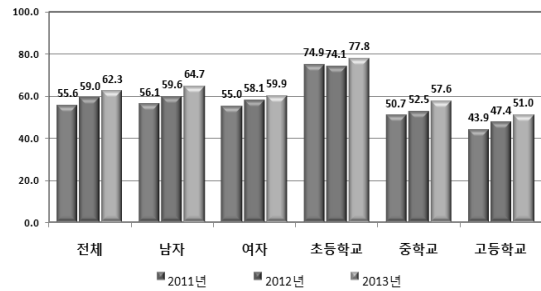
**‘나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는 62.3%, ‘그렇지 않다’는 37.5%로 응답**

-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2.3%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37.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성별로는 남학생(64.7%)이 여학생(59.9%)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77.8%)의 긍정응답률이 중학생(57.6%)과 고등학생(5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 [연도별 추이]** 2013년은 62.3%로 2012년(59.0%)에 비해 3.3%p, 2011년(55.6%)에 비해 6.7%p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다. 성별 비교와 교급별 비교에서도 대부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최근 3년 중 2013년도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7】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표 II-161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듣는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6.7	6.2	5.0	37.6	34.8	32.5	40.4	40.8	41.5	15.2	18.2	20.8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6.8	6.1	4.7	36.8	34.1	30.4	39.9	40.4	42.2	16.2	19.2	22.5	0.1	0.1	0.1
	여	4,561	4,251	4,710	6.5	6.2	5.3	38.4	35.6	34.6	41.0	41.1	40.9	14.0	17.0	19.0	0.1	0.0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2.6	3.1	3.0	22.4	22.7	19.0	47.4	45.3	44.4	27.5	28.8	33.4	0.1	0.1	0.2
	중	2,844	2,986	3,260	7.1	7.5	5.8	42.1	39.9	36.4	39.0	38.6	39.7	11.7	13.9	17.9	0.1	0.1	0.1
	고	3,648	2,574	2,985	9.6	8.4	6.3	46.4	44.1	42.6	36.0	37.5	40.5	7.9	9.9	10.5	0.1	0.0	0.0

2)-① 교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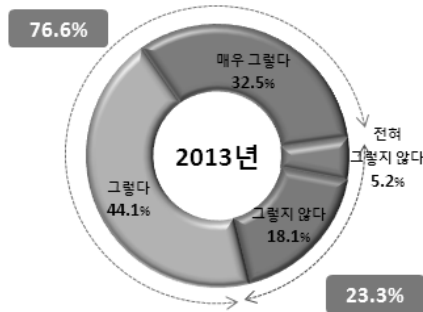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6.6%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6.6%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23.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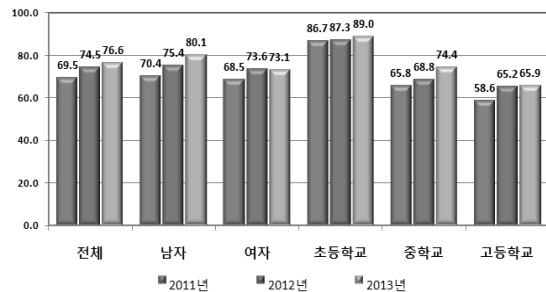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긍정적 응답을 살펴보면, 여학생(73.1%)보다 남학생(80.1%)의 경우에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에서는 초등학생(89.0%), 중학생(74.4%), 고등학생(6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 69.5%, 2012년 74.5%, 2013년 76.6%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비교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2012년(73.6%) 대비 2013년(73.1%)에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8】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162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7.5	5.9	5.2	22.9	19.5	18.1	43.2	43.4	44.1	26.3	31.1	32.5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7.3	6.0	4.6	22.1	18.5	15.2	43.6	43.8	44.8	26.8	31.6	35.3	0.1	0.1	0.1
	여	4,561	4,251	4,710	7.7	5.8	5.8	23.7	20.7	21.0	42.8	43.0	43.3	25.7	30.6	29.8	0.0	0.0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3.7	3.0	2.9	9.5	9.6	8.0	38.9	36.1	36.2	47.8	51.2	52.8	0.1	0.0	0.1
	중	2,844	2,986	3,260	8.6	7.9	5.6	25.7	23.2	19.9	44.9	46.4	48.1	20.9	22.4	26.3	0.0	0.1	0.2
	고	3,648	2,574	2,985	9.8	7.1	7.2	31.5	27.5	26.8	45.4	48.8	48.0	13.2	16.4	17.9	0.1	0.1	0.0

2)-② 교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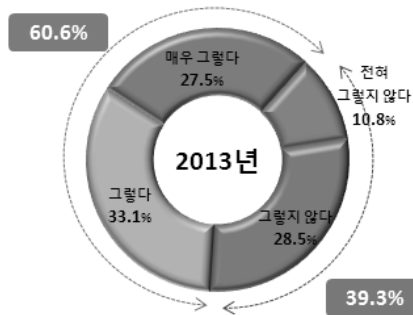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의 응답률은 60.6%, ‘그렇지 않다’는 39.3%로 응답**

○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0.6%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39.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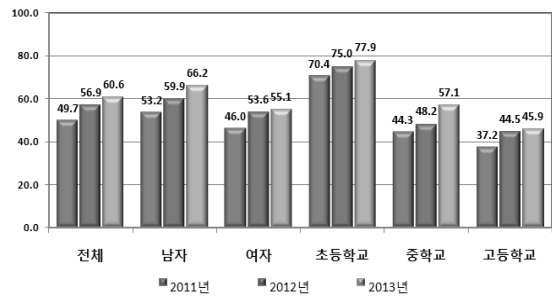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학생(66.2%)이 여학생(55.1%)보다 학교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긍정응답률이 77.9%로 중학생(57.1%) 및 고등학생(4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60.6%로 2012년(56.9%)에 비해 3.7%p, 2011년(49.7%)에 비해 10.9%p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도 모두 전체 응답률과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최근 3년 간 2013년도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49]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163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연도	9,435	8,745	9,402	15.3	12.4	10.8	34.8	30.7	28.5	29.2	32.6	33.1	20.5	24.3	27.5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14.3	11.4	8.4	32.3	28.6	25.3	31.7	34.6	35.7	21.5	25.3	30.5	0.1	0.1	0.1
	여	4,561	4,251	4,710	16.4	13.4	13.2	37.5	32.9	31.6	26.6	30.4	30.5	19.4	23.2	24.6	0.1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7.7	6.8	5.8	21.8	18.1	16.2	32.1	33.6	31.6	38.3	41.4	46.3	0.1	0.1	0.1
	중	2,844	2,986	3,260	17.0	15.5	11.1	38.7	36.2	31.6	28.8	31.6	35.4	15.5	16.6	21.7	0.0	0.1	0.2
	고	3,648	2,574	2,985	20.3	15.7	15.9	42.3	39.8	38.2	27.2	32.4	32.0	10.0	12.1	13.9	0.1	0.0	0.0

2)-③ 교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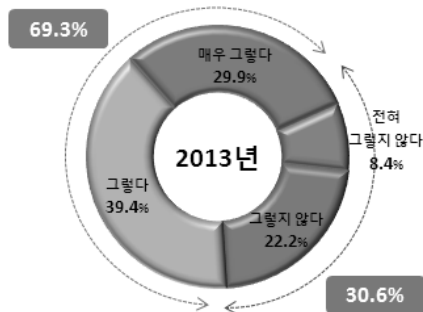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9.3%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69.3%가 ‘그렇다’, 30.6%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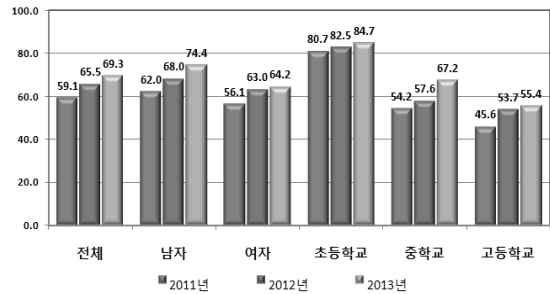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64.2%)보다 남학생(74.4%)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 긍정응답률이 84.7%로 중학생(67.2%), 고등학생(5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급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69.3%로 2012년(65.5%)에 비해 3.8%p, 2011년(59.1%)에 비해 10.2%p 높게 나타나며 매년 응답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0】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표 II-164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12.8	10.1	8.4	28.0	24.3	22.2	36.8	38.7	39.4	22.3	26.8	29.9	0.1	0.2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12.0	9.3	6.5	25.9	22.5	19.0	38.9	39.7	41.5	23.1	28.3	32.9	0.1	0.2	0.1
	여	4,561	4,251	4,710	13.5	10.8	10.4	30.3	26.1	25.3	34.6	37.7	37.3	21.5	25.3	26.9	0.1	0.2	0.1
교 급 별	초	2,943	3,185	3,157	5.2	4.9	3.7	14.0	12.4	11.4	37.8	36.2	34.0	42.9	46.3	50.7	0.1	0.2	0.3
	중	2,844	2,986	3,260	14.4	12.9	9.3	31.4	29.3	23.5	37.6	39.3	43.3	16.6	18.3	23.9	0.1	0.3	0.1
	고	3,648	2,574	2,985	17.6	13.1	12.5	36.7	33.1	32.1	35.5	41.1	40.8	10.1	12.6	14.6	0.1	0.1	0.0

3)-①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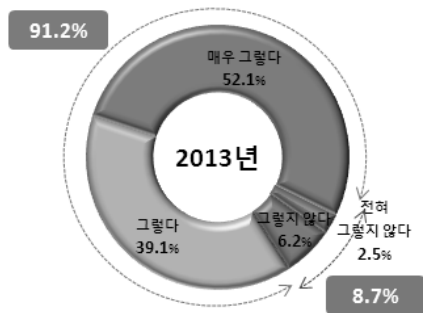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1.2%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1.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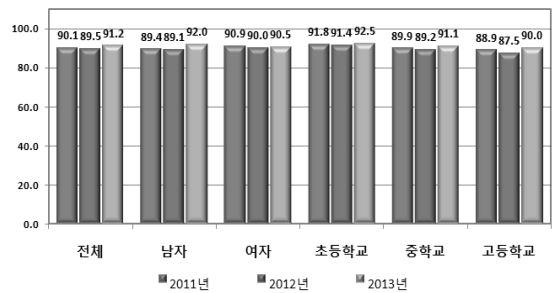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학생(92.0%)이 여학생(90.5%)보다 학교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92.5%)에서 고등학생(90.0%)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응답비율은 낮았다.

[연도별 추이] 2011년(90.1%) 대비 2012년도(89.5%)에 0.6%p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91.2%)에 다시 1.7%p 상승한 추세이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이며, 여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년 중 2013년도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1】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표 II-165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9	2.9	2.5	6.9	7.5	6.2	41.5	39.4	39.1	48.6	50.1	52.1	0.1	0.0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3.4	3.2	2.0	7.2	7.7	5.9	42.9	39.3	39.2	46.5	49.8	52.8	0.0	0.1	0.1
	여	4,561	4,251	4,710	2.4	2.7	2.9	6.6	7.4	6.5	40.1	39.6	39.0	50.8	50.4	51.5	0.1	0.0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2.8	2.5	2.4	5.4	6.1	4.9	30.9	28.6	27.3	60.9	62.8	65.2	0.0	0.1	0.2
	중	2,844	2,986	3,260	3.1	3.1	2.6	6.9	7.6	6.2	42.6	42.6	42.3	47.3	46.6	48.8	0.0	0.1	0.1
	고	3,648	2,574	2,985	2.9	3.2	2.4	8.1	9.2	7.7	49.3	49.1	48.0	39.6	38.4	42.0	0.1	0.0	0.0

3)-②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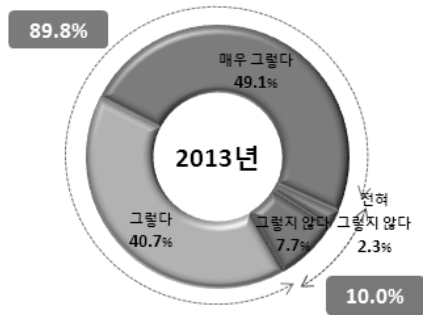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9.8%가 ‘그렇다’고 응답**

○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9.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0.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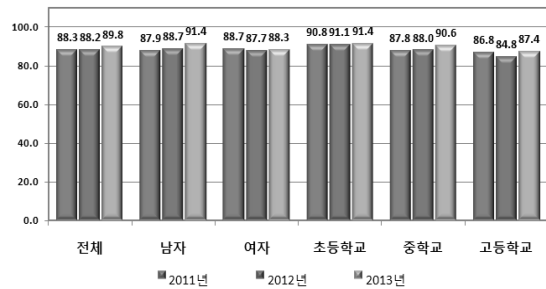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학생(88.3%)보다 남학생(91.4%)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91.4%)에서 고등학생(87.4%)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2011년(88.3%) 대비 2012년도(88.2%)에 0.1%p 하락했던 응답률이 2013년도(89.8%)에 다시 1.6%p 상승한 추세이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응답률이 매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2】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표 II-166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9	3.0	2.3	8.7	8.7	7.7	43.8	41.3	40.7	44.5	46.9	49.1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3.2	3.0	1.9	8.8	8.1	6.5	44.4	41.4	40.5	43.5	47.3	50.9	0.1	0.2	0.1
	여	4,561	4,251	4,710	2.6	3.0	2.7	8.5	9.3	8.8	43.1	41.2	41.0	45.6	46.5	47.3	0.1	0.1	0.2
연 급	초	2,943	3,185	3,157	2.5	2.5	2.2	6.5	6.2	6.2	32.0	30.8	27.6	58.8	60.3	63.8	0.1	0.1	0.2
	중	2,844	2,986	3,260	3.0	3.3	2.3	9.2	8.6	6.8	43.7	43.8	44.0	44.1	44.2	46.6	0.0	0.1	0.2
	고	3,648	2,574	2,985	3.2	3.2	2.4	10.0	11.8	10.2	53.4	51.4	51.1	33.4	33.4	36.3	0.1	0.2	0.0

3)-③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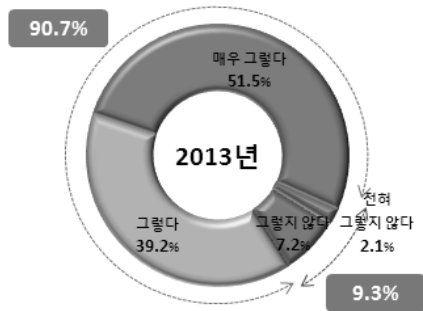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0.7%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0.7%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9.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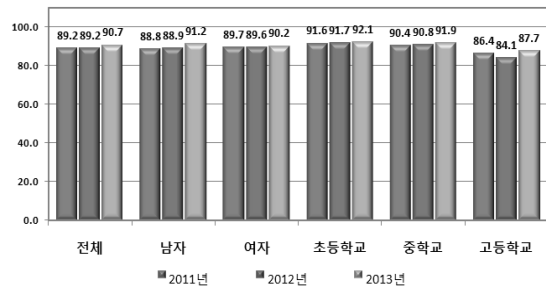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남학생(91.2%)이 여학생(90.2%)보다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92.1%), 중학생(91.9%), 고등학생이 87.7%로 가장 낮게 나타나,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경우는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추이]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응답률이 각각 89.2%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90.7%로 전년도 대비 1.5%p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 비교에서는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최근 3년 중 2013년도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3】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표 II-167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2.7	2.7	2.1	7.9	8.0	7.2	41.1	39.1	39.2	48.1	50.1	51.5	0.2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2.8	2.8	2.1	8.1	8.2	6.7	42.2	38.9	38.7	46.6	50.0	52.5	0.2	0.2	0.1
	여	4,561	4,251	4,710	2.5	2.6	2.2	7.7	7.9	7.6	39.9	39.4	39.7	49.8	50.2	50.5	0.1	0.0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2.5	2.8	2.3	5.7	5.3	5.5	29.2	28.3	27.5	62.4	63.4	64.6	0.2	0.2	0.1
	중	2,844	2,986	3,260	2.3	2.4	1.8	7.0	6.7	6.1	41.4	41.4	40.6	49.0	49.4	51.3	0.2	0.1	0.2
	고	3,648	2,574	2,985	3.0	3.0	2.2	10.4	12.9	10.1	50.4	49.8	50.0	36.0	34.3	37.7	0.1	0.0	0.0

4)-②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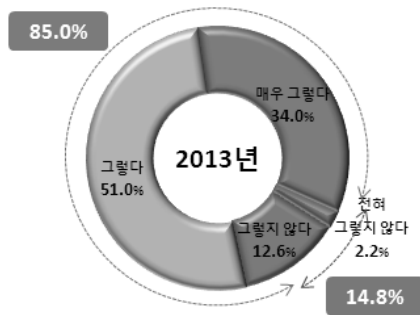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5.0%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5.0%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4.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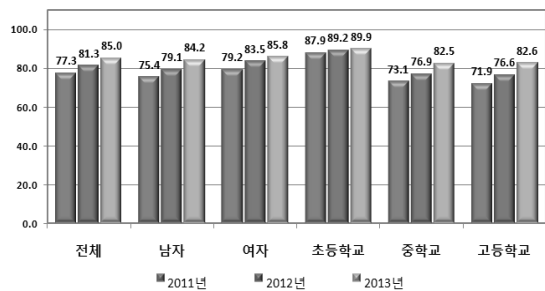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여학생(85.8%)이 남학생(84.2%)보다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89.9%)가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82.6%)와 중학생(82.5%)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도별 추이] 2013년은 85.0%로 2012년(81.3%)에 비해 3.7%p, 2011년(77.3%)에 비해 7.7%p 높게 나타나며 매년 응답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성별 및 교급별 비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최근 3년 중 2013년도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도 결과(전체 기준)



2011~2013년도 비교결과



【그림 II-155】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표 II-169 나는 학교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9	3.5	2.2	18.7	15.1	12.6	51.0	50.3	51.0	26.3	31.0	34.0	0.1	0.1	0.1	
성 별	남	4,874	4,494	4,692	4.7	4.3	2.5	19.8	16.3	13.2	48.7	47.5	48.5	26.7	31.6	35.7	0.1	0.2	0.1
	여	4,561	4,251	4,710	3.1	2.6	2.0	17.6	13.9	12.0	53.5	53.2	53.5	25.7	30.3	32.3	0.1	0.1	0.1
교 급	초	2,943	3,185	3,157	1.8	2.1	1.9	10.2	8.5	8.0	45.2	43.0	40.0	42.7	46.2	49.9	0.1	0.2	0.1
	중	2,844	2,986	3,260	5.2	4.5	2.5	21.7	18.6	14.8	50.7	51.8	53.9	22.4	25.1	28.6	0.0	0.0	0.2
	고	3,648	2,574	2,985	4.7	3.9	2.3	23.3	19.3	15.1	56.0	57.6	59.5	15.9	19.0	23.1	0.1	0.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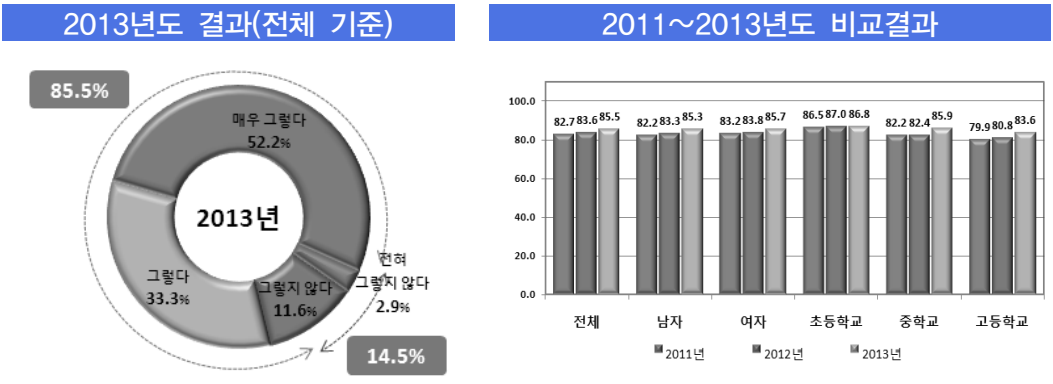
4)-③ 학교생활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5.5%가 ‘그렇다’고 응답**

○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의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5.5%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14.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학생(85.7%)이 남학생(85.3%)보다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86.8%)에서 고등학교(83.6%)으로 교급수준이 높아질수록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1년 82.7%, 2012년 83.6%, 2013년 85.5%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 비교에서도 전체 응답률 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급별 비교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87.0%) 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56】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표 II-170 나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전체		9,435	8,745	9,402	3.9	3.9	2.9	13.4	12.4	11.6	32.8	33.6	33.3	49.9	50.0	52.2	0.1	0.1	0.1
성별	남	4,874	4,494	4,692	4.5	4.4	3.1	13.3	12.1	11.5	32.1	32.1	31.9	50.1	51.2	53.4	0.0	0.2	0.0
	여	4,561	4,251	4,710	3.2	3.4	2.7	13.5	12.7	11.6	33.5	35.1	34.7	49.7	48.7	51.0	0.1	0.0	0.1
교급	초	2,943	3,185	3,157	2.5	2.8	2.7	11.0	10.0	10.4	29.4	28.9	28.1	57.1	58.1	58.7	0.0	0.2	0.1
	중	2,844	2,986	3,260	4.4	4.9	2.9	13.4	12.8	11.1	34.0	35.4	35.9	48.2	47.0	50.0	0.0	0.0	0.1
	고	3,648	2,574	2,985	4.6	4.3	3.1	15.3	15.0	13.3	34.5	37.3	36.0	45.4	43.5	47.6	0.1	0.0	0.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grounds to measure the aspect of changes and policies' performance in the mental health level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e of Korean children ·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the national level of children ·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to improve actual children ·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through the development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field application

The study method conducted with literature research, consultation meeting of experts, nationwide survey, an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expert interviews, opinion survey of field experts(Delphi), etc, and other study promotion method induce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experts workshop for the policy improve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policy plan was considered through policy meeting with government department promoting the policy.

The study contents was performed by dividing to three areas. First, 3rd year 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children · adolescent's mental health. Through this, objective data to identify the main problems and the degree of changing appeared in Korean children · adolescent's mental health were obtained. Second, prepared grounds to figure out the national level of children · adolescents' mental heal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children ·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asures to establish mental health promotion support system. At last, presented specifically children ·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and precau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field application which could promote mental health in the school site actually.

Based on this study, grounds to check the level of children · adolescent's mental health were prepared, it contributed positively to mental health promotion by improving concerns and accessibility on mental heal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field-focused program. In addition, the aspect of necessary policy for children ·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was suggested through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 of this study

Key words: actual stat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mental health indicators, field application program, mental health promotion support system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한영근·허효주·이영화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단분석 -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박정배 · 오해섭 (자체번호 13-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 · 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 · 김형주 · 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 · 강석영 · 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총괄보고서: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 김나연 · 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 · 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 · 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황진구 · 김지연 · 이해연 · 김광혁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포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리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연구보고 13-R1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인 쇄 2013년 12월 21일

발 행 2013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발행인 이재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844-1 94330

978-89-7816-843-4 (세트)